

定本 退溪全書

定本 退溪全書 ㉗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9-11-992429-3-7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27

退溪先生年譜
退溪先生年譜補遺

退溪學研究院 院長: 宋載邵
行政 支援: 李重煥, 金銀永

研究責任者: 李光虎
共同研究員: 金彥鍾, 文錫胤, 李俸珪, 李相夏
研究專擔人力: 姜志喜, 柳浩珍, 尹璿香, 尹相洙
研究補助員: 朴秀英

27책 校勘 및 標點: 姜志喜
校閱: 李相夏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退溪先生年譜

解題

목판본 《退溪先生年譜》는 4권 2책으로, 1600년 문집 초간본인 庚子本이 간행될 때, 西厓 柳成龍에 의해 편성되어 문집과 함께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追補되었다. 원래는 권1~2의 年譜와 권3의 附錄으로 구성되었으나 卷首에 世系圖, 권4에 附錄이 덧붙여졌고, 권4에 수록된 賜祭文도 계속하여 追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1~2의 연보에도 오류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頭註가 추가되었다.

1843년 간행된 癸卯校正本(문집총간 수록본)이 가장 나중에 간행된 판본으로 보이며, 현재 확인가능한 판본 중에 가장 善本으로 판단된다. 한편, 癸卯校正本에는 世系圖가 없는데, 가장 자세한 世系圖가 있는 것은 大東文化研究院에서 간행된 《退溪全書》에 수록된 年譜이다. 이 大東文化研究院本은 1732년 權斗經이 편찬한 이른바 花山本 《退陶先生言行通錄》이다. 이 외에 현전하는 판본들은 1600년 庚子本, 1620년에 간행된 擬庚子本, 1724년 간행된 甲辰重刊本 등이 간행될 때 함께 간행된 것들이다.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退溪先生年譜》는 文集 庚子本과 함께 간행된 이후로 문집이 重刊될 때마다 함께 간행되었다. 그 주요 판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木版本>

《退溪先生年譜》，庚子本，啓明大學校 圖書館 소장본 및 慶熙大學校 圖書館 소장본. 1600년.

《退溪先生年譜》，擬庚子本，陶山書院(國學振興院 委託) 및 慶熙大學校 圖書館 소장본. 1620년대 추정

《退溪先生年譜》，甲辰重刊本，養閑堂本 啓明大學校 圖書館 소장본. 1724년.

《退溪先生年譜》，花山本，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刊，《退溪全書》4(《退溪先生言行通錄》) 수록본. 1732년.

《退溪先生年譜》，癸卯校正本，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本. 1863년.

여기에서 基準本은 癸卯校正本으로 하고 庚子本, 擬庚子本, 甲辰重刊本, 花山本을 對校本으로 삼아 각주에 교감기를 작성한다. 庚子本은 庚本, 擬庚子本은 擬本, 甲辰重刊本은 甲本으로 약칭한다.

또한 鄭錫胎 篇,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1~4(退溪學研究院)은 퇴계 연보와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이다. 따라서 기존 연보 내용과 대조하여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각주에 밝힘으로써 독자가 관련 사실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 定本の 構成

1) 題目

基準本(癸卯校正本)의 제목을 표시한다. 異本の 表題가 基準本과 차이가 있는 경우 校勘記를 달아 이본의 표제 전체를 표시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本文

(1) 《退溪先生年譜》 해당 年月條의 本文을 기록한다. 본문은 紀事文과 그에 대한 大註와 小註로 구성된다. 大註는 한 단을 내려 기록하고, 小註는 ‘【 】’에 넣어 기록한다.

(2) 원래의 본문 전체를 수록한다.

(3) 附箋紙나 追記, 頭註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본문의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별도의 문자처리 관련 범례를 따른다.

(5) 避諱하여 ‘滉’을 ‘某’라 한 것 등은 퇴계 자신이 避諱한 것이 아니면 避諱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렸으며, 퇴계 자신이 避諱한 것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註釋을 통해 밝힌다. 임금 등을 높이기 위해 한 자를 띄운 것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6) 諸 版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注 번호를 달고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하여 脚註의 형태로 배치한다. 校勘記 작성 원칙은 아래를 참고.

(7)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위의 표

凡例

점 관련 범례를 참고.

(8) 연보 각 年度の 첫머리에는 ‘○’를 붙여 구분하기 쉽게 하고, 원래 본문 내부에 사용된 ‘○’는 ‘◎’로 바꾸어 표시한다.

(9) 구체적인 날짜 추정이 가능한 경우 해당 기사 앞에 ‘四’의 형식으로 날짜를 기입한다.

(10)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한 글자

3) 校勘記

基準本과 對校本들 사이의 異同 사항을 표시한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校勘記의 校勘 臺本들 가운데 다음 판본들은 () 속의 略號를 사용한다.

定本 退溪全書 四

庚子本 (庚本), 擬庚子本 (擬本), 甲辰重刊本 (甲本),
癸卯校正本 (癸本), 大東文化研究院本 (花山本)

(3)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 : ’을 찍은 후 庚子本, 擬庚子本, 甲辰重刊本의 순서, 즉 간행순서로 기록한다. 이는 이용자가 대조 자료 사이의 異同 및 變遷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基準本과 對校本의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略號 혹은 표제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를 해서 밝힌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는, 없으면 ‘……에는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5) 각 대교본의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하며, 그 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가], [두주]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추가’는 臺本 혹은 附箋紙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경우,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상란 등의 주석 기록의 경우에 사용한다.

(6) 對校本의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校勘記를 달 수 있다.

(7) 對校本의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8)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9) 자료 성격상 독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문의 干支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1703년(肅宗 29)’의 형식으로 연대표기를 교감주로 제시한다.

(10) 《月日條錄》과 대조하여 校勘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서 설명하고

凡例

그 앞에 ‘’라고 표시한다.

(11)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 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 밑줄(_),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하며, 각 저작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부호를 첨가할 수 있다.
-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凡例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매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로 표시한다.

(9) 밑줄()

凡例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退溪先生年譜 卷之一	1
------------------	---

○孝宗弘治十四年【燕山君七年】辛酉.	1
○十五年壬戌【先生二歲】	1
○十六年癸亥【先生三歲】	1
○十七年甲子【先生四歲】	2
○十八年乙丑【先生五歲】	2
○武宗正德元年【中宗大王元年】丙寅【先生六歲】	2
○二年丁卯【先生七歲】	2
○三年戊辰【先生八歲】	2
○四年己巳【先生九歲】	2
○五年庚午【先生十歲】	3
○六年辛未【先生十一歲】	3
○七年壬申【先生十二歲】	3
○八年癸酉【先生十三歲】	3
○九年甲戌【先生十四歲】	3
○十年乙亥【先生十五歲】	4
○十一年丙子【先生十六歲】	4
○十二年丁丑【先生十七歲】	4
○十三年戊寅【先生十八歲】	4
○十四年己卯【先生十九歲】	4
○十五年庚辰【先生二十歲】	4
○十六年辛巳【先生二十一歲】	5

○世宗嘉靖元年壬午【先生二十二歲】	5
○二年癸未【先生二十三歲】	5
○三年甲申【先生二十四歲】	5
○四年乙酉【先生二十五歲】	6
○五年丙戌【先生二十六歲】	6
○六年丁亥【先生二十七歲】	6
○七年戊子【先生二十八歲】	6
○八年己丑【先生二十九歲】	6
○九年庚寅【先生三十歲】	6
○十年辛卯【先生三十一歲】	7
○十一年壬辰【先生三十二歲】	7
○十二年癸巳【先生三十三歲】	7
○十三年甲午【先生三十四歲】	7
○十四年乙未【先生三十五歲】	8
○十五年丙申【先生三十六歲】	8
○十六年丁酉【先生三十七歲】	9
○十七年戊戌【先生三十八歲】	9
○十八年己亥【先生三十九歲】	9
○十九年庚子【先生四十歲】	10
○二十年辛丑【先生四十一歲】	10
○二十一年壬寅【先生四十二歲】	12
○二十二年癸卯【先生四十三歲】	13
○二十三年甲辰【先生四十四歲】	14
○二十四年【仁宗大王元年】 乙巳【先生四十五歲】	15
○二十五年【明宗大王元年】 丙午【先生四十六歲】	17
○二十六年丁未【先生四十七歲】	18
○二十七年戊申【先生四十八歲】	18
○二十八年己酉【先生四十九歲】	19

目錄

○二十九年庚戌【先生五十歲】	20
○三十年辛亥【先生五十一歲】	20
○三十一年壬子【先生五十二歲】	21
○三十二年癸丑【先生五十三歲】	22
○三十三年甲寅【先生五十四歲】	23
○三十四年乙卯【先生五十五歲】	25
○三十五年丙辰【先生五十六歲】	26
○三十六年丁巳【先生五十七歲】	27
○三十七年戊午【先生五十八歲】	27
○三十八年己未【先生五十九歲】	29
○三十九年庚申【先生六十歲】	30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33

○四十年辛酉【先生六十一歲】	33
○四十一年壬戌【先生六十二歲】	33
○四十二年癸亥【先生六十三歲】	34
○四十三年甲子【先生六十四歲】	34
○四十四年乙丑【先生六十五歲】	36
○四十五年丙寅【先生六十六歲】	37
○穆宗 隆慶元年丁卯【先生六十七歲】	39
○二年【今上元年】 戊辰【先生六十八歲】	41
○三年己巳【先生六十九歲】	53
○四年庚午【先生七十歲】	59
○五年辛未.	61
○六年壬申.	62
○萬曆元年癸酉.	62

○二年甲戌.	62
○三年乙亥.	62
○四年丙子.	63
○二十四年丙申.	63
退溪先生年譜 卷之三	65
附錄	65
言行總錄	65
墓碣銘【先生自銘. 高峯 奇大升叙其後.】	73
墓識 奇大升	77
教書	78
丁卯十一月十六日 教書	78
戊辰四月初二日 教書	81
祭文	83
遣承旨致祭文	83
二十四日遣禮官【佐郎趙仁後】致祭文.	85
祭退溪先生文 盧守愼	86
又祭文 奇大升	87
又祭文 具鳳齡	88
又祭文 趙穆	90
又【成均館生員申瀾·李純仁·李應虬，中學生李應進，東學生鄭純復，南學生閔宗彬等.】	91
陶山書院奉安文 趙穆	92
祝文	93
伊山書院奉安文 朴承任	93
廬江書院奉安文 柳成龍	95

目錄

埋誌告文	趙穆	95
文集告成文		96
刻天淵臺告文		97
退溪先生年譜 附錄 卷之四		101
宗廟配享時家廟致祭教文【光海二年庚戌】		101
文廟從祀時家廟致祭教文【光海二年庚戌】		102
陶山書院致祭文		103
家廟致祭文	御製	107
書院致祭文	御製	107
同月初三日 傳教		108
題先正退溪簡帖後 正廟御製		109
家廟致祭文		110
書院致祭文		111
家廟致祭文		113

退溪先生年譜 卷之一

○孝宗¹⁾弘治十四年【燕山君七年】辛酉.²⁾

十一月二十五日己亥【辰時】，先生生于禮安縣 溫溪里第.【先生先祖居眞寶縣，五代祖松安君，避倭寇移居安東府 豐山縣 南磨崖里，後又遷于周村。至祖判書公，愛禮安縣北溫溪泉石之勝，始卜居焉.】

○十五年壬戌【先生二歲】³⁾

六月，贊成公卒.【按先生撰先妣貞敬夫人 朴氏墓碣云：“先君病歿時，伯兄僅授室，自餘幼稚滿前，夫人痛念多男而早寡，將不克持門戶，益修稼穡蠶桑之務，不失舊業。及諸子漸長，則拔貧資給，令就學於遠邇。每加訓戒，蓋不惟文藝是事，尤以持身謹行爲重，未嘗不丁寧警切曰：‘世常訾寡婦之子不教，汝輩非百倍其功，何以免此譏乎？’”觀此則先生雖蚤⁴⁾孤，而其得成就於大夫人者爲多.】

○十六年癸亥【先生三歲】⁵⁾

1) 孝宗：花山本에는 없고 頭註로 되어 있다.

2) 1501년(燕山君 7)

3) 1502년(燕山君 8)

4) 蚤：花山本 ‘早’

5) 1503년(燕山君 9)

○十七年甲子【先生四歲】 6)

○十八年乙丑【先生五歲】 7)

○武宗⁸⁾正德元年【中宗大王元年】丙寅【先生六歲】 9)

始知讀書.【鄰有老夫，頗解《千字文》，先生就學，朝必洗櫛至籬外，默誦前授數遍而後入，俯伏聽受如嚴師焉.】

○二年丁卯【先生七歲】 10)

○三年戊辰【先生八歲】 11)

【◎仲兄刃傷手，先生抱泣，母夫人曰：“汝兄則傷手不泣，汝何泣耶？”對曰：“兄雖不泣，豈有血流如彼而手不痛乎？”◎先生溫恭遜悌，對尊丈¹²⁾，不敢有惰容，雖中夜熟寐，長者有呼，卽覺，應唯甚謹，自六七歲已然.】

○四年己巳【先生九歲】 13)

6) 1504년(燕山君 10)

7) 1505년(燕山君 11)

8) 武宗：花山本에는 없다.

9) 1506년(中宗 元年)

10) 1507년(中宗 2)

11) 1508년(中宗 3)

12) 丈：花山本 ‘長’

○五年庚午【先生十歲】 14)

○六年辛未【先生十一歲】 15)

○七年壬申【先生十二歲】 16)

受《論語》于叔父松齋公 堦.【至“弟子入則孝，出則弟”，惕然自警曰：“人子之道，當如是矣.”一日，將理字問松齋曰：“凡事之是者，是理乎？”松齋喜曰：“汝已解文義矣.”松齋性簡嚴，於子弟，少有許可.先生與兄太憲公 濬同受業，松齋每稱之曰：“亡兄有此兩兒，爲不亡矣.”又謂先生曰：“持門戶者，必此兒也.”】

○八年癸酉【先生十三歲】 17)

○九年甲戌【先生十四歲】 18)

好讀書，雖稠人廣坐，必向壁潛玩.【愛淵明詩，慕其爲人.】

13) 1509년(中宗 4)

14) 1510년(中宗 5)

15) 1511년(中宗 6)

16) 1512년(中宗 7)

17) 1513년(中宗 8)

18) 1514년(中宗 9)

○十年乙亥【先生十五歲】 19)

○十一年丙子【先生十六歲】 20)

○十二年丁丑【先生十七歲】 21)

○十三年戊寅【先生十八歲】 22)

【◎有〈遊春詠野塘〉一絕云：“露草夭夭繞水涯，小塘清活淨無沙。雲飛鳥過元相管，只怕時時燕蹴波。”】

○十四年己卯【先生十九歲】 23)

【◎有〈詠懷〉詩，“獨愛林廬萬卷書，一般心事十年餘。邇來似與源頭會，都把吾心看太虛。”】

○十五年庚辰【先生二十歲】 24)

讀《周易》，講究其義，殆忘寢食。【自是，常有羸悴之疾。◎後先生與趙士敬書云：“僕早年妄嘗有意，而昧其方，徒以刻苦過甚，得

19) 1515년(中宗 10)

20) 1516년(中宗 11)

21) 1517년(中宗 12)

22) 1518년(中宗 13)

23) 1519년(中宗 14)

24) 1520년(中宗 15)

羸悴之疾.”】

○十六年辛巳【先生二十一歲】 25)

聘夫人許氏.【進士贊之女.】 26)

○世宗²⁷⁾嘉靖元年壬午【先生二十二歲】 28)

○二年癸未【先生二十三歲】 29)

十月, ㉘ 子竄生. ◎是歲, 先生始遊大³⁰⁾學.³¹⁾【時經己卯之禍, 士習浮薄, 見先生舉止有法, 人多笑之. 所與相從者, 惟金河西麟厚一人而已. 先生未幾還鄉, 河西以詩贈別, 有云: “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

○三年甲申【先生二十四歲】 32)

25) 1521년(中宗 16)

26) ㉘ 1521년 봄.

27) 世宗 : 花山本에는 없다.

28) 1522년(中宗 17)

29) 1523년(中宗 18)

30) 大 : 花山本 ‘太’

31) 是歲先生始遊大學 : [두주 謹按先生手筆錄金河西贈詩後小序曰: ‘癸巳秋, 西入泮宮云云.’ 此條當在癸巳遊泮條下.]가 있고, 甲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32) 1524년(中宗 19)

○四年乙酉【先生二十五歲】 33)

○五年丙戌【先生二十六歲】 34)

○六年丁亥【先生二十七歲】 35)

秋，赴慶尙道鄉解，進士試居首，生員第二³⁶⁾。◎十月，子案生。◎十一月，罔 夫人許氏卒。

○七年戊子【先生二十八歲】 37)

春，罔 中進士會試二等。

○八年己丑【先生二十九歲】 38)

○九年庚寅【先生三十歲】 39)

聘夫人權氏。【奉事碩之女。】

33) 1525년(中宗 20)

34) 1526년(中宗 21)

35) 1527년(中宗 22)

36) 二：擬本 ‘一’

37) 1528년(中宗 23)

38) 1529년(中宗 24)

39) 1530년(中宗 25)

○十年辛卯【先生三十一歲】 40)

六月，側室子寂生。

○十一年壬辰【先生三十二歲】 41)

【◎²⁶~²⁸ 先生自中司馬試，無意舉業。兄大憲公白母夫人勸之赴舉。是年，文科別舉初試居第二。自京還鄉，宿路邊村舍。夜中遇盜，同行驚惶失措，而先生凝然不動。】

○十二年癸巳【先生三十三歲】 42)

²⁹ 遊泮宮。【流輩多敬服。】 秋下鄉，道經驪州，見慕齋金先生。【⁶²²⁹ 是行，隨權忠定公 機同行。慕齋名安國，時罷官居驪州梨湖村。先生晚年，自言見慕齋，始聞正人君子之論。】 ⁷⁹ 赴慶尙道鄉舉，居第一。

○十三年甲午【先生三十四歲】 43)

三月，⁹⁹ 及第出身。四月，⁸⁹ 選補承文院權知副正字，¹⁰⁹ 薦授藝文館檢閱兼春秋館記事官，²⁹ 卽遞還爲承

40) 1531년(中宗 26)

41) 1532년(中宗 27)

42) 1533년(中宗 28)

43) 1534년(中宗 29)

文院副正字.【先是⁴⁴⁾，先生外舅權碩，乃正言權碩兄。碩以己卯士類，與安處謙之獄，被罪死，碩亦坐廢。至是，諫官承權臣風旨，以爲某碩女婿，不可爲史官，其薦之者亦非，啓請推藝文館官，而遞先生史職。於是，論說紛然，一館皆坐罷，而先生遂遞。金安老有田庄在榮川郡，乃夫人許氏鄉也。安老以同鄉之故，願見先生，先生不往見，由是銜之，噤臺諫論之云.】六月，陞正字。

◎七月，乞假下鄉省親。

◎十月，陞著作還朝.【⁴⁵⁾ 廷試〈文臣耆英會圖〉排律十韻，先生居首.】十二月，陞務功郎博士。

○十四年乙未【先生三十五歲】⁴⁵⁾

六月，差護送官，送倭奴于東萊.【過驪州，與牧使李純遊神勒寺，有詩云：“問數可能探理窟，談仙直欲謝時流.”先生自註云：“公註《皇極內篇》，積功二十餘年而始就。是日，論《內篇》及《參同契》修煉之法.”◎是行，取道鄉邑，省大夫人而去.】

○十五年丙申【先生三十六歲】⁴⁶⁾

三月，授宣務郎。

◎六月，陞成均館典籍，兼中學教授。

44) 是：甲本‘時’

45) 1535년(中宗 30)

46) 1536년(中宗 31)

◎七月，乞假省親.

◎九月，拜戶曹佐郎.

○十六年丁酉【先生三十七歲】 47)

四月，授宣教郎.

◎五月，授承訓郎.

◎九月，授承議郎.

◎十月，^[59] 丁母夫人朴氏憂.【先生自陞六品，欲乞外便養，而爲當路所沮.至是，自京奔喪.服中柴毀成疾，幾至不救.】 十二月甲子，^[99] 葬朴夫人于溫溪 樹谷之原.

○十七年戊戌【先生三十八歲】 48)

○十八年己亥【先生三十九歲】 49)

十二月，服闋. ◎^[49] 拜弘文館副修撰，是日，陞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時金安老已敗，故先生選入玉堂.兄大憲公方以舍人兼春秋，先生避嫌，不帶記事官.】

47) 1537년(中宗 32)

48) 1538년(中宗 33)

49) 1539년(中宗 34)

○十九年庚子【先生四十歲】50)

正月, ㉔ 拜司諫院正言, ㉕ 被召 ㉖ 還朝.

◎二月, 授奉訓郎, 陞奉直郎.

◎三月, 兼承文院校檢.

◎四月, ㉗ 知製教.【自是通政以下除拜, 內職例帶.】 ㉘ 拜司憲府持平.【入對經筵啓曰: “近日旱氣太甚, 如避殿·減膳·撤樂等事, 雖皆文具, 而行之當以至誠也. 若因旱數赦則甚不可. 古人云: ‘數赦則衆善受害, 奸人致喜.’ 近者, 奸細之徒, 意謂旱極必赦. 作罪者希望, 故犯者無忌, 其弊不少⁵¹⁾矣.” 上嘉納.】 移拜刑曹正郎.⁵²⁾ 既而因事罷.⁵³⁾

◎九月, 叙用, 復拜刑曹正郎兼承文院校理, 除弘文館副校理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十月, ㉙ 陞校理.

◎十一月, ㉚ 授通善郎.

○二十年辛丑【先生四十一歲】54)

50) 1540년(中宗 35)

51) 少: 庚本·擬本·花山本 ‘小’

52) ㉗ 1540년 6월. 《退溪先生年譜補遺》의 기록에 의거, 퇴계가 刑曹正郎으로 전보된 것은 6월의 일이 분명하므로, 《退溪先生年譜》에서 이를 4월의 일로 본 것은 오류이다.

53) ㉘ 1540년 6월 20일. 《中宗大王實錄》의 기록에 의거, 弘文館에서 筭論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파직된 일자도 6월 20일임이 드러나므로, 《退溪先生年譜》에서 이 사실을 刑曹正郎으로 전보된 얼마 뒤, 곧 4월의 일로 본 것은 오류이다.

三月，⁵⁴⁾ 入對經筵啓事。【時牛疫甚。先生啓曰：“《五行志》云：‘土生萬物。土氣不養，則稼穡不成，於是，有牛禍。’前冬，有地震之變，而今癘疫・牛疫，一時而作。古人之言，信不誣矣。且春方憂旱，土脈不潤，凶荒之兆已見，農事亦可占矣。災異疊出，莫甚今日，願上更加修省。”⁵⁵⁾ 後入侍夕講，又啓曰：“漢明帝時天旱，鍾離意⁵⁶⁾上疏諫，明帝卽罷營繕，曉諭所失於百官，應時大雨。近有災變，而上憂勤惕慮，罪己之辭，亦甚懇切，而天適雨焉。以此見之，天人之應，其理不爽。大抵內實盡誠，則其應至矣。《易》曰：‘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中庸》云：‘致中和，天地位萬物育。’凡舉措之事，務合人心。人心和則災異可去矣。”】 賜暇讀書。【堂在東湖，乃國家儲養人才之地，極選文學之士以充之，輪番讀書，與其選者，榮比登瀛焉。然被選之人，多遊放自逸。先生每番必往，往必以讀書爲事。於南樓左偏起小堂，名以‘文會’。有逐年書堂唱酬諸作。】

四月，⁵⁷⁾ 拜司憲府持平。

◎五月，⁵⁸⁾ 拜弘文館修撰。◎以咨文點馬赴義州。⁵⁶⁾

【有〈義州雜詠〉十二絕。】⁵⁹⁾ 陞副校理⁵⁷⁾，承催旨還朝。⁵⁸⁾

◎十月，兼世子侍講院文學。

◎十一月，⁶⁰⁾ 拜司憲府持平。

◎十二月，以病辭，⁶¹⁾ 除成均館典籍，⁶²⁾ 又拜刑曹正

54) 1541년(中宗 36)

55) 鍾離意：甲本 ‘鐘離意’

56) ⁵⁴⁾ 1541년 5월 초순으로 추정됨

57) ⁵⁴⁾ 弘文館 副校理에 임명된 것은 義州에 있을 때의 일로 추정된다.

58) 還朝：[두주 還朝下, 脫九月差京畿道災傷御史一條.]가 있다.

郎.

○二十一年壬寅【先生四十二歲】⁵⁹⁾

二月, ㉔ 拜弘文館副校理, 兼如故.

【三月, ㉕ 入侍經席, 臨文啓曰: “一代之興, 必有一代之規模. 東漢 光武, 不尚外戚, 而及其亡也, 專由於外戚之手. 勦業之君, 親立規模, 而子孫不能守之, 以誤國事. 章帝亦賢君, 而其時始有外戚專擅之漸. 凡讀史, 須看治亂之所由, 然後有益矣.” ◎先生趣尚高潔, 常有急流勇退之志, 雖處榮宦⁶⁰⁾, 非其所樂也. 是年春, 在玉堂直廬, 有憶梅詩云: “一樹庭梅雪滿枝, 風塵湖海夢差池. 玉堂坐對春宵月, 鴻鴈聲中有所思.”⁶¹⁾ 其雅意所在, 可見.】 拜議政府檢詳⁶²⁾, 仍差御史, 下忠清道, 檢察郡邑救荒能否.⁶³⁾

四月, ㉖ 復命. 【上引見, 問救荒形止. 先生啓曰: “古云: ‘國無三年之蓄, 國非其國.’ 今一歲凶歉, 而公私窘匱如此. 今年若又失農, 則救荒之事, 不能成形矣. 常時經費, 撙節蓄儲, 然後雖有不虞之災, 而無窘急之患也.” 又啓: “公州判官印貴孫悖戾貪污, 不謹荒政, 請治其罪.”

59) 1542년(中宗 37)

60) 宦: 庚本·擬本·甲本·花山本 ‘官’

61) ㉕ 이 시는 3월 18일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62) ㉔ 1542년 3월 27일. 《中宗大王實錄》에 의하면, 퇴계가 議政府 檢詳에 임명된 것은 3월 27일의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63) ㉔ 1542년 3월 19일. 《中宗大王實錄》에 의하면, 퇴계가 忠清道 救荒摘奸御史로 차출되어 서울을 떠난 일자는 3월 19일임이 분명하다. 《퇴계선생연보》에서는 이 점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議政府 檢詳에 임명된 것과 忠清道 救荒摘奸御史로 차출된 것을 모두 조정에 있을 때의 일로 이어서 기록하는 바램에 그 선후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上從之.】 189 送晦齋李先生于南郊.【時,晦齋歸觀慶州.】

五月, 219 授通德郎, 陞舍人兼承文院校勘·侍講院文學. ◎八月, 送壘巖李公【賢輔】還鄉.64)【有送別詩.】 219 差災傷御史, 往江原道.【219 有過清平山詩序.】 十二月, 219 拜司憲府掌令.

○二十二年癸卯【先生四十三歲】65)

二月, 病辭, 拜宗親府典籤, 又拜掌令, 遷典設司守.66)

◎六月, 授朝奉大夫.

◎七月, 189 拜成均館司藝兼承文院校勘·侍講院弼善.

◎八月, 授朝散大夫, 陞司諫院司諫, 病未拜, 除司僕寺僉正.67)【有送金厚之修撰乞假歸觀詩云:“我昔與子遊泮宮, 一言道合欣相得. 君知處世如虛舟, 我信散材同枵櫟. 富貴於我等浮雲, 偶然

64) 1542년 7월 16일, 李賢輔가 壬寅년에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壘巖先生年譜》에서는 7월로, 《退溪先生年譜》에서는 8월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나 《中宗大王實錄》의 기록을 참고할 때, 《농암선생연보》의 기록이 맞는 것 같다.

65) 1543년(中宗 38)

66) 宗親府 典籤에 임명된 일자는 2월 4일, 司憲府 掌令에 임명된 것은 2월 19일, 典設司 守에 임명된 것은 2월 28일의 일인데, 《退溪先生年譜》에서는 이 모두를 한데 묶어서 기록해 놓았다.

67) 朝散大夫·成均館 司藝·知製教 兼 承文院 校勘·世子侍講院 弼善에 임명된 것은 8월 5일, 司諫院 司諫으로 승진된 것은 8월 10일, 司僕寺 僉正에 임명된 것은 8월 11일이다. 《退溪先生年譜》에서는 8월의 관직 임명 사실 몇 가지를 묶어서 기록해 놓았다.

得之非吾求。秋風蕭蕭吹漢水，海山千里君先去。”】

十月，¹¹⁹ 拜成均館司成。◎乞假還鄉省墓。

◎十一月，¹²⁰ 除禮賓寺副正，不赴。【按先生後與曹南冥書云：“滉自少徒有慕古之心，緣家貧親老，親舊強使之由科第取利祿。滉當時實無見識，輒爲所動。偶名薦書，汨沒塵埃，日有不暇，他尙何說哉。其後病益深，又自度無所猷爲於世，始乃回頭住腳，益取古聖賢書而讀之。於是，惕然覺悟，欲迫而改塗易轍，以收桑榆之景。乞身避位，抱負墳典，而來投於故山之中，將以益求其所未至。庶幾賴天之靈，萬有一得於銖累寸積之餘，不至虛過此一生。此滉十年以來之志願，而聖恩含垢，虛名迫人。自癸卯至壬子，凡三退歸而三召還。以老病之精力，加不專之工程。如是而欲望其有成，不亦難乎？”又鄭惟一撰言行錄云：“先生本少宦情，又見時事有大機關，自癸卯，始決退休之志，自是以後，雖屢被召還，常不久於朝云。”】

十二月，¹²¹ 授奉列大夫。

○二十三年甲辰【先生四十四歲】 68)

二月，¹²² 以弘文館校理召還。【有讀書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詩。】

四月，¹²³ 除世子侍講院左弼善，以病不拜。¹²⁴ 除司憲府掌令。⁶⁹⁾

68) 1544년(中宗 39)

69) ¹²⁴ 世子侍講院 左弼善에 임명된 것은 4월 3일의 일이고, 司憲府 掌令에 임명된 것은 4월 22일의 일이다. 《退溪先生年譜》에서는 4월의 仕宦 사실인 이 두 가지

◎六月，病辭。㉒ 移拜成均館直講，又拜弘文館校理，病遞，㉓ 除宗親府典籤。⁷⁰⁾【有奉贈宋圭菴麟壽赴京詩.】

八月，㉔ 拜弘文館應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承文院校勘.

◎九月，㉕ 乞假還鄉.

◎十月，㉖ 還朝.

◎十一月，㉗ 中宗昇遐.【㉘ 朝廷遣使天朝，告訃·請諡，兩表皆先生所製并書. 及到中朝，禮部官嘆賞曰：“表辭甚好，書法亦妙.” 使臣還啓其事，命賜馬.】

○二十四年【仁宗大王元年】 乙巳【先生四十五歲】⁷¹⁾

正月，差遠接使從事官，病不行.⁷²⁾【有送林士遂赴義州詩.】

三月，㉙ 病免. 除內贍寺僉正.

◎四月，㉚ 授奉正大夫，移拜軍資監僉正.

를 일자를 밝히지 않은 채 이어서 기록해 놓았다.

70) ㉒ 《退溪先生年譜》에서는 6월의 사환 사실 몇 가지를 한데 묶어서 기록해 놓았다. 成均館 直講으로 전임된 것은 6월 6일의 일이고, 宗親府 典籤에 임명된 것은 6월 28일의 일이다. 弘文館 校理에 임명되었다가 병으로 체직된 것은 6월 6일 후부터 6월 28일 전까지 사이의 일로 추정된다.

71) 1545년(仁宗 1)

72) ㉘ 《退溪先生年譜》에는 1월에 遠接使 從事官으로 임명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2월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일자는 대략 遠接使로 임명된 申光漢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던 2월 22일 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병으로 遠接使 從事官에서 체직된 것은 2월이 아니라 3월로 보인다.

◎五月，授中訓大夫。

◎六月，¹⁵⁹ 拜弘文館應教，¹⁶⁹ 陞典翰，兼如故。

◎七月，¹⁷⁹ 仁宗昇遐。明廟卽位，¹⁷⁹ 上疏請許倭人乞和。【先是庚午歲，三浦倭奴作亂殺邊將，朝廷遣柳聘年·黃衡等討平之，遂絕倭，不許納款。至是，倭人屢乞和，朝廷因前事更卻之。時國有大喪，人心危懼，先生憂其啓釁構禍，上疏論之。其略曰：“往者烏夷蛇梁之變，不過狗鼠之偷耳。旣殺賊徒而卻之，又掃留館而逐之，國威旣震，王法亦正。彼乃怛威赧德，革心改過，俛首而祈哀，搖尾而乞憐。王道蕩蕩，不逆詐，不億不信，苟以是心至，斯受之而已。方今天變見於上，人事闕於下，大禍重疊，國運艱否？此東方何等時也。且國家已與北虜構釁，設使南北二虜，一時俱發，則將何所恃而能辦此乎？聞朝廷絕倭之請，心竊怪嘆，以爲此事關百年社稷之憂，係億萬生靈之命，願以臣此章，稟于慈殿，而博謀在廷之臣，折衷而審處之。”】 八月，¹⁸⁹ 授中直大夫，病辭館職。¹⁶⁹ 除通禮院相禮。⁷³⁾

◎九月，¹⁶⁹ 除司饗院正，¹⁶⁹ 又拜弘文館典翰，兼如故。⁷⁴⁾

◎十月，¹⁰⁹ 李芑啓請削職。【時權奸用事，士禍大起，誅竄相繼，

73) ¹⁶⁹ 《退溪先生年譜》에서는 8월의 관직 임명 사실 몇 가지를 한데 묶어서 기록해 놓았다. 그 중 中直大夫에 임명된 것은 8월 2일의 일이고, 通禮院 相禮에 임명된 것은 8월 16일의 일이다. 따라서 그 사이에 병으로 사직원을 낸 것은 8월 2일 이후 8월 16일 이전의 일로 추정된다.

74) ¹⁶⁹ 《退溪先生年譜》에서는 9월의 관직 임명 사실 몇 가지를 한데 묶어서 기록해 놓았다. 그 중 司饗院 正에 임명된 것은 9월 6일의 일이고, 弘文館 典翰 등에 임명된 것은 9월 16일의 일이다. 검직은 전과 같다고 한 것은 앞서 8월에 弘文館 典翰이었을 때 兼帶하였던 經筵 侍講官·春秋館 編修官을 말한다.

退溪先生年譜 卷之一

人皆重足以立。右相李芑尤凶險，知士論不與，欲盡去異己，以拊制衆口。詣闕獨啓：“近日定罪，各適其當，但朝士坐罷者，有所未盡。李天啓·李滉·權勿·李湛·丁煥，請並罷。”於是，先生與丁公煥等數人，同日削職，朝野駭憤。◎十二日，¹⁷² 仁廟梓宮，發引山陵，先生不得入班次，獨往郊外，望哭行禮。】¹⁷³ 命還職牒。【芑姪校理李元祿素重先生，力諫芑。林百齡，芑之黨也。亦言於芑曰：“李某謹慎自守，人所共知，今若罪此人，人必以爲前日被罪者皆誣枉。”由是，芑又詣闕，謝前啓不審，請還給牒，故有是命。】¹⁷⁴ 叙用，拜司僕寺正，兼承文院參校。

◎十一月，¹⁷⁵ 授通訓大夫，差迎接都監郎廳。⁷⁵⁾

○二十五年【明宗大王元年】 丙午【先生四十六歲】⁷⁶⁾

二月，乞假⁷⁷⁾還鄉，葬外舅權公 碩。⁷⁸⁾

◎五月，病未還朝，解職。

◎七月，¹⁷⁶ 夫人權氏卒。

◎八月，¹⁷⁷ 除校書館校理兼承文院校理。

75) ¹⁷⁵ 《退溪先生年譜》에서는 11월의 관직 임명 사실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기록해 놓았다. 그 중 通訓大夫에 임명된 것은 11월 10일의 일이고, 迎接都監 郎廳에 임명된 것은 그 뒤의 일로 추정된다.

76) 1546년(明宗 1)

77) 假：甲本 ‘暇’

78) ¹⁷⁸ 퇴계의 장인 權碩은 乙巳年(1545) 12월 2일에 별세하여 그 이듬해인 丙午年 1월 22일에 장사지냈다. 2월에 휴가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 장인 權碩의 장사를 지냈다고 한 《退溪先生年譜》의 기록은 오류이다. 退溪는 1월에 장인 權碩의 장사를 지내는 것을 사유로 휴가를 받았지만, 병 때문에 그 기한을 넘기게 되어 3월에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十一月, ㉔ 除禮賓寺正, 皆不赴.

◎築養眞菴于退溪之東巖. 【先是, 構小舍於溫溪之南芝山之北, 以人居稠密, 頗未幽寂. 是年, 始假寓于退溪之下數三里, 於東巖之旁作小菴, 名曰: ‘養眞’. 溪俗名‘兔溪’, 先生以‘退’改‘兔’, 因自號焉.】 79)

○二十六年丁未【先生四十七歲】 80)

七月, ㉔ 除安東府使, 不赴.

◎八月, ㉔ 拜弘文館應教, 兼如故. 被召還朝. 【有〈古意〉・〈雪竹歌〉・〈病中讀史有感〉等詩.】

十二月, ㉔ 病辭. 除儀賓府經歷. 【時國論愈乖, 兩司・弘文館交章, 請罪鳳城君. 先生知力不能止, 以病免.】

○二十七年戊申【先生四十八歲】 81)

正月, 求外補, 拜丹陽郡守. 【先生乞外有深意, 求青松不得, 授丹陽. 有詩云: “青松白鶴雖無分, 碧水丹山信有緣.”

◎先生治郡, 誠信懇惻, 政事清簡, 吏民皆便之. 郡地多奇勝, 如龜潭・島潭等處尤佳. 先生於簿領之暇, 遊陟吟賞, 蕭然有出塵之趣. 有續丹陽

79) ㉔ 퇴계가 ‘退溪’라는 호를 사용한 것은 甲辰年(1544, 44세) 3월 23일 이전이다. 《연보》의 소주에서 “溪俗名‘兔溪’, 先生以‘退’改‘兔’, 因自號焉.”이라 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시내 이름 ‘兔溪’를 이미 써 오던 자신의 호 ‘退溪’로 고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80) 1547년(明宗 2)

81) 1548년(明宗 3)

山水可遊者記及〈二樂樓〉·〈花灘〉等詩.】

二月, ㉓ 聞子案喪.

◎八月, ㉔ 行釋奠于鄉校.

◎九月, ㉕ 受假還鄉省墓.

◎十月, ㉖ 換授豐基郡. 【兄大憲公爲忠清監司, 丹在部下故換.】

○二十八年己酉【先生四十九歲】⁸²⁾

二月, ㉗ 行釋奠于鄉校. ◎㉘ 寒食, 省先塋.

◎四月, ㉙~㉚ 遊小白山. 【有遊山錄及石崙寺次李白〈紫極宮有感〉諸詩.】

九月, ㉛ 以病呈辭狀于監司.

◎十二月, 上監司書, 請白雲洞書院扁額·書籍, 啓聞頒降. 【白雲洞在郡北小白山下竹溪之上, 乃前朝安文成公裕故居也. 周世鵬爲郡守, 始勑書院于其處, 祀文成, 且爲諸生遊學之所. 先生以爲東方舊無書院, 今始勑見, 然教不由於上, 則恐遂廢墜. 上書監司, 請轉聞于上, 依宋朝故事, 頒降書籍, 宣賜扁額, 兼給土田·臧獲, 使學者有所依歸. 監司沈通源以聞于朝, 於是, 賜號曰: ‘紹修書院’, 令大提學申光漢作記, 頒降四書·五經·《性理大全》等書. 書院之興, 始此.】⁸³⁾

82) 1549년(明宗 4)

83) ㉘ 白雲洞書院에 ‘紹修書院’이라는 편액과 四書·五經·《性理大全》 등의 서적을 내려준 것은 庚戌年(1550, 50세)의 일이다.

以病三辭于監司，請解官．不待報而歸．【行橐蕭然，惟書籍數篋而已．】 84)

○二十九年庚戌【先生五十歲】 85)

正月，以擅棄任所，奪告身二等．

◎二月，始卜居于退溪之西．【先是，得地霞明洞 紫霞峯下，營室未畢，又遷于竹洞．又以洞狹隘，且無溪流，乃卜於溪上．蓋三遷而定居焉．】 構寒棲菴．【堂名‘靜習’，讀書其中．有詩曰：“身退安愚分，學退憂暮境．溪上始定居，臨流日有省．”86) 自是，從遊之士日衆．】 拜龔巖 李公于汾川．【有和東坡月夜飲杏花下詩．】 87) 四月，鑿光影塘．【在寒棲菴前，取“天光雲影共徘徊”之義名．】 八月，聞兄左尹公 漉訃．【左尹公曾在憲府，論李芑不合爲相，至是，爲芑所構陷，杖流歿88)於道．】 89)

○三十年辛亥【先生五十一歲】 90)

84) ㉔ 辭狀은 1549년 12월 21일 이후 며칠이 지난 뒤 제출한 것이다.

85) 1550년(明宗 5)

86) ㉔ 이 시는 庚戌年(1550, 50세) 3~5월에 지은 〈退溪〉이다.

87) ㉔ 退溪가 李賢輔의 초대를 받고 汾川의 龔巖에 간 것은 3월 17일의 일이다.

88) 歿: 庚本·擬本·甲本·花山本 ‘沒’

89) ㉔ 退溪의 넷째 형 漉가 서거한 것은 8월 14일의 일이며, 禮安의 退溪가 그 부음을 들은 것은 8월 하순의 일로 추정된다. 《溫溪先生年譜》의 기록을 보면 漉의 서거하기 전의 實職이 漢城府 右尹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退溪先生年譜》에서 ‘左尹’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是年，先生不仕家居.⁹¹⁾【○₁₅₅₁₂₄ 有次諸人唱酬韻十四首】

三月，○₁₅₅₁₇ 往省安東 馬鳴洞先祖塋.

○三十一年壬子【先生五十二歲】⁹²⁾

【○₁₅₅₁₂₄ 有立春二絕，其一云：“黃卷中間對聖賢，虛明一室坐超然。梅窗又見春消息，莫向瑤琴嘆絕絃。”】 ○₁₅₅₁₂₉ 訪壘巖于臨江寺.【有詩.】

四月，○₁₅₅₁₃₀ 拜弘文館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承文院校理. 被召還朝.

◎五月初八日，○₁₅₅₁₃₁ 入侍進講.【臨文啓曰：“積善之家，必有餘慶，積不善之家，必有餘殃. 凡人爲惡之時，自以爲此事何害，而其惡漸積，則終至於大禍. 古人云：‘從善如登，從惡如崩.’ 上自帝王，下至庶民，皆當服膺乎精一執中之訓，一以守之而無雜於私，則邪念自爾不萌，而其所主者，一於公·一於正而已. 公私義利之辨，願上省念焉.”】 ○₁₅₅₁₃₂ 拜司憲府執義. ○₁₅₅₁₃₃ 辭不允.

◎六月，○₁₅₅₁₃₄ 與同僚上劄論事. ○₁₅₅₁₃₅ 以病辭. ○₁₅₅₁₃₆ 拜弘文館副應教.

◎七月，○₁₅₅₁₃₇ 陞通政大夫·成均館大司成.【時，大司成有闕，

90) 1551년(明宗 6)

91) 是年先生不仕家居：花山本에는 [소주 考詩集自註, 當有‘春, 移居溪北, 並撤移寒棲庵’十一字.]가 있다.

92) 1552년(明宗 7)

吏曹以大臣意啓請擇堂下官能文有才行者擬望. 於是, 先生首擬, 超陞.

◎跋周慎齋【世鵬】《遊清涼山錄》.93)】

十一月, ㉒ 病辭. 拜上護軍.

○三十二年癸丑【先生五十三歲】 94)

四月, ㉒ 拜大司成. 【上以學校廢弛, 下勸學節目, 令申明舉行.

先生辭謝, 乞更擇任師長, 不許.】 ㉒ 通文四學, 諭諸生. 【其略

曰: “學校, 風化之源, 首善之地, 士子, 禮義之宗, 元氣之寓也. 國家設學以養士, 其意⁹⁵⁾甚隆. 師生之間, 尤當以禮義相先. 師嚴生敬, 各盡其道. 自今諸生, 凡日用飲食, 無不周旋於禮義之中, 惟務更相飭勵, 灑濯舊習, 推入事父兄之心, 爲出事長上之禮. 內主忠信, 外行遜悌, 以副國家右文興化設學養士之意.”】

六月, ㉒ 賜學田, 率諸生上箋謝.

◎七月, ㉒ 製進大王大妃還政教書. ◎㉒ 以病辭. 拜副護軍.

◎八月, 差親試對讀官.⁹⁶⁾

◎九月丙辰, ㉒ 景福宮災, 製進慰安宗廟祭文. ◎㉒

93) ㉒ 《退溪先生年譜》에서는 周世鵬의 《清涼山錄》을 읽고 그 발문을 지은 것을 7월의 사실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는 〈周景遊清涼山錄跋〉의 말미에 ‘壬子重陽前一日’이라고 한 기록에 의거할 때 오류임이 분명하다.

94) 1553년(明宗 8)

95) 意: 花山本 ‘義’

96) ㉒ 癸丑年(1553, 53세) 親試는 9월 5일에 시행되었다. 退溪는 8월 말경에 親試對讀官에 임명된 것으로 짐작되나, 그 일자는 확실하지 않다.

拜忠武衛上護軍，【有〈洪應吉遊金剛山錄序〉。】十月，改訂鄭之雲〈天命圖〉。【之雲字靜而，號秋巒，作〈天命圖〉，且有說。先生爲之改訂，而叙其後。略曰：“滉自筮仕來，寓居漢陽之西城門內者前後二十年，而尙未與鄰居鄭靜而相識往來也。一日，得所謂〈天命圖〉者，其圖與說，頗有舛訛。因人叩⁹⁷⁾靜而求見本圖。已而，又求見靜而，皆往復數三而後肯焉。靜而曰：‘向者，學於慕齋·思齋兩先生門下，聞其緒論，顧患其性理微妙，無所准⁹⁸⁾明。試取朱子之說，參以諸說，作爲一圖，捧以質疑於先生，請其誤處則曰：“非積功未可輕議。”厥後自覺其非，而改之者亦多，尚未有定本。’滉曰：‘兩先生所以不輕議者，固必有深意在。今日吾輩講學，如覺有未安處，則又安可苟同曲護，終不辨其是否⁹⁹⁾也？’遂引證〈太極圖〉及說而指點曰：‘某誤不可不改，某剩不可不去，某欠不可不補，如何？’靜而皆言下領¹⁰⁰⁾肯，無拂吝之色。惟¹⁰¹⁾滉言有未當者，則必極力辨難，要歸之至當而後已焉，而并舉湖南士人李恒所論‘情’不可置氣圈中之說，以爲集衆長之資。旣數月，靜而以所改圖及其附說來示滉，復相與參校整完。雖未知其果爲無謬與否，而自吾輩所見，殆竭其所可及者。於是，揭諸左右，朝夕潛心玩繹，庶幾因圖自牖，啓發其衷，而有少進益云。’】¹⁰²⁾

○三十三年甲寅【先生五十四歲】¹⁰³⁾

97) 叩：庚本·擬本‘扣’

98) 准：花山本‘準’

99) 否：花山本‘非’

100) 領：庚本·擬本·甲本·花山本‘領’

101) 惟：庚本·擬本·甲本‘雖’

102) 退溪가 〈天命圖說〉을 개정한 것은 10월의 일이고, 〈天命圖說後叙〉를 지은 것은 12월 11일의 일이다.

103) 1554년(明宗 9)

二月, 製東宮上梁文.

◎四月, 製思政殿上梁文.¹⁰⁴⁾

◎五月, 拜刑曹參議.

◎六月, 移拜兵曹參議.

◎七月, 哭周愼齋. 【有挽詞.】¹⁰⁵⁾ 與盧伊齋

【守愼】書論《夙興夜寐箴註解》. 【伊齋時謫在珍島, 註解〈夙興夜寐箴〉. 先生以書論之, 略云: “〈夙興夜寐箴〉, 舊日亦嘗服膺, 而猶未知條理之密, 工程之嚴若此其至也. 得見《註解》, 分章析句, 正義¹⁰⁶⁾崇論, 恢遊肯綮之處, 而獨到昭曠之原, 不勝嘆服. 第於其間訓語數處, 不無有疑, 謹爲掇出而錄在別紙, 以取正焉.”】 書景福宮新修諸殿扁額.¹⁰⁷⁾ ◎跋《延平答問》. 【清州新刻《答問》, 牧使李公楨以書來請, 故跋其後.】¹⁰⁸⁾

九月, 遞拜上護軍.

◎十月, 書進思政殿〈大寶箴〉.

104) 景福宮의思政殿을 세울 때 올릴 上樑文을 지은 것은 1554년 5월 10일의 일이었다. 《退溪先生年譜》에 4월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오류이다.

105) 周世鵬이 逝去하여 그의 죽음에 땀한 것은 1554년 7월 2일의 일이다. 周世鵬의 挽詞를 지은 것은 11월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에서는 기록의 편의를 위해 細註로 周世鵬의 挽詞를 지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106) 議: 庚本·擬本 ‘義’

107) 새로 지은 景福宮의 諸殿閣의 扁額 글씨를 쓴 것은 1554년 7월 12일 이후의 일로 추정된다.

108) 〈延平答問跋〉의 끝에 “嘉靖三十三年歲次甲寅秋九月既望, 眞城李滉謹跋.”이라 한 것으로 보면, 이는 甲寅年(1554년, 54세) 9월 16일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退溪先生年譜》에서는 7월에 〈延平答問跋〉을 지은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十一月, ㉒ 哭洪上舍仁祐.【先生與人書云: “此人有學有文, 遽至不祿, 每深嘆惜.”】 ㉓ 拜僉知中樞府事.
◎十二月, ㉔ 製進〈重修景福宮記〉, 命賜馬.

○三十四年乙卯【先生五十五歲】 109)

二月, 書進康寧殿〈七月篇〉.110) ◎㉕ 以病三辭解職, 卽出城, 買舟東歸. ㉖ 是日, 拜上護軍.111) ◎㉗ 除僉知中樞府事. 賜食物, 下召旨令就醫京師. ㉘ 先生上箋謝恩, 辭召命. 不允.

五月, 再召.【先生既歸, 李龜壽啓曰: “李滉以病還鄉幾一月, 而上不知. 古所謂‘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 殆謂是也. 滉之爲人, 有文章操行, 而恬退山野. 崇獎此人, 則可以激勵士風.” 申汝暲又啓曰: “在京則便於尋醫問藥, 可使之上來.” 於是, 改授僉知命召. 先生奉箋陳謝, 以病乞解職名. 既而鄭惟吉又啓曰: “滉有學術才華, 一時人才有限, 如此人者幾何?” 由是再召, 有旨云: “惟爾才全文翰, 德備清謹, 方欲置於京師, 以備顧問, 何以一疾遽退鄉村? 今觀狀辭及謝箋, 予心缺然. 安心調理, 不計久近上來.”】 112) ㉙ 祭告家廟.【以有恩賜故也.】

109) 1555년(明宗 10)

110) ㉒ 康寧殿에 〈七月篇〉을 써서 올린 것은 《實錄》 기록에 의거하면, 1555년 2월이 아니라 1554년 10월~11월의 일이다.

111) ㉖ 退溪가 세 번 사표를 올려 해직된 뒤, 도성을 빠져나와 東湖로 간 것은 1555년 2월 11일의 일이다. 退溪는 배편이 마련될 때까지 잠시 東湖에 머물렀고 2월 18일 배를 타고 東湖를 떠났는데, 이날 忠武衛 上護軍에 임명되었다.

112) ㉙ 1555년 3월 22일 退溪를 僉知中樞府事로 삼고, 慶尙道 觀察使에게 음식을 하사하라는 教旨를 내렸는데, 이 教旨를 받은 날이 4월 19일이었다. 그리고 4월

六月, ㉓~㉔ 哭壟巖于其第.【先生撰行狀.】¹¹³⁾ 撰先妣
貞夫人金氏·朴氏墓標.【先生, 朴氏出, 金氏, 前母也.】 冬,
㉔~㉕ 入清涼山, 閏㉔~㉕ 踰月而還.【有遊山諸作.】

○三十五年丙辰【先生五十六歲】¹¹⁴⁾

五月, ㉖ 拜弘文館副提學·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
館修撰官被召.【先是, 左相尙震與趙士秀在經席同辭請召. 士秀曰:
“滉之爲人, 可扶頽俗.” 上以御札召之曰: “惟爾卓越清簡, 問世文章,
不貪功名, 閒居村巷. 嘉其恬退之節, 常冀返洛之日, 而誠乏求賢, 不仕
于朝, 予心缺然. 予雖無商·文之德, 爾豈好富春之隱? 斯速上來從仕,
以副懇求之意.” 又賜食物, 已而除副提學, 又召.】 ㉗ 再上狀辭,
遞副提學.

◎六月, ㉘ 除僉知中樞府事. 有旨: “情意激切, 故勉
從, 可安心調病.” ◎編次《朱子書節要》成.【先生以
《朱子大全》中, 其書札乃與公卿大夫·門人·知舊往還問答之辭, 各隨
其材稟高下學問淺深, 而抑揚導救, 尤切於學者. 顧以篇帙浩穰, 未易究
其指趣, 乃撮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 名之曰《朱子書節要》.】

八月, ㉙ 會族人祭高曾祖墓于安東.

25일에 僉知中樞府事の 免職을 청하는 辭狀과 음식물을 하사한 것에 사례하는 箋
을 올렸다.

113) ■ 李賢輔가 逝去한 것은 1555년 6월 13일의 일이다. 退溪가 李賢輔의 挽詞를
짓고 그 집에 가서 哭을 한 것은 6월 13일~20일의 일로 추정된다.

114) 1556년(明宗 11)

◎九月九日，與溫溪諸親登落帽峯。

◎十二月，草鄉約。【是時，國有鄉徒之令，先生草約，因事不果行。】序《朱子書節要》。¹¹⁵⁾

○三十六年丁巳【先生五十七歲】¹¹⁶⁾

三月，⁰⁰² 作〈樹谷庵記〉。【樹谷，先生先塋所在。】得書堂地于陶山之南。【有〈改卜書堂地有感二首〉・〈再行視陶山南洞〉等詩。】

四月，⁰⁰² 遊太紫山，尋大方洞。

◎七月，《啓蒙傳疑》成。【先生自序，略曰：“理數之學，廣博微妙，未易研究。或出幽經僻書，必須考論而後，見其義類。至於隱奧之義，有不得不明，傳印之譌，有不可不正，乘除之法，又不可不詳。或因思有契，或考古有證，不免隨手割記，以便考閱云云。”】

○三十七年戊午【先生五十八歲】¹¹⁷⁾

三月，築滄浪臺。【後改名‘天淵’。】¹¹⁸⁾

115) 序朱子書節要：[두주 謹按先生所著〈節要序〉末段年月，序文之成，在戊午夏四月。]가 있고, 甲本에도 동일한 두주가 있다. 다만 甲本에는 ‘節要序’가 ‘節要書’로 되어 있다. 今按: 《朱子書節要》의 序文을 지은 것은 이들 두주의 내용으로 볼 때 1558년(明宗 13, 58세) 4월의 일이다.

116) 1557년(明宗 12)

117) 1558년(明宗 13)

118) ⁰⁰² 滄浪臺를 축조한 것은 丁巳年(1557, 57세) 10월의 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에서 이것을 1558년 3월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인 듯하다.

四月, ㉔ 遊鰲潭. 【爲禹祭酒倬, 欲建書院於潭上, 相其地.】

六月, 跋魚灌圃【得江】詩集.

◎閏七月, ㉕ 上疏乞致仕, 御批不允, 赴召入都. 【前此六月, 領議政沈連源·大提學鄭士龍於經席, 啓請除授京職, 令監司敦遣. 先生聞之, 遂上疏, 極陳疾病難仕之意, 略曰: “臣雖無識, 自少講聞事君之道, 豈不知不俟駕之爲恭哉? 其所以苦守一隅, 處群非積疑之中, 而不知變者, 正畏其進大有乖於事君之義也. 何謂義? 事之宜也. 然則諱愚竊位, 可謂宜乎? 病廢尸祿, 可謂宜乎? 虛名欺世, 可謂宜乎? 知非冒進, 可謂宜乎? 不職不退, 可謂宜乎? 持此五不宜, 以立本朝, 其於爲臣之義, 何如也? 伏願察臣迂愚, 矜臣癯尪, 仍以前除, 永退田里, 補過守病, 以畢餘生.” ㉖ 上御札答之曰: “今見疏辭, 備錄前後求退之事, 至陳五不宜, 牢執不來. 雖欲得人致治, 何能奪其志乎? 予實寡昧, 不足與有爲. 守道守義, 斷無來輔之意. 予甚赧然. 宜知予意.” ㉗ 於是, 先生承命西行, 九月晦, 入都.¹¹⁹⁾】

十月, ㉘ 拜成均館大司成. 【㉙ 上命召, 先生詣政院, 教曰: “學校, 風化之源, 而頹靡已甚, 士習, 所當養正, 而浮蕩不美. 是雖予不敏, 不能鼓舞教化之所致, 亦豈不係於師長乎? 惟爾能文清謹, 合於教誨之任, 故予委於爾矣. 體予至懷, 盡心勤誨, 以振學校, 以正士習.” 賜貂皮耳掩. 先生啓曰: “臣病甚, 前者再爲此任, 皆不能堪. 今又受任, 恐有如前不堪之患.” 又命賜酒.】

十一月, ㉚ 病辭. 除上護軍.

119) ㉔ 《退溪先生年譜》에는 9월 30일(그믐)에 서울에 들어왔다고 하였으나, 퇴계가 窩에게 보낸 편지에서 “予初一日入城”이라고 하여 10월 1일에 서울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年譜》의 기록이 오류인 것으로 추정된다.

◎十二月, ㉓ 御筆特陞嘉善大夫·工曹參判. 以病辭, 不允. 再辭·三辭, 皆不允, 始拜命. 又力辭, 不允.

○三十八年己未【先生五十九歲】¹²⁰⁾

二月, ㉔ 乞假, 歸鄉焚黃. 病未還朝. 上狀辭職, 不允. 【時, 先生以焚黃退來, 不還. 人或有疑問者, 先生以書答之曰: “古人於甚不得已處, 亦有假他事以爲去就者, 豈不誠於事君而然哉! 所惡甚於所托故也. 況滉焚黃請告, 自循法例, 而病未還朝. 故因遂乞退, 斯豈托事不誠如談者之云乎? 顧人不深考古義, 而責人太苛耳.”】¹²¹⁾

五月, ㉕ 又辭, 不允.

七月, ㉖ 又辭. ㉗ 上勉許遞參判, 移授同知中樞府事, 令本道賜食物. ◎答黃仲舉書, 論《白鹿洞規集解》.

【《集解》, 朴松堂 英¹²²⁾所著, 有差誤處, 先生爲之辨釋.】¹²³⁾ 作〈伊山書院記〉. 【寫扁額及定院中規約.】¹²⁴⁾

十二月, 始編《宋季元明理學通錄》. 【朱子以後, 道學之士

120) 1559년(明宗 14)

121) ㉓ 退溪가 工曹參判의 免職을 청하는 辭狀을 올린 것은 3월 12일 경의 일로 추정된다.

122) 英: 花山本에는 小字로 되어 있다.

123) ㉗ 《退溪先生年譜》에서는 《白鹿洞規集解》에 대해 黃俊良이 문의해 온 편지에 대한 退溪의 답장을 5월 이후에 보낸 것으로 기록해 놓았으나, 《退溪先生文集(內集)》 해당 부분 편차에 따르면, 이는 2월 6일~25일 사이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124) ㉗ 편액을 써서 보낸 것은 1559년 8월의 일이고, 〈伊山書院記〉를 지은 것은 겨울의 일이다.

甚多，而記載散出。其言論之同異得失，學問之淺深疎密，皆不可見，學者病焉。先生據朱子書及《語類》·實記·史傳·《一統志》等書，采摭其言行事跡，各以類附焉。自南渡迄于元明，名曰：《理學通錄》。其爲陸學者，別爲外集，以附其後，而學術有所統一云。】

○三十九年庚申【先生六十歲】¹²⁵⁾

正月，跋曹南冥《遊頭流錄》。

◎十一月，¹²⁶⁾ 答奇高峯書，辨四端七情。【奇大升明彦以

〈天命圖〉四端七情分屬理氣，離析太甚，是理與氣，判而爲兩物。七情不出於理，而四端不乘於氣，語意不能無病，以書來辨。先生答之，其略曰：“四端，情也。七情，亦情也。均是情也。何以有四七之異名耶？來喻所謂所就以言之者不同，是也。蓋理之與氣，本相須以¹²⁶⁾爲體，相待以爲用，固末有無理之氣，亦末有無氣之理。然所就而言之不同，則亦不容無別。且以性之一字言之，子思所謂‘天命之性’，孟子所謂‘性善之性’，此二性字所指而言者，何在乎？將非就理氣賦與之中，而指此理源¹²⁷⁾頭本然處言之乎？由其所指者，在理不在氣，故可謂之純善無惡耳。若以理氣不相離之故，而欲兼氣爲說，則已不是性之本然矣。夫以子思·孟子洞見道體之全，而立言如此者，非知其一不知其二也。誠以雜氣而言性，則無以見性之本善故也。至於程·張諸子，不得已有氣質之性之論，亦非求多而立異也。所指而言者，在稟生之後，則又不得以本然之性混稱之也。故愚妄以爲情之有四端七情之分，猶性之有本性氣稟之異也。然則其於性也。既可以理氣分言之，至於情，獨不可以理氣分言之乎？惻隱·羞

125) 1560년(明宗 15)

126) 以：庚本·擬本·甲本·花山本‘而’

127) 源：庚本·擬本·甲本·花山本‘原’

惡·辭讓·是非，何從而發乎？發於仁義禮智之性焉爾。喜怒哀懼愛惡欲，何從而發乎？外物觸其形而動於中，緣境而出焉爾。四端之發，孟子既謂之心，則心固理氣之合也。然而所指而言者主於理，何也？仁義禮智之性，粹然在中，而四者其端緒也。七情之發，程子謂之發於中，朱子亦謂之各有攸當，則固亦兼理氣也。然而所指而言者則在乎氣，何也？外物之來，易感而先動者，莫如形氣，而七者其苗脈也。四端皆善也。故曰：‘無四者之心，非人也。’曰：‘乃若其情則可以爲善矣。’七情本善，而易流於惡，故其發而中節者，乃謂之和。一有之而不能察，則心已不得其正矣。由是觀之，二者雖曰皆不外乎理氣，而因其所從來，各指其所主而言之，則謂之某爲理，某爲氣，何不可之有乎？大抵義理之學，精微之致，必須大着心胷，高着眼目¹²⁸⁾，切勿先以一說爲主。虛心平氣，徐觀其義¹²⁹⁾趣，就同中而知其有異，就異中而見其有同，分而爲二，而不害其未嘗離，合而爲一，而實歸於不相雜，乃爲周悉而無偏也。今之所辯¹³⁰⁾則異於是，喜同而惡離，樂渾全而厭剖析，不究四端七情之所從來，概以爲兼理氣，有善惡，深以分別言之爲不可，是則遂以理氣爲一物，而無所別矣。近世羅整菴，倡爲理氣非異物之說，至以朱子說爲非，是滉尋常未達其指，不謂來喻之意亦似之也。夫講學而惡分析，務合爲一說，古人謂之鵠圖吞棗，其病不少。如此不已，駸駸然入於以氣論性之蔽¹³¹⁾，而墮於認人欲¹³²⁾作天理之患矣，奚可哉！自承示喻，卽欲獻愚，而猶不敢自以所見爲必是而無疑，故久而未發。近看《朱子語類》，論孟子四端處未一條，正論此事，其說云：‘四端是理之發，七情是氣之發。’古人不云乎？不敢自信而信其師，得是說，然後方信愚見不至於大謬，乃敢粗¹³³⁾

128) 目：庚本·擬本·花山本‘力’

129) 義：花山本‘意’

130) 辯：庚本·擬本·甲本·花山本‘辨’

131) 蔽：花山本‘弊’

132) 欲：庚本·擬本·花山本‘慾’

133) 粗：庚本·擬本‘祖’

述區區，以請教焉。”明彥又逐條辨論，往復數三，最後，先生答之曰：“辨釋義理，固當精博，顧其所論，條緒猥煩，辭說汙漫，往往臨時搜採先儒之說，以足已闕，爲報辨之說。此與舉子入場見題，獵故實以對者何異？假使十分是當，於身已無一毫貼近，只成閒爭競，以犯聖門之大禁。況未必眞能是當耶！由是不復作意奉復如前之勇云云。”其後，明彥始悟前見之誤，盡棄其說，而從先生作四端七情說云：“孟子論四端，以爲凡有四端於我者，知皆擴而充之。夫有是四端，而欲其擴而充之，則四端是理之發者，是固然矣。程子論七情，以爲情既熾而益蕩，其性鑿矣。故覺者約其情，使合於中。夫以七情之熾而益蕩，而欲其約之以合於中，則七情是氣之發者，不其然乎？以是而觀之，四端七情之分屬理氣，自不須疑云云。”此非一年事，欲見辨論始末歸宿處，故並附于此。】**陶山書堂成。**【自是又號陶翁。堂凡三間，軒曰‘巖棲’，齋曰‘玩樂’，精舍七間，名曰‘隴雲’。¹³⁴⁾先生每至陶山，常居玩樂齋，左右圖書，俯讀仰思，夜以繼日。家貧蔬¹³⁵⁾糲僅充，而攻苦食淡。他人視之，疑其不堪，而先生裕如也。蓋先生於道，所見益親，所造益深，有以自樂而忘外慕，故雖處窮約之中，而能怡然自得，不知老之將至也。其後，學徒於精舍之西，築室以處，名曰‘亦樂’，取《論語》“自遠方來”之義也。】¹³⁶⁾

十二月，被召。【以天使將至，與宋純·林億齡等同召。】¹³⁷⁾

134) 隴雲：庚本·擬本·甲本‘隴雲’

135) 蔬：庚本·擬本·花山本‘蔬’

136) 陶山書堂 건축공사는 1560년에 서당 건물만 완공하고, 資力이 딸려 중단되었다. 庚申年 11월에 陶山書堂이 완공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137) 1560년 12월 중국 사신이 오는 일로 내린 召命을 받은 것은 1561년 1월 15일의 일이었다.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四十年辛酉【先生六十一歲】¹⁾

正月，¹⁷⁹ 將赴召，適墜馬，以病辭。【既而天使竟不來，遂停召。】

三月，築節友社。【一日，先生自溪上步出陶山訪梅，有詩曰：“花發巖崖春寂寂，鳥鳴澗樹水潺潺。偶從山後攜童冠，閒到山前看考槃。”李德弘問曰：“此詩有上下同流，各得其所之妙。”先生曰：“雖略有此意思，推言之太過。”】²⁾

四月既望，泛月濯纓潭。【兄子審·孫安道·門人李德弘從，以‘清風明月’，分韻賦詩，詠前後〈赤壁賦〉，夜深乃還。】

十一月，¹⁸⁰ 作〈陶山記〉。

○四十一年壬戌【先生六十二歲】³⁾

三月上巳，¹⁸¹ 出陶山，乘舟抵青溪，臨溪築臺，名曰‘青溪臺’。◎¹⁸² 李龜巖【楨】來謁，【留數日乃去。先生送別于石礪臺。】

七月既望，¹⁸³ 將遊風月潭，不果。【欲繼赤壁故事，與知舊約

1) 1561년(明宗 16)

2) ¹⁷⁹ 李德弘의 질문에 退溪가 답한 것은 甲子年(1564)의 일이었다. 《退溪先生年譜》에서 이것을 辛酉年(1561) 3월 29일(그믐)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3) 1562년(明宗 17)

遊，值大雨未果。有二絕。】

○四十二年癸亥【先生六十三歲】 4)

三月，^[149] 黃錦溪訃至，哭之。【錦溪名俊良，字仲舉，以文辭名于世。晚更有志於此學，屢從先生質疑請益，往來書尺甚多。至是，以星州牧使棄官歸，卒於道。先生甚惜之。爲文再遣人祭之。其葬也，撰行狀。】

九月，^[150] 聞王世子喪，出陶山設位行禮。【十月初四日服盡，五日除服。】

○四十三年甲子【先生六十四歲】 5)

閏二月，^[149] 祭高曾祖墓于安東，會族人。

◎四月，^[149] 與諸生遊清涼山。【有遊山諸作。】

九月，撰靜庵趙先生行狀。

◎作〈心無體用辯⁶⁾〉。【有宗室鍾城令號蓮坊，嘗從徐花潭遊。至是，作〈心無體用說〉，托金就礪質于先生。先生辨之，略曰：“以寂感爲體用，本於《大易》，以動靜爲體用，本於《戴記》，以未發已發爲體用，本於子思，以性情爲體用，本於孟子。皆心之體用也。蓋人之一心，雖彌六合·亘古今·貫幽明·徹萬微，而其要不出乎此二字。故體用之

4) 1563년(明宗 18)

5) 1564년(明宗 19)

6) 辯：庚本·擬本·甲本‘辨’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名，雖未見於先秦之書，而程·朱以來諸儒所以論道論心，莫不以此爲主，講論辨析，惟恐不明，而陳北溪〈心說〉，尤極言之，何嘗有人說心無體用耶？今蓮老之言曰：‘心固有體用，而探其本則無體用也。’滉聞程子曰：‘心一而已。有指體而言者，有指用而言者。’今既指其有體用者爲心，則說心已無餘矣。又安得別有無體用之心爲之本，而在心之前也？又曰：‘動靜者，實理也。體用者，虛說也。道理本無體用，而以動靜爲體用也。’滉謂道理有動有靜，故指其靜者爲體，動者爲用，然則道理動靜之實，卽道理體用之實，又安得別有一道理無體用者爲之本，而在動靜之先乎？又曰：‘體字起於象上，用字起於動上。動之前，何嘗有用，象之前，何嘗有體耶？’又引邵子本無體之說曰：‘無體則無用可知。’滉謂體用有二，有就道理而言者，如沖漠無眛，而萬象森然已具，是也。有就事物而言者，如舟可行水，車可行陸，而舟車之行水行陸，是也。故朱子答呂子約書曰：‘自形而上者言之，沖漠者固爲體，而其發於事物之間者爲之用。若以形而下者言之，則事物又爲體，而其理之發見者爲之用。不可概謂形而上者爲道之體，而天下之達道五爲道之用。今以舟車之形象爲體，而以行水行陸爲用，則雖謂之象前無體，動前無用，可也。若以沖漠爲體，則斯體也不在象之前乎？以萬象之具於是爲用，則斯用也不在動之前乎’以此觀之，蓮老所謂體起於象，用起於動，只說得形而下事物之體用，落在下一邊了，實遺卻形而上沖漠無眛·體用一源之妙矣。惟其滯見於形象之末，故謂象前無體，而引邵說以證之，殊不知邵子所謂無體者，只謂無形體耳。非謂無沖漠之體也。認體既不得該徧，則認用之不得該徧，不待言而可見矣。嗚呼！沖漠無眛者，在乾坤則爲無極太極之體，而萬象已具。在人心則爲至虛至靜之體，而萬用畢備。其在事物也，則卻爲發見流行之用，而隨時隨處無不在。故程先生既說體用一源，而又必有顯微無間之云也。夫以體用二字，活非死法，元無不該，妙不可窮如此，以此揆之，豈可徒以體字起於象上，而象之前未嘗有體乎？豈可便謂用字起於

動上，而動之前無用乎？豈可以太極為聖人之所強名，而謂之爲無體用乎？況人心莫知其鄉，孟子只謂心之周流變化神明不測之妙，得失之易，而保守之難如此，正是說此心之用，發見於事物之間者。苟以爲⁷⁾心無體用，則不知於此，何從而有此用乎？”】

○四十四年乙丑【先生六十五歲】⁸⁾

四月，⁶⁾ 上狀請解同知中樞府事職名，⁹⁾ 從之。【傳曰：“予常⁹⁾待卿，虛位多年，而強求退閒。此予待賢之誠不足而然也。但以卿意深切，故勉從。”仍命本道，賜食物。◎有蒙恩許退八絕。】¹³⁾ 聞文定王后喪，哭臨¹⁷⁾ 成服。◎書〈敬齋箴圖〉・〈白鹿洞規圖〉・〈名堂室語〉，揭諸玩樂齋壁上。

◎八月，¹⁵⁾ 與諸生講《啓蒙》。◎¹⁶⁾ 改定《景賢錄》。【按龜巖李公識曰：“楨曾得寒暄先生《家範》及行狀・《議得》等書，編爲一錄，而聞見淺狹，疎漏太甚，謹以所疑，稟質于退溪先生。先生并取金義興・立・鄭秀才・崑壽等所錄，參訂爲定本云。”此《景賢錄》改定始末，故附見焉。】¹⁰⁾

十二月，¹⁸⁾ 以特命召。【傳曰：“予以不敏，乏好賢之誠，自前累召，而每辭以老病，予心不寧，卿其體予至懷，斯速上來，且許乘駟。”】

7) 爲：庚本・擬本・花山本 ‘謂’

8) 1565년(明宗 20)

9) 常：花山本 ‘嘗’

10) ¹⁹⁾ 李楨에게 답장과 改定한 《景賢錄》을 보낸 것은 9월 중순 이전의 일로 추정된다.

復拜同知中樞府事。

○四十五年丙寅【先生六十六歲】¹¹⁾

正月，¹⁹¹⁴⁹~²⁹⁶⁹ 召命至，西行至榮川，以病辭，進次豐基待命。不准辭。【有旨：“觀卿辭狀，予心缺然，宜勿辭，善調上來，毋負累召之誠。”且命一路各邑護遣，令內醫賣藥問病。】²⁹¹³⁹再辭。【自豐基抵醴泉，又上狀，乞賜骸。】²⁹²¹⁹不允。²⁹²⁵⁹陞拜資憲大夫·工曹判書兼藝文館提學。³⁹¹⁹又辭。【²⁹²⁹先生聞陞職，²⁹³⁹自醴泉入鶴駕山 廣興寺。
三月，⁴⁹又上狀云：“臣往在戊午，還朝爲成均長官，身病已極。二三朔間，仕日不滿四五，反有陞秩之命，爲本曹參判，黽勉兩朔，僅仕三日。寸無餘力可望報効，蹭蹬退歸。今乃無故遽陞。自古以來，安有此事。伏乞聖慈特垂矜察，賜臣骸骨，因依去年四月二十日遞臣同知指揮，置臣無職之地，庶少延保，畢義歸盡。”】⁷⁹不允促召。【先生既上辭狀，⁸⁹自廣興移到鳳停寺，⁹⁹又上狀云：“新授職秩，揆以義分資歷，一無可受之理。留連待命，猶有希覲叨進之意，臣罪尤重。”¹⁰⁹遂自鳳停還家。】¹⁶⁹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經筵·春秋館事。

◎四月，¹⁰⁹遞拜知中樞府事，又下旨召。【辭狀未¹²⁾至，而文衡之命又下。既而上見狀，以先生無起意，召大臣議之。大臣對以六卿

11) 1566년(明宗 21)

12) 未：甲本‘末’

不可久曠，大提學辭命所出，尤不可曠職，宜姑遞。上從之，因命授閒官，拜樞府，且下旨令安心調理，待病差上來。】

七月，¹³⁾ 上狀辭，免資憲加及知中樞職名，乞以前職致仕。¹⁴⁾ 不許，命待病差上來。【上於先生，佇待甚切，先生屢辭不至，而聖意猶勤，以‘招賢不至歎’爲題，令讀書堂儒臣各製近體一首以進。又畫先生所居陶山，令礪城君宋寅，書〈陶山記〉及〈雜詠〉於其上，爲屏風張諸臥內云。】¹⁵⁾

十月，¹⁶⁾ 撰晦齋李先生行狀，且校正文集。◎作〈心經後論〉。【先生於《心經》，尊尙尤至，以爲不下於四子·《近思錄》。黃錦溪俊良，嘗以書譏斥，其書有曰：“眞西山華而不實，范蘭溪蔓而不切，黃慈溪所見，比二子尤下。程篁墩見處不明，擇焉不精。”欲先生更加刪定。先生答書，力辨其非是。至是又作此論，所以闡心學之淵源，闢異端之榛荆者，既皆深切著明，而於草廬·篁墩諸子之說，實¹⁴⁾爲之毫分縷析，兼亦不沒其所長，使正學路脈，煥然復明，而不迷於他歧，其爲後世慮至矣。先生又嘗患中國學術之差，白沙·陽明諸說，盛行於世，程·朱相傳之統，日就湮晦，未嘗不深憂隱歎，乃於白沙《詩教》·陽明《傳習錄》等書，皆有論辯，以正其失云。】¹⁵⁾ 圖 與柳仁仲書論

13) ¹³⁾ 明宗은 거듭 불리도 退溪가 오지 않자, 지난 6월 15일에는 讀書堂에 宣醞을 한 다음, ‘招賢不至歎’이란 詩題를 주고 讀書堂 官員들에게 律詩 1首씩을 지어 올리게 하였고, 이달에 들어서에는 退溪가 사는 陶山을 그리게 하고 宋寅으로 하여금 그 위에 〈陶山記〉와 〈陶山雜詠〉을 써서 병풍을 만든 다음, 臥內에 둘러치게 하였다.

14) 實：庚本·擬本 ‘悉’

15) ¹⁵⁾ 〈心經後論〉 끝에는 ‘皇明嘉靖四十年歲丙寅孟秋日’로 그 지은 연월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心經後論〉은 7월에 지은 것이 드러나는데도, 《退溪先生年譜》에서는 〈心經後論〉을 10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退溪先生年譜》가 오류임이 분명하다.

《續蒙求》.

○穆宗¹⁶⁾ 隆慶元年丁卯【先生六十七歲】

二月, ㉔ 復召.【時, 嘉靖皇帝崩, 新皇帝卽位, 詔使將至, 大臣李浚慶等啓請召聚文學之士, 以備酬應, 由是召命又下.】

五月, ㉕ 有旨趣行.

◎六月, ㉖~㉗ 赴召入都. ◎㉘ 明宗昇遐.【先生入城三日, 以病未及肅拜而聞變, 以烏紗帽・黑角帶, 詣闕哭臨.】

七月, ㉙ 爲大行王行狀修撰廳堂上, 撰行狀. ◎㉚ 拜禮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 ㉛㉜ 辭不允. ㉝㉞ 再辭不允.

◎八月, ㉟~㊱ 以病免, 卽東歸.

◎九月, ㊲㊳ 製進大行王挽¹⁷⁾詞.¹⁸⁾【五言排律二十韻, 有序略云: “六月二十五日, 臣入都. 二十六日, 始微聞上違豫. 二十七日, 大漸. 二十八日, 宮車晏駕. 臣在途加病, 未及拜命而遽遭大變. 攀號隕

16) 穆宗: 花山本에는 없고 [두주 ‘穆宗’]이 있다.

17) 挽: 花山本 ‘輓’

18) ㉚ 退溪의 문집 속 家書 가운데는 8월 26일 退溪가 〈明宗大王挽詞(并序)〉를 서울로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아들 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退溪는 이때 이미 〈明宗大王挽詞(并序)〉를 지어서 만아들 篤에게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의거해서 〈明宗大王挽詞(并序)〉를 만아들 篤에게 편지를 보내기 하루 전인 8월 25일 경에 완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退溪先生年譜》에서 〈明宗大王挽詞(并序)〉를 9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明宗의 장례가 9월 22일에 거행되었다는 사실에 맞추어 9월에 지어 올린 것으로 기록한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다.

絕，五內糜潰，加以奔走於詔使之來，勞傷賤疾，頓至深劇。會有春官之命，不能一日供職而辭遞。自以前朝病退之臣，當嗣王新政之初，又負恩命如此，人臣之義，掃地盡矣。若復因循不去，而死於尸竊之中，則數十年苦乞辭退之義安在？而致仕請骸，皆不可得焉。乘遞職之隙而抽身以歸，誠迫於不得已也。臣在都中，已聞令群臣各製進挽¹⁹⁾詞。臣病思昏罔，營構未就，迨免填壑之日，情不自抑，僅得成篇。附人入都，冒呈于都監。第臣以未竟山陵而歸，方得罪時論，不知其能無退卻否也。”其詩，有“命官官失守，言祿祿仍奢。古義當過去，今情有峻訶。義情難並處，今古奈殊何？”之句。】 ㉑ 十八日，在龍壽寺。【以十九日大行發引，不安於在家故也。】 ㉒ 答奇明彥書。【先生退歸在山陵未畢之前，時議²⁰⁾紛紜。奇明彥以書來問。先生答之，略曰：“因山慘惓，廡衛載臨。百僚迫攀，普展哀慟。病臣無路，來依古寺。適得來書，責以古義，羞死何言？滉之爲人，不亦異乎？滉之處身，其亦難矣。何也？大愚也，劇病也，虛名也，誤恩也。以大愚而欲實虛名則爲妄作，以劇病而欲承誤恩則爲無恥。夫挾無恥以行妄作，於德不祥，於人非吉，於國有害。滉之不樂仕常退身，豈有他哉？古之君子明於進退之分者，一事不放過，小失官守，則必奉身而亟去。彼其愛君之情，必有所大不忍者，然不以此而廢其去者，豈不以致身之地，義有所不行，則必退其身，然後可以循其義？當此之時，雖有大不忍之情，不得不屈於義所掩也。道同者，不言而相符，不同者，千言而不喻。身居堂上，方能辨堂下人曲直。不知公意於此二者，何是何非？何取何舍？毋惜有以辱教之云云。”】

十月， ㉓ 除龍驤衛大護軍兼同知經筵·春秋館事被召。

【有旨：“國家治亂，在於君德，君德成就，在於尊賢講學。勤御經筵，日

19) 挽：花山本‘輓’

20) 議：甲本‘義’

接賢士，使心智高明，然後可以見其賢邪矣。合侍經筵者遠，則宜令近之，俾任經席，可也。卿之下去，適在皇皇罔極之中，未及察之。新政之初，沈滯之人，皆可擢用，況賢宰相乎？卿其乘駟斯速上來。”大司諫陸簠啓：“李滉學問該博，工夫敦篤，宜下書徵之，置之經席，必有輔導聖學之功。”因此有召命。】²²⁾ 拜同知中樞府事，兼如故。○²³⁾ 上辭狀，請停召命遞講職，仍依禮致仕。○¹¹⁹ 拜知中樞府事，兼如故。又以教書特召。【許睭啓曰：“自古帝王，得賢師爲學，然後事業超出。李滉有病而歸，上若致敬盡禮，欲以爲師，則可至矣。”上從之。於是，先生與曹植·李恒，同以教書特召。旣而，又以日寒不任就途²¹⁾，令勿拘遲速，待時日溫和，從容上來。】

十二月，²²⁾ 有旨趣行。【以天使將至，應接爲急故也。】

○二年【今上元年】 戊辰【先生六十八歲】²²⁾

正月，²³⁾ 上疏自劾，申乞致仕，并²³⁾上狀辭召命。【疏略曰：“臣聞古之聖帝明王，莫不以尊賢任士爲急務。然其所謂賢士，必皆正得其人而眞取其實。苟或徒有好賢之志，樂善之誠，而不思知人之爲難，不問人器之如何。不才不德之人，謬加以招延之勤，虛名欺世之士，遽被之尊賢之儀，則舉枉錯直，而萬民不服。賢愚混淆，而國政日紊。臣在先朝，累被召命之下。其前之三召也。皆官降其品，別無嫌疑，則臣聞命卽行，未嘗有遲疑不進之時矣。惟其後之兩召也。或將陞秩而擬重責，或已陞秩而授重任。臣以區區之危懇，不得不極力辭免。況去年入都，遭

21) 途：花山本‘道’

22) 1568년(宣祖 元年)

23) 并：花山本‘並’

變罔極，賤疾遽劇，不能供職。其於匪躬之地，義既不展，則獨有退身一義，的然明甚。是以山陵在前，不能留待，率爾徑歸，其亦理極義變，出於迫不得已也，而一時物情，固所咸怪，或以爲好名，或以爲佯病，或比於山禽，或斥爲異端，是則臣爲臣失道，獲罪時賢大矣。更將何道，可以當聖眷而爲時用乎？伏願寬虞人不至之誅，考先王退人之禮，收還誤下之綸言，因罷召命，而申²⁴⁾舉致仕之盛典，許臣乞骸之請云云。”】¹³⁹⁾

陞崇政大夫拜議政府右贊成。有旨趣行。【先生既上疏未達，上又諭大臣曰：“李滉爲軍職，尊賢之道，有所未足，可特授贊成，更諭上來。”遂有是除。及疏入，上以御批答之曰：“觀卿疏中之辭，謙讓過矣。卿以累朝舊臣，德行之高，學問之正，雖閭巷之人，孰不知之？予亦聞焉久矣。卿在先朝，累被召赴，至於末年，又至都下，奄遇罔極之變，遽卽還歸，是必以新政之無道，尊賢之不誠故也。予之悔恨，其可勝言？古之人君，雖明聖，必求賢爲師，而況予自少不受嚴師之教，遽承艱大之業。慈教亦曰：‘予無知識，況在癘疾之中，我何教導乎？當如李滉則可也。’常望卿之上來。慈意如是之勤，而卿不肯來，無乃卿未之思乎？當今朝廷，雖多宿德之人，予之望卿，亦如星斗。卿須不以進退爲嫌而上來，勉疾留廷，以輔予愚末之質。”】

三月，¹²⁹⁾又上疏辭新陞職名，乞以前職致仕。不許，再下教書，趣行，又辭。【疏略曰：“臣自前年十月，至今年二月之終，凡七被聖旨，皆緣召除之故。臣極知無狀，不足以塞厚望應明旨。故每一命下，輒露丹悃，狀²⁵⁾啓疏陳，乞賜罷免，而誠未上格，俞音尙闕。蓋天下人才²⁶⁾之品，有大有小。大者不可以爲小，小者不可以爲大。先王知其

24) 申：庚本‘中’

25) 狀：庚本·擬本·甲本‘伏’

26) 才：甲本‘材’

然，故爵命之加，各隨其才品。大以處大，小以處小，未嘗越分而僭授。豈惟人君之用人如此？其臣之進爲世用者，莫不自度其能否而就之。故曰：‘量而後入，不入而後量也。’臣以至愚極陋之資，抱長年沈痼之疾，歸農食力，欲以守素分而免吏議，不意因此而賂得虛名。致令聖朝，誤恩屢加，在臣則方辭本職而退伏，朝命則因其所辭而擢陞，臣又力辭其所陞，而朝復因陞而又陞。以言乎勞績，則無一毫之有著，而以言乎職秩，則巍然六卿之列矣。此乃古今天下絕無之事，而爲臣之大愆，俯仰愧慄，無如之何也。今龍飛九五，萬物咸睹，好賢樂善，出於至誠。乃有滯見之臣，猥舉臣名，誇張而論薦之。以誤側席求賢之美意，所以召臣與命臣者，荐沓隆重，皆非臣所敢承當。臣方且陳疏自劾，覬蒙恩免，而其疏未達之頃，又有特陞贊成之命，則視臣曾今乞辭之意，其輕重大小，能堪與否何如也？伏願曲賜軫惻，渙發德音，已曾冒受職秩，雖不敢遽望并遞，見今新授崇品之秩，貳公之職與兼帶經筵，亟令還收成命。因以前職秩許其致仕。”上不許，更以教書懇諭，且下各道監司，令於水陸一路，以輿馬舟船護送。先生又上狀，力辭崇品。時天使回程後，頒賜諸臣段·香等物，先生亦與焉。以爲此乃朝廷祇奉皇恩，嘉與同朝共之，臣未拜贊成之命，稱官賜物，固難祇受。又身伏遠外，天使來還，一無効勞，不敢同諸臣得受賜物，并²⁷⁾辭不受。】

五月， 遞贊成，以判中樞府事召。【先生既力辭新命，朝廷知不可強起，有於經席，請降授知中樞府事，又以至誠召之則宜無不至。於是，遞贊成爲判中樞府事，下旨曰：“予以眇躬，生長民間，入承大統，臨御以來，罔知攸措，思聚賢德之士，以輔不逮。卿雅性冲澹，存履純明，居閒守靜，潛心儒者之學。蓋亦真積而力久，其於義理性命之奧，格致誠正之要，必有脫然釋悟，而超然造詣者。置之經席之上，觀儀度而聽議

27) 并：花山本‘並’

論，足以去予之昏愚，長予之心智。累次徵召，皆出至誠，而竟無起意，予甚缺然。頃日授卿右贊成之職者，乃予慕卿之深，望卿之重，而實循乎僉曰之公也。卿反以此爲嫌，而退辭尤力，是予所以褒卿者，適足以沮卿。已命遞改矣。卿復何嫌？昔先王，眷寵卿而優異之者，可謂至矣。諸葛武侯有言：‘追先帝之殊遇，欲報之於陛下。’卿固不忍忘先王而棄予也。卿其念之，不可安安而居，遲遲而來也。”】

六月，⁶⁹₅₉~⁷⁰₆₉ 承命西行。在途連上狀，更辭崇品，乞一併改正，不允。【先生得遞職之命，卽上狀以謝曰：“贊成之職，俯從微悃，特命遞改，聖眷至此，何以圖報？臣當扶曳前進，以謝恩命。第一品濫秩，終無冒受之理，冀併改正，以訖洪造云云。”既行，抵聞慶，再上狀辭崇品。到忠州，又上狀力辭。上皆不許。以狀中有“在途病發”之語，命遣內醫馳視。】

七月丙寅，⁷¹₆₁ 入都。【都人相傳指之曰：“李貳相至矣。”】辛未，⁷²₆₂ 詣闕拜命，以赴召稽延待罪。【傳曰：“勿待罪，今予得卿，此實國家之福也。”】又啓請改正崇品，不許。壬申，⁷³₆₃ 入對思政殿，又面陳力辭，不許。

◎八月，⁷⁴₆₄ 兼弘文館提學。辭不允。【故事，知經筵只入朝講。正言吳健啓：“李滉上來不易，勿循例接見。雖晝夕講，命召講論則必有益矣。”從之。先生以爲規外之事，非所敢安，并辭。上慰諭不許。】

癸未，⁷⁵₆₅ 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⁷⁶₆₆ 上疏陳〈六條〉，【一曰：“重繼統以全仁孝，主上以王室至親，入承大統，凡所以繼志述事者，莫非出於至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誠，其於仁孝之道，不患其不致隆也。然心難持於盤水，善難保於風燭，異時耳目之蒙蔽雜陳，愛憎之妖惑並進，日久月深，事玩情狃²⁸⁾，所以承宗廟·奉長樂者，動有違慢，馴致於殺其所當隆，隆其所當殺，安保其必無乎？此古來入繼之君，所以多得罪於彝教，而今日之所宜戒者也。二曰：“杜讒間以親兩宮，孝慈之道，出於天性，其倫至重，其情最切。宜無有不盡者，而或至於孝道有缺，慈天亦虧，恒人固有不免，而帝王之家，此患尤多。其故何哉？昵侍左右，便嬖給事者，無非宦寺與婦人也。此輩之性，例多陰邪狡獪，挾奸懷私，喜亂樂禍，分勢角立，爭多較少²⁹⁾，情狀萬端。一或傾耳而聽信，則自陷於不孝，而陷親於不慈必矣。又今日殿下之事親，所謂以義而隆恩，以變而處常，斯二者之際，實小人·女子之所伺隙而造釁者也。況宮闈之間，宿奸老蠱，猶未盡去，不但如羸豕之躑躅而已。伏願殿下，監《大易·家人》之義，法《小學》明倫之訓，嚴於自治而謹於正家，篤於事親而盡於子職，使左右近習之人，洞然皆知·兩宮至情莫重於孝慈，而吾輩讒間，無以得行於其間。自然無陰邪間³⁰⁾亂之患，而孝道無闕。又推此心，以致孝敬於恭懿殿，道隆繼繼，仁至義盡，而三宮懽洽，萬福畢臻矣。三曰：“敦聖學以立治本，帝王之學，心法之要，淵源於大舜之命禹。其言曰：“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然舜之此言，但道其危微，而不及其危微之故，但教以精一，而不示以精一之法。後之人，雖欲據此而真知實踐乎道，殆亦難矣。其後列聖相承，至孔氏而其法大備。《大學》之格·致·誠·正，《中庸》之明善·誠身，是也。臣請先以“致知”一事言之，自吾之性情形色日用彝倫之近，以至於天地萬物古今事變之多，莫不有至實之理，至當之則，存焉。即所謂天然自有之中也。故學之不可以不博，問之不可以不審，思之不可以不慎，辨之不可以不明。四者，致知之目也，而四者之中，慎思爲尤

28) 狃：庚本·擬本‘怙’

29) 少：花山本‘小’

30) 間：甲本‘問’

重。殿下既已啓其始而發其端矣。臣請因其³¹⁾積累之功，至於歲月之久，功力之深，而一朝有豁然貫通處，則始知所謂體用一源，顯微無間者，真是其然，而不迷於危微，不眩於精一，而“中”可執，此之謂真知也。臣請復以“力行”之事言之，“誠意”必審於幾微，而無一毫之不實，“正心”必察於動靜，而無一事之不正，“修身”則勿陷於一辟，“齊家”則毋狃於一偏。戒懼而謹獨，強志而不息。數者，力行之目也。願殿下隨時隨處，念念提撕，件件兢業。萬累衆欲，灑滌於靈臺，五常百行，磨礱乎至善。食息酬酢而涵泳乎義理，懲窒遷改而懋勉乎誠一，廣大高明，不離於禮法，參贊經綸，皆原於屋漏。如是積真之多，歷時之久，自然義精仁熟，欲罷不能，而忽不自知其入於聖賢“中和”之域矣。四曰：“明道術以正人心，唐·虞三代³²⁾之盛，道術大明，而無他歧之惑，故人心得正，而治化易治也。周衰以後，道術不明，而邪慝並興，故人心不正，治之而不治，化之而難化也。何謂道術？出於天命而行於彝倫，天下古今所共由之路也。故臣愚必以明道術以正人心者，爲新政之獻焉。然其明之之事，亦有本末先後緩急之施。本乎人君躬行心得之餘，而行乎民生日用彝倫之教者，本也。追蹤乎法制，襲美乎文物，依倣比較者，末也。本在所先而急，末在所後而緩也。臣伏見東方異端之害，佛氏爲甚。老·莊之虛誕，或有耽尙，而侮聖蔑禮之風間³³⁾作，管·商之術業，幸無傳述，而計功謀利之弊猶錮。鄉原亂德之習，濫觴於末流之媚世，俗學迷方之患，燎原於學子之逐名，而況名途宦路，乘機抵巇，反側欺負之徒，亦安可謂盡無也？以此觀之，今之人心，不正甚矣。設若不幸，而主上向道之心少不如初，則凡此數等之人，必有雜然並³⁴⁾進，百端攻³⁵⁾鑽，一爲所中，便與之俱化於

31) 因其：花山本에는 [두주 ‘因其’下，依本集，當添入‘發端而益致其’六字.]가 있다.

32) 三代：甲本 ‘二代’

33) 間：甲本 ‘問’

34) 並：花山本 ‘并’

35) 攻：甲本 ‘共’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彼矣。伏願殿下，執志如金石，貫始終而毋³⁶⁾渝，明道如日月，廓氛陰而罔干，常久不已，則待興之士·自新之民，皆升于大猷。向之群邪雜慝，亦將受變於神化之不暇矣。五曰：“推腹心以通耳目，人主者，一國之元首也，而大臣，腹心也，臺諫，耳目也。三者相待而相成。古之人君有不信任大臣，不聽用臺諫者，譬如人自決其腹心，自塗其耳目，固無元首獨成人之理。其或有信任大臣而不由其道。其求之也不求其能匡濟輔弼之賢，而惟求其阿諛順旨者，以謀遂其私。所得非奸邪亂政之人，則必兇賊擅權之夫。君以此人爲濟欲之腹心，臣以此君爲濟欲之元首，上下相蒙，締結牢固，人莫能間。由是忠賢盡逐，國內空虛，而耳目之司，皆爲當路之私人矣，則所謂耳目者，非元首之耳目也。乃當路之耳目也。於是，憑耳目而鼓勢煽焰，以黨助權臣之惡，由腹心而積戾稔禍，以畜成暗主之慝。侈然自以爲各得所欲，而不知元首之蝎毒發於腹心，腹心之蛇蝎起於耳目也。皋陶之歌曰：“元首叢脞哉。股肱惰哉。萬事墮哉。”言萬事之墮，責在元首也。宋臣王介之言曰：“宰相而承宮禁意向，給舍而奉宰相風旨，朝廷紀綱掃地矣。”言邪徑³⁷⁾之爲害也。至呂公弼之諫仁宗則曰：“股肱耳目，必相爲用，然後身安而元首尊。”故臣以爲不由邪徑³⁸⁾，而能相爲用，至善之道也。六曰：“誠修省以承天愛，殿下握寶御極，一期于茲，而乾文屢變，時孽並作，和氣不應，兩麥全耗，水災之慘，振古所無，風雹蝗螟，衆異畢見。此乃天心仁愛殿下之深，而威警殿下之至也。伏願殿下，推事親之心，以盡事天之道，無事而不修省，無時而不恐懼。聖躬雖未有過失，而心術隱微之間，疵³⁹⁾病山積，不可以不淨盡，宮禁雖本有家法，而戚屬幽陰之類，納謁霧集，不可以不過防。聽諫雖如轉圜之美，有時乎以私而牢拒，在所當改，樂善雖如好色之誠，或至於以虛而強求，

36) 毋：花山本‘無’

37) 徑：花山本‘逕’

38) 徑：花山本‘逕’

39) 疵：甲本‘疵’

在所當審。爵賞毋⁴⁰⁾濫，使無功者幸得而有功者解體。赦宥毋數，使爲惡者獲免而爲善者受害。尙節義・勵廉恥，以壯名教之防衛者不可疎，崇儉約・禁奢侈，以裕公私之財力者不可緩。祖宗之成憲舊章，積久而生弊者，雖不可不稍變通，然或并與其良法美意而一切紛更之，必致大患，搢紳之嫉正忌異，伺釁而生事者，固不可不預鎮靜，然或自乖於賢儔善類，而互相排擊之，必見反傷。專倚於守舊循常之臣，則有妨於奮興至治，偏任於新進喜事之人，則亦至於挑生亂階。抑京外胥僕，狼噬納使，而猶不足，盜空府庫，鎮浦帥將，虎吞軍卒，而猶不壓，毒遍鄰族。饑⁴¹⁾荒已劇，而賑救無策，恐群盜之大起，邊圉卒⁴²⁾虛，而南北有釁，慮小醜之猝入。凡若此類，臣不敢枚舉。惟殿下深知天所以仁愛己者不徒然也。內而自反於身心者，一於敬而無作輟，外而修行於政治者，一於誠而無假飾。不然，臣恐否泰相極，治⁴³⁾亂相乘⁴⁴⁾，數百年昇平之末，國事之可憂，將日倍於今時之弊，而天心之仁愛殿下者，反爲殿下之自棄也。御批，予觀疏章，卿之道德，質之古人，亦鮮其倫。凡此六條，眞千古之格言，乃當今之急務。予雖眇末，敢不服膺。】 ㉔ 以病在告，辭本職及兼帶大提學，仍乞崇政加依願改正。不允，遣醫問疾。 ㉕ ~ ㉖ 連辭，不許。辛丑，㉗ 詣闕又力辭大提學，三啓不允。翌日，㉘ 又固辭不已，許之。【初，大提學朴淳啓曰：“大提學・提學，雖同是館閣之職，提學之任，不如大提學之重也。今臣爲主文，而李滉爲提學，高年碩儒反居小任，而後進初學之士，乃處重地，朝廷用人，顛倒莫甚。請遞其任以授之。”上議于大臣，皆以淳言爲然。於

40) 毋：花山本‘無’

41) 饑：花山本‘飢’

42) 卒：花山本‘率’

43) 治：庚本・擬本・甲本・花山本‘禍’

44) 乘：庚本・擬本・甲本・花山本‘承’

是，命與淳相換，而先生爲大提學，淳爲提學。先生遂以老病不堪，連日力辭，得請。】 癸卯，²⁶⁹ 還授判中樞府事兼知經筵·春秋館事。【遞大提，故改下批。】

九月朔，²⁷⁰ 以獻官行祭于康陵，【明宗陵】 己酉，²⁷¹ 入侍，夕講啓事，【時有籍軍之舉，先生啓曰：“纔經山陵，又經天使，歲且未稔，籍軍非時也。”仍於榻前，出劄展讀，大意以爲搜兵補闕，在所當急。但去年以來，國恤山陵，鉅役連仍，八天使踵至，民生困弊。今年，又有風旱之災，飛蝗蔽天，四方憂災恤荒之報，相繼不絕。國家未嘗發一號·出一令⁴⁵⁾，以爲救民之計，方且家搜戶括，脅驅侵督，急於星火，邦本寧不動搖。臣愚以爲不如姑停，以待年登民息而後爲之，於義爲得。又言：“古之聖王，使宮中之事，外廷無不預知，宦官宮妾，皆領於冢宰。諸葛亮告後主曰：‘宮中府中，俱爲一體，陟罰臧否。不宜異同。若有作姦犯科，及爲忠善者，宜付有司，論其刑賞，以昭平明之治。不可偏私，使內外異法。’亦此意也。若以爲內間之事，非外廷所得知，則甚不可也。”因別錄朱子〈上孝宗封事〉中一段，自“古先聖王，兢兢業業”止⁴⁶⁾“遺風餘烈，猶可爲後世法程”之語以進。時有老宮人石尙宮者，自先朝頗有交通干預之罪，爲臺諫所論，故先生及之。上皆納之。命停軍籍。】 壬子，²⁷² 入侍夕講。進講程子〈四箴〉。【講畢，進啓曰：“〈四箴〉在〈顏子問爲仁章〉。孔門許多弟子訓仁處甚多，而惟顏子得聞，此朱子以爲聖門相授心法切要之言也。”因出劄記展讀。上曰：“此真格言，當置左右，日警焉。”】 乙卯，²⁷³ 入侍朝講。【因講《論語集註》，至“學《易》則明乎吉凶消長之理，進退存亡之道。”先生推衍其

45) 令：庚本·擬本·甲本·花山本‘政’

46) 止：花山本에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다.

義，進啓曰：“六十四卦，《易》理皆具。姑以乾卦言之。初爻，潛龍勿用，九二，見龍在田，九三，在下卦之上，故不以龍取象，只言警戒，九四，或躍在淵，九五，飛龍在天，上九，位已亢極，故曰：“貴而無位，高而無民，有亢龍有悔之象。”人君若以崇高自處，簡賢自聖，獨智馭世，無下下之意，則應此象而有窮之災也。必須謙虛好問，同德相濟，乃免亢龍之災也。〈繫辭〉曰：“危者，安其位者也。亡者，保其存者也。亂者，有其治者也。”又曰：“其亡其亡，繫于苞桑。”人君而得知此，則可以無大過矣。又曰：“今此進講，乃聖賢格言，然徒知音義句讀，而無自得之實則無益也。孔子曰：“學而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釋之者曰：“不求諸心，故昏而無得。不習其事，故危而不安。盡通諸經，而無心得之實，則昏而無得。思之於心，而不能習熟，則殆而不安。”延平語朱子曰：“此道理全在日用處熟。日用動靜語默之間，存心省察，習於其事，然後所知爲實得，此乃真學問也。”】庚申，入侍晝講。【先生以前日所啓“亢龍有悔”之意，猶有未盡。又別爲劄記，講畢進讀。上曰：“警戒之言，予當日以爲戒。”有申士楨者，公主之子，不孝於其父，臺諫方論啓請罪。先生啓曰：“近日臺諫所論，或涉於內，或係於私者，則不肯聽許。一事如此，二事如此，積之不已，至於私勝滅公，則亂亡之兆，由此而成矣。綱常者，扶持宇宙之棟梁，奠安生民之柱石。臺諫以此⁴⁷⁾爭論而不從，則柱石棟梁毀矣。”又啓曰：“臣無狀，文翰之任，史局之重，皆不堪任。惟庶幾出入經席，而冬日寒嚴，亦將難堪。不爲國事，徒食國祿，如市井之人見利而不顧廉恥。朝廷召臣以士大夫，而臣以市井自處，於義果何如也？”因乞退甚懇。上不許曰：“上下方倚卿，此何言耶？”時聖意傾嚮先生甚切，先生亦知無不言。自學問勸講之外，政有得失，輒隨事論列。雖係宮禁戚屬，亦皆爲上言之。上亦虛心嘉納，至有言聽計從之教。然而先生猶以老病曠職，每有乞退之志。士大夫以去留，卜世道污隆，惟

47) 此：甲本‘比’

恐去國之速而不得盡行其學。是日臺諫所論，皆蒙允，先生進啓之力也。】¹⁵⁹ 爲實錄撰集都廳堂上。【以總裁官洪暹啓：“滉斯文宿

儒，論議筆削之際，不可無此人”故也。】丙寅，¹⁶⁰ 詣闕乞退，

不允。【傳曰：“卿若解職，誰與爲國？冬月未免疾病，則雖全廢仕，有何未安。願勿辭。”且命明日夕講入侍。】

丁卯，¹⁶¹ 入侍夕講。

【上問曰：“頃者，朝議欲追贈趙光祖，其人學問行事如何？”啓曰：“光祖天稟秀出，早有志於性理之學。居家孝友，中廟求治如渴，將興三代之治。光祖亦以爲不世之遇，與金淨·金湜·奇遵·韓忠等，相與協力同心，大有更張，設立條法，以《小學》爲教人之方，且欲舉行《呂氏鄉約》，四方風動，若久不廢，治道不難行也。但當時年少之輩，急於致治，不無欲速之弊。舊臣之見擯者，失職怏怏，百計伺隙，構成罔極之讒，一時士類，或竄或死，餘禍蔓延，至今士林之間，有志學行者，惡之者輒指爲己卯之類。人心孰不畏禍？士風大污，名儒不出，職此故也。”上曰：“頃者，弘文館議追削南袞官爵，此亦何如也？”啓曰：“己卯之禍，正由南袞·沈貞之奸，而終爲中廟之累，可謂罪通于天矣。上意以先朝大臣追削爲未安，意甚忠厚。然衆論所啓，乃彰善癉惡之事，褒贈光祖，追罪南袞，則是非分明也。”上命收議於大臣，令弘文館·兩司·政院，各陳袞罪狀，遂奪南袞官爵。】

十月朔，¹⁶² 陪祭慕義殿，【明宗魂殿】己卯，¹⁶³ 入侍晝

講。戊子，¹⁶⁴ 入侍夕講。【啓曰：“近來日食，又有冬雷之變。先

王遇災知懼，側身修德，不可只行文具而感動上天也。《詩》言敬天之道曰：“敬之敬之，天惟顯思。毋曰高高在上，陟降厥士，日監在茲。”蓋天卽理也。天理流行，無時不然。人欲少間，則非所以敬天也。《中庸》亦曰：“神之格思，不可度思，矧可射思。”孟子曰：“存其心養其性，所以

事天也。”事天之道，只在於存養心性而已。宋張橫渠所作〈西銘〉，說此理甚分明。因事親之道，以明事天之道。推其極，則乃聖人地位之事，而下學工夫，亦無不兼盡。知此然後敬天之道，不待假飾於外，而可做真實工夫矣。因請講《小學》畢後，先講〈西銘〉，從之。又啓曰：“董仲舒有言，人君正心以正朝廷，與百官萬民，以至於四方遠近，莫不一於正，而無邪氣干其間。是以，陰陽調而風雨時，諸福之物，可致之祥，莫不畢至矣。”夫上自人君之心，下至朝廷百官·萬民無不正，則有何邪氣之干乎？故人君莫先於正心，而其中有許多工夫節目，若只改一二末事，而欲無災則不可得矣。】庚子，¹⁵⁹入侍夕講，【講《董生行》，啓曰：“和氣致祥，故有所感動，則往往祥瑞應之。然貴在德，不在祥。苟無其德，又何貴於祥也？”】

十一月戊申，¹⁶⁰入侍夕講。【是日，畢講《小學》。先生啓曰：“《小學》·《大學》，爲聖學之始終，當溫故而知新。《小學》今雖畢講，亦常留念可也。古語有之，爲學工夫，不患其不能進前，而患不能退步。退步云者，非謂退而不爲也。舊日所學，常念不忘之謂也。溫故之功深至，則知新之功，亦不出於此矣。”】癸丑，¹⁶¹入弘文館，校正〈西銘〉。【時將講〈西銘〉，大臣請令先生進讀。先生辭以衰病氣乏，語聲低微，不足以啓發宸聰。大臣更請與館員同會校正，然後進講，故承命而往。又爲〈西銘考證〉，以備參考。】庚申，¹⁶²病告辭職。命給假，遣醫問疾，賜食物。己巳，¹⁶³又遣內醫問疾。

◎十二月，¹⁶⁴~¹⁶⁵再告·三告，皆不准辭。庚寅，¹⁶⁶上《聖學十圖》并劄子。【一《太極圖》，二《西銘圖》，三《小學

圖》，四《大學圖》，五《白鹿洞規圖》，六《心統性情圖》，七《仁說圖》，八《心學圖》，九《敬齋箴圖》，十《夙興夜寐箴圖》。上以爲甚切於爲學，命作屏帖以入。】戊戌，²⁰⁹ 出謝又辭職。不許。

○三年己巳【先生六十九歲】48)

正月庚戌，²¹⁰ 除吏曹判書。不拜。以病三辭。許免，復拜判中樞府事。甲子，²¹¹ 詣闕謝恩，仍乞放歸田里。不許。是日，文昭殿之議起。【初，世宗倣漢原廟之制，立文昭殿，以奉四親及太祖神主。藏主於後寢，同堂異室，以西爲上。四時有事則祫享於前殿。太祖居中南向，高曾祖禰四廟，列於東西，略如昭穆之制。成宗追崇德宗，以睿宗已祔文昭，祔德宗於別殿，號曰延恩。及仁廟薨，明廟卽位，時議以爲仁宗祔則世祖當祧，而於明廟親未盡，不祧則過五室，非世宗之意。於是，祔仁宗於延恩。時李芑·尹元衡等當國主論，人皆痛憤。至是，大臣李浚慶等建議：“仁廟賓天之後，當時諸臣，不顧禮義，率意穿鑿，不祔文昭，奉諸別廟，物議憤鬱。以此一事，足以感傷天地之和。群議以爲當於明廟祔廟之時，應入文昭云。此事義理甚明。但仁廟與明廟，雖當爲一世，位數稍加，文昭舊殿，稍增間架，然後可以奉安。臣等與禮官，請先奉審本殿形止，預爲修繕。”從之。◎時河東郡夫人將喪畢返魂，欲就私第立廟，命二品以上議。先生獻議曰：“追崇諸事，當於國恤三年外，一依宋朝濮·秀二王故事矣。惟家廟，不可不及今造成。”】

二月朔，²¹² 陪祭慕義殿。己卯，²¹³ 入春秋館史館⁴⁹⁾，

48) 1569년(宣祖 2)

49) 入春秋館史館：[두주 下‘館’，一本作‘閣’.]가 있다.

與諸宰出《世宗實錄》，考文昭殿儀軌，詣政院上廟圖及劄子。【劄曰：“竊以文昭殿，卽漢之原廟。其爲制則後寢五間，以奉高·曾·祖·考與太祖五位之神。前殿三間，大祭則合享于此。太祖居北南向，昭二位在東西向，穆二位在西東向，此當初所定之制也，而其間有兄弟繼立，則同昭穆共一位之法，見於五禮儀宗廟圖說。然不可以同一室并一坐，故當依賀循七室加一之議與《宋史》同位異坐之文。如仁宗與明宗同昭穆也。仁宗祔時，世祖於明宗，亦爲高祖不祧，故室與位數，自至於加一爲六矣。如是則當於本寢·本殿內，議處變禮之宜可爾，安得曲生異議，別入他廟乎？人神鬱抑，二十有餘歲，況彼時明廟聖旨有曰：‘仁宗後日自當祔入’，見於《承政院日記》。可見明宗遺意本如此。幸今聖上繼述，已俞同祔之請，可以正典禮之失，慰神人之望矣。然其同祔之際，節目之詳，必須熟講而審處之。且以後寢室數言之，世祖於今親盡，當祧而虛其室，睿宗進居于此。其下以次而陞，仁宗來祔第五室。又有明宗一位，如前成六，而無室可入。故今擬就其東偏，依宗廟增室故事，新立一間，以奉安明宗神位，正合古人不以室數限主數之義。此卽後寢六間圖所明之說也。至於前殿三間，專爲合享諸位而設，其制，南北短而隘，東西長而闊。從前設位，自北而南，恰設五位外，更無餘地。今加一位，實爲難處。倘若以此爲患，欲更制大作以展其地，則拆改⁵⁰⁾殿屋，事甚非輕，鉅材難得，功役不易，祔廟前恐未及成也。臣伏聞，古之祫⁵¹⁾享，皆太祖東向，以南北分左右昭穆之列，自西而東，此萬世所當法也。今茲南向之位，隘礙難行如此，不如因時處宜，以古祫之制，通今祫之礙，舉而行之，無一不可。臣旣爲殿圖於前，以見南向難行之故，繼以朱子《周祫》九圖·《宋祫》一圖，以明祫必東向之意。終復爲殿圖，以表東向得禮之懿。伏願殿下，按圖據禮，揆以義理，只就殿內，轉北從西，

50) 改：庚本·擬本·甲本·花山本‘開’

51) 祫：庚本·擬本·甲本·花山本‘合’

太祖西壁東向，睿宗·中宗，在南北向，成宗·仁宗·明宗，在北南向。世祖今雖祧出，仍虛其位，而成宗依舊與中宗相對，不敢進居世祖之虛位，此朱子《裕圖》武王不敢對文王之說也。如是則可免拆改⁵²⁾殿屋之撓，而又無地隘難行之患，其於奉先之道，允爲便當。”割入，上卽引見，詳問其說。先生敷對如割意。命下大臣·禮官議之。先生既退，又上古廟圖。既而大臣·禮官會議，以爲殿內享祀儀貌，不純用古禮，乃世宗孝思無窮，以伸晨夕事生之敬。位置向背，規制已定。百四十年常行之制，一朝改易，事體未安。於是，議格不行。先生又啓曰：“臣非不知原廟爲俗禮，然俗禮之中，有一段⁵³⁾難行處，變通以從古禮之懿，以祖宗聰明正直與天合德之靈，豈不諱其義，以爲非禮而不安其享乎？”不允。】乙未，²⁹入侍朝講。己亥，³⁰詣宣仁門外，上割乞退。不許。壬寅，³¹再上割乞退。不許。◎³²除議政府右贊成，不拜。³³詣闕外，上割力辭，許遞。

◎三月丙午，³⁴又詣闕，乞并遞兼帶職名，致仕歸田，不許。【至是，先生去意已決，連日詣闕力辭。時上將親祭慕義殿，政院恐先生遂去，啓請祭後引見而送。上命注書俞大脩諭旨，】拜判中樞府事。戊申，³⁵詣闕謝恩，入對夜對廳乞退。許之。【上引見先生，勉留再三。先生乞退益懇。上曰：“卿今歸矣。無乃有所欲言者乎？”對曰：“古人云，‘憂治世而危明主。’蓋明主有絕人之資，治世無可憂之防。有絕人之資，則以獨智馭世，而有輕忽群下之心，無可憂之防，則驕侈之心必生。此其可懼者也。今世雖似治平，然南北有釁，生民困悴，府庫空虛，將至於國非其國。猝有事變，則不無土崩瓦解之勢，不

52) 改：花山本‘開’

53) 段：庚本·擬本·甲本·花山本‘端’

可謂無可憂之防也。聖質高明，經席之上，通貫文義，群臣才智，不足以滿聖意，故論議處事之間，不無獨智馭世之漸，識者預以爲慮。臣前日所上乾卦‘飛龍在天’之上，又有‘亢龍有悔’之言。夫‘飛龍在天’，乃人主極尊之位，其上又有一位則過高矣。故過自高亢，不肯與臣下同心同德，則賢人在下位而無輔，所謂‘亢龍有悔’也。夫龍之爲物，以雲而神其變化，澤被萬物。人君不肯與下人同心同德，則如龍之無雲，雖欲神其變化，澤被萬物，其可得乎？此君德之大病。夫太平極則必有生亂之漸，今時則然。事或有所誤，則如挽舟逆水而上，一放手之頃，從流而下，遇風波而覆也。然必學問之功不廢，然後私意可勝，而此等病痛，自當消釋矣。聖賢千言萬語，莫非存心之法，而亦貴於知要。臣前日所進《聖學十圖》，非臣私見，皆先賢所爲，其間臣只補一二圖而已。其工夫則前日⁵⁴⁾進割，以‘思’字·‘學’字爲主。以此致思焉，則所得益深，而發輝⁵⁵⁾於事業，可知小臣願忠納誨之誠也。”上曰：“〈心統性情圖〉三，而中·下二圖，卿爲之耶？”對曰：“程復心《四書章圖》有此圖。上一圖卽程圖，而其餘分理氣處，語多未穩，故舍之而以孟子·程·朱所論本然之性·氣質之性，分作中·下二圖。本然之性，主於‘理’而言，氣質之性，兼‘理’·‘氣’而言。以‘情’言之，循‘理’而發者爲‘四端’，合‘理’·‘氣’而發者爲‘七情’。故中圖，以本然之性，主‘四端’而爲之，下圖，以氣質之性，主‘七情’而爲之。此雖臣所爲，而皆援引聖賢之語，非臣之妄作矣。”上曰：“心統性情，何謂也？⁵⁶⁾”對曰：“〈西銘〉言‘天地之塞，吾其體，天地之帥，吾其性。’氣爲形，而理具於其中，合理氣爲心，而爲一身之主宰，非統性情乎？蓋盛貯是性，心也。發用亦心也。此所以心統性情也。”上又問，“圖內‘虛靈’二字在上，而知覺在下，何也？”對曰：“虛靈，心之本體。知覺，乃所以應接事物者也。故如此矣。”上曰：“更無有所言乎？”對曰：“我祖宗深恩厚

54) 日：庚本‘月’

55) 輝：花山本‘揮’

56) 也：花山本‘邪’

澤，功德巍巍。但士林之禍，起於中葉，廢朝戊午·甲子之事，不須言矣。中廟朝己卯之禍，賢人君子，皆被大罪。自是邪正相雜，奸人得志，報復私怨之時，必以爲‘己卯餘習’。士林之禍，連續而起，自古未有如此之時也。明廟幼冲，權奸得志，一人敗，又一人出，相繼用事，士禍不忍言矣。臣以既往之事啓之者，欲爲將來之大戒也。自古人君，初政清明，正人見用，君有過則諫之，有失則爭之，人君必生厭苦之意。於是，奸人乘隙而逢迎之，人主之心，以爲若用此人，則吾所欲無不如意。自此與小人合，而正人無著手處。然後奸臣得志，招朋引類，無所不爲矣。今新政之始，凡所諫爭，皆屈意從之，無大過矣。久而聖心或移，安能保其如今日乎？如此則邪正勢將相分，而奸人必勝，與初政大相反矣。唐 玄宗開元時，姚·宋賢臣滿朝，以致太平，而緣玄宗多欲，君子諫之，而李林甫·楊國忠輩，一意逢迎，由是，君子盡去，而小人獨留，終致天寶之亂。一君之身，而其事如二人者，初與君子合，終與小人合故也。上以此爲大戒，保護善類，勿使小人陷之，此宗社臣民之福也。臣之所欲戒告者，無大於此也。”上曰：“所啓當以爲戒。”又問：“卿於朝臣，無可薦者乎？”對曰：“今日在大臣之位者皆清慎，六卿無邪慝之人。至於首相，當危疑之際，不動聲色而措國勢於泰山之安。誠柱石之臣，所當倚重者，意其無出於此人也。”上又問：“學問之人？”對曰：“此難言也。昔有問於程子曰：‘門人孰爲有得？’程子曰：‘謂之有所得則未易言也。’其時如游酢·楊時·謝良佐·張繹·李籲·尹焞諸人，不爲不多，而程子不敢輕許之。臣豈敢上欺天日，以某人爲有所得乎？如奇大升，多見文字，亦於理學，所見超詣，乃通儒也。但收斂工夫少耳。”啓訖遂退。賜豹皮褥一部，胡椒二斗，令本道給米豆。又命沿途給馬及曳船軍護其歸。】午漏下，拜辭出城，宿東湖夢賚亭。己酉，回乘船東歸，宿奉恩寺。【名士傾朝出餞，各賦詩叙別。先生有詩云：“列坐方舟盡勝流，歸心終日爲牽留。

願將漢水添行硯，寫出臨分無限愁。”】 庚戌，⁶²宿楊州 無任
浦。辛酉，¹⁷²至家。

◎四月，⁹²上狀謝許退·賜食物。仍乞解職致仕，不
許。【初，先生在朝，四方想望風采，及聞其退，朝野莫不缺然。執義權
德輿上疏曰：“賢者之去留，人心之向背關焉，國家之存亡係焉。頃者，
判府事李滉上章乞骸，方待上命，而政院啓曰：‘雖不得不送，願爲引見
而送。’至於引見之日，徑啓給馬，而自上教以未穩之意，則又曲陳乞退
之由，是殿下不許，而政院乃成之許也。當其時，使政院啓以賢者去留，
係人心國家向背存亡之故，且陳聖學方急之時，不可使此人暫去於經席
之意，導上以牢執不許，至誠請留，則滉雖欲去，其可得乎？臣按《小
雅·白駒》，爲留賢也。其首章曰：‘皎皎白駒，食我場苗，繫之維之，以
永今朝，所謂伊人，於焉逍遙。’二章曰：‘皎皎白駒，食我場藿，繫之維
之，以永今夕。所謂伊人，於焉嘉客。’其三章曰：‘皎皎白駒，賁然來思。
爾公爾侯，逸豫無期，慎爾優游，勉爾遁思。’蓋愛之切，而不知好爵之
不足縻，留之苦，而不恤其志之不得遂也。以此觀之，古人於賢者之去，
欲其留萬方，而其志之不遂，亦不暇恤也如此。今也未聞有繫駒之人，
而反有給馬之請，何耶？滉之爲賢，臣未論其他，若以學問之事言之，
未知當今之世，孰處其右？平生精力，盡在於此。眞知實踐，工夫已成，
恬靜自守，不爲外慕，眞儒者之高蹈，斯文之宗匠。觀其〈六條〉之陳·
《十圖》之獻與夫隨事手劄·論文·口對，識見高深，論議精粹，綽有淵源，
斷非俗學所及，而懇懇危誠，惟在啓迪。當此進講方急之時，欲求經幄
宿儒，舍此其誰？如此之人，雖在前代，猶恨其未遇，況同一世，而反棄之
乎？前日請來之時，殿下一念，專在好賢，而朝廷上下，如不克見。今者
既去之後，未知殿下念，尚保如前，而朝野群心，已見疑怪而解體矣。
長此不已，臣恐人心將至放散，而無所歸宿矣。孟子曰：‘好善優於天下。’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傳曰：‘不有賢者，其何能國?’伏願殿下，察人心向背之機，戒國家存亡之故，篤念好善，責己招賢，以係群情，以基大業。宗社幸甚，生民幸甚。”由是不許遞職。有旨：“卿自前懇乞退，歸志似難奪，是以，姑許以安卿意耳。不許致仕，不遞職名，意有存焉。卿宜知悉。”】

七月，草川谷書院二先生祝文。

◎九月，²¹⁹ 答盧伊齋議喪禮書。

○四年庚午【先生七十歲】⁵⁷⁾

正月，²⁴⁹ 上箋乞致仕，並上狀辭免職名。不許。【²⁴⁹ ²⁵⁰ 有旨：“卿年雖七十，非若他人，茲不敢允。不遞其職者，念卿賢德，姑遂所懇，非許辭退也。還朝之期，予日望之。乘駟上來，以副予望。”】

三月，²⁷⁹ 又上箋乞致仕。不許。【²⁷⁹ ²⁸⁰ 仍令乘駟上來。】

四月，³⁴⁹ 辭召命，申乞致仕。不許。²⁸⁹ 連辭不許。

◎五月，³⁴⁹ 與諸生會易東書院。◎³⁸⁹ 出陶山，與諸生講《啓蒙》。

◎七月，³⁹⁹ 至易東書院，與諸生講《心經》。【有〈齋中夜起看月〉詩。】

八月，²²⁹ 易東書院落成，往赴。⁵⁸⁾

57) 1570년(宣祖 3)

58) ²²⁹ 7월 22일 易東書院이 落成되어 禹倬의 位版을 奉安하고 祭享(釋菜禮)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러나 그 전날인 21일 慶尙道 觀察使 李陽元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에, 역동서원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九月, ㉒ 上箋乞致仕, 上狀辭職名. 不許. 【只遞兼帶校書館·活人署提調.】 ㉒~㉓ 復出陶山, 與諸生講《啓蒙》·《心經》.

◎十月, 與奇明彦書論《心性情圖》.59)

◎十一月, ㉔ 以病倦謝遣諸生. 【有〈和柳應見寓精舍見投三絶〉, 其一云: “孔聖猶箴擇里人, 曾云文會輔成仁. 老來更覺疎爲學, 慚愧空還又待春.”】 ㉔ 行時祀於家廟. 【時先生已有疾, 子弟請勿參祭, 先生曰: “余老矣. 行祭之日不多, 不可不參.” 奉饋奠物, 親自執事, 氣益不平.】 己卯, ㉔ 答奇明彦書, 改致知格物說.60)

◎十二月丙申, ㉕ 命子弟錄還他人書籍, 【戒勿遺失. 時子窩爲奉化縣監, 命呈辭狀于監司, 禁家人祈禱.】 丁酉, ㉕ 命兄子竊, 書《遺戒》. 【一, 令辭禮葬. 二, 勿用碑石, 只以小石書其前面云: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 其後略叙鄉里·世系·志行出處, 如

59) ㉒ 退溪는 11월 6일, 奇大升이 부친 〈聖學十圖〉 第6圖 ‘心統性情圖’의 改定이 옳지 않음을 논한 편지(〈論退溪先生改心統性情圖〉)에 대한 답장(〈答奇明彦論改心統性情圖〉)을 보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에서 10월에 기대승에게 편지를 보내 ‘심통성정도’의 문제를 논했다고 한 것도 10월이 아닌 11월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또한 “與奇明彦書論心性情圖”라 한 것도 “答奇明彦書論心性情圖”로 수정되어야 할 듯하다.

60) ㉔ 退溪는 11월 16일 奇大升이 光州에서 사람을 보내 부쳐온 편지를 받고 11월 17일에 답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때 致知格物說, 곧 ‘物格物理之極處無不到’와 ‘無極’에 대한 자신의 종전 해석을 개정한 내용의 글을 처음 써서 보낸 것은 아니다.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처음 써서 보낸 것은 10월 15일이다. 그런데 그 글이 중간에 유실되었을까 염려하여 다시 그것을 써서 11월 17일에 함께 보냈다는 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退溪先生年譜 卷之二

《家禮》中所云。此事若托他人製述，相知如奇高峯，必張皇無實之事，以取笑於世。故嘗欲自述所志，先製銘文，其餘因循未畢，草文藏在亂草中，搜得則用其銘可也。又曰：“人之觀聽，四方環立，汝之行喪，非他例也。凡事必須問於知禮·有識之人，庶幾宜於今而不遠於古。”其餘處置家事數條。】午見諸生。【子弟勸止。先生曰：“死生之際，不可不見。”命加上衣，招諸生與訣曰：“平日以謬見與諸君終日講論，亦不易事。”】戊戌，²⁹命治壽器。庚子，³⁰命門人李德弘司書籍。【先生病勢已革，門人筮之，得《謙卦》“君子有終”之辭。】辛丑³¹酉時，終于寢。【是日朝，令侍人灌盆梅。酉初，命整臥席，扶起而坐，恬然而逝。】辛亥，³²訃聞，命贈領議政。【先是，上聞先生有病，命內醫賚藥，馳驛往救，未至而先生已卒。監司狀聞，下政院曰：“李滉卒逝，予甚痛悼，可追贈領議政，致賻諸事，速考前例以啓。”於是，禮官啓請凡喪葬恩奠，皆用議政禮。別遣右副承旨李齊閔致吊，又遣右承旨俞泓祭之，皆異數也。】乙卯，³³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五年辛未.⁶¹⁾

三月壬午，³⁴葬于禮安 寥芝山南。【子憲以遺戒，再上章，力辭禮葬，不許。墓刻用遺戒，題曰：“退陶晚隱 眞城 李公之墓”。初，先生既卒，遠近匍匐赴吊，如恐不及。

61) 1571년(宣祖 4)

雖平日未嘗及門者，亦皆巷吊咨嗟，愚氓賤隸，無不悲痛，多有累日不食肉者。至是，士大夫及儒生會葬者三百餘人。】

○六年壬申.⁶²⁾

○萬曆元年癸酉.⁶³⁾

十一月朔，^四 奉位版安於伊山書院，行釋菜禮。【院在榮川郡治東六七里。戊午秋，郡守安璫所建，先生嘗作記。至是，郡守許忠吉就院中立祠，以祀先生。事聞，明年，賜額‘伊山書院’。】

○二年甲戌.⁶⁴⁾

春，建書院於陶山之南。【一鄉士子議，以陶山先生講道之所，不可無書院，乃就書堂後數步而闢地營建焉。】

○三年乙亥.⁶⁵⁾

夏，書院成。賜額‘陶山書院’。

62) 1572년(宣祖 5)

63) 1573년(宣祖 6). 花山本에는 [두주 ‘神宗’]이 있다.

64) 1574년(宣祖 7)

65) 1575년(宣祖 8)

○四年丙子.66)

二月丁丑, ㉓ 奉安位版於陶山書院, 行釋菜禮. 是日, 廬江書院亦奉安位版行祭. 【先是, 安東士人於洛江上流建書院. 在府治東三十里, 乃白蓮寺舊基, 名曰“廬江書院”. 前有樓曰“養浩”.】十二月, 贈諡曰“文純”. 【道德博聞曰“文”, 中正精粹曰“純”.】 67)

○二十四年丙申.68)

閏八月戊寅, ㉔ 埋誌石.

66) 1576년(宣祖 9)

67) ㉓ 〈諡號 教旨〉에는 退溪에게 시호를 내린 연월일이 ‘萬曆四年十一月初十日’, 곧 丙子年(1576년) 11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退溪先生年譜》에는 병자년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12월은 11월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68) 1596년(宣祖 29)

定本 退溪全書 四

退溪先生年譜 卷之三

附錄

言行總錄

先生天資穎悟，神彩精明，性幼端慤，不喜狎弄，長好學問，養以道義。故聰明正直，孝悌忠信，而精純溫粹，不露圭角，氣和而毅，辭婉而直，學博而要，行全而篤，清而不激，介而不矯，慕古而不滯，處世而不流。先生之於爲人，可謂幾乎美且大·安而成者矣。癯然若不勝衣，而進道之志堅如金石。邈然復出塵表，而操修之功著於日用。爵祿之榮，懼若坑塹之陷己，義理之眞，耽如芻豢之悅口。學已成矣，而汲汲乎如未能及，德已修矣，而謙謙然若無所得。古人所謂資稟既異而充養有道者，將非先生之謂歟？蓋先生生纔半歲，失其所怙，年未髫髻，已好讀書，雖無父師勸勉程督之勞，而日謹課誦，不敢少懈，應對拜跪，溫恭恪順。見者已知非常兒矣。稍長，讀《論語》·《小學》等書，益自警悟惕厲，言語動止，必以禮法，而尤篤於愛親敬長。雞鳴盥漱，

衣帶必飭，以省大夫人，怡聲下氣，婉容愉色，無或少失。至於昏定，亦如之。枕席之設，衣衾之斂，必身親爲之，未嘗委諸侍兒。與仲兄同居累年，仲兄年長數歲，而事之甚謹。嫂叔日夕相見，必致禮敬，多自遜避不敢當。大夫人嘗謂人曰：“人言子弟必待父兄之教，未必然也。吾於此兒，少無導養之方，未嘗見其不冠不帶箕踞偃臥之時”云云。蓋天性然也。既又博觀經傳，兼通性理諸書，已見大義於聖賢事業，存心服膺久矣。其群居，斂衽端坐，或觀書·或靜默以終日，未嘗爲閒話雜說。人皆敬畏之，雖有不檢者，亦皆斂躬自飭，無敢肆。弱冠游國庠，時經己卯之禍，士習日趨浮蕩。見先生所爲，人皆笑侮，先生不以易志，處之超然。雅意林壑，不求聞達。中因苦學，頗得羸悴之疾。且知俗情難與俯仰，自預司馬之選，無復榮進之意。逍遙泉石，菽水爲懽，若將終身。竟以家貧親老，黽勉就舉，以至顯途，而非其所樂也。乙巳之變，幾陷不測，既而棄官東歸，卜居退溪之上。世味益薄，而讀書求道之志則愈堅·愈確。在京，嘗得《朱子全書》，讀而喜之。自是閉門靜居，終日危坐，專精致志，俯讀仰思，要以真知實得爲務，而其信之篤悅之深，無異於耳承面受。由

是，所見日益精明，所造日益純固，於諸經微詞奧旨，如探淵採珠，入海觀龍，因其所已知，益致其精，推其所未盡，以達其餘，盤錯肯綮之處，悉皆爬梳剔抉，極深研幾，求之未得則或諮於人，得之於人則必求於心，昔所未解者，今悉融釋。下逮濂·洛諸書，更加沈潛玩索，優游涵泳，驗之於心，體之於身，而見之於行也。於是，世之稱薦者，或以書法之精，或以文章之妙，或以恬退，或以清白。其知之者，不過以爲明經·飭行之人而已。朝命屢掣，進退無恒，而先生一心向道，如水必東，如矢注的，如金百鍊，要於朴實頭做工，以求至乎大中至正之道，不但欲以一藝一行成名而已。平居日必早起，起必冠帶。坐則斂膝，立不跛倚，肩背竦直，視瞻端正，行步安徐，發言精審，無拘無迫，不肆不怠。完養積習，表裏融澈¹⁾，周旋進退，雍容中度，語默動靜，端詳閒泰，忿厲未見于詞氣，罵詈不形乎婢僕。至於飲食衣服，尤致節儉，人所不堪，安之若性。接物處事，則教子弟，慈而義，御家衆，嚴而惠，事長則不以貴老自怠，奉祭則不以筋力自惰。處宗族，必敦睦婣；待賓友，一以和敬。親疎貴賤，咸得其宜，吉凶慶吊，

1) 澈：庚本·擬本‘徹’

各稱其情。家至屢空，而未嘗求諸人，君有所賜，則必以分諸鄰。薄於自奉而厚於恤窮，簡於治產而密於持己。威儀容止之間，事物應接之際，無不各得其理。由是，鄉黨服其化，遠人慕其德，賢者樂其道，不賢者畏其義。凡有所爲，必曰：“先生以爲何如？”莫不諮稟而後行之。識與不識，咸曰退溪，而不以官稱之，蓋不敢以爵位爲先生榮也。樞衣請學之士，日以益衆，更進迭問，無不隨人淺深，從容啓迪，諄悉告諭。提撕誘掖，亹亹忘倦，一以開明心術，變化氣質爲先。其言則聖賢之訓，而其理則得之於心，其用則散於萬事，而其體則具於一身。故終日所論，不過乎孔·孟·曾·思·濂·洛·關·閩之書，而其出無窮，語益親切，不離乎窮理致知，反躬踐實。爲己謹獨之事，而擴而充之，則雖舉而措之國與天下，可也。由是，遠方之士聞風興起，百舍重趂而至。至於達官貴人，亦皆傾心向慕，多以講學飭己爲事。於是，經書有《訂議》，則凡俗學之膠固穿鑿者，參互考訂，以歸於正。《啓蒙》有《傳疑》，則凡諸家之分合異同者，旁通曲暢，以盡其蘊。晦翁既歿，枝派遂分，學者未必能守其傳，故理學有《通錄》，而學術有所統，一《朱書》雖存，編帙²⁾浩穰，讀者未必能

究其指趣，故刪節其《要語》，而聖學有所發端。至於《天命圖說》，則初因鄭處士之雲所撰，而參究濂溪·子思之說，改其誤·補其欠。凡人物之稟賦，理氣之化生，粲然如視諸掌，而靜養動察之功，寓於其中。是皆有以滌世俗之陋習，發聖賢之蘊奧，開後學之心目，而其見於尺牘答問之間者，明白切當，精微曲折，翫縷畢陳，有以洽服人心。至於中原道學之失傳，流而爲白沙之禪會，陽明之頗僻，則亦皆披根拔本，極言竭論，以斥其非，具見於《白沙詩教》·《陽明傳習錄》跋語。若吾東方，則非無志道向學之士，而或拘於象數之學，或昧於理氣之分，近者騰理於口舌之間，遠者馳心於窈冥之域，或聞道百，以爲莫己若者比比而然。其能博學·審問·精思·力踐，以求進乎斯道者，蓋難其人。先生每寤歎隱憂，以爲吾道之病。故其爲學也。先近小以及遠大，合精粗以兼內外，知行互進，動息交養，耐煩喫辛，日乾夕惕，而又不弛於嚮晦宴息之地，中夜以起，恒誦四子·《心經》等書，以自策勵。然先生蓋未嘗以是爲足以盡道也。虛心遜志，好問察邇。已未有得則捨而從人，言而中理則取善於己。物我相資，彼此交

2) 帙：庚本·擬本‘秩’

發，而成己·成物之道備矣。平生無書不讀，而不雜以浮華虛誕之文，無理不窮，而必歸於道德仁義之實。教人循循有序，而於大本·大原處，亦必指示無隱。蓋以學者雖不得不急於切近之工夫，亦不可不察於道體之高深也。然其爲說，皆切於受用，非如大軍游騎出遠無歸也。晚復留意《禮書》，討論遺傳，參酌時宜，以教學者，未及著爲成書。至於格物致知之說，則素排俗解之陋，已著其說，竟得高峯 奇明彦書，乃復研究，始悟前說之差，更爲定論以報，而先生已病矣。不能手書，只令子弟脫稿，以送於諸所嘗與論辨處。又於易簣前數日，猶令取所訂《心經附註》誤字處，送于東都，改正板本。噫！先生篤學一念，炳然如丹，之死不已，亦見於此矣。若其道德之高下，學問之淺深，非末學所敢與知，而信道之篤，好學之誠，不慍不悔不厭不倦，則雖曰晦翁之世適，可也。襟懷飄灑，韻度清越，每遇佳山麗水幽閒迥絕之處，則或攜壺獨往，或命侶俱遊，徜徉嘯詠，終日而歸，皆所以開豁心胸，疏濬精神，資養性情之一事，非偷閒玩景放意林泉之比也。至如詩章字畫之妙，特其餘事，而典雅研精，早有能聲。晚年所作則皆彫華剝彩，斂錐韜鋒，而沖澹健奧，端方縝密，如出

兩手，獲之者如靈龜拱壁然，亦可見所稟之厚，所養之深，而多能日進如此矣。晚構精舍於陶山，以爲頤神養性之所。其囂囂自得之趣，備見於自撰詩記中，非他人所能道也。又製《陶山四時吟》及《十二曲》，極言閒居味道無窮之樂，以寓其懷，蓋將以是自老。而明宗晚年，今上初政，眷注甚重，旌招沓至。先生瞿然如不自容，每一召命之下，一爵秩之陞，必披肝吐膽，引義據禮，以達其進受之難。朝廷諒其誠懇，或遞其官，或不任職，蓋以慰安其意而冀其必來也。先生亦以君臣義重，諭旨懇切，或到京師，而亦未嘗久留。蓋其一進一退一去一就，如權之稱輕重，如度之度長短，錙銖必察，不失尺寸，非俗人淺見所能盡知，而亦非可以易而論也。故嘗舉胡文定之語以告人曰：“人之出處語默，如寒溫飢飽，自知斟酌，不可決之於人，亦非人所能決也。”其於帝王格致誠正之學·聖賢懲窒遷改之方，則或因面對，或因啓劄，或爲圖或著說，毫分縷析於幾微之際，極本窮源於靜密之中。橫論豎說，丁寧懇到，無復餘蘊。至於文昭一議，請正太祖東向之位，定昭穆南北之序，庶幾因此復見三代宗廟位向之正，而卒未之行。其愛君憂國之心，雖閒居，未嘗一日而忘于懷。每聞朝

廷一政事之失，則憂形于色，一舉措之得，則喜見于言。晚年所慮，非止於此，深以輔養君德·清源正本，爲當今急務，每遇當世之賢士大夫，言之懇懇不已。蓋先生之於道義，敬之如神明，信之如蓍龜，用之如菽粟，服之如裘葛。故事苟得義，雖被人非笑，有不足恤。當其招之而不來，援之而不止，上自廷紳，下至韋布，無不疑其太執，而先生確然不易，唯義之從。故先生之所爲，世人固多不識，而其行則可以質諸古人而無愧者矣。故東人之望之也。如祥麟之在乎郊藪，儀鳳之翔于千仞，日星乎中天，砥柱乎奔流，泰山喬嶽之巍然也。然先生猶自謂以虛名取高爵，處江湖係朝籍，最爲平生之患。故既進則乞退，既退則請致。或陳情或自劾，無歲不然，而末年，援例上箋，三乞致仕而不得，則又於疾病之日，遺誠勿立碑，辭國葬，只以‘退陶晚隱’之號書於墓石，嗚呼！是先生平日意也。先生之學，學者雖多，而知者鮮矣。知者雖存，而得者尤寡，是以，能形容其德美者難矣。然先生之文俱在，後之善讀者，當於此求之，則亦知先生之心矣。先生之生，上距朱子之世，幾乎四百年，地之相距，亦幾乎萬餘里，而先生尙且讀其書，求其義，以達其道。後之人，若以先生學晦

翁之心，而求先生之學，則其至於道也不遠矣。噫！我東僻陋，士局見聞，上無以傳，下無所承，雖有作者，鮮克必至。求其學問之正大，義理之精深，工夫之至到，操履之堅確，潛心發憤，體道成德者，以穆所見，一人而已。山梁頽壤，吾道無托。嗚呼痛哉。

墓碣銘【先生自銘。高峯 奇大升叙其後。】

生而大癡，壯而多疾。中何嗜學，晚何叨爵？
學求猶邈，爵辭愈嬰。進行之跲，退藏之貞。
深慚國恩，宣畏聖言。有山嶷嶷，有水源源。
婆娑初服，脫略衆訕。我懷伊阻，我佩誰玩？
我思古人，實獲我心。寧知來世，不獲今兮。
憂中有樂，樂中有憂。乘化歸盡，復何求兮？

隆慶四年春，退溪先生年七十，再上箋乞致仕。不許。秋，又申乞致仕。不許。十二月辛丑，先生卒。訃聞，上震悼，命贈領議政，葬用議政禮。遠近聞之，無不齎咨歎惜，相與吊哭。明年三月壬午，葬家東塞芝山南支。先生姓李氏，諱滉，字景浩。嘗卜居退溪，因以自

號。後構書堂陶山，又號陶叟。其先，眞寶縣人。六世祖碩，起縣吏，中司馬試，贈密直使。有子曰子脩，官至判典儀寺事，討紅賊有功，封松安君，移居安東周村。高祖諱云侯，軍器寺副正，贈司僕寺正，妣淑人權氏。曾祖諱禎，善山都護府使，贈戶曹參判，妣貞夫人金氏。祖諱繼陽，成均進士，贈吏曹判書，移寓禮安，居溫溪里，妣貞夫人金氏。考諱埴，成均進士，累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妣義城金氏，春川朴氏，俱贈貞敬夫人。先生生未晬³⁾而孤，少受學于叔父松齋公。既長，劬書厲志，益自刻苦。嘉靖戊子，進士，甲午，登第，爲承文院副正字，轉博士，遷成均館典籍·戶曹佐郎。丁酉冬，丁內艱。服闋，拜弘文館修撰，歷司諫院正言·司憲府持平·刑曹正郎·弘文館副校理·校理兼世子侍講院文學·議政府檢詳，轉舍人·司憲府掌令·成均館司藝兼侍講院弼善·司諫院司諫·成均館司成，乞假展墓。明年甲辰春，以弘文館校理召還，除左弼善，遷弘文館應教·典翰，病免爲司饗院正，復授典翰。李芑啓請削官。已而，芑又請勿削，授司僕寺正。丙午春，乞假葬外舅，以病見遞。丁未秋，授應教，被召既至，

3) 晬：庚本‘晬’

病免。戊申正月，出守丹陽郡，換豐基。己酉冬，病辭徑歸，被劾奪二階。壬子夏，拜校理，承召還朝，除司憲府執義，改副應教，陞秩成均館大司成，病免。復爲大司成，爲刑曹參議·兵曹參議，俱以病免，爲僉知中樞府事。乙卯春，在告解職，雇舟東歸。拜僉知中樞，拜弘文館副提學，連被召命，皆辭以病。戊午秋，上疏乞免·收召，御批不許。入都謝恩，拜大司成，俄拜工曹參判，累辭不許。明年春，乞假歸鄉，三上狀請免，授同知中樞府事。乙丑夏，上狀陳懇，解官以居。冬，下旨特召，復授同知中樞。丙寅正月，力疾登道，陳狀乞骸，道拜工曹判書，又兼大提學，遂力辭新命，還家竢罪，遞授知中樞府事。丁卯春，以詔使將至有召命，六月，入都。會明宗昇遐，今上嗣服，拜禮曹判書。辭不許。以病免，卽東歸。十月，有召命，授知中樞，旋以教書促行，具疏力辭。戊辰正月，拜議政府右贊成，又具疏極陳難受之義，又下教書促行。上狀懇辭，遞爲判中樞府事。七月，詣闕謝辭，上疏陳〈六條〉，又獻《聖學十圖》，拜大提學·吏曹判書·右贊成，皆力辭不拜。己巳三月，上劄乞歸，劄四上猶不已。上知其不可留，引見慰諭，命馳驛護遣。是月，先生至家，上狀謝

恩，仍乞致仕。初，先生寢疾，戒子騫曰：“我死，該曹必循例請用禮葬。汝須稱遺令，陳疏固辭，且勿用碑石，只以小石題其前曰：‘退陶晚隱 眞城 李公之墓’，略叙世系行實于後，如《家禮》所云，可也。”又曰：“此事若托人爲之，相知如奇高峯，必張皇無實之事，以取笑於世，故常欲自述己志，先製銘文，而因循未畢，藏在亂稿中，搜得用之可也。”騫既受戒，再上疏辭禮葬，不得命，遂不敢更辭。墓道之表，用遺戒刻其銘。嗚呼！先生盛德大業卓冠吾東者，當世之人亦既知之矣。後之學者，觀於先生所論著，將必有感發默契焉者，而銘中所叙，尤足以想見其微意也。迂愚無狀，蒙先生獎厲成就，不啻如父母天地之恩，而山頽梁壞，無所依歸，竊念遺戒之言，雖不敢違，而所以揭阡詔後者，亦不可泯其迹，敢記其大概，而爲之辭曰：“先生幼而端序，長益涵揉，中歲以後，絕意外慕，專精講究，洞朗微妙，充積發越，人莫能測，而方且謙虛卑遜，若無所有。蓋其日新上達，有不能已者。至於出處去就，相時度義，務求吾心之所安，而終亦無所詘焉。其所論著，反復紆餘，光明俊偉，粹然一出於正，揆諸孔·孟·程·朱之言，其不合者寡矣。亦可謂“建諸天地而不悖，質諸鬼神而

無疑”也。嗚呼，至哉！先生再娶。先娶金海 許氏進士瓚之女，產二男。後娶安東 權氏奉事碩之女。俱贈貞敬夫人。子竄，奉化縣監，窆，早世。孫男三人，曰安道，辛酉生員。曰純道。曰詠道。女二人，長適士人朴櫬。側室子一人，曰寂。

墓識 奇大升

有明 朝鮮國故崇政大夫·判中樞府事兼知經筵·春秋館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退溪 李先生墓識。

先生諱滉，字景浩。居于禮安，系出眞寶。自少好學，不喜爲官。行年七十，考槃之寬。嗚呼！先生官雖高而不以自取，學雖力而不以自有。俛焉孜孜，庶幾無咎。視古先民，孰與先後？山可夷石可朽，吾知先生之名，與天地而並久。嗚呼！維衣與履兮，託在茲阜。千秋萬世，無或躡蹂也。

教書

丁卯十一月十六日 教書

王若曰：嗚呼！君臣之相遇，豈不難哉！賢者以道義自重，而不輕於用世，人君以祿位自尊，而不務於求賢，此其相遇之難也。若人君而有求賢之心，賢者而有用世之意，聚精會神，相得益章，則豈有難乎？予以沖幼，纂承祖宗丕緒，仰述先王之志，俯悼生靈之窮，思與賢者共成治教，夙夜不敢遑寧，惟以不得賢者爲懼焉。茲於經筵之上，聞卿道德之懿，學術之正，當今賢者，孰踰於卿乎？已諭卿斯速上來，以副求賢之誠矣。第念誠意未孚，恐卿以予爲尋常備召，而不屑於就，復有云云也。聞卿自盛年以來，不以爵位爲榮，常以退身求道爲志，此賢者之事也。聖人有言曰：“隱居以求其志，行義以達其道。”卿旣以隱居求志矣。今不可行義以達其道乎？抑卿之退居也，豈不以身之有病乎？時之多故乎？學之未盡乎？而卿閒居二十年，學已盡矣。予體先王遺教，稟慈聖至意，普施恩澤，有冤者伸，有才者用，

時將平矣。卿雖曰身有疾病，亦非沈綿牀席之證也。爲予強起，輔予以治，諭予以道，豈有不可能乎？卿若於此時，又執前日之說，以退爲義，則豈合於聖賢之道乎？世亦何賴於賢者，而賢者不必有益於天下國家也。且以前賢之已事觀之，宋哲宗元祐初，宣仁太后同聽政，用大臣薦，召河南處士程頤赴闕，以爲崇政殿說書。頤門人有勸頤不行者，頤曰：“食土之毛而爲王民，召而不至，邦有常憲。”寧宗卽位之初，召知潭州朱熹，爲煥章閣待制，門人請見曰：“上虛心以待，敢問其道何先？”熹曰：“以天子之命召藩臣，當不俟駕而往。吾知竭吾誠盡吾力耳。外此，非吾所能預計也。”二子傳聖人之統，其去就豈不然乎？惜乎宋之二主，求賢不誠，用賢不終。孔文仲醜詆之疏入，而程子有西監之除。韓侂胄優人之戲呈，而朱子有宮觀之逐。始焉求之如恐不及，終焉棄之如遺。二主之昏庸，不足責也。然於二子何病乎？予欲以二主爲戒，而庶幾用卿之有終，卿其以二子爲法，而納予以無過之地也。卿雖曰年老而有病，朱子之赴召也，年已六十五矣，而朱子自少時，常以疾病留落矣。豈至暮年，乃反無病乎？誠以義所當就，則不得不就也。予不欲勞卿以職事，卿在經席，以

輔台德，豈有終不可能乎？日者，卿承先王召命而來，纔到都下，適值先王賓天，卿亦以疾而遽歸。予在哀惶罔極之中，不知卿之歸也。後乃克知之。賢者去予，而予不知，予甚愧焉。予慕卿之道德，而卿不予顧，予甚懼焉。予以寡昧，嗣無疆大曆服，實有無疆之恤。當此發政之初，四方其必有觀之矣。卿若勉而一出，則四方之人必將曰：“吾君庶幾能用賢也。枯槁沈溺之士，亦有欲出而爲之用者矣。”卿苟不爲勉出，則四方之人亦將曰：“賢者不爲吾君出，安能大有爲乎云爾。”則卿之去就，非獨卿之一身爲重，而於國之隆替，豈不大關乎？卿在先王朝，屢被召命，而或不能來，先王至以“招賢不至”爲歎，是則先王之欲用卿，可知也。先王欲用卿而未及用，以遺予沖子，命卿起而輔予，以報先王之恩，則先王陟降之靈，豈不有大眷於卿。自古賢者，在一時人或不知，及其異世而相慕，亦無及焉。後之視今，猶今之視昔。昔之不能用賢，今以爲歎，安知後來者不以今日爲歎乎？卿其善飲食慎思慮，從容上道，以免霜露疾病之災，不至重予愧懼，可也。予方欲諭卿以此意，今見卿書狀，又以病辭，詳卿所陳，事亦然矣。然卿不可不爲予一起，以示予周行也。卿若務安氣體，

隨便上來，則何恙不已乎？嗚呼！卿庶幾一出，予日望之。卿其毋徒以退爲義也。嗚呼！予冲子有言，卿其欽哉！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館典翰奇大升行。】

戊辰四月初二日 教書

王若曰：“嗚呼！莫難於知賢可好，莫甚難於好賢有誠。有誠則士皆願立，而不仁者遠，不誠則近者不稽，而遠者不來。夫誠之不可掩如是。彼賢人者，顧亦何負於國哉？予以冲子，入纂大統，惟不克負荷是懼。諒闇之中，須有命令，經席之上，不替講讀。唯知急親賢之爲務，疇可與共天位治天職，以光我祖宗，以濟我生民？唯卿經術德義，爲士人所宗仰久矣。予聞之爛熟，亦可謂知其真可好者矣。雖其爵祿不入心，恬靜以養性，有若不可得而奪者，誠得致敬而盡禮焉，則庸有不動者，而幡然改圖，以共予天位天職，爲祖宗生民之寄，豈不賢於夢卜哉。於是，諭以予意，不一再而止。卿執前志不欲變。嗚呼！予之好卿，其亦末矣。何其宜起而莫之起，使予長抱如渴之懷而不可已也。嗚呼！君臣相遇，

自古以爲難，豈予好之之誠，有所未孚而爾歟。往者貳公之除，非因於左右，實出於予衷也。非以悅於卿，實協於輿情也。卿每以退爲義，以病爲勢，以媒爵爲嫌，以不學爲辭。卿意固然，予實疑之。仕止久速，聖人所以，不仕無義，厥有明訓。士之處世也，安得潔身而已乎？長往而已乎？揆之於今，非有將大有爲之君矣。未必無宣·仁之臨乎上，范·呂之處乎下，而賢人君子，亦安敢誣其不在列乎？卿不可見義則翩然而來，不合則脫然而去乎？不可樂則行之，憂則違之乎？嗚呼！臣鄰攸屬，常恐孔文仲之見欺，人才將興，豈恤蒲宗孟之不取。卽今春夏之交，風日妍暖，正病者蘇老者安之時也。卿年齡雖高，精力不衰，誠欲一出而相就，或輿·或輶·或駟·或舸，其勢無不可者，而道路觀聽，必有加額之望矣。況爵者，非求之可得也。學者，非己之可私也。予實諳焉。卿何疑爲？昔在先朝，屢被徵旨而辭，最後一命而至，豈不以獎進職重而製述官輕乎？然亦先王好賢之誠有以致之也。及先王賓天，卿遽以疾歸，而予莫之知，殆孟子所謂“昔者所進，今日不知其亡”者，予甚愧焉。予小子不誠於賢久矣。其不克致卿，宜也。卿獨不能推未報先王之盛心，以及予眇躬乎？卿意

一受人籠絡，便不得自由，殆不然矣，殆不然矣。魚水際會，千載一時。義苟不安矣。病苟不已矣。蓋亦浩然有歸志，夫孰能禦之？嗚呼！予自問安奉奠之外，惟務經筵，冀有以專精問學。比因災變，遽見撤簾，而萬幾之政，萃于一身，將焉有攸賴，彌不知所出。卿庶幾一顧，予日益望焉。予不敢勞卿以職事，以重卿病。雖卿疏出於惻怛，然皆非予所期於卿者，是可慨息也已。昔，登人謂“安石不出，當如蒼生何？”，而況不爲安石者，其如蒼生何？士林何？國家何？不宜過自菲薄，引喻失義，以孤蒼生·士林·國家之厚望。只得慎飲食，少思慮，補助醫藥以自持，從容上道，用副予如不及之誠。嗚呼！有感必有應，卿固有以繹之矣。故茲教示，想宜知悉。【弘文館直提學盧守愼行。】

祭文

遣承旨致祭文

維隆慶五年歲次辛未正月甲子朔十六日己卯，國王遣

臣承政院右承旨俞泓，諭祭于卒判中樞府事·贈領議政李滉之靈。惟卿稟資純粹，天挺英特。學求爲己，志存濟物，先立根基，自任進修。委質三朝，仕與學優。遂厭名韁，求道彌篤。難進易退，屢召旋乞。休養多年，益用其力。程·朱格言，鄒·魯微旨，研精覃思，自表究裏。養深積厚，充然自得。擔荷大事，遠紹絕學。雖未大施，表儀家國。屢進疏章，精衷惻怛。先后季年，眷愛尤隆。臥龍纔起，舜殿已空。耿光難覲，攀號莫追。旋歸故山，予罔聞知。思深側席，敢效卑辭，來對講筵，予幸得師。示予周行，言辭懇惻，上書論治，提綱挈目。建圖指學，闡幽明微。作聖經邦，初不外茲。警予顧諟，靜存動察。庶盡忠誨，以輔台德。論思未久，告歸斯切。寧不追綏，以馮以翼。第念卿意，厭入脩門。姑許素履，乃安丘園。追思今日，益愴予情。人之明道，世不常生。遠慕前賢，恨不同時。況今相遇，夫豈偶而？天授難留，是誰之咎？賢者出處，係於元后。招旌非禮，設醴亦愆。待不虛拘，用之必專。予誠未篤，致卿辭退。千載際會，一失難再。雲林遠隔，霖雨懸思。猶帶舊職，不許懇辭。庶幾復來，圖臻至治。天不慙遺，永違予懷。予悼鑑亡，士悲山頽。有屏環座，寓目增哀。嘉謨猶在，

德宇難回。贈爵崇禮，豈爲卿榮。惟遵厥訓，庶不負卿。懷允不忘，如對典刑。茲遣近臣，敢陳予誠。【吏曹佐郎吳健行。】

二十四日遣禮官【佐郎趙仁後】致祭文。

云云，惟卿受天間氣，爲世眞儒。上希孔·顏，下效程·朱。精思力踐，學以爲己。曰明曰誠，惟敬與義。兩進夾持，從事於是。念我東國，聖學久絕。名儒數家，雖或有作。學問之方，至卿更明。博而又約，庶幾大成。上接不傳，下啓群蒙。一洗固陋，爲道學宗。士有定向，人知致力。待後不渴，君子之澤。天篤生卿，將欲有爲。志蘊經濟，未及設施。斯文不幸，天意難知。早年筮仕，宦情如寄。辭退多時，在朝無幾。先后末年，求賢側席。卿來應召，遽見遏密。寡昧踐阼，翻然又起。蒼生屬望，士林注意。予倚爲重，求治方急。卿復辭疾，乞退彌切。皎皎白駒，邈焉難繫。兼善一世，卿豈無志。親賢乏誠，寔予之恥。然予所冀，庶復戾止。佑予寡躬，底治于美。天不憖遺，胡寧忍此。追惟經幄，面承忠告。經世大典，

傳心要法，爲予諄諄，言猶在耳。圖序古訓，一貫其旨。疏陳治道，條有十六。示予周行，望予體察。卿之忠愛，至此極矣。能自得師，予有所恃。頃在冬杪⁴⁾，聞卿病革。予心殷憂，庶可救藥。遣醫未幾，訃來亟且。梁折山頽，天實喪子。⁵⁾ 既令近侍，遙奠靈室。繼遣禮官，酌此洞酌。不昧者存，卿其來格。嗚呼哀哉！【弘文館修撰鄭琢行。】

祭退溪先生文 盧守愼

嗚呼！先生而至斯耶。至大之道，至正之學，至精之辭，至高之行，既不復得而見之。已而已而。慟矣慟矣。成就君德之器，誘掖人材之才，黜伯行王之術，難進易退之節，終豈復得而聞諸。已而已而。慟矣慟矣。如守愼者，蚤免葉尹之問，晚篤了翁之知。聯被西掖，資麗澤之多時，偕假東湖，受尋顧其幾夜。自論道講性之外，惟憂國愛士之誠。一敗塗地，萬事聽天。賞予不挫，勉予不止。白首歸來，復瞻德範。方且倚以稽疑，庶可從

4) 杪：甲本‘抄’

5) 子：甲本‘予’

而補過。何此計之不諧，遽此計之相及。已而已而。慟矣慟矣。一慟二慟三慟而止。天實爲之，謂之何哉。有老在堂，永失一臨，此懷惻惻，又復一慟。遙奠綿漬，尙克歆思。

又祭文 奇大升

嗚呼痛哉！梁木之壞而泰山之頽乎！吾復何以爲懷也？上悼斯文之墜地，下憐晚學之失依，曷爲不使我骨驚而魂飛也。嗚呼痛哉！粵在去歲仲冬之初，委拜一書，以問起居矣。俄於便中，獲奉惠書，至月十五日所裁，而託鄰邑子弟，轉寄以來。既警我以稜角之太露，又申之以時事之可虞。矧乎物格無極之訓釋，繳紛往反而不克合者，竟同歸而並趨。感幸之忱，慰滿之衷，言固不可以喻，而心亦不能以容也。以爲如此，雖未得陪杖屨而承謦欬，亦足以滌離愁而發愚蒙也。繼於是月之望，因李生 咸亨之伴，仰修一狀，以達區區之下情焉。逮夫賤伴之言旋，乃眷手翰以還答。始言憂患之煎迫，益致憊倦於應接。終言胸痰之暴起，挾以他證而呻伏。卒嘆請老之不遂，勉我久閒而靜學。私竊怪字畫之異昔，而未

始覺神氣之愆瘁。妄謂舊痾之偶動，當見勿藥而有喜。夫豈知其爲永訣之筆，而不復更承教指也耶？嗚呼痛哉！臘月二十日，適在錦城之西村，忽得李生之報，伏聞先生易簀於初八之昏。驚呼失聲，痛徹心膂，不自知此身之生而存也。併得令孫氏之書，乃知先生寢疾之詳。又知後來仰修之一狀，以先生疾而不遑披達於几案之傍也。茫茫天地，會晤無從。惟有畢餘生而遊地下，庶或有以接儀刑而躡遺蹤也。嗚呼痛哉！竊念頑鄙之資，實蒙誘掖之至。恩既深而義重，每用嚮往而不敢置，思欲乞郡於嶺外，儻得躬造於門牆。慨⁶⁾日月之逾邁，恒祝道體之壽康。何人事之不可期，遽承音於不祥。恒摧慕以永號，懷鬱鬱以增傷。緘辭千里，以寓一酌，悲不能悉我之情也。伏惟先生英靈⁷⁾之如在，尙冀有以鑑此微誠也。嗚呼痛哉！

又祭文 具鳳齡

恭惟道緒，邈乎淵源。一言授受，昭揭大原。洙·泗光

6) 慨：庚本·擬本·甲本에는 없다.

7) 英靈：庚本·擬本·甲本에는 없다.

聞，會之有元。遭秦不燼，逮宋而明。海東千載，粵有先生。賦質之純，稟氣之英。學自心得，不由師承。深思力踐，動準規繩。終乃大成，浩然其歸。表裏交正，動靜莫違。精金美玉，絕無瑕愆。冰壺秋月，炯出天然。喬嶽屹峙，瑞星澄輝。云胡不淑，而至於斯。嗚呼我邦，僻處裔陲。箕化已緬，文獻無聞。羅季入唐，始事藝文。松都蔚興，儒教彬彬。豪傑迭出，代不乏人。自茲以降，奮厲愈新。群賢濟濟，震耀光塵。顧惟嫡統，莫究似續？亦厄于時，有不施設。天相斯文，委有宗托。曷不遐壽，慘禍斯酷。嗚呼世遠，士多歧惑。高悟性命，絕廢文字，卑或沈淪，徒徇外志，認用爲體，疑眞誰晰？放言驚俗，闊無階級。涓流瀾漫，古今所惜。不有先覺，孰啓來學？灘澮之分，毫釐必析。瑤璞之混，纖芥必擇。反⁸⁾本窮原，捐華討實。車輪鳥翼，極精致一。赤幟一豎，不煩辭說。繼開之偉，昔賢同烈。嗚呼哀哉！誠正之學，敬義之功，充養純粹，積累從容。格君之忱，衛道之篤，明白的確，忠正懇切。進揚王庭，國有著龜，退講于家，人有宗師。今其已矣，慟哭何追。嗚呼哀哉！余以小生，晚窺門牆。治心之要，讀書之方，獎掖諄至，

8) 反：庚本‘及’

俾免榛棘。竊念鴛庸，質魯心塞，中年廢棄，沈痼乘之。榮名熏肺，又苦奔馳。至于今日，質質頑肉，庶收桑榆，以補黥劓。人事變遷，祇增哽咽。嗚呼哀哉！去歲冬初，祇謁溪居。德宇睟盎，神思晏如。笑語怡愉，心閒氣舒。指陳術業，言不暇餘。亦及時事，憫迫歔歔。曾幾日時，忽焉違隔。斯文之喪，斯道之擘。邦國之瘁，士林之戚。山頽梁毀，痛冤寧閔。嗚呼哀哉！方寢危苦，往拜于室。首言年齡，衰悴之端。眞元竭盡，暴疾遽干。次言平日，講會之難。感念疇昔，意何拳拳。豈知此言，而訣終天。儀刑永昧，後期何緣。潛思至此，五內摧煎。敬薦菲素，曷罄寸心。長呼⁹⁾一聲，冀賜昭臨。嗚呼哀哉！

又祭文 趙穆

恭惟先生，圭璋令質，銖寸積學。寤寐濂·洛，羹牆考亭。進道之誠，老而彌篤。達哲會聖，理融義精。既造高明，愈撝謙德。不已不止，任重道悠。山梁忽頽，安放安仰？穆生同縣邑，幼蒙提撕。朽質難雕，坐成自昧。知非四十，懷痛無窮。珍重至言，尙載簡牘。儀刑

9) 呼：庚本·擬本‘號’

雖隔，神鑑在茲。庶奉周旋，不負餘訓。單杯薄奠，豈足爲羞。聊展微辭，薦此衷曲。嗚呼痛哉。

又【成均館生員申漢·李純仁·李應虬，中學生李應進，東學生鄭純復，南學生閔宗彬等。】

猗歟先生，天資純靜。不由師承，早事誠敬。晦菴書中，惕然有悟。俯讀仰思，弗得弗措。紬繹四子，益加精力。晚而好易，玩心無斁。研深極微，理無不格。全體實踐，義精守約。優入道閬，謙若不足。望之可敬，充養外達。霽行潦止，聖賢爲則。身危道窮，自信愈篤。學子鼎來，講論不輟。士知向方，殆變舊學。道全德備，爲世矜式。昔我先王，待士有誠。念茲作人，爰擇老成。龜山雅望，允屬先生。左訓右箴，教告諄至。未克授室，旅病爲祟。所好不在，宦情如寄。陶山依舊，寓樂衡宇。婆娑丘林，歲月遲暮。眞積力久，造詣尤極。心傳河·洛，絕學復續。迨其季年，應召入城。滿朝注想，如待神明。〈六條〉草奏，剴切治道。《十圖》昭揭，開發妙奧。存誠講筵，庶幾啓沃。志與時違，懇乞骸骨。遲遲孤帆，江上三宿。歸來故居，竟遂初志。七進七退，以禮以義。

士夫高仰，指爲依歸。謂當暫惕，尋復召迫。誰謂一疾，乃訖于斯。士失宗師，國無著龜。吾道何托，嗟哉吾黨。一團和氣，永隔坐上。撫衣何日，更升塾堂。天之將喪，墜緒茫茫。我慟非私，惟道之孤。道路脩夙，末由齊趨。遠具菲薄，執事有恪。千里寓辭，敬奠一爵。感此哀誠，尙其昭假。¹⁰⁾ 嗚呼哀哉！

陶山書院奉安文 趙穆

恭惟先生，天挺英雋。圭璋令質，琢磨功深。寤寐洙·閩，羹牆孔·孟。粵自志學，以至從心。一念始終，典學無怠。不至不已，希聖希天。嗚呼先生，道尊德盛。著龜邦國，師表士林。百世聞風，尙知興起。矧茲覲德，誰無秉彝？惟是陶山，講道之所。孔之闕里，朱之考亭。俎豆不陳，吾黨之恥。載謀載度，經之營之。有恤其宮，有儼其位。罇爵淨潔，黍稷馨香。凡在駿奔，一心精白。尙其昭假，陟降在茲。惠以光明，啓佑我後。世世無斁，敬恭以承。

10) 假：甲本‘恪’

祝文

維萬曆某年歲次某甲子【春二秋八】月【某甲子】朔某日某甲子，某官姓名敢昭告于先師贈領議政文純公 退陶 李先生，心傳孔·孟，道紹閩·洛。集成大東，斯文準極。屬茲仲【春秋】，謹以清酌翰音，用申常薦。尚饗。

伊山書院奉安文

朴承任

大哉聖道，原出於天。群聖承緒，迭爲後先。孔集大成，孟後無傳。曠世周¹¹⁾·程，遠續絕絃。盛大流行，猶待大賢。卓哉考亭，啓後光前。斯道大明，天開日懸。德施斯普，覃及海堦。圃老獨詣，不幸隋顛。文運再昌，培植百年。四儒相繼，純篤精專。橫遭消剝，未克究宣。天未喪文，先生作焉。德器渾粹，襟量冲淵。早受《小學》，篤好斯偏。世方禁抑，一意不遷。根基既立，操履益虔。造次必是，夕惕朝乾。聖賢方策，熟復貫穿。推究義理，忘食鑽研。曰子曰史，傳記註箋。靡不涉獵，提要鉤玄。程朱遺書，語錄之編。來自中邦，始見其全。

11) 周：甲本‘朱’

公獨耽嗜，炙腴膾鮮。沈潛涵泳，鑽仰高堅。至樂在斯，富貴浮烟。脫然退舉，不受拘牽。退溪之岸，陶丘之巔。仁山智水，登陟泝沿。靜中深造，妙契魚鳶。義精仁熟，矩方規圓。至治久遏，民苦顛連。王鑑群情，夢卜登延。尺不可枉，竟秘陶甄。行藏卷舒，允合經權。楹奠遽兆，喬嶽崩騫。蒼生無祿，士林悲纏。遺澤所霑，泉達火燃。矧伊龜城，公有園田。弱齡遊學，玉潤珠聯。群居肅敬，動遵韋弦。師範一鄉，污染自湔。親炙既深，咸切慕羶。瞻彼伊山，翠虬蜿蜒。維谷有院，堂室靜便。厥初經營，實稟裁鐫。記之規之，曲示諄詮。卷懷言返，亦駐行轡。質疑屢滿，誘掖拳拳。學子受賜，盈懷蘭茝。教育之功，沒世愈綿。鄉賢祭社，香火聯翩。如公道德，前後誰肩？廟祀尊崇，吾無間然。顧惟末學，叨茲備員。仰止遺風，無路執鞭。適會斯役，敢不勉旃。維院之東，有址平平。大小歡趨，其成式遄。祠宇渠渠，畫¹²⁾棟朱椽。肅肅其堂，淨几新筵。揭虔妥靈，展也吉蠲。牲肥酒香，秩秩豆籩。有儼衿佩，登降周旋。洋洋如在，地中之泉。先生之心，秋月寒川。¹³⁾先生之學，《十圖》一篇。羹

12) 畫：庚本‘畫’

13) 川：庚本·擬本·甲本‘泉’

牆瞻慕，教化無邊。祇祀自今，其永無愆。

廬江書院奉安文 柳成龍

嗚呼先生，道崇德全。清純之質，獨得於天。精詣之學，妙契前賢。眞知力踐，懲窒遷改。會萬歸一，如水注海。帝悶吾東，日星昏衢。敷文闡教，大啓蒙愚。山梁旣頽，典刑未渝。民彝同好，四方雲趨。矧伊鄉邦，敢昧所尊。翼翼書堂，經始廬原。追惟過化，草木含馨。山高而峙，水流益清。遺風如在，盛德彌長。揭虔妥靈，時日孔良。青衿濟濟，群佩鏘鏘。神其來假，皦如茲觴。

埋誌告文 趙穆

維萬曆二十四年歲次丙申閏八月十四日戊寅，門生趙穆等敢以清酌庶羞，敬告于先師退陶 李先生之靈。噫！惟我先生厭世，今至二十有七年之久，而墓道之誌尙闕，良由時事之推遷，論議之靡一。茲以高峯 奇大升所撰文，謹刻而埋于壙南土之吉。猗歟先生，道德之藏，精

金鏐彩，美玉埋光。江英嶽靈，呵禁不祥。秋千世億，永保無疆。尙饗。

文集告成文

維萬曆二十八年歲次庚子五月十五日丁巳，門人趙穆等謹齊¹⁴⁾沐，敢昭告于先師退陶先生神位前。噫！恭惟我先生去世，于今三十年餘，而文集尚未刊行於世。壬辰以來倭賊之變，公私書籍，蕩盡於兵火之中，而幸賴天相斯文，神明護佑，遂得保全，無所散失。若不汲汲開刊以傳於世，則人心世道，終未知何如，而吾黨之罪，亦非輕矣。肆於己亥春，謹與諸同志，共議開刊。高山景行，好德所同。遠近大小，聞風興起。或送米豆，或輸布物。或送工人，以助其役。學子雲集，或書寫，或讎校，無不精審，率皆樂心興事，晨夜展力，乃於今五月日，訖功，遂藏其板於本院，俾遠近欲得是書而讀之者，任其自印，流布四達，則其傳之永久，從可知矣。流之廣而傳諸遠，則先生之道，庶可行乎？凡在觀聽者，咸以爲斯文之慶，莫大於是。故不敢不告。

14) 齊：庚本·擬本·甲本‘齋’

刻天淵臺告文

維萬曆二十九年歲次辛丑十月乙丑朔，門人趙穆等敢昭告于退陶先生之廟，猗歟我先生，得此山築此臺，而命之以“天淵”者，豈偶然哉？而弟子之今日鑿崖石銘此名，而留示無窮者，亦豈徒然哉？惟先生去世，于今三十年餘，庭草已蕪，而光風未泯，霽月凝輝。每一登臺而望焉，則鳶之飛而戾乎天，魚之躍而出乎淵者，依然固在也。感慨惆悵，徘徊而不釋者竟日，而況人事之推遷，世道之陞降，臺之廢興存亡，亦不可知，則後之人追先生之遺迹，欲知其處而未得者，安知其不如吾儕今日之懷，而或甚焉者乎？徘徊徬徨，感¹⁵⁾慨不歇，忽睹此崖石上茲三字者，昭揭江皋，輝映山門，則寧不爲之躍如也，若見當時鳶魚之趣者耶？茲以李相 山海所書‘天淵臺’三大字，刻于崖石。庶令千載之下來遊斯地者，其於思程所贊上下察也。活潑潑地，並與先生平日玩樂之意，舉眼斯得，則豈不有以開心目於指顧之間，明天理於既晦之餘乎？然則斯崖也斯石也。雖謂之目

15) 感：庚本·擬本‘憾’

擊道存，可也。噫！臺雖壞而石不轉，世雖變而名不泯。惟先生道德之昭著于上下，其天其淵，豈不遯¹⁶⁾歟，豈不遠哉！雖被世俗笑侮，有不足恤者。噫！惟先生在廟之靈，陟降庭止，敢不敬告以聞。

余觀古之聖賢立言垂訓，以牖後學，其功盛矣。然其傳之也必有待於後之人，而傳聞之與親見，其詳略又相懸矣。於是，往者日遠，來者日忘，幾何不至於泯焉而無所尋逐。嗚呼！其可悲也夫！萬曆己亥春，刻《退陶先生文集》於陶山書院。士殫工勤，越明年夏，告成。蓋去先生易簀三十一年而始就，其亦艱矣。一日，鳳城琴君 璵之自陶院來，見余河上，以年譜爲託。噫！予非知言者，何敢當此事，何敢當此事。顧有可諉者。念當時及門之人，彫謝殆盡，存者亦墓木拱矣。今不爲之，更後數十年，求先生謦欬音容於髣髴，猶不可得，況進乎此者乎？先生出處去就與夫立朝言論大致，有賢孫安道草記採摭，詳悉可據。其講學論道與門人知舊辨難往復者，有先生《文集》在，可以參考。毋亦依樣畫葫蘆，以待後世之君子而去取焉。兼且自忤於追慕先師之

16) 遯：甲本‘走+韋’

心爲宜乎。琴君曰：“然。”遂撥昏次輯成編，又以《言行錄》·《碣銘》·《墓識》等及《教書》·《祭文》，類次而附于後，俾來世得有考焉。觀者恕其僭妄，而補其疏舛，則是又余所望也。西厓 柳成龍謹跋。

定本 退溪全書 四

退溪先生年譜 附錄 卷之四¹⁾

宗廟配享時家廟致祭²⁾教文 【光海二年庚戌】

云云。喪畢三年，方修升祔之禮，澤流百世，宜舉從享之儀。茲遣奉版之官，用致引靈之奠，惟卿精思實踐，妙詣窮探。繼往開來，可見平生之用力，難進易退，無愧古人之處身。蔚爲百代之儒宗，遂作四方之師表。早膺中廟之眷，逮受孝陵之知。況在先朝，益荷異數。入侍經幄，責既重於賓師，擢爲貳公，誠固出於夢卜。初服登對，國是定而君德隆，一壑徑歸，吾道明而士習正。論道統則允矣海東朱子，論事功則賢於國朝諸儒。四十年韋布疏章，每請配於文廟，五百歲明良際會，先從祀於宗祊。待賢何間於存亡，揭虔將見其肸³⁾。庶幾依神於周栗，俾將侑坐於魯宮。嗚呼！乾淳典刑，河嶽精爽。在後人高山仰止，恨不同時，配先王宗廟享之，其克永世。故茲教示，想宜知悉。

1) 退溪先生年譜附錄卷之四：甲本‘賜祭文 追補’

2) 致祭：甲本‘賜祭’

3) 肸：甲本‘盼’

文廟從祀時家廟致祭⁴⁾教文【光海二年庚戌】

云云。嗚呼！我東雖僻小，文不墜地，道有所托。粵自殷父師之後，綿綿延延。羅時之藝文，麗季之遺風，彬彬可觀，而至於嫡統之傳，則文忠以後，繼之者無幾。惟卿德器純粹，襟量冲深。自其髫髻之年，已有任道之志。沈潛紫陽之書，平生得力，實在於此。從事誠明，絕其外慕。根基既立，操履益篤。洞朗微妙，發越光輝。遠究洙·泗之緒，近接洛·閩之派，而蔚然爲世之眞儒。士林始有依歸，而朝野倚之爲喬嶽矣。昔在先后之初年，應召命而來京。講筵三接，懇懇誠正之說，挽回一世，庶幾清明之理。《十圖》之規，開發前聖之妙奧，〈六條〉之疏，昭揭經邦之至要。眞斯文之宗匠，家國之著龜。肆予小子，纂承大業，實有無疆之恤。思卿之道德，而風采已邈然矣。慨其不得與同時，徒切寤寐之想。嗚呼！卿既不可作矣。念先后之際會，已配卿於太廟之享矣。日者，臺臣獻規，韋布陳疏，復有尊崇表章之請，可見人心秉彝好德所同，而其遺風餘烈，感人心目，愈久而愈甚。非卿之深造精詣，卓然爲東方百世之師者，

4) 致祭：甲本‘賜祭’

其能如此乎？昔，宋 理宗慕性理之學，興懷異代之賢，若周·若程·若朱·若張，悉尊尚之，並陞祀於文廟之庭。於是，士論歸一，道統益闡。南渡後甚盛舉也。卿之所得之蘊，實本於周·程·朱·張，而予之尊尚之舉，恐後於宋宗，予實愧焉。茲者吉蠲爲禮，從祀卿於泮廟，並與金·鄭·趙·李四賢而同陞之。新斯世之耳目，表吾道之正脈者，其孰大於此。乃遣禮官，馳祭於卿之家廟，並諭厥由，卿其欽哉。於戲！有其德者有其享，國家之報典當然，明斯道而倡來學，萬代之瞻仰彌新。故茲教示，想宜知悉。

陶山書院致祭文⁵⁾

萬曆四十二年甲寅【光海六年】十二月二十七日，遣禮曹佐郎任性之致祭。

云云。粵惟碩儒，踐履篤實，茲用從享，敢告先哲。【趙穆從享時。】

維歲次癸丑【英廟九年】十二月戊申朔十七日甲子，國王

5) 致祭文：甲本‘賜祭文’

遣臣弘文館副修撰鄭亨復，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李滉之靈。於皇列祖，敦教作人。彬彬儒碩，丕闡斯文。東南講道，益多名賢。巍然金·鄭，亦有文元。國人攸式，景行高山。集厥大成，乃得卿焉。猗卿盛德，金鍊玉純。淵涵造極，靜厚如坤。具茲衆美，功則百千。超然急流，志厭駟軒。兩朝虛佇，舟楫巨川。抱吾遺經，守道丘樊。從容其中，溯委逢原。紫陽全書，尤所仰鑽。邈矣千祀，所會者神。匪直嘉惠，寔惟素臣。四七微蘊，陳王糾紛。研思極辨，毫縷必分。反誠于身，動中方圓。醇粹積中，輝光著宣。逍遙玩樂，水智山仁。悠然浴詠，有秩童冠。時雨布化，功施無垠。人亡道在，日星中天。予懷典刑，寤寐靡諼。《十圖》要訣，〈六條〉劄陳。單心服膺，慨未同辰。尙賴彝訓，牖我烝民。鄒·魯舊邦，遺化尤敦。鄉黨孝悌，黌塾誦絃。親上好義，禮俗循循。兒知先師，戶讀遺編。里仁爲美，雖古有言。一方薰善，垂二百年。苟非至德，肌浹髓淪。流澤深遠，曷能斯臻。緬溯風烈，增予欽歎。睠彼仁祠，想卿盤旋。武夷 九曲，堯夫 百原。天雲活水，神韻則存。巖棲有軒，几硯無遷。灑落光霽，如覲座間。圖繪之命，故事式遵。齋香展禮，侔我邇班。春秋孔廡，匪缺精禋。惟茲洞酌，

特表忱虔。卿其顧享，啓佑彌勤。永樹人風，亘宙無涇。

【弘文館校理吳瑗行.】

維歲次丙子【英廟三十二年】正月己巳朔十八日丙戌，國王遣臣弘文館修撰李錫祥，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 李滉之靈。睠言先正，我東朱·程。卓矣邃學，展也大成。儒門嫡傳，性理淵源。際會揚廷，束帛賁園。晚契宣廟，禮隆賓師。或出或處，以義以時。堯·舜吾君，周·孔正道。臨歸睠係，揭圖申告。聖學次第，十條昭眎。迺推餘意，復有編次。上泝丹書，下逮宋儒。持敬大體，治心要符。擬供乙覽，丁寧致意。聖賢源流，旨約理備。篇纔絕筆，夢告奠楹。零落塵篋，二百餘齡。理豈終泯，事若有待。予有儒臣，寔卿遺裔。疏付冊子，謂言先志。盥手展玩，起予欽止。宛對典刑，如承緒餘。恨不同時，賴有此書。嗟歎不足，跋語親製。忍使湮沒，爰命鉸梓。⁶⁾ 緬彼陶山，一倍興思。俎豆之鄉，式刑之地。遙奠精禋，庸表此忱。不昧者存，庶冀格欽。【知製教鄭彥儒行.】

6) 鉸梓：甲本‘檟梓’

維歲次辛丑【正廟⁷⁾五年】五月二十二日，國王遣近侍臣承政院左承旨李養鼎，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 李滉·故參判趙穆之靈。維喬之南，淑氣磅礴。鍾得群賢，菀然閩·洛。允矣先正，拔萃出類。早世文垣，倒屈幡幟。斂華就實，性命天人。工由志篤，學因質純。曾省顏克，孔思周情。動遵矩矱，展也大成。穆陵好賢，待以賓師。丘園束帛，禮敦辭卑。田龍利見，將普厥施。道有屈伸，出處惟義。蒼珩赤芾，匪我思存。孤守東岡，獨寐寤言。文在考亭，左右逢原。毫分縷解，心潛四七。堯·舜吾君，夢繞丹闕。圖惟陳十，劄亦條六。聖主曰咨，眷遇彌篤。老去經綸，寄我松菊。道接千聖，化止一方。人薰鄒·魯，屋比鬢庠。不姓不號，曰吾先生。親上敬長，禮讓靡爭。百年議公，文廟躋禋。式于百世，牖我萬民。尚有典刑，俾予起欽。敬披遺集，悅對靈襟。陶山入望，繪素寄心。水流武夷，窩古安樂。巖壑不改，几琴如昔。緬想高風，恨不同時。爰命近臣，齋香潔酌。曠感之懷，庶幾歆格。【知製教徐有成行。】

7) 正廟：甲本‘今上’

家廟致祭文⁸⁾ 御製

維歲次乙巳【正廟⁹⁾九年】二月辛巳朔初八日戊子，國王遣臣禮曹正郎李載徽，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 李滉之靈。維嶠以南，淑氣磅礴。地關鄒·魯，俗比閩·洛。挺生大賢，丕闡吾道。資稟中正，志挽淳皞。程規朱範，海涵地負。羽儀王廷，玉佩瓊玖。卷懷陶山，左右墳籍。蘊發四七，功施千百。牖我昧蒙，時雨其化。四方仰德，一域親炙。家孝戶悌，塾誦黌絃。遺風起人，歸祠秩籩。予懷典刑，寤寐純儒。¹⁰⁾ 割玩〈六條〉，屏揭《十圖》。繪居寓慕，致酌興吁。於何得來，秉燭昏衢。伯兮聯芳，太常節惠。一門並峙，不顯亦世。事若俟今，感實曠昔。卿靈如水，庶歆洞酌。【因貞愍公宣謚，有是命。】

書院致祭文 御製

維歲次壬子【正廟十六年】三月二十四日，國王遣近侍臣

8) 致祭文：甲本‘賜祭文’

9) 正廟：甲本‘今上’

10) 儒：甲本‘濡’

內閣檢校直閣李晚秀，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 李滉·故參判趙穆之靈。大東元氣，養得眞儒。天人性命，孔·孟·程·朱。執厥繩尺，正我步趨。渾渾姿性，進進工夫。道不墜地，實在先生。穆陵側席，洞開邇英。丘園帛賁，夏鼐經橫。角巾南歸，介石之貞。惟陶有山，永矢衡泌。口餐杞菊，手披籤帙。味哉深造，毫縷四七。萬人山仰，一方泉達。青衿蹈矩，紅女知讓。仁人利博，太和肸蠁。縱有異端，載胥以誑。環嶠七十，一不迷向。是謂鄒·魯，繫誰之功？觸類伸長，如挹高風。几杖林壑，繪素之中。〈六條〉·《十圖》，請師我公。與配食故參判趙穆共饗之。

同月初三日 傳教

欲尊正學，宜尊先賢，以奉使行之，入其境。昨有致祭玉山書院之命，而更思行於玉山，不爲於陶山，其可乎哉！向來邪學之漸染也。惟嶠南人士，謹守先正正學，不撓不奪，不涅不污。自是以往，增我曠慕。方春廚傳，恐貽民弊。有意未免吝且，聞其道里不甚迂回。仍遣閣臣李晚秀，奉命回路，馳至禮安縣先正文純公 李滉書

院致祭。祭文製下，先令內閣，知委道臣處。道臣似在巡路，亦卽直關該邑，爲先正子孫及鄰邑人士之來參致祭者，預須會待，祭之日，閣臣坐典教堂，招諸生立於進道門內庭，以賫去書題揭示，各令應製，收捧試券，還朝日以啓。如是則小邑支應，爲弊必當不少，令廟堂申勅道伯，區劃穀物。【試士日，閣臣奉教并祭文，刊揭于典教堂。】

題先正退溪簡帖後 正廟御製

朱子見蔡君謨一帖，亟稱其字字有法度，如對正人端士。予於是帖亦云。雖然，帖凡八卷，而先正操存之密，講學之切與夫處已接物之方，辭受取予之節，大略具於尋常尺牘之間。其平日之所養，未始須臾離於敬義誠明之域，卽可知已。宜其茵蔯緹油，作程遐世。嚴如鄉黨之畫，寶若齋箴之畫，此則又豈君謨之帖所能幾及哉。抑予之厚幸於斯文者，則有之先正遠矣。近年以來，異端曲學，雜然競起，視名教無異笆籬，視綱維甚於贅疣。以放誕詭怪爲神奇，甚至所謂西洋之說，而其誣斯民惑斯世也滋多。特嶠南一隅，沐儒先之化，存鄒·魯

之風，相與危坐而稱之，正領而誦之者，無不經之篇，非聖之訓。予爲是興感，侔官侑爵於俎豆之所，而是帖出。或者天意以是帖，當一治之運，而先正之精神咳唾，猶可以衛道息邪於百餘年之久歟。仁人之利，亦云博哉。予安得不表章是帖，嘉與吾黨之士共守之也。遂書歸其後，并頒新印《三經》·《四子》書，俾多士知所尊閣而楷範焉。不曰聖人爲天口，賢人爲聖譯乎？出於此，則非吾所謂道也。時予御極之十有八年甲寅春，書。【壬子試士日，使臣李晚秀，奉可觀古蹟持來之教，取月川 趙公所粧師門手簡八帖賁進。至是，親題跋文于別帖，兼《三經》·《四子》新印本，付承旨李益運還下院藏。】

家廟致祭文

維歲次丙辰【正廟二十年】九月十三日，國王遣近侍臣右承旨金翰東，諭祭于贈領議政文純公 李滉之靈。考亭既遠，斯文復晦。王·陳亂苗，家鳴喙喙。道東不墜，於卿乎在。金玉程姿，錦褰孔誨。致誠惟曲，用心惟內。研幾積真，人一我倍。粹然有輝，沛乎無礙。浸漬醲郁，尊瞻艮背。恬風舒日，淳淵崇岱。集而成之，四賢折輩。

有來浚旄，載釋莘耒。民謠士歌，想望三代。曰我量能，禮恭而退。闡學圖炳，條割辭剗。謂報涓埃，功實鼎鼐。修辭牖蒙，遯而无悔。書節朱要，經辨墩俏。群髦丕變，炳蔚其采。聲施及蠻，洋溢灌溉。陶水泱泱，陶山巖巖。緒言遺帙，朝暮百載。取士卿鄉，流風未沫。繾綣卿裔，推其遺愛。愛之維何？銅符西佩。祠版過都，事曠難再。如將束帛，于垆延徠。春官表班，章甫成隊。藹藹濟濟，有儀可繪。嗟今之世，一何頽潰。異言孔脰，俗趨一態。鴻儒不作，斯道將廢。願治無臣，中朝屢慨。何處得來，予思如瘴。侔官奠誅，靈有不昧。【應教李明淵行。◎宗孫志淳以永柔縣令，奉祠版過都下，故有是命。】

書院致祭文

維崇禎百八十九年歲次丙子【純廟十六年】八月二十日，國王遣臣禮曹正郎洪祐燮，諭祭于先正臣文純公 李滉之靈。吾道之東，實在先正。承千載緒，際三朝盛。君民堯·舜，表裏朱·程。《十圖》眞工，〈六割〉深誠。洞貫天人，絲毛四七。天淵 節友，樂我衡泌。再闢昆侖，大啓斯文。及門私淑，嘉惠無垠。流風在後，士不

迷方。俗善鄒·魯，人關墨·楊。於我寧人，曠想采增。手帖題跋，試士賓興。書欲請師，道推先生。雲漢昭回，日星光晶。豈私嶺嶠，實契道的。大明煥然，螢燭自熄。遺書渡海，異俗知敬。卓哉先覺，功莫與併。予不同時，每興嗟惜。心存繼述，事係扶植。湖邪自戢，嶺俗無淆。繫誰之功？寔由薰陶。宰疏廟啓，前後申奏。乃循故事，爰命侔侑。遺居在繪，有覺其楹。歆此洞酌，惠我光明。【副修撰李鍾穆行。】

維歲次己亥【憲廟五年】十二月十三日，國王遣臣寧海府使崔命顯，諭祭于先正臣文純公李滉之靈。元氣之會，挺生大賢。尼山正脈，武夷嫡傳。默得心會，奮起方冊。天人性命，詩書禮樂。學有期的，進有階級。博約兩至，動靜交養。講究義理，積累涵泳。發揮事業，正大光明。王·陳亂道，異言喧騰。以書以辯，闢之廓如。人無異趨，遂歸于一。高山景行，四方信服。巖棲侍立，黃·蔡·游·楊。仁人利博，儒化苑興。鄉爲鄒·魯，戶誦家絃。黜功抑利，砭薄起頑。聖祖則哲，求賢如渴。招以賓師，丘園玉帛。欲報明時，時來羽儀。賜對邇英，聖意虛佇。老臣憂國，一念唐·虞。疏陳〈六條〉，屏

獻《十圖》。忠誠懇篤，庶究厥用。睠焉南嶠，志在退藏。碩人考槃，永矢無斁。天雲光影，鳶魚飛躍。灑然終老，邈焉難致。筵席累歎，畫圖起懷。後聖繼隆，眷注靡懈。春秋芬苾，後學寓慕。高弟賸食，維趙侍郎。宛其昔日，執經對床。藐予新服，寤寐圖治。有懷先正，恨不同時。陶岫峩峩，如見典型。世級漸降，洋說肆行。距詖放淫，孰任其功？勸予衿紳，正其趨向。道固不墜，文豈無徵？治急培養，事先表章。侔官侑酌，寓予昭誠。【知製教宋柱獻行。】

家廟致祭文

維歲次【哲廟五年】甲寅三月十八日，國王遣臣青松府使趙然天，致祭于故文純公李滉之靈。卓矣先正，元氣挺生。學究孔·顏，道紹朱·程。踐履貞積，渾然天成。博約之工，玉純金精。理氣之辨，毫察縷明。辭闢王·陳，吾道日星。士趨歸正，世級躋亨。繼開之功，夫孰與京？於皇聖祖，側席紆誠。園賁淺帛，郊予干旌。毗以經濟，羽儀明廷。堯君舜民，一心是呈。〈六條〉陳筓，《十圖》揭屏。懸車莫挽，矢我泌衡。難進易退，君子

之貞。軒靜巖栖，潭清濯纓。光影·天淵，此理無停。玉溪瑤琴，匪卿誰賡？纂要朱稿，附論眞經。嘉惠光明，成材育英。游·楊襟珮，鄒·魯庠饗。列聖相承，眷注靡輕。題跋簡帖，試士院局。顧予新服，畫末世並。楹歌已邈，曷寓典型？九曲溪山，畫裏崢嶸。一部遺書，案上縱橫。寤寐欽尚，發之衷情。眷茲澆俗，孰開幃幘？志功培養，表章是營。忝官致侑，不昧惟靈。

維歲次甲子【今上元年】十月初四日，國王遣臣地方官禮安縣監李有謙，致祭于先正臣文純公李滉之靈。元氣之會，篤生先正。光明發越，渾厚淵靜。不由師承，直接閩·洛。敬爲本領，會萬歸一。陸·陳辭闢，河·洛圖炳。理融義精，道尊德盛。從容墳典，地負海涵。眞知實踐，獨詣窮探。群髦蔚然，獎勵誘掖。抽關啓鍵，準我繩尺。兩朝眷遇，待以賓師。旋招沓至，側席翹思。邇英賜對，玉漏回闌。豐豐見誠，眷眷責難。格致誠正，治謨政法。堯·舜君民，一念啓沃。六進六退，以禮以義。睠彼陶山，于洛之坻。水流洙·泗，峯秀武夷。天淵·光影，羽鱗飛躍。俯仰妙契，襟懷澄澈。幽居上聞，畫圖寄意。晚復應召，爲答隆畀。〈六條〉·《十圖》，

是臣所學。引年請骸，辭懇意切。遲遲孤帆，江上三宿。
非爲果忘，自有所守。祥麟儀鳳，一去難復。後千百禩，
功在繼開。緒言遺帙，魯論朱書。昏衢曙日，迷途南車。
屢朝賜侑，寔出曠慕。以迪彝教，以衛吾道。矧予初服，
志切象賢。侔官展禮，祠廟隔晨。匪直古事，風教攸先。
公其顧歆，惠我來人。

定本 退溪全書 四

退溪先生年譜補遺

解題

《退溪先生年譜補遺》는 3종의 異本, 즉 上溪本, 下溪本, 白洲本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上溪本은 1807년 李野淳이 上溪 종택에 납본한 淨稿本으로 상·하 2책 전 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下溪本은 上溪本의 초고본으로 분권 없는 2책이며, 白洲本은 下溪本을 脫草한 것이다.

上溪本은 상계 종택의 광명실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한편 下溪本은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으며, 白洲本은 啓明漢文學硏究會編 《退溪學文獻全集》(제19책)에 수록되어 있다. 上溪本은 체제가 잡혀 있고 白洲本에 비해 내용도 추가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上溪本에는 후인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 보충한 내용을 기록한 付標(부전지)가 150곳 정도 붙어 있다. 이에 비해 白洲本은 탈초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제 또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3종의 異本 중 上溪本이 가장 善本이라고 할 수 있다.

凡例

1. 基準本과 對校本

《退溪先生年譜補遺》에는 다음과 같이 3종의 異本이 존재한다.

<筆寫本>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陶山書院(國學振興院 委託) 소장본.

《退溪先生年譜補遺》，下溪本，소재 불명.

《退溪先生年譜補遺》，白洲本，《退溪學文獻全集》 제19책 (啓明漢文學研究會 研究資料叢書 II) 수록본.

기준본은 추기 내용이 많고 가장 善本인 上溪本으로 하고, 白洲本을 참고본으로 삼는다. 上溪本과 白洲本은 내용상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자료의 성격상 두 본을 일반 교감방식에 따라 축자적으로 교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上溪本을 기준본으로 하고 白洲本의 내용을 참조하여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한편 鄭錫胎 篇, 《退溪先生年表月日條錄》(退溪學研究院)은 퇴계 연보와 관련하여 최근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이다. 따라서 기존 연보 내용과 대조하여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각주에 밝힘으로써 독자가 관련 사실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 定本の 構成

1) 題目

基準本(上溪本)의 제목을 표시한다. 異本の 表題가 基準本과 차이가 있는 경우 校勘記를 달아 이본의 표제 전체를 표시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本文

- (1) 《退溪先生年譜補遺》 해당 年月條의 本文을 기록한다.
- (2) 원래의 본문 전체를 수록한다.
- (3) 附箋紙나 追記, 頭註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감기에 내용을 반영한다.
- (4) 본문의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문자 처리 관련 범례를 따른다.
- (5) 避諱하여 ‘泚’을 ‘某’라 한 것 등은 퇴계 자신이 避諱한 것이 아니면 避諱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렸으며, 퇴계 자신이 避諱한 것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註釋을 통해 밝힌다. 임금 등을 높이기 위해 한 자를 띄운 것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 (6) 諸 版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注 번호를 달고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하여 脚註의 형태로 배치한다. 校勘記 작성 범례는 아래를 참고.
- (7)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표점 범례를 참고.
- (8) 原註(口訣을 포함해서)에 해당되는 내용은 ‘【 】’ 안에 기록하되 행수는 원문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반 본문과 같이 단행으로 표기한다.
- (9) 목판본 《退溪先生年譜》에서 인용한 내용은 그 앞에 굵은 글씨로 ‘(譜)’라고 표시한다.
- (10) 연보 보유 각 年度의 첫머리에는 ‘○’를 붙여 구분하기 쉽게 하고,

凡例

원래 본문 내부에 사용된 ‘○’는 ‘◎’로 바꾸어 표시한다.

(11)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된 글자

3) 校勘記

基準本과 異本(參考本) 사이의 異同사항을 표시한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2) 校勘記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을 찍은 후 白洲本の 내용을 기록한다.

(3) 基準本과 參考本の 글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 版本의 표제를 쓰고 그 다음에 해당 글자를 인용(‘ ’) 표시를 해서 밝힌다. 또한 출입이 있는 경우는,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그 대신 ‘ ’가 있다’,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예1) 卽：白洲本 ‘節’

예2) 涼：白洲本에는 뒤에 ‘遊’가 있다.

(4) 기준본이나 참고본의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하며, 그 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가], [두주], [부전지]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추가’는 臺本 혹은 附箋紙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경우,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상란 등의 주석 기록의 경우에 사용한다.

(5) 參考本の 글자가 誤字, 變形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校勘記를 달지 않는다. 다만 교감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경우라도 校勘記를 달 수 있다.

(6) 參考本の 글자가 通用字인 경우는 校勘記를 단다.

(7)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8) 자료 성격상 독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문의 干支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1703년(肅宗 29)’의 형식으로 연대표기를 교감주로 제시한다.

(9) 《月日條錄》과 대조하여 校勘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서 설명하고 그 앞에 ‘[]’이라고 표시한다.

(10)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凡例

3.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4. 標點

1)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가한다.

2) 상세 표점은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및 홑낫표(《 》, < >), 주석 표시([] , []), 밑줄(), 쌍점(:), 쌍반점(;) 등 14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하며, 각

저작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부호를 첨가할 수 있다.

3) 제목과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4)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凡例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쉼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

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와 후대의 주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는 ‘【 】’로, 후자는 ‘[]’로 표시한다.

(9) 밑줄()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

凡例

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目錄

目錄

退溪先生年譜補遺 凡例	1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一	3
○弘治十四年【燕山君七年】辛酉	3
○十五年壬戌【先生二歲】	4
○十六年癸亥【先生三歲】	4
○十七年甲子【先生四歲】	4
○十八年乙丑【先生五歲】	4
○正德元年【中宗大王元年】丙寅【先生六歲】	4
○二年丁卯【先生七歲】	5
○三年戊辰【先生八歲】	5
○四年己巳【先生九歲】	5
○五年庚午【先生十歲】	6
○六年辛未【先生十一歲】	6
○七年壬申【先生十二歲】	6
○八年癸酉【先生十三歲】	7
○九年甲戌【先生十四歲】	7
○十年乙亥【先生十五歲】	7
○十一年丙子【先生十六歲】	8
○十二年丁丑【先生十七歲】	9
○十三年戊寅【先生十八歲】	12
○十四年己卯【先生十九歲】	13

○十五年庚辰【先生二十歲】	14
○十六年辛巳【先生二十一歲】	15
○嘉靖元年壬午【先生二十二歲】	15
○二年癸未【先生二十三歲】	15
○三年甲申【先生二十四歲】	17
○四年乙酉【先生二十五歲】	17
○五年丙戌【先生二十六歲】	17
○六年丁亥【先生二十七歲】	18
○七年戊子【先生二十八歲】	18
○八年己丑【先生二十九歲】	19
○九年庚寅【先生三十歲】	19
○十年辛卯【先生三十一歲】	19
○十一年壬辰【先生三十二歲】	20
○十二年癸巳【先生三十三歲】	20
○十三年甲午【先生三十四歲】	22
○十四年乙未【先生三十五歲】	23
○十五年丙申【先生三十六歲】	23
○十六年丁酉【先生三十七歲】	24
○十七年戊戌【先生三十八歲】	25
○十八年己亥【先生三十九歲】	25
○十九年庚子【先生四十歲】	25
○二十年辛丑【先生四十一歲】	27
○二十一年壬寅【先生四十二歲】	31
○二十二年癸卯【先生四十三歲】	34
○二十三年甲辰【先生四十四歲】	37
○二十四年【仁宗大王元年】乙巳【先生四十五歲】	40
○二十五年【明宗大王元年】丙午【先生四十六歲】	47
○二十六年丁未【先生四十七歲】	50

目錄

○二十七年戊申【先生四十八歲】	55
○二十八年己酉【先生四十九歲】	58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二	65
○二十九年庚戌【先生五十歲】	65
○三十年辛亥【先生五十一歲】	71
○三十一年壬子【先生五十二歲】	69
○三十二年癸丑【先生五十三歲】	72
○三十三年甲寅【先生五十四歲】	77
○三十四年乙卯【先生五十五歲】	80
○三十五年丙辰【先生五十六歲】	86
○三十六年丁巳【先生五十七歲】	89
○三十七年戊午【先生五十八歲】	92
○三十八年己未【先生五十九歲】	97
○三十九年庚申【先生六十歲】	101
○四十年辛酉【先生六十一歲】	104
○四十一年壬戌【先生六十二歲】	108
○四十二年癸亥【先生六十三歲】	110
○四十三年甲子【先生六十四歲】	117
○四十四年乙丑【先生六十五歲】	122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三	133
○四十五年丙寅【先生六十六歲】	133
○隆慶元年丁卯【先生六十七歲】	142

定本 退溪全書 四

○二年【宣祖大王元年】戊辰【先生六十八歲】	151
○三年己巳【先生六十九歲】	167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四 179

○四年庚午【先生七十歲】	179
○五年辛未	199
○萬曆元年癸酉	202
○四年丙子	202
○五年丁丑	206
○二十四年丙申	207
○二十八年庚子	208
○二十九年辛丑	211
○四十八年庚戌【光海二年】	211
○四十二年甲寅	216
○英宗大王九年癸丑	217
○三十二年丙子	217
○正宗大王五年辛丑	217
○九年乙巳	217
○十六年壬子	217
○十八年甲寅	220
○二十年丙辰	221
書先祖退溪先生年譜補遺後	223

退溪先生年譜補遺 凡例

一．先生《年譜》，行於世已久而凡所載猶恐有闕．今謹依西厓 柳文忠公之意，更有續輯而名曰‘補遺’．

一．《朱子年譜》，有原·別二本，所謂別本，出於後來添補，而就原本合成一書者也．今不敢輒依此例，而只別爲一件，以備參考．

一．其已見於《年譜》者，不必疊牀．然或有當補，或偶失照管者，則方於懸錄之際，依譜立目，而輒首加譜字，使類例不混而覽者易別．

一．據先生文集·逸集·雜錄·手本及日記·來歷·草記等書以補之，又就諸賢遺稿而間有採入．

一．凡補中所引先生詩文，其不載文集·續集者，則輒曰‘逸集’¹⁾，又或曰‘見逸於文集’．

一．先生筵榻登對，概見於《年譜》，而尚有全文之不收，又或節錄而見遺．竊恐此非尋常言句之比，均出於勸講納誨密勿懇惻之誠者，故毋論其義理之精粗疏密，亦皆收輯以補．

1) 逸集：[부진지 ‘逸集’改‘全書’，何如? 凡篇內諸文，更加商考.]가 있다.

一. 又補中所引，若出於《言行錄》者，則此是門下諸賢所記，有難一一識別，不舉其名號.²⁾

一. 《朱子年譜》，有曰：“凡載書成，皆以序文歲月爲定.” 今依此例凡，年譜所載歲月之偶失者，則逐處輒註其下.

2) 又補中……其名號：[부전지 凡出《言行錄》等書者，必一一識別，以自別於按字，似好.]가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一

○弘治十四年【燕山君七年】辛酉

(譜) 十一月二十五日己亥【辰時】，先生生于禮安縣 溫溪里第。

溫溪里第，實判書公所築老松亭也。在溫溪之東龍山之陽。《判書公遺事》所謂“有一僧，指示宅基曰‘居此當生貴子’”者，卽此地也。母夫人夢見孔子臨門，而生先生。小名瑞鴻。【胎室至今猶傳。】額角豐廣，叔父松齋公奇愛之，常呼爲廣額而不名焉。號退溪，晚號陶山·眞逸，又曰退陶。¹⁾【先生自溫溪屢遷其居。初卜築暘谷堂則曰靈芝山人。及丙午，假寓兎溪²⁾之東巖，始曰退溪。³⁾丁未，遷于竹洞，曰竹洞棲澗病翁，或棲澗病叟。擬居紫霞峯時，曰翠屏居士。庚戌，定居溪上後，曰退溪老人，或溪翁，或溪上病叟。又嘗以清涼爲吾家山，而曰清涼山人，築書堂于陶山後，曰陶山眞逸，或陶翁，或山老，或山主老病畸人，或陶山病逸叟。乙丑，蒙恩許退，則曰退溪陶山老病閒人，曰眞城野老。⁴⁾隨處，輒隨意異標，而遺戒題墓，則命以退陶晚隱焉。】⁵⁾ 姓諱字外，又有三個印章，一曰‘日日新’，一

1) 號退溪……退陶：[부전지 ‘號退陶’止‘退陶’字，刪何如?]가 있다.

2) 兎溪：白洲本 ‘退溪’

3) 退溪가 ‘退溪’라는 호를 사용한 것은 甲辰年(1544년, 44세) 3월 23일 이전이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丙午年(1546년, 46세) 兎溪의 東巖에 살면서부터 ‘退溪’라는 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오류이다.

4) 白洲本에는 ‘又白叟【己巳】’라는 기록이 더 있다.

曰‘靜心高明’，一曰‘萬卷生涯’.⁶⁾

○十五年壬戌【先生二歲】

(譜) 六月, ㉓ 贊成公卒.

贊成公, 天順癸未生. 至是, 享年僅四十.⁷⁾ 後建啓賢
祠於溫溪落帽峯下.⁸⁾ ◎高峯 奇大升撰墓銘.⁹⁾

○十六年癸亥【先生三歲】

○十七年甲子【先生四歲】

○十八年乙丑【先生五歲】

○正德元年【中宗大王元年】丙寅【先生六歲】

(譜) 始知讀書.

5) 先生自……晚隱焉：[부전지 小注移下庚午.]가 있다.

6) 姓諱字……卷生涯：[부전지 ‘姓諱’止‘生涯’, 聯上小注下, 何如?]가 있다.

7) 至是享年僅四十：[부전지 ‘至’·‘是’·‘僅’三字, 刪.]가 있다.

8) 後建……峯下：[부전지 ‘最初, 本建祠于溫溪里之東’, 似好.]가 있다.

9) 高峯……墓銘：[부전지 ‘高峯’云云小注, 移入‘四十’下, 何如?]가 있다.

不待讀《小學》書，已知灑掃之節·孝弟之道.¹⁰⁾

○二年丁卯【先生七歲】

好書，聞長者言，輒不忘.

時松齋公牧晉陽，仲兄及四兄從之.¹¹⁾ 先生恨其遠離，往往發於言辭，母夫人曰：“人子當讀書進業，汝兄輩爲此而往，何必苦憶爲也?” 先生自此益請業不懈.¹²⁾

○三年戊辰【先生八歲】

(譜) 對尊長，不敢有惰容.

見兄嫂，雖一日屢見，必起避致敬. 母夫人曰：“此兒，不待教而能之.”

○四年己巳【先生九歲】

年未齠齔，已志於道.¹³⁾

10) 不待讀……之道：[부전지 ‘不待’云云此等處，當詳所自出，如《言行錄》等.]이 있다.

11) 時松……從之：[부전지 別集〈靑谷寺詩〉序，三兄亦從之.【‘兄’下恐當書‘弟.’】]가 있다.

12) 時松……不懈：[부전지 刪之何如?]가 있다.

13) 年未……於道：[부전지 當詳出處.]가 있다.

○五年庚午【先生十歲】

○六年辛未【先生十一歲】

遊溪¹⁴⁾石。

溫溪下流，有盤石臨溪。松齋公，以江原監司來觀，出遊溪石上，先生亦陪遊，後因名其石曰清吟，蓋取松齋詩語也。【先生次松齋詩韻云：“總角陪遊地，吟魂去不回。惟餘溪響石，似欲慰重來。”】

○七年壬申【先生十二歲】

(譜) 受《論語》于叔父松齋公。

先生嘗言：“吾十二歲，受《論語》于叔父，嚴立課程，不使遊¹⁵⁾泛。某承教惕厲¹⁶⁾，未嘗少懈。既得新知，又必溫故，一卷既畢，通誦一卷，二卷既畢，亦通誦二卷，若此之久，漸與初學不同。讀至三四卷，間自有通解處矣。”◎又言：“叔父教督甚嚴，不假辭色。嘗背誦《論語》兼集註，自初章至終篇，不差一

14) 溪：白洲本‘盤’

15) 遊：白洲本‘悠’

16) 厲：白洲本‘勵’

字，而亦無獎許之言。余之不忘於學，皆叔父教督之力也。【自讀是書，立志不群。積習既久，自然心與理會，習與性成，益自警悟惕厲，言語動止，必以禮法。】¹⁷⁾

○八年癸酉【先生十三歲】

○九年甲戌【先生十四歲】

(譜) 好讀書。

先生兒時，有手書一卷，始於字會，終於河洛疇數，天人理一之妙，其在幼少，已留意於探源尋緒，有如此。◎自少時，書字必楷正，雖傳抄科文雜書，鮮有胡寫。

(譜) 愛淵明詩，慕其爲人。

後先生題栗里歸耕詩，“餓死首陽無乃隘，南山佳氣更超然。”【先生爲詩，清嚴簡淡，少嘗樂觀陶·杜詩。】

○十年乙亥【先生十五歲】

有〈石蟹〉詠。¹⁸⁾

17) 自讀……禮法：[부진지] 小注，若有出處，當大書，不然，刪之何如?가 있다.

“負石穿沙自有家， 前行却走足徧多。 生涯一掬山泉裏， 不問江湖水幾何。” 隱居自樂之意， 已兆於此。¹⁹⁾
春，讀書清涼山寺。

松齋遊山， 寓上清涼菴， 先生往從。【先生〈題周景遊清涼²⁰⁾錄跋〉有曰：“某少小從父兄， 負笈簪， 往來讀書於此山， 不知其幾。” 正謂此也。 後乙卯， 先生〈遊清涼示諸姪孫〉詩，“清涼寺裏憶陪遊， 卅角如今雪滿頭。” 又汝輩， 他年知我感， 當時同汝少年身。 ◎先生寓山寺， 雖夜深便旋之際， 獨出寺外， 絕無驚懼意， 寺僧咸異之。 後門人問果有是事否， 先生曰：“然。” 曰：“可見自少時心定理明處。” 先生曰：“此是少年事， 雖無他懼， 獨不念惡獸乎？”】

冬，隨松齋公于安東。

時， 松齋莅官， 爲親設壽席， 有歌妓， 能唱〈漁父詞〉。 先生喜聞， 而錄得其概， 其在少日， 已知有江湖之樂者， 如此。 ◎先生嘗曰：“少時， 從叔父松齋公于永嘉， 一日與人， 遊獵于野， 醉而墜馬。 醒來， 痛自克責， 警省之心， 未嘗暫忘。 到今思之， 惕然若前日事。”

○十一年丙子【先生十六歲】

18) 詠：白洲本 ‘詩’

19) 隱居……於此：[부진지 ‘隱’以下, 刪之如何?]가 있다.

20) 涼：白洲本에는 뒤에 ‘遊’가 있다.

春，讀書于安東鳳停寺。從弟壽苓及貢生權敏義·姜翰從。【詳見文集〈鳴玉臺詩序〉】²¹⁾

○十二年丁丑【先生十七歲】

㉒ 慕齋金先生【安國】歷見。

慕齋與贊成公兄弟善。至是，按節本道，過溫溪，招見貞愍公及先生，不覺驚喜。字贊成公曰：“某不死，某不死，厚齋書糧，使之攻業山寺。”²²⁾

志學刻苦有疾。

先生云：“某年十七八，鄉無先進，無從問學，只管讀古書而求其實心有走作，一意持守，或夜半起寢，危坐操存，日日如此。極用心力，反生心疾，幾至失性，多般調治，以此盛年，全不講讀。至衰年，見得聖道分明，僅收桑榆之景，然亦不能專一致力。”◎又曰：“余自少，雖志於學，而未知入頭下工處，枉費心思，探索不置，或終夜靜坐，未嘗就寢，仍得心恙，廢學者累年。若果得師友，指示迷途²³⁾，則豈至枉用心力，老而無得乎？”◎又曰：“吾少時有志此學，終日不

21) 十一年……詩序：白洲本에는 없다.

22) 慕齋金……山寺：[부전지 此條恐從《松齋集》.]가 있다.

23) 途：白洲本 ‘塗’

輟，終夜不寐，遂得痼疾，迄未免病廢之人。學者，須量其氣力，當寢而寢，當起而起，隨時隨處，觀省體驗，不使此心放逸而已。何必如此以至生病乎？拘迫則難久能敬，而不至拘迫，使虛閒之體常存，則無害而日新。”〈夙興夜寐箴〉云：“讀書之餘，間以游泳，發舒精神，休養情性，此可爲法。²⁴⁾”◎後答南時甫書曰：“心氣之患，某平生²⁵⁾病源，皆在於此，今則不至如前，而他病已甚，年老故爾。如公青年盛氣，苟亟改其初，攝養有道，何終苦之有？²⁶⁾大抵公爲學，窮理太涉於幽深玄妙，力行未免於矜持緊急，強探助長，病根已成，豈不可慮哉？其治藥之方，第一須先，將世間窮通得失榮辱利害，一切置之度外，不以累於靈臺，既辦得此心，則所患蓋已五七分休歇矣。如是而凡日用之間，少酬酢²⁷⁾，節嗜慾²⁸⁾，虛閒恬愉以消遣，至如²⁹⁾圖書花草之玩，溪山魚鳥之樂，苟可以娛意適情者，不厭其常接，使心氣常在順境中，無

24) 此可爲法：白洲本‘此爲可法’

25) 生：白洲本‘日’

26) 有：白洲本에는 뒤에 ‘哉’가 있다.

27) 酢：白洲本‘酌’

28) 慾：白洲本‘欲’

29) 如：白洲本‘於’

拂亂以生嗔恚，是爲要法。看書，勿至勞心，切忌多看，但隨意而悅其味。窮理，須就日用³⁰⁾平易明白處，看破教熟，優遊涵泳於其所已知。惟非著意非不著意之間，照管勿忘，積之之久，自然融會有得，尤不可執捉制縛，以取其速驗也。”◎答鄭子中書曰：“心氣之患，某乃曾傷於虎，前已屢進藥說，不須更加許多強探索，許多閒安排。所謂操存省察工夫，權且勿上念，只看日用平常明白處，寬著意思，游泳其間，虛閒恬愉以自養。如朱子調息箴之爲者，及夫歲月積久之餘，非徒心恙自然有效，收斂操存之實，亦不能無得力於此矣。所云操存省察勿上念之說，非謂學者常法爲然，只是心恙，必如此然後可安也。況此道理，無間內外，凡致謹於外，乃所以涵養其中也。故孔門未嘗言心學，而心學在其中，某當時無引喻之人，不知此理，徒畏心恙，而遂全然放下了，坐失數十年光陰，是所恫恨。公當視以爲戒也。”◎又³¹⁾答書曰：“澠得心恙最早，而曉治法太晚，自近用工，始似有實地可據，日用動靜間，往往若有契合融會處。然心平

30) 日用：白洲本에는 없다.

31) 又：白洲本에는 없다.

氣和，事順理愜時，覺得如此，而苦於間斷不接續，不能打成一片，介然之頃，已復放失，或遇逆境，到急袞處，依舊纏繞放不下。蓋於古人所謂晝卜諸妻子，夜卜諸夢寐者，每有愧焉，遽使之言，真是先獲我心者也。”◎答李斐彥書曰：“心恙，乃是過用心力所致。蓋古人爲學，雖曰勤苦，一則曰，制於外，所以養其中，一則曰，發禁躁妄，內斯靜專。今不務此，而先要制縛此心，故易生病。某卽嘗傷於虎者，故奉告如此，幸切留意。”【按先生自言及答門人書，可見先生爲學始終，故聯³²⁾附于此。】

○十三年戊寅【先生十八歲】

(譜) 有〈遊春詠野塘〉一絕。

後辛酉，先生曰：“此吾十八歲時作也。當時以爲有得，到今思之，極可笑。此後若更進³³⁾一步，則必如今日之笑前日矣。【按“露草夭夭繞水涯”，‘水涯’二字，文集作‘碧坡’。】³⁴⁾

㉓ 遊安東巒舍。

32) 聯：白洲本에는 없다.

33) 進：白洲本에는 없다.

34) 按……碧坡：白洲本에는 없다.

龔巖 李孝節公【賢輔】，時爲府使，大會儒士於黉舍，
瞻學育才。³⁵⁾ 先生以卅角往遊。³⁶⁾ 【雖群居偃息之中，斂³⁷⁾
容端坐，衣帶必飭，言行必謹，人不敢以童稚慢侮加³⁸⁾之。】

○十四年己卯【先生十九歲】

春，參文科別舉初試。

時有薦舉取人之科，先生已入鄉選。【先生云：“嘗於中廟謁
聖，望見靜菴，步趨翼如，儀表可象，一見可知其爲人。”疑或是年春
事也。◎在途，討店歇泊，僮僕取人，田中青豆，打飯以進，先生麾之
不食。◎先生，少時，入場屋，及題出，諸舉子，欲爲改題，託以某已
製此題，蓋指先生也。試官招問之，先生曰：“生則無是也，其已製云
者，偶然浪出之言。³⁹⁾ 但此題，事實在《陰符經》，豈無他經史，必從
雜書中，試士爲耶？”試官慚愧，卽改題。】

讀《性理大全》

先生自言：“十九歲時，初得《性理大全》首尾二卷。
試讀之，不覺心悅，而眼開玩熟，蓋久漸見意味，似
得其門路矣。”又言：“《性理大全》中〈太極圖說〉，
乃吾所啓發入頭處。”⁴⁰⁾ 【先生講〈太極圖說〉曰：“吾教人，或

35) 大會儒……學育才：[부진지 ‘大’·‘瞻學才’刪, ‘育’入‘會’下.]가 있다.

36) 遊：白洲本 ‘從’

37) 斂：白洲本에는 앞에 ‘必’이 있다.

38) 加：白洲本에는 없다.

39) 言：白洲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40) 處：白洲本에는 뒤에 ‘讀圖說, 渙然冰釋, 豁然貫通, 而造化之源, 人物之本, 已瞭然
於心目之間’이 있다.

以此先之者，吾初年，由此而入故耳。”】⁴¹⁾ ◎嘗曰：“〈圖說〉中，‘君子修之吉，小人悖之凶。’二句，最學者用工夫地頭，修之悖之，只在敬肆之間，可不懼哉!”

○十五年庚辰【先生二十歲】

自京東還。

過豐基，爲訪族人年老，說到家先舊蹟。後仍述松安君封爵傳疑。⁴²⁾

(譜) 讀《周易》。

先生讀《易》，小白山間，有一老衲，訂正句讀甚詳。先生疑其爲鄭虛菴，因問：“爾能知《易》否?” 僧辭謝。又問：“爾知鄭虛菴乎?” 曰：“未也。聞其姓名，略知其爲人。” 曰：“虛菴遁跡不出，何也?” 僧曰：“鄭某，守廬不終禮，不孝也，逃君命，不忠也。不孝不忠，罪莫大焉，何面目復出人世乎?” 俄而辭出，莫知所之。【出眉叟 許文正公 穆⁴³⁾《記言》。◎按先生手錄，有記虛菴屋壁中藏史草一事，而若讀《易》時，老衲問答，不少及之。此事有無，恐未必準信⁴⁴⁾，而姑附于⁴⁵⁾此。】⁴⁶⁾

41) 先生……故耳：白洲本에는 없다.

42) 自京……傳疑：白洲本에는 없다.

43) 許文正公穆：白洲本에는 없다.

○十六年辛巳【先生二十一歲】

(譜) 圉 聘夫人許氏.

相敬如賓.⁴⁷⁾ 夫人⁴⁸⁾家頗饒. 先生時往來, 常騎⁴⁹⁾瘦馬, 婦家雖有肥馬, 亦未嘗乘也.⁵⁰⁾

○嘉靖元年壬午【先生二十二歲】

九月,  哭祖母金氏.

先生述遺事, 略云: “諸孫進見, 必以勤學立揚爲勸, 以廢業虧行爲戒. 童顏鶴髮, 壽考康寧, 享年九十三而歿.”

○二年癸未【先生二十三歲】

(譜) 遊太學.

後先生與諸生, 講《心經》, 至〈禮樂不可斯須去身章〉, 《附註》所謂做許多模樣一段. 因曰: “某⁵¹⁾

44) 恐未必準信: [부진지 必準信以詳變通.]이 있다.

45) 于: 白洲本 ‘於’

46) 此: 白洲本에는 뒤에 ‘(譜)後先生與趙士敬書云云. 【按, 先生此書本意 泛舉爲學入頭之初而言, 未必爲讀易而發, 而譜所引如此, 抑別有可據而然歟?】’가 있다.

47) 相敬如賓: 白洲本에는 없다.

48) 夫人: [부진지 ‘夫人’改‘婦’, 何如?]가 있다.

49) 常騎: 白洲本 ‘嘗乘’

50) 相敬……乘也: [부진지 刪之似好.]가 있다.

年二十三，居館下齋，心中所存，不能不見於外，人多惡之目之，以做許多⁵²⁾模樣，謗議⁵³⁾不已。居二朔而出來。”

讀《心經》。

訪上舍姓黃人得是書，沈潛反覆，或驗之踐履之實，或察之義理之精，久久思量，自然心會，未有不洞然處。⁵⁴⁾◎先生嘗言：“吾得《心經》而後⁵⁵⁾，始知心學淵源心法精微。又曰：“初學用工之地，莫切於是書。”

與諸友，會肄于榮川醫院。

上舍朴承健，時以少年，方讀《小學》，熟視先生動靜，合於書中所言。問曰：“公曾讀《小學》否？”先生笑⁵⁶⁾答曰：“未也。”【嘗遊郡庠，衣帶必整，言動⁵⁷⁾必謹，其接人之際，雖不爲崖岸，而自有難犯之色肅然⁵⁸⁾，人敬而愛之。⁵⁹⁾◎自少爲人所敬，一鄉儒生，會于山寺，箕踞偃臥，及聞先生至，其年

51) 某：白洲本‘余’

52) 許多：白洲本에는 없다.

53) 謗議：白洲本‘誣謗’

54) 未有不洞然處：白洲本에는 없다.

55) 後：白洲本에는 없다.

56) 笑：白洲本에는 없다.

57) 動：白洲本‘語’

58) 肅然：白洲本에는 없다.

59) 嘗遊……愛之：[부진지 ‘嘗遊郡庠’云云，必是遊安東巖舍時事，而文句與上小注同. 恐商.]이 있다.

齒⁶⁰⁾高於先生者，莫不歛容以待之，未嘗敢喧呶作戲於其側。】

○三年甲申【先生二十四歲】

七月望，^[59] 玩月龍壽寺。

與四兄貞愍公及閔公 龜瑞·鄭公 孝宗·孫公 藹·金公 士文·閔公 蒼元共會，從弟壽苓姪寅亦從。有聯句七十三韻。⁶¹⁾【先生嘗語門⁶²⁾人曰：“余雖應舉，而初不屑於得失。二十四歲，時連屈三試，亦無落魄意。一日在里第，忽有人來呼李書房者。意謂招我，徐而察之，則乃人之尋老奴者也。仍歎曰：‘我未成一名，故致有此辱也。’造次之頃，便覺得失之關心，科目之動人，甚可懼也。君輩戒之。”】

○四年乙酉【先生二十五歲】⁶³⁾

○五年丙戌【先生二十六歲】

有西齋吟。

先生次金惇叙所和傍字韻詩序：“往在丙戌歲，家兄遊泮宮，余侍親在兄舍，嘗於西齋吟一律，以寄兄，‘高

60) 齒：白洲本에는 없다.

61) 韻：白洲本에는 뒤에 ‘○八月赴鄉解’가 있다.

62) 門：白洲本에는 없다.

63) 四年……二十五歲：白洲本에는 없다.

齋蕭洒碧山傍，祇⁶⁴⁾有圖書萬軸藏.’云云.”

○六年丁亥【先生二十七歲】

(譜) 十一月，⁷⁰⁾ 夫人許氏卒.【葬榮川郡東沙禽洞 石峯東麓.

◎竹牖 吳澣撰墓碣云：“竊聞先生慟早喪佳耦，到暮境念不置，其賢行可知.”⁶⁵⁾】

○七年戊子【先生二十八歲】

(譜) 春，⁷¹⁾ 中進士會試二等.⁶⁶⁾

不待榜而還鄉，未到漢江，聞榜聲而南行，了無喜色.

進退勇決，不爲名利，所動已兆於此行.⁶⁷⁾【後辛酉歲⁶⁸⁾,

先生偶自言當日出城聞榜⁶⁹⁾竟不回程事，門人曰：“先生，自其時，已絕青雲之念?⁷⁰⁾” 先生不答.】⁷¹⁾

六月，記清涼山 白雲菴.

初，寺僧來請記，先生略寫菴勝以付之. 後聞其刊留

64) 祇：白洲本 ‘祇’

65) 竹牖……可知：白洲本에는 없다.

66) 二等：白洲本에는 없다.

67) 進退……此行：[부진지 ‘進退’止‘此行’，刪何如?]가 있다.

68) 歲：白洲本에는 없다.

69) 聞榜：白洲本에는 없다.

70) 念：白洲本에는 뒤에 ‘矣’가 있다.

71) 後辛酉……不答：[부진지 先生此言，似在辛酉蒙齋公登座時偶自言. 未示如何?【考《言行錄》何如?】]가 있다.

菴壁，卽令去之，蓋朱子不書寺額之義也。

○八年己丑【先生二十九歲】⁷²⁾

○九年庚寅【先生三十歲】

(譜) 聘夫人權氏。

權氏父奉事公，雅尙標致，迥脫流俗。時適⁷³⁾久謫禮安，熟諳先生行義，以女妻之。【奉事公事，略見譜甲午，又詳文集墓碣。】⁷⁴⁾

○十年辛卯【先生三十一歲】

築芝舍。

今稱陽谷堂，是也。扁曰芝山蝸舍，有詩。【後，以蝸舍，許門人李庇遠。】

秋，以詩贈別黃龜巖【孝恭】⁷⁵⁾赴燕京。【後，於⁷⁶⁾丁未，先生被召，道⁷⁷⁾經龜城之日⁷⁸⁾，復用其韻相和，有“魚肥稻熟江村樂，輸與君

72) 八年……二十九歲：白洲本에는 없다.

73) 時適：白洲本에는 없다.

74) 奉事公……墓碣：白洲本에는 없다.

75) 黃龜巖孝恭：白洲本 ‘龜巖黃孝恭’

76) 於：白洲本에는 없다.

77) 道：白洲本 ‘途’

78) 之日：白洲本에는 없다.

閒臥僻陬”之句.】

○十一年壬辰【先生三十二歲】

(譜) ㉒~㉓ 夜中遇盜，同行驚惶失措，而先生凝然不動.⁷⁹⁾

繁劇之場，常優閒而有餘，急遽之地，常泰定而不亂，自少日而已然.

○十二年癸巳【先生三十三歲】

(譜) ㉔ 遊泮宮，流輩多敬服.⁸⁰⁾

時人稱爲顏子.⁸¹⁾【有〈泮宮〉⁸²⁾詩云：“泮宮隨例亦何爲，日日公堂得飽饌.⁸³⁾ 舉業生疏憑竄抹，陳篇⁸⁴⁾寥落付唔咿。多將問事供嘲笑，豈有懷材可設施。昨夜夢中蝴蝶意，曉窗和露寫新詩。”】

㉔~㉕ 有託意葵花詩.

“物物誰非天地精，憐渠偏得一團誠。莫嫌近日連陰雨，唯向高高盡意傾。”【時，安老之黨方橫恣，先生微寓憂國之誠.】

有留呈家兄詩.

79) 夜中……不動：[부진지 此條刪.]이 있다.

80) 流輩多敬服：白洲本에는 없다.

81) 時人稱爲顏子：白洲本에는 없다.

82) 泮宮：白洲本에는 없다.

83) 饌：白洲本 ‘嬉’

84) 篇：白洲本 ‘編’

時，貞愍公，憺屋于木覓山下明禮坊，先生自泮早到，值貞愍公仕直，賦詩三絕，置牀上而去。其一云：“風雲漠漠困淵沈，世事終難愜素心。從此不如歸舊隱，白雲深處聽溪音。”⁸⁵⁾【見《逸集》。⁸⁶⁾◎先生嘗曰：“少多疾病，自⁸⁷⁾中司馬之後，殊無進取之意，惟以奉親養病爲心。爲⁸⁸⁾仲兄敦勸，更作遊泮應舉之計，黽勉數月，事多掣肘，久居喧囂，精神眩恍，中夜思之，轉⁸⁹⁾覺不堪。適未幾中第，故以至於今日，不然則再入國庠，以圖決科，決知其不可爲矣。”】

(譜) ㉓ 秋，下鄉，見慕齋金先生。

慕齋超然，獨免於己卯，退閒多年，號恩逸，以興起斯文爲己任。先生⁹⁰⁾是行，枉道歷入，慕齋出候到樓巖，邀見先生於船上。⁹¹⁾【時，李陰崖 耘·李灘叟 延慶·李罇巖 若冰亦來會。權忠定公，則方除密陽南歸⁹²⁾之路也。⁹³⁾】

㉔ ~ ㉕ 與魚灌圃【得江】，遊鵲島論潮汐。

灌圃，時守昆陽，書邀先生，勸遊雙溪。先生今來，

85) 風雲……溪音：[부전지 《逸集》]가 있다.

86) 見逸集：白洲本에는 없다.

87) 自：白洲本에는 없다.

88) 爲：白洲本 ‘因’

89) 轉：白洲本 ‘漸’

90) 先生：白洲本에는 없다.

91) ㉓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金安國이 權檣을 만나려고 나와서 기다리다가 樓巖에 이르러 退溪를 배 위로 불러서 만났다고 하였는데, 이는 《沖齋日記》의 기록에 의거할 때 오류임이 분명하다.

92) 歸：[부전지 ‘歸’改‘爲’, 何如?]가 있다.

93) 權忠定……路也：[부전지 權忠定並書上諸賢之間而其下云云, 何如?]가 있다.

本爲是，而因事不果，但相與作海遊．其〈論潮汐〉詩有“古今多少說，破的竟誰言．”之句．⁹⁴⁾

㉓ ㉓ 過鳳溪 吉治隱舊里．

有〈過吉先生閭〉詩云：“千載釣臺風，再使激東韓．丈夫貴大節，平生知者難．嗟爾世上人，慎勿愛高官．”⁹⁵⁾

○十三年甲午【先生三十四歲】

(譜) 三月，㉓ 及第出身．

龔巖 李孝節公，聞先生登第，喜曰：“當今時，望無踰此人，實聖朝之幸，吾黨之慶．⁹⁶⁾” ◎母夫人曰：“汝學業已成，不憂科第．但汝性異於衆人，仕至一縣監，可也．” ◎又⁹⁷⁾母夫人察其志慮高潔，不合於世，嘗曰：“汝仕官，宜做一州縣⁹⁸⁾，不宜作高官，恐世不汝容也．”

94) ㉓ 昆陽에 와서 魚得江과 만나고 또 그와 鵲島에서 논 것은 南行 때, 3월 29일에서 4월 초의 일로 보이므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것을 가을의 일로 기록해 둔 것은 오류이다.

95) ㉓ 〈過吉先生閭〉 시를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癸巳年條 맨 끝 항목으로 편집하여, 가을에 경상도 향시에 응시한 다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지은 것으로 추정한 듯하다. 이는 오류이다.

96) 慶：白洲本에는 뒤에 ‘云’이 있다.

97) 母夫人……又：白洲本에는 없다.

98) 做一州縣：白洲本 ‘一縣監’

㉒ 有〈詠松〉詩.

“石上千年不老松，蒼鱗蹙蹙勢騰龍．生當絕壑臨無底，氣拂層霄壓峻峯．不願青紅戕本性，肯隨桃李媚芳容．深根養得龜蛇骨，霜雪終教貫大冬．”【見續集99), ‘紅’恐‘黃’之誤.】100)

(譜) ㉒㉓ 廷試文臣耆英會圖排律十韻，先生居首．
十韻詩見逸.101)

○十四年乙未【先生三十五歲】102)

○十五年丙申【先生三十六歲】

(譜) 三月，授宣務郎．

先生不樂榮進，每發園林蕭散之願.103) 有〈感春〉詩云104): “時光忽不留，幽懷悵難言．我家清洛上，熙熙樂閒村．隣里事東作，鷄犬護籬垣．圖書靜几席，烟霞映川原．溪中魚與鳥，松下鶴與猿．樂哉山中人，

99) 見續集：[부전지 ‘見續集’三字刪.]이 있다.

100) 見續集……之誤：白洲本에는 없다.

101) 十韻詩見逸：白洲本 ‘詩逸’

102) 十四年……三十五歲：白洲本에는 없다.

103) 蕭散之願：[부전지 ‘蕭散’刪. ‘願’改‘恩’.]이 있다.

104) 云：白洲本에는 없다.

言歸謀酒尊。”◎又¹⁰⁵⁾〈歲季書懷〉詩云：“西來何所爲，悶默繫袍笏。撫躬良自愧，報國亦云缺。胡不早收愚，歸安在蓬蓽。”

(譜) 七月，乞假¹⁰⁶⁾省親。

時，貞愍公爲檢詳，亦乞假¹⁰⁷⁾，先生偕行。及¹⁰⁸⁾其同宿西齋之日，有棄官棲山之約。

八月，往宜寧，哭外舅許公。

○與龔巖 李公，遊賞愛日堂後臺上。

時，龔巖辭慶尹家居，先生已歎其高風。¹⁰⁹⁾

○十六年丁酉【先生三十七歲】

(譜) 十月，丁母夫人朴氏憂。

朴氏，司正縉之女，成化庚寅生。弘治歸贊成公，至是卒，享年六十八。後贈貞敬夫人。【先生應舉決科，實爲便養，而竟不得一縣，每懷蓼莪風樹之痛。門人語及養親之¹¹⁰⁾事，則必蹙然稱罪人。】

105) 又：白洲本에는 없다.

106) 假：白洲本 ‘暇’

107) 假：白洲本 ‘暇’

108) 及：白洲本에는 없다.

109) 八月往……高風：[부전지 ‘先生’云云，刪何如?]가 있다. 白洲本에는 이 조목이 없다.

110) 之：白洲本에는 없다.

○十七年戊戌【先生三十八歲】

有《戊戌日課》.

先生居，優¹¹¹⁾有讀書錄，名之曰‘戊戌日課’，惜其逸而不傳於世.¹¹²⁾

○十八年己亥【先生三十九歲】

(譜) 十二月， 拜修撰.

以祿不及養辭.

(譜) 時，金安老已敗，故先生選入玉堂.

前此，戊戌已入堂選.

○十九年庚子【先生四十歲】

(譜) 正月， 拜正言，被召還朝.

先生與人書曰：“吾之從官在京，其有樂乎？欲觀書，則病爲之祟，欲開懷，則無與晤言，時時目擊庭花，以資度日耳，以資度日耳.”¹¹³⁾

(譜) 二月，授奉訓郎.

111) 優：白洲本‘憂’

112) 惜其逸而不傳於世：[부전지 ‘惜其’·‘而’·‘於’並刪.]이 있다；白洲本에는 ‘於世’가 없다.

113) 先生與……度日耳：白洲本에는 없다.

差遷陵都監郎廳.¹¹⁴⁾

(譜) ㉔ 入對經筵, 啓云云.

又曰: “若謂旱灾由於冤枉, 則冤獄, 唯可伸也.”¹¹⁵⁾

(譜) ㉕ 移拜刑曹正郎.

每見論囚輒¹¹⁶⁾案, 不忍食, 其恤刑之意如此. 【據手錄, ‘移拜’上當有‘六月’二字.】¹¹⁷⁾

(譜) ㉖ 既而, 因事罷.

以弘文館筭論, 與成世昌·李浚慶等俱罷.

七月, 拜副司直.

先生手錄所載如此. 據此, 則譜云九月叙用, 恐可疑.¹¹⁸⁾

(譜)九月, 除副¹¹⁹⁾校理.

其在玉堂, 同僚或在傍喧笑, 而先生觀書, 不輟默無一語¹²⁰⁾, 同僚多愧而止.◎自是以後, 長居館職, 出入經幄. 時望甚隆, 朝中仰如喬嶽, 士之有志操者,

114) 廳: 白洲本에는 뒤에 [소주 先生與人書曰: ‘吾之從宦在京, 其有樂乎? 欲觀書, 則病爲之祟, 欲開懷, 則無與晤言, 時時日擊庭花, 以資度日耳.’]가 있다.

115) (譜)入對……可伸也: 白洲本에는 없다.

116) 輒: 부전지 [‘輒’下恐脫‘推’字.]가 있다; 白洲本에는 뒤에 ‘對’가 있다.

117) 據手錄……二字: 白洲本에는 없다.

118) 譜云九月叙用恐可疑: [부전지 ‘譜云九月’云云, 改以‘叙用已在九月之前’, 如何? 【用譜本文爲當. ■■■■】]이 있다.

119) 副: 白洲本에는 없다.

120) 語: 白洲本 ‘言’

皆歸心焉。

有宣醞應製詩。

十二月，復兼正言。

㉔ 入對朝講，啓曰：“唐玄宗，明達之主也，非不知以官爵賞功之非也。以前日昇平，奢侈不節用，府庫虛竭，計無所出，不得已爲之耳。方今府庫虛竭，請節約用度，設遇事變，不至大段狼狽也。”

○二十年辛丑【先生四十一歲】

(譜) 三月，㉕ 入對經筵啓事。

又¹²¹⁾啓曰：“自有作文往祭棘城之命，此正今時所當舉行者也。國家使外方郡邑，皆設厲祭先生¹²²⁾之意，固非偶然。但外方守令，或無知識，雖舉行，略無誠意，彼於治人之道，亦且不能，況事神乎？外方厲祭，十分致誠之意，申勅何如？”上從之。

㉕ 入侍夕講。

講訖，啓曰：“江陵府使具壽聃，以禮曹參議，今當召還。此人素有物望，當初授江陵，物論惜之，皆以爲

121) 又：白洲本에는 없다.

122) 生：白洲本 ‘王’

不當去。然江陵本殘邑，爲蘇¹²³⁾殘起廢，別樣擇遣，果有政聲，特陞堂上，今又召還，褒獎之義，觀聽之美，固非偶然。但彼府極殘，而此人爲倅，僅得蘇復。今以送舊迎新，農務失時，則民必失業，俟農歇召還，何如？”上從之。【具公，後爲諫長欲擊去芑¹²⁴⁾，被芑所構殺。】

(譜) 賜暇讀書。

讀書堂官員，雖輪番相代，而例以他官充選，無久處讀書者。先生自預是選，常在書堂，不入城中¹²⁵⁾，或代他番，仍居之。故當時書堂官，能耐久處者，必稱先生焉。◎同僚多放曠無檢，日以觴詠諧謔爲事。先生獨端居歛飭，不爲習俗所移。雖時與諸人遊賞，而亦不至流放，人亦雅敬志操，不以異己爲嫌。¹²⁶⁾

有書堂朔製及〈讀書謾錄〉。

㉔㉔ 同館僚上一綱九目疏。

《國朝寶鑑》夏四月，副提學李彥迪，直提學李浚慶，應教柳辰全，校理權轍，李某等，上一綱九目疏，上嘉納。【疏見《晦齋集》。◎按晦齋年譜及行狀，以此疏係之於五月，

123) 蘇：白洲本‘消’

124) 芑：[부진지 恐脫‘李’字.]가 있다；白洲本에는 앞에 ‘李’가 있다.

125) 中：白洲本‘市’

126) 嫌：白洲本‘嫌’

而寶鑑則曰夏四月。蓋先生自前年十月，連帶夜理，至是歲四月，始移持平，五月拜修撰，仍奉使關西，六月復命，則其間恐無參疏之暇，而寶鑑，先生官銜，既云校理，則參疏，恐在四月移持平之前。更竊念晦齋行狀，實先生所撰，而¹²⁷⁾宜無誤，係月之理，則參疏，恐在奉使之前，而寶鑑所云校理，似修撰之誤。然二者之間，今不敢追臆¹²⁸⁾，而國史重於私籍，故姑依寶鑑，錄于拜持平之前。】

(譜) 四月，¹²⁹⁾ 拜司憲府持平。

又兼承文院校理。¹²⁹⁾

(譜) 五月，¹³⁰⁾ 拜弘文館修撰。

【按¹³⁰⁾，是月，貞愍公，有送先生從事安胎使之行二詩。據詩意，則疑奉命嶺南，而今未可考。¹³¹⁾】¹³²⁾

(譜) 以咨文點馬，赴義州。

關西素稱紛華。士之落於坑塹者，前後相望。先生留一月，絕無所近。行過平壤監司【尙公震】，爲飾名姝以薦¹³³⁾，竟不之顧。【僑居漢城也，隣家有栗樹，數枝過牆，子熟落于庭院，恐兒童取食，拾而投之牆外，其介潔如此。】¹³⁴⁾

127) 而：[부전지 恐刪.]이 있다.

128) 追臆：[부전지 ‘追臆’改‘執定’.]이 있다.

129) 譜四月……校理：白洲本에는 없다.

130) 按：白洲本에는 없다.

131) 二詩……未可考：白洲本에는 없다. 대신 이어서 ‘同館僚上一綱九日疏【按，《國朝寶鑑》夏四月，副提學李彥迪，直提學李浚慶，應教柳辰全，校理權轍，李○等，上一綱九日疏，上嘉納。】’이 더 있다.

132) ¹³²⁾ 《溫溪先生逸稿》에 의거할 때 退溪가 安胎使 從事官이 되어 嶺南에 다녀온 것은 4월의 일로 추정된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것을 5월의 일로 추정한 것은 오류이다.

133) 薦：白洲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譜) 59 ~ 69 陞副校理，承催旨還朝.

初，自義州發程，纔十里承有旨，以團練¹³⁵⁾使回還.
時一行貿來唐物摘¹³⁶⁾奸事，下諭，不得已還到州館.
俄而¹³⁷⁾復有勿摘¹³⁸⁾奸，斯速上來，以開經筵¹³⁹⁾之
教，六月旬後，乃還.¹⁴⁰⁾

泛舟東湖¹⁴¹⁾，有感恩詩.

讀書堂，內賜仙桃銀杯，與同僚泛舟，以侈寵錫. 有
“共荷殊恩來作會，滿簪黃菊醉華纓.”之句.¹⁴²⁾

秋，陪權三宰 仲虛相公，與林士遂，舟遊東湖.¹⁴³⁾

九月，差京畿道灾傷御史.

79 有〈午憩臨津亭〉 99 〈行到朔寧〉等詩. 【又〈朔
寧入石蟹村〉詩，“秋山欲瘦溪水清，照日楓林霜後明. 村童訝客未曾
見，肖¹⁴⁴⁾立黃花無送迎.”見《逸集》.¹⁴⁵⁾】

134) 僑居……如此：[부전지 刪之如何?]가 있다；白洲本에는 없다.

135) 練：白洲本 ‘鍊’

136) 摘：白洲本 ‘擲’

137) 而：白洲本에는 없다.

138) 摘：白洲本 ‘擲’

139) 斯速……經筵：白洲本에는 없다.

140) 乃還：白洲本 ‘始復命’

141) 泛舟東湖：白洲本 ‘秋，陪權三宰仲虛相公，與林士遂，舟遊東湖.’

142) 泛舟東湖……之句：[부전지 以‘滿簪黃菊’看之，恐當在秋陪權三宰之後. 然未知的
有先後之可據也. 艸本始云當在後，終焉下上之可疑.]가 있다.

143) 秋……東湖：白洲本에는 없다. 林亨秀·洪春年과 함께 權機을 모시고 東湖
에서 뱃놀이를 한 것은 《退溪先生續集》의 기록에 의거했을 때 癸卯年부터 甲辰
年 사이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를 辛丑年條에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二十一年壬寅【先生四十二歲】

二月，¹⁴⁴有〈夢遊〉詩。

詩序云：“夢遊宣城山水間，自今卜居處踰一嶺，得一村庄，名曰山後村。人家籬落蕭洒，鷄犬閒閒，陂塘水滿，稻秧新插。過村而入，山回水轉，溪谷竊¹⁴⁶窺，洞府深邃，天日朗然，草木葱蘢，桃杏杜鵑花之屬，處處爛發。遂出入溪澗，恣意探討，因吟一句曰，‘春晚山中別有花’。方欲綴其下，忽欠伸而寤，余不知是何境而是何祥也，足成一絕云。”【先生後得紫霞塢，喜其真協夢境，其〈霞明塢〉詩云：“出世嗟身病，歸田幸黑¹⁴⁷輕。霞明符昔夢，天霽相新營。水近桃花漲，山邀契¹⁴⁸會英。但無違素志，真個得平生。”見《逸集》。¹⁴⁹】

¹⁴⁵¹⁴⁶ 寒食，有〈奉呈家兄〉詩。

時，貞愍公，以賑恤敬差，柱¹⁵⁰本道，澆奠家山。先生方拘官在京，感吟其事，有“冷烟時節風和雨，回首天涯忘寢興。”之句。【先生已自去年春夏，切欲兄弟受由奠墓，而

144) 肖：白洲本‘背’

145) 見逸集：白洲本에는 없다.

146) 竊：白洲本‘窺’

147) 黑：白洲本‘累’

148) 契：白洲本‘稷’

149) 見逸集：白洲本에는 없다.

150) 柱：白洲本‘往’

卒未焉.】

(譜) 三月, ㉔ 入侍經筵臨文啓曰: “一代之興”云云.

按此筵啓, 實辛丑三月十八日事.¹⁵¹⁾

(譜) ㉕ 差御史, 下忠清道, 檢察郡邑救荒能否.¹⁵²⁾

先生歷盡山巔水干, 不計疲極, 而惟以未紓九重之念爲憂. ㉖ 其〈全義縣山谷遇飢民〉詩, “屋穿衣垢面深梨, 官粟隨空野菜稀. 獨有四山花似錦, 東君那得識人飢.”¹⁵³⁾

(譜) ㉗ 啓公州判官印貴孫悖戾貪汚.

啓¹⁵⁴⁾曰: “印貴孫¹⁵⁵⁾, 性本悖戾, 牧使李莫廉謙¹⁵⁶⁾之. 人趨向相反, 動輒矛盾, 牧使所令爲之事, 皆不爲之家在. 至近日, 以輸轉官物爲事, 貪汚無狀如此, 救荒方急之時, 先懲貪汚官吏, 然後飢民賑救之事, 庶可責效也.” 上曰: “不謹如此, 懲治可也.” 【按, 李公莫, 戊申, 論劾李芑, 壬子, 與先生同被選廉謹.】¹⁵⁷⁾

151) 按此……日事: [부진지 以他例則此註恐當以小字雙行書之.]가 있다.

152) 能否: 白洲本에는 없다.

153) 飢: 白洲本에는 뒤에 ‘之句’가 있다.

154) 啓: 白洲本에는 없다.

155) 印貴孫: 白洲本에는 앞에 ‘判官’이 있다.

156) 謙: 白洲本 ‘謹’

157) ㉗ 退溪가 忠清道 救荒摘奸御史로 소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복명한 것은 4월 4일이다. 그러므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서울로 돌아와 복명한 것을 3월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四月, ㉒ 書筵會講.

㉓ 產室排設, 隨領相入闕.

(譜) ㉔ 送晦齋 李先生于南郊. 【時, 晦齋歸觀慶州.】 158)

【按晦齋¹⁵⁹⁾行狀及年譜, 是歲無歸觀事. 疑或癸卯七月, 晦齋¹⁶⁰⁾除嶺伯時有¹⁶¹⁾送別, 而偶編於此歟. 又按先生手錄, 有略記丁酉金安老敗死之蹟, 而其下特書晦齋¹⁶²⁾官職姓名, 蓋表其賢者之始¹⁶³⁾進用也.】 164)

五月, ㉕ 以倭銀便否廷議事, 隨諸宰詣闕.

㉖ 製進忠清道祈雨祭文.¹⁶⁵⁾

(譜) 五月, ㉗ 陞舍人.

先生嘗曰: “紛華波蕩之中, 最易移人. 余嘗用力於此, 庶不爲所動, 而嘗爲議政府舍人, 聲妓滿前, 便覺有一端喜悅之心. 雖痛窒慾, 僅免坑塹, 而其機則

158) 時……慶州: 白洲本에는 없다.

159) 齋: 白洲本에는 뒤에 ‘先生’이 있다.

160) 晦齋: 白洲本에는 없다.

161) 有: 白洲本에는 없다.

162) 晦齋: 白洲本에는 없다.

163) 始: 白洲本에는 없다.

164) ㉔ 〈晦齋李先生行狀〉 ‘壬寅’에는 李彥迪이 歸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退陶先生日記》에 이언적을 전송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임인년(1542년, 42세)에 이언적이 귀근하였음은 분명한 듯하다. 〈晦齋李先生行狀〉과 《文元公晦齋先生年譜》에서는 이 사실을 생략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회재이선생행장〉과 《문원공회재선생연보》 기록을 근거로 제기한 의문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65) 五月……祭文: [부전지 此‘五月’移入于‘(譜)五月’下, 似當.]이 있다; 白洲本에는 없다.

生死路頭也，可不懼哉!”

(譜) 八月，²¹⁹ 差災傷御史，往江原道。

²⁴⁹ 有〈錦江亭〉詩云：“鵲啼山裂豈窮年，蜀水名同非偶然。”¹⁶⁶⁾

⁹⁹ 有《關東日錄》。

金剛山¹⁶⁷⁾，在所檢五邑之外，故恨其不得登賞。¹⁶⁸⁾

九月，復命。

有〈宣醞應製〉詩。

⁹⁹ 上寓舍後岡。

有次龔巖詩，“九日羈心隔故鄉，溪邊虛負萬金黃。老仙何許登高宴，多取清歡憶我狂。”¹⁶⁹⁾

○二十二年癸卯【先生四十三歲】

正月，¹⁶⁹ 自丹城還京。

前此臘月，以事往丹城。是行取道安陰，謁外舅權公於迎勝村，有〈留題四樂亭〉・〈寄題搜勝臺〉等

166) 然：白洲本에는 뒤에 ‘首句如此寓微意，其餘則泛叙景而已。○先生嘗曰：近世士類，顯言世祖朝事，不知有諱，此某所大憂也。孔子以昭公知禮云云。據此則先生詩意，可見矣.’가 있다.

167) 山：白洲本에는 없다.

168) ■ 退溪가 災傷御史로서 소임을 끝낸 것은 9월 초이므로, 《關東日錄》을 8월에 엮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169) 上寓舍……憶我狂：白洲本에는 없다.

詩.¹⁷⁰⁾

㉑~㉒ 啓請校正《朱子全書》.

書館方印此書，而其所傳元本，多刊闕。先生不敢自擅正誤，啓請令玉堂先校正¹⁷¹⁾元本，而後傳印，先¹⁷²⁾生實主張¹⁷³⁾校勘。【〈朱子書節要序〉云：“嘉靖癸卯，我中宗大王，命書館印出頒行，臣滉始知有是書，而求得之。”】◎閉戶靜觀，歷夏不輟。或以暑熱致傷爲戒，先生曰：“講此書，便覺胸膈生涼，自不知其暑，何病之有？”【是歲¹⁷⁴⁾秋，有¹⁷⁵⁾〈送金厚之修撰〉之¹⁷⁶⁾詩云：“道山同¹⁷⁷⁾讀未見書”，疑亦指此。】◎自是，終日危坐，專精致志¹⁷⁸⁾，要以眞知實得爲務，而其信之篤悅之深，無異於耳承面受。由是，所見日益精明，所造日益純固。◎中歲以後，講學益專，任道愈重，嘗得是書，沈潛講劘，積有年紀，俯讀仰思，至忘寢食。於是，脫然而悟，沛然而行，平生得力處，多在此書。◎先生曰：“余自少有志，不

170) 詩：白洲本에는 뒤에 [소주 按，四樂亭，卽先生妻舅全氏亭，在猿鶴洲下流.]가 있다.

171) 正：白洲本에는 없다.

172) 先：白洲本에는 앞에 ‘是役’이 있다.

173) 張：白洲本에는 없다.

174) 歲：白洲本에는 없다.

175) 有：白洲本에는 없다.

176) 之：白洲本에는 없다.

177) 同：白洲本 ‘共’

178) 志：白洲本 ‘思’

可謂無學問之功。然不得與明師友，難疑辨惑於道理，殊無的見，學未優，而遽至登仕，則又不專於素業矣。自讀《朱子大全》後，稍有見處。”¹⁷⁹⁾【按，澤堂李公植云：“栗谷論退溪多依樣之味。以余觀之，所謂依樣，非若楊雄《太玄》《法言》假竊摹倣也。朱子折衷百家，定論萬世，退溪依其言學習，心融神會，如出己言，其所論述¹⁸⁰⁾，皆能發其餘蘊，爲之羽翼，此乃善學朱子也。”】

三月，有〈言志〉一篇。

用晦菴詩韻，蓋亦休官歸山之願也。

九月九日，獨登書堂後翠微。

有“古園松菊日應荒，幾度秋風老漢陽。”之詩。

(譜) 十月，乞假¹⁸¹⁾還鄉。

《逸集》，九月日有曰：“余證未得如常，黽勉來書堂，未能盡力於讀書，徒費廩餼，甚不自安。終畱在今月晦，必欲於來月望受由，至是，果得遂意。”

(譜) ㉑㉒ 見時事，有大機關，自癸卯，始決退休之志。

按文集，是歲，始得朱子書，將急於抱此，還山而理其餘韻。據此，則其所關於尤，在於此¹⁸²⁾，而非唯時

179) 先生曰……見處：白洲本에는 없고 대신 해당 내용이 아래 ‘善學朱子也’ 다음에 小註로 들어가 있다.

180) 述：白洲本 ‘著’

181) 假：白洲本 ‘暇’

182) 關於尤在於此：[부진지 上‘於’似衍.]이 있다.

事機關也.183)

○二十三年甲辰【先生四十四歲】

正月初三日，拜龔巖 李相公于明農堂.184)

(譜) 二月，¹⁹⁹ 以校理召還.

又兼承文院校理. ²⁰⁰ 發行到榮川，一鄉人士，會餞醫院.

三月，²¹⁰ 又兼侍講院文學.

先生，時在東湖，入城肅拜即出.185)

²⁰² 有〈書堂曉起，用東坡定惠院月夜偶出韻〉詩.186)

“青春欲暮鳳城塵，白雲空憶芝山舍。朝來百嶂林下鳥，似與詩僧助嘲罵.187)”【²⁰³ 又修小池于書堂，亦次東坡修小池詩.】188)

(譜) 六月，²¹² 病辭.

方解臺務，求補高城郡189)，不得. ²⁰⁴ 有〈借看武夷

183) (譜)見時事……機關也：[부전지 此段刪如何?][此段恐不可刪.]가 있다；白洲本에는 없다.

184) 正月初……明農堂：[부전지 此段刪.]이 있다.

185) 先生……即出：白洲本에는 없다.

186) 韻詩：白洲本 ‘詩韻’

187) 罵：白洲本에는 뒤에 ‘之句’가 있다.

188) 又修……小池詩：白洲本에는 없다.

189) 郡：白洲本에는 없다.

志>一絕云：“匡廬頭白不能歸，欲乞溫台計已違。願
借山經尋九曲，洗空塵土十年非。”【時¹⁹⁰⁾，有人送鞋，先
生曰：“塵中得此鞋，令人益發雲山之興。想故人之意，無乃勸我早歸
山耶?】

七月，撰先府君碣陰。

是年冬，立碣。

㉓ 讀書狎鷗亭。

時¹⁹¹⁾，書堂旁¹⁹²⁾舍有沴氣，稟啓，移寓於此。【有狎鷗
亭諸詠。】

㉔ 製進冬至表。

㉕ 與鄭林塘 惟吉，議書堂加揀事。

八月，㉖ 出書堂。

(譜) 九月，㉗ 乞假還鄉。

時，貞愍公，將爲焚黃下鄉約，先生與偕，臨發，因
事停行。先生獨南還，書樹谷孤山標¹⁹³⁾石。

㉘ 酌別龔巖 李相公。

先生將還朝，李相公餞于汾川後山松陰下¹⁹⁴⁾。¹⁹⁵⁾

190) 時：白洲本에는 없다.

191) 時：白洲本에는 없다.

192) 旁：白洲本 ‘傍’

193) 標：[부전지 ‘標’恐‘表’.]가 있다.

194) 後山松陰下：白洲本 ‘松陰下後山’

195) 酌別……陰下：[부전지 ‘酌’至‘陰下’刪, 註入‘還朝’下.]가 있다.

【是行，取道鳥嶺，族會于豐山。¹⁹⁶ 省外祖墓于龍宮 大竹 可枝山。】196)

(譜) 十月，¹⁹⁷ 還朝。

二十五日，入侍夕講，講後退赴¹⁹⁷⁾書堂。¹⁹⁸⁾

十一月，¹⁹⁹ 中宗¹⁹⁹⁾違豫，自書堂蒼皇入城。²⁰⁰⁾

十一日，²⁰¹ 送貞愍公 松京之行。

仁廟時在東宮，啓請宗廟山川祈禱事，上依允。貞愍公，以松岳獻官發行。²⁰¹⁾

(譜) 中宗昇遐。【十五日庚戌】

¹⁷⁹ 壬子，政府六曹，請新宁進粥，不聽，議于館僚，請政丞入請。

甲子，²⁰² 隨大提學詣闕，與政府六曹堂上，議大行王行狀。

(譜) ¹⁸⁰ 朝廷遣使天朝，告訃請諡兩表，皆先生所製。

196) 是行……可枝山：白洲本에는 없다.

197) 赴：[부전지 ‘赴’恐‘處’.]가 있다.

198) 譜十月……赴書堂：白洲本에는 없다.

199) 宗：白洲本에는 뒤에 ‘大王’이 있다.

200) ¹⁸¹ 《退陶先生日記》에 의거하면, 中宗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10월 24일의 일이며, 退溪는 그 다음날인 10월 25일에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안을 드리려 했으며, 그 이후 中宗이 승하할 때까지 계속 도성에 머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 ¹⁸² 《退陶先生日記》에서는 退溪의 넷째 형 漣가 松嶽의 獻官이 되어 開京으로 떠난 것을 11월 10일의 일로 기록해 놓고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기록이 오류인 듯하다.

兩表，皆²⁰²⁾見逸.

(譜) ㉔ ㉕ ㉖ 使臣還，啓其事，命賜馬.

使臣，閔齊仁·李浚慶.

○二十四年【仁宗大王²⁰³⁾元年】乙巳【先生四十五歲】

正月初四日，館議事，病不赴，上筭.【筭亦見逸.】²⁰⁴⁾

十二日，朝廷將卜相，館²⁰⁵⁾會論擇人，亦病不赴.【時再呈病.】²⁰⁶⁾

二十三日，與館僚會議，以上體毀瘠，請依大臣所啓進膳.

與林錦湖 亨秀，選製述官.

閏正月，承命書進陵誌.

先生答完姪書有曰：“陵誌，彼時，余筆意尤生，顧受命不敢辭. 自今觀之，可愧.”云云，但不言其爲某陵誌. 然是時，天朝告訃，請諡兩表，皆先生所書. 且考歲²⁰⁷⁾月，此其爲請²⁰⁸⁾陵誌，無疑.

202) 皆：白洲本에는 없다.

203) 大王：白洲本에는 없다.

204) 筭亦見逸：白洲本에는 없다.

205) 館：白洲本에는 뒤에 ‘一’이 있다.

206) 時再呈病：白洲本에는 없다.

207) 歲：白洲本 ‘年’

208) 請：白洲本 ‘靖’

以上體羸毀，請停親詣山陵。及門外祇送，製進大行王挽詞。

七言排律十八韻，有“幄座纔停宣政侍，葵心叵耐薤歌篇。哀音一曲頭渾雪，欲和春山口血鶯。”之句【後於遷陵挽詩云：“甲辰當昔記微言，壬戌于今籲舊原。世事傷心強半改，廷臣屈指幾人存。松楸已拱三朝後，涕淚重添廿載痕。最恨分明瞻輦路，南郊咫尺礙都門。²⁰⁹⁾經幄當年一少臣，半生偏許付陶勻。²¹⁰⁾每逢宗社先垂淚，未效秦良得殉身。却睹請²¹¹⁾陵搖落日，正如昌慶泣寒辰。几前趨伏皆垂畢，末命如何靳再申。”右二章，見逸於文集，而在酉谷岩藏²¹²⁾古蹟中，疑先生所製進云²¹³⁾，故聯附于²¹⁴⁾此，以俟更考。】

二月三日，以發引大祝，陪衛靖陵。

上筭，請從權制。²¹⁵⁾

大臣兩司弘文館，請從²¹⁶⁾權進膳，上雖²¹⁷⁾許而實不許。²¹⁸⁾先生與館僚，連日上筭。【筭見逸。】²¹⁹⁾

二十日，上欲親行卒哭祭本館，啓請停，不許。

209) 門：白洲本에는 뒤에 ‘○’가 있다.

210) 勻：白洲本 ‘鈞’

211) 請：白洲本 ‘靖’

212) 岩藏：[부견지 權氏靑巖亭. 疑者闕之, 何如?]가 있다.

213) 進云：白洲本에는 없다.

214) 聯附于：白洲本 ‘並付’

215) 制：白洲本에는 없다.

216) 從：白洲本에는 없다.

217) 雖：白洲本에는 없다.

218) 許：白洲本 ‘從’

219) 筭見逸：白洲本에는 없다.

上體弗豫，請醫官入診，俱不許。

二十一日，以大祝，陪行卒哭祭。

筭進國恤服制議。【筭亦見逸。】²²⁰⁾

朝議，欲於卒哭後用黑笠黑帶，先生與同僚。獻議正之。◎先生嘗曰：“我朝喪制，戾於古禮，輕其所重，重其所輕，大是未安。以儀禮言²²¹⁾，在朝者爲君皆斬衰，畿民齊衰，三月而除，外民無服，而今者，勿論在朝與²²²⁾外民，皆²²³⁾白衣白笠，無別若此，遐方或有帶白，而畋漁者，豈不悖於情哉？曾聞徐花潭值中廟喪，疏論此事，政院以仁廟凡聞提起喪事，必至慟傷，故封還不入云。聞其²²⁴⁾疏中所論，極有義²²⁵⁾理。”

(譜) 差遠接使從事官，病不行。

三呈病，始命遞，因此亦不往²²⁶⁾東湖。有〈杜門書懷〉詩。

(譜) 三月，病免除內²²⁷⁾瞻寺僉正。

220) 筭亦見逸：白洲本에는 없다.

221) 言：[부전지 ‘言’下恐脫‘之’字.]가 있다.

222) 與：白洲本에는 뒤에 ‘在’가 있다.

223) 皆：白洲本에는 뒤에 ‘民’이 있다.

224) 其：白洲本 ‘見’

225) 義：白洲本 ‘道’

226) 往：白洲本에는 뒤에 ‘來’가 있다.

再呈病辭狀，上命加給由。

四月，書哀冊。

㉔ 餞別貞愍公。

貞愍公，以聖節使兼謝恩使，發程，先生餞于迎曙驛。²²⁸⁾

河西金厚之來訪。

五月，㉕ 隨駕太平館。

天使奉賜賻賜諡賜祭²²⁹⁾之命，來住館，晝捧杯，上親行。先生，時以軍資監，參侍衛。

訪盧寡悔於東湖。

(譜) 六月，㉖ 拜應教。

時，元繼儉爲副應教，先生與元俱經舍人。一日同坐玉堂，陳復昌，時爲舍人，遣堂吏，獨請元設宴，其惡先生如此。【按，群小時²³⁰⁾方專擅，先生欲退已久，與元爲僚，豈其志哉？續有國恤，未暇呈病，殯殿纔成，必乞遞而後已，其意概可見矣。】

求補靑松不得，㉗ 兼實錄廳郎。

先生上貞愍公書曰：“幸而投閒，適值靑鳧之闕，懇求

227) 內：白洲本‘司’

228) 迎曙驛：白洲本‘延署’

229) 祭：白洲本에는 없다.

230) 時：白洲本에는 없다.

而不得. 擬不意復忝侍從, 已非所堪, 實錄廳郎之役, 尤非病人一日所可支也, 奈何? 初意秋間下去, 因遂不來, 庶得數年延保. 今則去就之間, 實難輕處, 尤不知措身之宜, 悶悶.”²³¹⁾

丁巳【二十六日】²³²⁾, 急赴闕.

上候違豫, 發熱甚劇. 與館僚, 皆會延秋門外, 夜三更, 聞稍歇, 乃退.

㉔ 庚申²³³⁾夜半, 吏報甚急, 卽馳詣闕, 仍留.

前二日戊午, 大雨震慶會樓柱, 大臣祈于廟社, 又遣官禱山川.

(譜) 七月, ㉕ 仁宗昇遐.²³⁴⁾

後先生答門人書有²³⁵⁾曰: “古人謹喪禮, 無所不至, 然亦未嘗不示以可生之道. 孔子曰: ‘病則飲酒食肉, 毀瘠爲病, 君子不爲也, 聖人之爲戒, 可謂切至矣. 然而

231) ㉔ 《退溪先生文集》에 실린 〈上四兄(溍○乙巳○時四兄以聖節使朝京)의 내용을 보면 6월 15일에 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承文院參校에 임명되면서 實錄廳郎廳을 겸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靑松府使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임명되기를 구한 것은 6월 15일 전의 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퇴계선생언보보유》에서 “청송부사에 임명되기를 구했으나 얻지 못하고 실록청낭청을 겸임하게 되었다.”고 한 기사를 弘文館應教·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承文院參校에 임명된 사실 다음에 편집해 둔 것은 오류로 보인다.

232) 丁巳二十六日: 白洲本 ‘二十六日丁巳’

233) 庚申: 白洲本에는 앞에 ‘二十九日’이 있다.

234) 遐: 白洲本에는 뒤에 ‘【初一日辛酉】’가 있다.

235) 有: 白洲本에는 없다.

當創鉅至痛之際，率不能自抑，或至於病生殆極，猶不知從權，卒致不可救之域者²³⁶⁾比比有之。臣滉每竊伏念當乙巳諒闇時事，未嘗不掩抑而拭淚。【仁廟在東宮日，特題三賢姓名，先生居首，次晦齋 李文元公，河西 金文靖公，藏諸几案之²³⁷⁾中。蓋選備異日三公之望者也²³⁸⁾，聖人明睿所照，夫豈偶然哉？】

(譜) ㉔ 上疏，請許倭人乞和。

時先生方在告通于同僚，欲入劄陳利害，同僚不從，先生力疾獨疏。【按文集六卷疏類，以此疏係于甲辰，恐誤。】²³⁹⁾

㉕ 請罪尹元老。²⁴⁰⁾

上不允。先生與校理朴光佑·修撰柳希春·李元祿·著作朴承任等，又啓曰：“啓于慈殿事有傳教，殿下既卽位，大臣又受遺教輔政，啓于慈殿未安。若有啓稟之事，自上啓稟而答之無妨，故敢啓。”²⁴¹⁾

再呈病，阻于喉院。

先生又²⁴²⁾上貞愍公書曰：“當此變故，遑遑之際，長在告由，如人臣之義²⁴³⁾何，如物議何？三十六策中

236) 者：白洲本에는 없다.

237) 之：白洲本에는 없다.

238) 也：白洲本에는 없다.

239) 按文集……恐誤：白洲本에는 없다.

240) 請罪尹元老：[부견지 七月初八日.]이 있다.

241) 請罪……故敢啓：白洲本에는 없다.

242) 又：白洲本에는 없다.

歸田爲上，計亦已決，顧以山陵未畢，故遲遲矣。”

八月，²⁴³ 又再呈辭狀。

上始御經筵，而先生方病辭，故不參講員之列。²⁴⁴⁾

(譜) 八月，病辭館職。

【自七月十八日至是²⁴⁵⁾，凡呈辭者四，是月十六日，始蒙遞。◎遞館²⁴⁶⁾職不十日，士禍作。】

(譜) 九月，²⁴⁷ 又拜弘文館典翰。

與館僚一會，校正哀冊。【先生必欲遞館職，既得辭，未久，旋復如故，又難病辭，姑勉從事，而供職僅六日。◎時，士禍愈酷，有星變。◎是月，竄鳳城君于蔚珍。】

十月，²⁴⁸ 自直所出，哭²⁴⁹ 姪訃。

時，方有推鞠²⁴⁷⁾，校理李首慶，以問事官出，先生代入直。姪訃至，出哭于兄舍。²⁴⁸⁾

(譜) ²⁴⁹ 李芑啓請削職，命還職牒。

【十日，削職。二十二日，有叙命。²⁴⁹⁾ ◎按，芑初以其姪元祿之言，旋揀²⁵⁰⁾先生，後猶²⁵¹⁾不勝其憤，竄元祿。其兄元祥，祈哀于芑，芑臥而

243) 義：白洲本에는 뒤에 ‘如’가 있다.

244) 講員之列：白洲本에는 없다.

245) 至是：白洲本에는 없다.

246) 館：白洲本에는 없다.

247) 鞠：白洲本 ‘鞠’

248) 兄舍：[부전지 二十八日，將迎兄行于碧蹄，以姪柩先來，無該人停行。【恐此當入‘兄舍’下.]가 있다.

249) 十日……有叙命：白洲本에는 여기에 없고, 해당 내용이 아래 ‘旋揀先生’ 다음에 있다.

250) 揀：白洲本 ‘救’

不應，元祥少退。芑意謂元祥已去，謂其妾曰：“元祿詐言李某無罪以給我，使我救某，某由是得脫。某乃厥類之最者而²⁵²⁾尚在，以是紛紛若此，元祿惡得無罪？”云云。其妾知元祥在，引其裾，乃止仍族²⁵³⁾無疆。無疆亦嘗有求²⁵⁴⁾於先生，不²⁵⁵⁾得之故銜怨，乃倡言於諫院曰：“李某嘗憤歎云：‘我與郭珣，同志一體之人，今珣不在，吾何以有爲？’於時其不仕而退，實有二心而然耳。”時人力救之，無疆意沮，其²⁵⁶⁾事遂寢，不然，幾不免云。◎郭珣，是歲九月杖死²⁵⁷⁾，丁未籍沒。】²⁵⁸⁾
(譜) 獨往郊外，望哭行禮。

時，丁公 燾等被削，諸人皆入哭送之列，先生以爲不可，獨避班次於郊外。²⁵⁹⁾

○二十五年【明宗大王元年】丙午【先生四十六歲】

二月，將歸嶺南，尋梅望湖堂。

有詩云：“望湖堂下一株梅，幾度尋春走馬來。千里歸程難汝負，敲門更作玉山頽。”時朝著一變，先生益決

251) 猶：白洲本에는 없다.

252) 而：白洲本에는 없다.

253) 族：白洲本 ‘噉’

254) 有求：白洲本에는 없다.

255) 不：白洲本에는 앞에 ‘而’가 있다.

256) 其：白洲本에는 없다.

257) 郭珣……籍沒：白洲本 ‘按，是歲九月，郭珣杖死’

258) 沒：白洲本에는 뒤에 ‘(譜)十二日，仁廟梓宮發引山陵。【先生不得入班次。】’가 있다.

259) 時……於郊外：白洲本에는 없고, 이어서 ‘(譜)叙用(二十二日)拜司僕司正兼承文院參校.’가 있다.

退休. 今此尋梅寄詠, 實有微意之寓焉者也.

(譜) 二月, 乞假²⁶⁰⁾還鄉.

【據先生²⁶¹⁾手錄, 還鄉實在三月. ◎是歲, 欲乞外, 未得.】

(譜) 葬外舅權公.

先生當初呈由, 托於葬外舅, 而適患病愆期. 又按文集, 權公碣銘, 叙丙午正月葬于仙原云云. 據此則更可知也. 先生是時, 過權公墓, 有詩云: “當年人不識清真, 地下無由起此人. 奠罷荒山歸故里, 少梅開處想精神.”【此詩, 見《逸集》.】

由鳥嶺題詩龍宮浮翠樓.²⁶²⁾

先生方遂歸山之願, 而恨其²⁶³⁾猶遲, 又歎終不能拂衣林下. 題樓詩, 有“好鳥豈無春晚恨, 如何終日不歸山.”之句, 其意可知也.²⁶⁴⁾

三月, 寓月瀾菴.²⁶⁵⁾

260) 假: 白洲本 ‘暇’

261) 先生: 白洲本에는 없다.

262) 由鳥嶺題詩龍宮浮翠樓: [부전지 由大院嶺避雨于聞慶觀音院. 有詩云, ‘主屹山頭雲漠漠, 觀音院裏雨浪浪. 却憐關嶺雖重蔽, 不隔思君一寸腸.’ 此時此行此詩, 寓意深切, 不採入, 可惜. 其綱與目, 如是爲之, 以添入於‘葬外舅’下‘題詩龍宮’上, 恐好. 其目下以■轉語■衍, 詩意亦好. 此詩若添入於下條, ‘由鳥嶺’三字刪, ‘龍宮’字移在‘題詩’{上}, ‘龍宮’上加‘到’字, 如何?}가 있다;

263) 其: 白洲本에는 없다.

264) ■ 3월 1일경, 退溪는 고향을 향해 출발하였고, 중도에 龍宮에 도착하여 浮翠樓에 올랐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용궁 부취루에서 시를 지은 것을 2월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265) 三月寓月瀾菴: [부전지 月瀾菴詩有‘十五年前此讀書’之句, 其年條忘不{記}, 恐當

有²⁶⁶)〈書懷〉二詩.

四月十日, 將西行, 病²⁶⁷)留榮川 草谷.

先生薄庄在草谷, 有²⁶⁸)“幾歲埋荒逕, 今朝眇舊柯.”

之詠, 其亦寓懷於因病辭退者也.²⁶⁹)

二十五日, 還寓龍壽寺.

少日讀書處也, 愛靜來寓, 與門生論學.

(譜) 五月, 病未還朝, 解職.

有〈次東坡新城途中韻〉詩云: “雲山正似盟藏券, 身世渾如戰退鉦. 聖主洪恩知不棄, 只緣多病合歸耕.”

【疑先生至榮川輟行, 及²⁷⁰)還寓龍壽寺之日, 必有病乞解職之疏, 而今未詳. ◎更按²⁷¹), 該曹以受由過限, 啓遞.】

(譜) 七月²⁷²), ㉠ 夫人權氏卒. 【先生病未還朝, 夫人卒于京第. 貞愍公治喪, 從水路送歸²⁷³), 葬禮安縣東下溪 柏枝山.²⁷⁴】²⁷⁵)

考詩稿. 以其年■繹計之, 以讀書于月瀾菴爲綱, 添入於相當年, 似好. 是詩若果此時所作, 則十五年前當爲壬辰也. 其年間事或然矣.]가 있다. 今按: 부전지에서 인용한 시는 內集 卷1(KNP0054)에 수록된 〈寓月瀾僧舍書懷, 二首〉이다.

266) 有: 白洲本에는 없다.

267) 病: 白洲本에는 없다.

268) 有: 白洲本에는 뒤에 ‘詩云’이 있다.

269) 之詠……退者也: 白洲本에는 없다.

270) 及: 白洲本에는 뒤에 ‘自草谷’이 있다.

271) 更按: 白洲本에는 없다.

272) 七月: 白洲本에는 없다.

273) 先生……送歸: 白洲本에는 없다.

274) 山: 白洲本에는 없다.

275) 七月權氏卒: [부전지 此綱本無, 而曾見《全書》上四兄書詳載, 故猥補之.]가 있다.

秋, 獨遊孤山.

自月明潭, 因傍水循山, 而下抵退溪, 得勝境, 標題者凡九. 後又得高世²⁷⁶⁾·葛仙²⁷⁷⁾二臺勝²⁷⁸⁾, 將有棲遯歌詠²⁷⁹⁾之志.²⁸⁰⁾

(譜) 十一月, 除禮賓寺正, 不赴.

〈至日有感〉詩²⁸¹⁾, “不作玉宸朝, 依舊病關扉. 諒難抵吏役, 敢言衣化緇. 賴有三字符, 拳拳期事斯.”

(譜) 築養眞菴于退溪之東巖.

有〈東巖言志〉·〈溪村卽事〉等詩²⁸²⁾.²⁸³⁾

○二十六年丁未【先生四十七歲】²⁸⁴⁾

正月, 題〈萬竹山房集帖跋〉.

跋略云: “《詩》曰: ‘雖無老成人, 尙有典型.’²⁸⁵⁾ 曲藝且然, 而況進於²⁸⁶⁾此者乎?” 後於庚申, 寫與審姪

276) 世: 白洲本에는 뒤에 ‘臺’가 있다.

277) 仙: 白洲本에는 뒤에 ‘臺’가 있다.

278) 二臺勝: 白洲本에는 없다.

279) 歌詠: 白洲本에는 없다.

280) 將有棲……之志: [부전지 ‘將有’以下, 刪之何如?]가 있다.

281) 詩: 白洲本에는 뒤에 ‘云’이 있다.

282) 有東巖……事等詩: 白洲本 ‘有言志詩’

283) 東巖에 터를 잡고 養眞庵을 짓기 시작한 것은 5~6월로 추정되며 완공된 것이 11월이다. 〈東巖言志〉는 5~6월 作, 〈溪村卽事〉는 5월의 作이다.

284) 1547년(明宗 2)

285) 型: 白洲本 ‘刑’

帖，而又有續跋云：“唯好之篤，則無不可得，而其自謂不能者，皆自棄者也，凡學皆然，汝曹勉之。”

將卜居于紫霞山之霞明塢.²⁸⁷⁾

有紫霞書院·霞山精舍·漱石亭等標號.【後於甲寅冬，先生在京答子憲書曰：“明春，吾行何可停乎？溪堂則卜地未愜，固當改移。今歸，意欲構精舍數間於霞山之麓，以寓余樂。”】

㉔ 踏青日，㉔ 登霞山.

有詩云：“舊遊京國渾如夢，新卜田園只自農。曲水佳辰當遏密，題詩回首涕²⁸⁸⁾霑胸。”

三月，寓月瀾菴.

有〈和西林院詩韻〉二絕。“似與春山宿契深，今年芒屨又登臨。空懷古寺重來感，詎識林中萬古心。”“從師學道寓禪林，壁上題詩感慨深。寂寞海東千載後，自憐山月映孤衾。”

四月，留月瀾，讀《心經》。

有述懷詩云：“我獨來居古僧舍，家操耒耜非躬耕。不願少林從達摩²⁸⁹⁾，不願崆峒師廣成。天開一片燭幽鑑，篁墩旨訣《西山經》。”

286) 於：白洲本‘乎’

287) 將卜居……明塢：[부전지 此段刪.]이 있다.

288) 涕：白洲本‘淚’

289) 摩：白洲本‘磨’

有〈次武夷九曲權歌韻〉詩。

先生嘗言夢見朱子，今按所次權歌詩，有“故能感激前宵夢”之句，疑即是時也。【先生嘗以元人懼齋 陳尚德所解²⁹⁰⁾

擢²⁹¹⁾歌詩註之作學問入道次第爲非。】

五月，赴聶巖相公之招，泛舟遊簞巖。【按聶巖〈愛日堂記〉，汾江前流，有盤石，如錦茵，故名簞巖。】

六月，又陪聶巖，遊屏風菴。

(譜)七月，除安東府使，不赴。

安東除目之來，有居安東人，因婚姻之故，來謁致賀，兼獻肉膳。先生辭之不得，姑命留之，去後，即使人追還。【按樂山 南公應龍投贈貞愍公海營詩，“平生師友退溪翁，歟段還鄉只固窮。幸得割鷄閭井近，急修書札付來鴻。”其本註，“退溪得宰安東，近必爲謝恩來京，故云。”◎又除歙谷縣令²⁹²⁾，不赴，而此則²⁹³⁾未詳歲²⁹⁴⁾月。】

(譜)八月，拜應教，被召還朝。

方赴京，舟到楊根，始聞良才壁書之變。未入城，堂吏以朝報來示，則大禍愈作，一時名流，誅竄殆盡。先生不安於朝，方謀乞外，而未得其便。未幾，鳳城

290) 所解：白洲本‘註釋’

291) 擢：白洲本‘權’

292) 令：白洲本‘監’

293) 此則：白洲本에는 없다.

294) 歲：白洲本‘年’

君之獄又起，先生知不可救，遂即移疾。【光海辛亥四月，鄭仁弘詆先生以丁未同參請罪鳳城之論。時李白沙 恒福諸公在政府，上筭辨之曰：“臣等嘗聞之，故老李某，於丁未拜弘文應教之日，三司猝發請罪鳳城之議。某自外初還，未知論議首末。既同參，翌日於榻前，大臣以下，皆離席而請鳳城之罪，雖直臣如安名世，亦莫敢異同。某獨不離席，及退，控免本職。九死路頭，能辦截鐵之勇，萬馬羣中，能有駐足之力。事之難處，其視於不與是論者，尤有甚焉，而某能之。今仁弘以是而爲之累，不亦太刻乎云云。”出瓶庵 南漢《雜哀》。295)】

玉堂宣醞後，出書堂。

九月，入侍朝講。

講《論語》，臨文啓曰：“聖人教人，各因其材者，所以因其材之近而成就之。使孔子得位行道，則其用人亦當各因其材，取其所長而任之矣。人君兼君師之責，養育人材，當以此爲法，而其於用人，亦當以是爲則也。須於此等處體念焉。”又曰：“前篇云：‘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此篇又言：‘如用之，則吾

295) 雜哀：白洲本에는 뒤에 ‘○清臺權相一觀書錄云，退溪先生，參鳳城君庭請事，人多疑之。有曰：“大儒聯名於鄭彥慤之下云云。”頃年言行錄修刊時，此一條，借白沙所記不離之說，爲發明之證，亦似苟且。先生承召，到楊根，始聞鳳城逆獄大起，遂入城，參庭請。一日，因辭病不出，蓋以近侍至畿邑，聞國有逆獄，則不問虛實，卽入城肅命，道理當然。既出肅而卽有庭請，則豈可逃避耶！時彥慤爲副學，不得不聯名其下矣。況鳳城君乙巳之獄，金明胤告以尹任有推戴之謀，兩司請置大罪，又請禁閉其家，明廟文定后，皆不聽。丙午秋，兩司及大臣，請斷以大義，竄配平昌郡。丁未秋，彥慤壁書上變後被殺，蓋先生召命適在是時。群凶得志，禍網彌天，太露圭角，則徒殺身而無益，正君子沈晦含嘿之時。先生處變，蓋其時事勢道理之不得不如此爾.’가 있다.

從先進.’ 其言離²⁹⁶⁾異，先進之於禮樂，文質得宜，即監於二代之文，故欲從之。從先進，是亦從周之意也。周末，禮崩樂壞，文勝滅質，故欲救時弊，而如是言之也。”

夜對經筵.

上問三代歲首及所尚不一。先生先啓三統之義，仍曰：“今以寅月爲正，上國朝賀，前則於正朝爲之，而近來則以冬至爲朝賀，以示兼取周正建子之義也。所尚不一者，蓋夏之時，風氣渾然，故禮文大體尚忠。忠者，主於中而已。降及於商，尚質者，其視忠則著於形質而成矣。至於周，則參二代而禮樂制度極備，故孔子曰：‘郁郁乎文哉！吾從周.’大抵制作，因一時氣象²⁹⁷⁾，故三代文爲，如此其²⁹⁸⁾異矣。”上又問立社本意。對曰：“此見〈郊特牲〉，曰：‘社所以神地之道也。’地載萬物，取財於地，故教民美報焉。國主社，示本也。註，‘聖人知地道之大，故立社以祭，所以神而明之也。天子・諸侯²⁹⁹⁾之國，主祭土神於社，

296) 離：[부전지 ‘離’恐‘雖’.]가 있다；白洲本 ‘雖’

297) 象：白洲本 ‘像’

298) 其：白洲本에는 뒤에 ‘有’가 있다.

299) 侯：白洲本 ‘候’

示其爲載物生財之本也.’”進言訖，命賜山果，以謹灾不賜酒。夜初鼓五點而退。【“立社”一條，先生當日，偶記不起，不能詳對，出即考錄如此，舉似同僚，以備啓達，而告病辭遞。】有竹洞屋舍圖。

將移三逕³⁰⁰⁾於竹洞之深，而歸計蹭蹬，寄書子篤，命使依圖營築焉。

有〈上龔巖李先生³⁰¹⁾〉詩。

“高臺新曲賞深秋，手折黃花對白鷗。仰德至今清夜夢，月明時復到中洲。”是月，宋圭菴 麟壽·李罇巖 若冰賜死，又晦齋 李先生凡³⁰²⁾諸賢二十餘人皆竄逐。先生方於危疑之際，亦勇退不得，于以回想龔巖先生之休閒風節於黃花白鷗之間，更足以願慕歎仰，而恨不同之，故詩意有如此。

十月，病未出書堂，呈辭受由。

自此凡三冬，不出戶外。【是月，鳳城君賜死。】³⁰³⁾

○二十七年戊申【先生四十八歲】³⁰⁴⁾

300) 逕：白洲本‘徑’

301) 先生：白洲本‘相公’

302) 凡：白洲本‘及’

303) 賜死：白洲本에는 뒤에 ‘寄閔景說·南景霖詩【“詩如古磬樂山子，氣似野雲觀物翁。

唯有退溪多病客，蕭條身世類霜蓬。”閔号觀物，南号樂山，是時同選書堂。】’이 있다.

304) 1548년(明宗 3)

(譜)正月，求外補，拜丹陽郡守。

陳復昌時方柄用，亦外慕先生，欲令來見，而竟不往，復昌深銜之。至是，適過其門³⁰⁵⁾，勢有難避，乃見之。陳出迎，驚喜。明日，就別于南公應龍家，乃言曰：“某何可補外？經筵事繁，吾當請留之。”先生聞是言，瞿然自失，不待行期，即發促出城。行未遠，陳果啓之。上以丹陽殘弊，久未得人，且既有成命，不可還召，故寢其啓。【後陳因使臣往來，屢通簡·詩，先生一不答焉。陳銜之，未久見敗，以是免焉。】

二月，賑給買浦倉。

歸路又³⁰⁶⁾有詩云：“十室不堪星在罍，絃歌那得變謠風？”先生乞外，蓋將賦歸計也。求爲是郡，郡乃仙鄉道院，而急於荒政，其於遊賞寄興，姑未遑及。爲治雖無建白，而舉措之間，服人心志，使人愛慕不忘。當時有問治郡之第一，則必以先生對。

四月甲子，祈雨于上岳山。

不移時而即雨，人比之黃勉齋拜灋雨。

始遊島潭。

305) 適過其門：[부전지 ‘適過其門’, 改‘公例’.]가 있다.

306) 又：[부전지 ‘又’當刪.]이 있다.

有詩云：“何年³⁰⁷⁾神物動雲雷，絕境中間巨石開？萬古不隨波浪去，巍然如待使君來。”又有“莫道使君無與賞，三杯聊勸水中鷗。”之句。

五月，遊龜潭。

亦有詩，稱其靈境依然與九曲同。

輯錄丹陽館宇·山水題詠，仍有小跋。

每於公暇，遊陟吟詠，且記其勝以留郡。後人傳以爲寶。【按月川趙公穆書其後云：“先師之出守丹山也，鳴琴餘暇，手寫此本，爲一郡³⁰⁸⁾謄錄，留置郡司而去。其後，有繼守此郡者，愛其心畫³⁰⁹⁾而持去，遂經累³¹⁰⁾守，莫知所在。今守奇公薨，好善君子人也。回祿之餘，重新館宇，旁求尤切。穆幸於陶山讐校遺文之日，偶得見之。古所謂‘異物不永爲人服，終當合’者，其有是歟？遂歸本郡，俾永其傳，以遂先師之本意，且以副奇侯之望云。嗚呼！³¹¹⁾世之愛珍³¹²⁾寶而爲己私者，諡之曰‘貪’。今之取此者視彼，清濁不同，其爲私己則一而已。噫！後來者，當鑑于³¹³⁾蘇公廣明之誠也歟！”】

六月，書〈周景遊題金季珍風詠亭詩帖後〉。

七月，以病呈辭。

(譜) 九月，受假³¹⁴⁾還鄉省墓。

307) 年：白洲本‘時’

308) 郡：白洲本‘部’

309) 畫：白洲本‘畫’

310) 累：白洲本‘屢’

311) 嗚呼：白洲本‘於乎’

312) 珍：白洲本‘玩’

313) 于：白洲本‘於’

時貞愍公以右尹，乞假³¹⁵⁾下鄉展掃³¹⁶⁾，先生³¹⁷⁾亦追到。將還，與宗族叙別于孝子菴。

九月，以病再呈辭。

(譜) 十月，換守豐基郡。

《逸集》先生上貞愍公書有曰：“所望出按此道，弟得換僻郡，藏此愚拙，何幸何幸？至是，喜其漸近鄉山。”

十一月，赴任豐基。

行李蕭然，只載二個怪石而已。行到竹嶺，丹陽官卒，負麻束而前曰：“此衙田所收，例爲行需，故追納之。”

先生曰：“非我所令，汝何負來？”却之。【丹陽吏人，欲修理衙舍入見，房牖塗紙，明潔如新，絕無唾涕點抹，吏民大悅。³¹⁸⁾出李公植《澤堂集》。】

○二十八年己酉【先生四十九歲】³¹⁹⁾

講學白雲洞書院。

先生自幸其換符爲洞主，留意興學。簿書之暇輒到院，

314) 假：白洲本‘暇’

315) 假：白洲本‘暇’

316) 展掃：白洲本에는 없다.

317) 生：白洲本에는 없다.

318) 悅：白洲本‘悅’

319) 1549년(明宗 4)

與諸生講論不倦，必以古人爲己之學，諄復告諭。居一年，儒風丕振，知學之有師而尊慕之。其〈示諸生〉詩曰：“小白南墟古順興，竹溪寒瀉白雲層。生材衛道功何遠？立廟尊賢事匪曾。景仰自多來俊碩，藏修非爲慕騫騰。古人不見心猶見，月照方塘冷欲冰。”又〈景濂亭〉詩，“草有一般意，溪含不盡聲。遊人如未信，蕭洒一虛亭。”【到郡之初，即與書諸生言，“其畏寒，未即修禮廟下之意。”問，“現到幾員，將到未到亦幾員？”因付酒雉等物。自是，往往禮餽不絕。後又與書曰：“寒齋雪榻，攻苦食淡，何以消遣？惟黃卷中至樂，可抵當此耳。手持朱墨，心騷結課者，強顏發此語，亦可笑也。320)”】

改定白雲洞書院常享祝文及陳設圖·笏記。321)

舊享三賢，祭用各祝，實周慎齋 世鵬所撰定，而尙有未穩，先生仍其一而改其二。又慎齋本圖，右二豆用軟蜜果，先生以爲褻味不合學中，且果而盛于豆，尤非所宜，去蜜果，代以鹿醢，左一籩，亦對此而去果，代以魚鱸，使左右籩豆醢菹，兩兩相對無參差。且以祭儀間有徑率苟且之病，並稍加訂正，留爲諸生矜式。322)【又按先生答完姪書有云：“聞臨臯落成，用油蜜果，此甚不

320) 手持……笑也：[부진지 ‘手持’以下商.]이 있다.

321) 常享……笏記：白洲本 ‘陳設圖及笏記’

322) 留爲諸生矜式：[부진지 ‘留爲諸生矜式’恐未穩. 襯改以‘俾爲遂行恒式’，如何?]가

宜於學中，如見盧·鄭兩君，須密規之。”】 323)

(譜) 寒食，省先塋.

高·曾墓在安東. 去乙亥年，松齋公爲府使澆奠. 今先生亦祭以官辦，有感吟其事二詩. 【龔巖 孝節公³²⁴⁾曾祖義興公諱坡，於先生爲祖母之外祖. 時立石于其墓，先生亦盛辦祭具以助之，爲題其碑. 龔巖以詩謝之.】

(譜) 四月，遊小白山.

小白，南紀名山也. 先生跋馬獨往，登陟岡巒，累日方返，飄然有南嶽之興.³²⁵⁾

郡齋移竹有詩.

郡人至今稱爲‘先生竹’. 又有當日手植松，亦稱‘先生松’.

上龍泉寺，謁麗太祖眞.

寺，舊在郡北七里. 高麗 太祖畫像，自聞慶 陽山寺，

있다.

323) ■ 《退溪先生續集》의 〈安文成公享圖(配位同)〉에서는 白雲洞書院의 常享 陳設圖를 改定한 것을 己酉年(1549년, 49세) 가을의 일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백운동서원의 常享 祝文을 개정한 것도 같은 때로 추정된다. 그러나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백운동서원에서 講學을 했다는 기사 다음에 이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곧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해당 부분 編次에 의거하면, 백운동서원에서 강학한 사실과 백운동서원의 常享 祝文·陳設圖·笏記를 개정한 사실은 모두 己酉年 1~2월의 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가 오류로 보인다.

324) 龔巖孝節公 : [부전지 龔巖非門親, 則不書姓, 恐未安. ‘孝節’二字, 改以‘李相’, 如何?][龔巖姓蒙上不安, 輒書何如?] 가 있다.

325) 飄然有南嶽之興 : [부전지 ‘飄然’以下刪, 何如?]가 있다.

辛禍五年，避倭寇，移藏于此。郡守林霽光修其廟，未幾火，晬容得全。然只藏在一小櫝子，僧徒不知奉護，取爲木枕。先生不忍其天人³²⁶⁾之表，受此瀆慢，將謀於寺僧，作一間屋以安之。屋未成而先生辭歸。

【先生當初謀屋，只令寺僧守之而已，非有祠祭之事。而于時臺官云：“先代王者之祭，乃興滅繼絕之義。李某以一郡守私爲之，甚可駭也。”將以舉劾。有人止之而止。詳見先生答貞愍公及答李剛而書。◎萬曆丙子，西厓 柳文忠公 成龍建白，移奉麻田 崇義殿。】

九月，受假³²⁷⁾還鄉。

時貞愍公以湖西伯，亦乞假³²⁸⁾焚黃。先生有詩二絕云：“遊宦來歸見弊廬，眼中兒姪集魚魚。悲風不盡三盃奠，常棣歌成淚洒裾。”“兄專一道弟專城，人比還鄉畫錦榮。富貴一毫何足詫？勉修先業永無傾。”

【見《溫溪集》。】

會酌養眞菴。

龔巖相公來臨。是日，任侯鼎臣亦到。又陪龔巖，遊屏菴，泛舟汾川。³²⁹⁾

326) 天人：[부전지 ‘天人’之‘人’，恐‘日’.]이 있다.

327) 假：白洲本 ‘暇’

328) 假：白洲本 ‘暇’

329) 龔 《龔巖先生文集》에는 退溪가 넷째 형 漣와 함께 龔巖으로 李賢輔를 찾아갔을 때 지은 退溪의 시에 次韻한 李賢輔의 詩와, 李賢輔가 養眞菴으로 退溪를 찾아왔을 때, 退溪가 그에 감사하여 지은 詩 및 그 詩에 次韻한 李賢輔의 詩가 실려 있다. 이 詩들을 살펴볼 때, 退溪가 漣와 함께 龔巖으로 李賢輔를 찾아간 날과, 李賢輔가 養眞菴으로 退溪를 찾아온 날은 같은 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退溪先生

飲餞³³⁰⁾孝子菴.

有〈餞席〉詩云：“去年此地把離盃，一歲分飛又再來．若使年年爲此別，臨歧不用重徘徊．”先生自註云：“溫溪西踰一嶺，有孝子菴，菴前有林野閒曠．去年九月，兄以右尹，受恩暇來鄉，某時爲丹陽，亦追到．宗族叙別于此，適一期，而今又同來，續作去年之別．旣幸其然，又歎繼今之難必，故有是句云．”又〈豐基郡衙相與夜飲〉一絕云：“往來三宿戀基山，紅燭清琴夜向闌．莫笑樽³³¹⁾前舞風竹，官遊離別苦多端．”【亦見《溫溪集》．◎按貞愍公，自是以後，不復南歸，而庚戌之禍，只是明年事，則先生此時逢別，便成一訣，而“歎繼今之難必云．”者，有若³³²⁾前知者．然其郡齋夜離別多端之苦，又“蠓冷臺³³³⁾分影斷魂．”之句，莫非隨處悽黯，有甚於夜雨蕭瑟之感，而留作千古詩跡之識，何其異哉？】

十月，送別貞愍公於蠓冷臺．

臺在竹嶺 腰院之下，湖·嶺分界處也．先生凡送迎貞愍公，皆於此地．當初得一勝處爲臺，名以‘棧雲’【俞

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이 두 별개의 사실을 같은 날의 일로 무리하게 묶어둔 것으로 보인다.

330) 飲餞：[부전지 ‘飲餞’下入‘貞愍公’，何如?]가 있다.

331) 樽：白洲本 ‘罇’

332) 若：白洲本 ‘別’

333) 蠓冷臺：白洲本 ‘蠓冷臺’ 이하 白州本에서는 ‘冷’이 ‘泠’으로 표기되어 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潘溪〈竹嶺行〉云：“百盤棧道浮雲邊。”後改‘矗冷’。【佔畢齋〈頭流山〉詩云：“雲根矗矗水冷冷。”◎《逸集》〈答琴大任書〉曰：“臺名‘棧雲’，取俞好仁詩語而名之。更思之，以‘棧道’名臺爲不當，故更取佔畢齋詩中語名曰‘矗冷’，庶可以畫臺之形勝而無慊³³⁴矣。”】又有“鴈影峽”【杜詩，“鴻雁影來連峽內。”】·“消魂橋”【江淹〈別賦〉，“黯然消魂，惟別而已。”】，皆先生所名，而以寓當日送別之意也。有二詩云：“爲破天荒作一臺，鵠原棠紱送迎來。冷冷恰³³⁵似歡情溢，矗矗眞如別恨堆。”“鴈影峽中分影日，消魂橋上斷魂時。好登嶺路千盤險，莫負明年再到期。”【見《逸集》。◎後先生〈寄黃仲舉〉詩，“爲人性癖愛雲烟，矗矗冷冷更酷憐。峽裏高臺依舊未，夢魂時復逸層巔。”】

(譜) 十二月，上監司書，請白雲洞書院扁額·書籍，啓聞頒降。

蓋倣朱子知南康軍³³⁶時，白鹿洞故事也。先生去郡之後，書院諸生欲得其上監司書元稿，留爲院中故實，先生寫一通付之，至今傳作院藏。

跋龔巖〈漁父歌〉。

跋略云：“身效轅駒，盟寒沙鳥，何敢語江湖之樂，而論漁釣之事乎？東坡所譏以‘朝市眷戀之徒’，而出山

334) 慊：白洲本‘嫌’

335) 恰：白洲本‘如’

336) 軍：白洲本‘郡’

林獨往之語’者，某之謂矣。”時先生將有棄郡之志，故特寓所感如此。

行地震解怪祭。

寒證得發，益有歸山養閒之願。

(譜) 以病三辭于監司，請解官，不待報而歸。

莅郡以簡靜不擾爲尚。其收賦於民也，雖甚輕約，而若民所當爲者，亦無所增減，不爲違道干譽之事。其待吏民，一以誠信，不逆其欺³³⁷⁾詐。其去也，士思其教，民懷其惠，至有遮道涕泣者。清風灑然，無一點私累。書籍所盛桎籠，到家，亦還付官卒。【先生答人詩，有“韋守思田日，陶公問路晨。”之句。據〈來歷草記〉，是歲，凡五辭于監司，期於必退。監司不許，乃投紱徑還。◎有裴純者，古順興府冶匠也。天性淳謹，平生無妄言，事父母至孝。先生莅郡日，往來白雲院，純頻頻進謁于庭下，愛敬達於面貌，先生爲加獎許誘掖。及其罷歸，鑄鐵像，朝夕焚香，起敬以寓景³³⁸⁾慕。聞易簣服三年，奉鐵像以祀之。後人名其居曰‘裴店’。萬曆癸丑，鄉人立石以旌。蒼石李公竣³³⁹⁾爲郡守，作詩刻之云。】

337) 欺：白洲本‘譏’

338) 景：白洲本‘敬’

339) 竣：白洲本에는 뒤에 ‘時’가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二

○二十九年庚戌【先生五十歲】¹⁾

讀書竹洞.

有詩云：“抽書靜讀南窗裏，有味難名²⁾獨自怡。”先生自謂：“休官養閒，入了清涼境界，自是深居靜習，益味衆人之所不味。”³⁾

(譜) 二月，構寒棲菴.

有〈和陶集移居韻〉詩。又與人書曰：“失脚世路，徇俗汨沒，數十年光陰，忽已蹉過，回首茫然，撫躬浩歎。猶幸收身反本，尋繹舊書，則時⁴⁾與意會，信古人所謂‘欣然忘食’者，不我欺也。溪邊，縛得數間屋，自今以往，直以蓋棺爲期，默坐靜玩，過了殘生。賴天之靈，或可窺隙光於大明之餘，以畢其願，則下土之拙幸矣。他尙何云哉？”

有六友園.

園種梅·竹·松·菊·蓮，謂六友，蓋以與己爲六友也。

1) 1550년(明宗 5)

2) 名：白洲本 ‘明’

3) 先生……不味：[부전지 ‘先’以下刪.]이 있다.

4) 時：白洲本 ‘心’

三月，龔巖先生來臨寒棲.

先生詩以謝之，有⁵⁾“頓荷山南老仙伯，肩輿穿得萬花來.”之句.⁶⁾

(譜) 四月，鑿光影塘.

又名溪流之瀨曰‘鏘鳴’，取朱子〈白鹿洞賦〉“澗水觸石，鏘鳴璆兮.”之義也.

跋晦菴詩.

間抄其朋友相規切之辭，與門人. 其跋略云：“大賢德業之盛如彼，若可以少⁷⁾已，而其責己責人之際，懇篤而誠慤如此，無一毫自恕自足之意，亦無一句爲人相諛悅之辭. 蓋學問之道，不日進則必日退，操心之法，不警懼則必怠慢. 在大賢尙有此，況其下者乎?”

閏六月望，泛舟賞月.

陪遊龔巖相公⁸⁾，有詩.

(譜) 八月，聞左尹公訃.

‘左’恐‘右’之誤. 右尹公事，詳見先生所撰誌⁹⁾碣.¹⁰⁾

5) 有：白洲本에는 뒤에 ‘詩’가 있다.

6) 三月……之句：[부전지 此段刪.]이 있다.

7) 少：白洲本 ‘小’

8) 龔巖相公：[부전지 ‘巖’下入‘李’字.]가 있다.

9) 誌：白洲本 ‘墓’

10) 右恐……誌碣：[부전지 此條{註}書無妨. ‘先生’以下，改‘文集誌碣篇’，何如?]가 있다；白洲本에는 小註로 되어 있고, 뒤에 大註로 ‘往竹嶺迎柩’가 있다

【後於壬子四月，先生承召還朝，與姪等書有曰：“天拔眼中之釘，餘孽亦遠，人心稍和，氣象殊不如前。吾家禍故，皆知其冤，而或公發悶痛之言，然於地下之魂，何益乎？已往之事，何補乎？¹¹⁾ 吾之所處，不可以此而自幸，言語形跡之間，尤以爲難也。”】

○ 三十年辛亥【先生五十一歲】¹²⁾

(譜) 是年，先生不仕家居。

有自歎詩云：“謝透利關緣事洙，胡明物漬爲從涪。自憐半百無歸仰，依舊人間寂寂儔。¹³⁾” 先生之不由師承，超然獨得，又可見於此。

(譜) 有次諸人唱酬韻十四首。

按所次諸人唱酬韻，凡六十五首，先生詩所謂“和詩《易》卦今加一”者也。十四首見《元內集》，十九首見《別集》，三十一首見《外集》，又一首見《內集》云，而今未詳。

清明，撤寒棲移溪北。

先生初構寒棲¹⁴⁾於溪西，以其過大，移構小堂於溪東北而居之，今之寒棲菴是也。有次老杜韻二詩，“恨未

11) 乎：白洲本‘焉’

12) 1551년(明宗 6)

13) 白洲本에는 뒤에 ‘之句’가 있다.

14) 棲：白洲本에는 뒤에 ‘菴’이 있다.

一生逢有道，此心無路訂千年。”又“補過希前垂至戒，令人長憶紫陽翁。”【先生雅尚儉素，溪上之宅，僅十餘架，祈寒暑雨，人所不堪，而處之裕如。有一宰¹⁵⁾嘗歷謁，大驚曰：“隘陋如此，何以堪之？”先生徐曰：“習之已久，不覺也。”】

(譜) 三月，往省安東 馬鳴洞先祖塋。

高·曾以上塋域，皆在永嘉地，每親往奠拜，到極衰猶然。【先生五代祖松安君墓，在府北兜率院 馬鳴洞。】

有謝龔巖¹⁶⁾詩。

龔巖來臨溪堂。先生詩，“第一光華老仙伯，年年臨到萬花邊。”

拜龔巖¹⁷⁾於江樓。

又用前春所和東坡〈月夜飲杏花下〉韻，有詩。¹⁸⁾

六月，門人有請訓誨詩，不許。

先生曰：“身不行而口徒言，寔余之所愧也。”因曰：“頃報金秀卿書，‘以士之爲學，豈不願三釜五鼎之養？’

15) 一宰：白洲本‘人’

16) 龔巖：[부전지 ‘巖’下入‘李相公’三字. 下段刪.]이 있다 ; 白洲本에는 ‘巖’ 뒤에 ‘相公’이 있다.

17) 巖：白洲本에는 뒤에 ‘相公’이 있다.

18) 앞의 시 “第一光華老仙伯，年年臨到萬花邊.”은 《退溪先生文集(內集)》 해당 부분 編次에 의거할 때 3월 4~10일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이 시를 지은 사실과 3월 11일 밤에 李賢輔를 모시고 살구나무 아래에서 술을 마시며 蘇軾의 〈月夜與客飲杏花下〉시를 차운한 사실을 3월 17일 安東 馬鳴洞에 있는 5대조 松安君의 산소에 성묘한 사실 다음에 기록해 두고 있다.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닐까 한다.

然有命焉，不可必得，故古人亦委諸命，而姑修其在我者而已。余保秀卿必無陷溺之弊，然以此爲心，則不無心術之病耳。’【此書見逸於《文集》.】”

○三十一年壬子【先生五十二歲】¹⁹⁾

二月，遊枕流亭。

三月，遊仙遊巖。

四月，有〈溪上〉詩。

古體六韻，有“唯有千載人，襟期與我會。”之句。

(譜) 拜校理，被召還朝。

懇辭不獲，乃赴命，然自是以後，遇一遷轉，必辭以病，辭而未獲，然後就職，雖就職，而在告之日，常居半焉。

與宋台叟書，付以小燭二柄。

其書曰：“似聞眉公遺嗣，尚在清境，何以存活？二柄幸付其嗣，俾用於其禰之祭，一明平生之心，而秘之尤善。”【先生素與宋圭庵 眉叟善，至是，其冤未伸，故不敢顯稱，但曰“眉公”，又曰“秘之尤善”云。 台叟，實²⁰⁾圭庵從祖弟。²¹⁾】

19) 1552년(明宗 7)

20) 實：白洲本 ‘乃’

21) 祖弟：白洲本에는 뒤에 이어서 ‘按《尤菴集》有論此事曰：“宋參贊麟壽，固無謀害

(譜) 拜執義，辭不允。

先生方欲解館職而退，但以初到難便，姑且黽勉，不意貳憲，務煩尤礙養疾，故期於乞免，而亦不得。

六月，筭論寺刹。

時²²⁾有寺刹守直奴子，告以法司關寺刹撤毀云，遣中使往見之，則無撤毀之事，然因此上教有慈殿以法司不啓稟，擅便行移撤毀，尤甚不當云云。初一日，坐本府上筭諫置寺刹之非。【《譜》所謂“與同僚上筭論事云”者，疑亦指此也。²³⁾ 筭見逸。】翌日，即呈病。

(譜) 七月，陞大司成。

時士風漸壞，上欲擇名儒以表率之。先生十一日，自東湖暮入城，是日，有成均之命。廷議咸以實合師表，稱聖朝得人。◎先生初陞通政，趙松岡 士秀，遺以錦袍堂上服，先生不受。

有〈喜雨〉詩。

“精虔不待禱桑林，大霈甘霖沃物深。我與萬人同鼓舞，歸田從此更關心。”

圭祖，如磁·芑之事。然凡係斬伐鋤鑠之事，一皆同參，終至錄勳，其爲人可知。然而退溪嘗因此人，致物於几筵，此不可知者。”云云。尤菴是圭菴曾孫，故稱圭祖.’라는 내용이 더 있다.

22) 時：白洲本에는 앞에 ‘是’가 있다.

23) 也：白洲本 ‘事’

跋《晦菴詩帖》。

跋略云：“噫！既未得從先生於雲谷·廬山·武夷之間矣。安得還吾舊山，與一二同志，齋居靜裏，歌詠先生之道，以求天下之眞樂而樂之，庶幾忘吾好古生晚之憂也耶？”【先生晚喜晦庵詩，往往調格，如出一手。】

(譜) 跋周慎齋【世鵬】〈遊清涼山錄〉。

【《譜》，以此係之於七月，而據《文集》，實是歲重陽前一日。】

十一月，命賜宴廉謹人于闕庭，病辭參宴。

廉謹被抄人，先生及安公 玆·趙公 士秀·洪公 暹等合二十人，賜一等樂，各賜丹木·胡椒有差，至昏，復賜白蠟燭各一雙。【出《東臯集》。】疑先生病辭，欲避廉謹之名也歟。²⁴⁾

有和龔巖²⁵⁾冬至韻詩。

十一月十五日爲冬至，乃中廟諱辰也。龔巖永夜不寐，感吟一絕，寄來先生。和詩曰：“至澤追思弓劒日，頑雲驚動地雷春。誰知白髮三朝老，不寐中宵頌祝陳？”

【出《龔巖集》。】²⁶⁾

24) 疑先生……名也歟：[부전지 ‘疑’以下商.]이 있다.

25) 龔巖：[부전지 李相公]이 있다；白洲本에는 뒤에 ‘相公’이 있다.

26) 龔巖의 시에 退溪가 次韻詩를 쓴 것은 《退溪先生全書遺集外篇》과 《龔巖先生文集》의 기록에 의거할 때, 1551년(명종 6, 51세) 11월 15일 동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때, 곧 11월 16일경에는 지었음 것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는 1552년 조에 실려 있는데, 이는 오류임이 분명하다.

○三十二年癸丑【先生五十三歲】 27)

正月，欲乞假²⁸⁾，未果。

時將有親耕大事，以由退未安故也。

二月，答金惇叙書。

論心中不可有一事。

跋《三朝御書帖》。

三月，再呈辭，不許。

先生自去冬，已有歸意。至是，因墓山加土受由，指日將發，國家方憂旱，有朝官由禁，乃乞解官，而又以不得遂計爲歎。

(譜) 四月，拜大司成。

以作人爲己任，發策問以爲學之道，時士習已敗，反以爲迂，無一人對策者。◎其策題末段曰：“如或曰‘居今之世，但當爲今之人’，非唯自不務講學，又嗤病他人之志道者，使噤口結舌而不敢出一言，若是者，豈徒學宮之所不齒，無亦聖朝之罪人也耶？”後先生識其後曰：“某既出此題，學中頗騰謗，因遂病辭而退。當時猶不自知吾言之失，今而讀之，始覺此言褊

27) 1553년(明宗 8)

28) 假：白洲本‘暇’

薄過當，殊非忠厚懇惻，誘掖成就之意，宜諸生之怨怒也。追思甚愧，而玷不可磨，謹削去題內，而識之於其後，以見吾過，爲後日之戒。噫！所發因於所養，卷中他語，類此者尙多，而未之覺，又可懼也。”◎館學儒生，以飲食美惡，爲養士之能否，少不如意，則謗議沸騰，官員或曲爲要譽，供頓極其豐美，庫財蕩盡。先生深以爲非，唯以禮義養士，而口體之養，不爲致力，館中皆怪怒。先生知士習不可變，未幾移疾不出。

(譜) 六月，賜學田，率諸生，上箋謝。²⁹⁾

謝箋今逸。

製進〈宗廟祈雨祭文〉。

(譜) 七月，製進大王大妃還政教書。

教書見逸。【時明宗春秋二十。】《逸集》與子窩書³⁰⁾云：“今月十二日，大王大妃撤簾歸政，自今殿下親政事，曉諭中外，此是大關事，余之歸計，因此尤難，奈何？”

【先生自言：“嘗於乙巳，在玉堂，堂中一二人，宣言尹大妃不可垂簾。某曰：‘然則攝政者誰？’曰：‘大臣。’曰：‘不可。家有主母，豪奴悍婢，

29) 謝：白洲本에는 뒤에 ‘恩’이 있다.

30) ㉮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與子窩書’는 《退溪先生全書遺集外篇》《退陶先生集(家書)》《先祖遺墨》 등의 기록에 의거할 때 ‘答子窩書’로 되어야 옳다.

不敢與弱子抗。況三代之後，人心不古，恐不當效周公之事。昔宋朝爲相者，有若韓琦之賢，而亦不免垂簾之政，況於其下者乎？’某須臾起如廁，二人坐夾室中，呼景浩來，‘少年聽處，何以發語如是乎？’某曰：‘公言則公言之，不可隱默。’同席聽者，具陳於元衡輩。明日，二人即盡奪告身³¹⁾，繼之賜死，而獨不及某。蓋必元衡輩，不知時宜不得不如此，疑某附己而置之。”◎按星湖 李瀾《僊說》云：“昔乙巳之時，李 芑等倡³²⁾垂簾之議。退溪先生云：‘家有主母，豪奴悍婢，不可與弱子抗。’此出於〈高祖論〉也。當時李霖·郭珣，召先生於室中云：‘少輩叢中，何以輕發此語？’芑聞之怒，李·郭卒被罪死，而先生獨免焉。芑以爲附己故也。余思之，國無長君，權臣乘時篡奪，是固可慮。萬一政歸中壺，外戚伺隙，則其勢益不可當，史牒可監。是母后權臣，合成一套，誰能奈何？古道雖不可復，既值不幸，寧從其輕者。大臣獨專威福，天下之人，皆可指陳，其勢猶可權也。新君雖幼，與權奸二而非一也。政歸于³³⁾內，則新君與母后，一而非二也。又戚里佐之，不知更添幾個權臣，有城狐社鼠之固，新君雖長，無可措手也。李·郭諸人，既榮達在廷，當禍福之際，忘身守正，不可專非矣。郭被拷³⁴⁾時，壻³⁵⁾見堂上云：‘不意吾輩，盡死於復古之手。’復古，晦齋字也。”更按³⁶⁾星湖此說似矣，而恐未悉當日事勢及先生本意者。若使大臣攝政，則誰可任此？尹頴相³⁷⁾之依阿，固勿說，柳左相³⁸⁾雖忠實，而亦不免於椎。惟仁宗³⁹⁾末命，院相二賢，可以當之，聖意似可仰揣，而二賢果荷此重負，

31) 告身：白洲本‘職’

32) 倡：白洲本‘唱’

33) 于：白洲本‘於’

34) 拷：白洲本‘拷’

35) 壻：白洲本‘望’

36) 更按：[부견지 ‘更按’以下恐商. 並上‘按’以下，刪之何如?]가 있다.

37) 相：白洲本에는 뒤에 ‘【仁鏡】’이 있다.

38) 相：白洲本에는 뒤에 ‘【灌】’이 있다.

39) 宗：白洲本‘廟’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二

則當日大臣，果能相安於俯聽⁴⁰⁾貳相之裁斷乎？奸凶如芑·元衡輩，又果能自安於下僚之位，而不圖進取乎？兩事之俱不得諧，此必至之勢也。一朝駭機卒⁴¹⁾發，則二賢之禍，豈其止於江湖之竄置，而一時正士，安得免株連網打之禍哉？毋寧姑循前代及國朝故事，使二賢得釋重負，少緩大禍，而日後士林之成敗利鈍，只得付之於天，爲伊日隨時之義矣。此先生之引家有主母之說，而不得有異論於垂簾之議者也。雖〈高祖論〉語，苟其合於理者，亦何妨於援以爲說乎？星湖祇憤於後日，奸凶之憑依城社，斬伐士⁴²⁾林，有此激訐之論，而不知先生當日之語，爲深救二賢，而合於時措。且“先生獨免焉，芑以爲附己故”一句，全沒婉轉發明之意。李公於是乎失之矣。又況末端之說到晦齋，何也？晦齋之前日通芑仕路者，只爲惜其小才也。豈逆睹其戕殺士流耶？援引冤死者激談，首尾一意隱然有未安於二先生者，豈所謂心有所忿懣，而遣辭之際，自失斟酌，不之覺⁴³⁾察者歟？】

（譜）有〈洪應吉遊金剛山錄序〉。

初，應吉之將行也，先生有書曰：“山林之願，誰獨無之？一失脚塵中，能遂其願者，解矣。老夫亦安能終遂沒沒於此耶？每遇名區，爲我好相待，而謝其遲遲也。”

九月，乞外補。

時適凶荒，限明年秋成，不許朝官受由，先生引退無路，欲於關東求得閒邑而去，只有旌善之闕，而官事

40) 聽：白洲本‘循’

41) 卒：白洲本‘猝’

42) 士：白洲本‘山’

43) 不之覺：白洲本‘之不覺’

板蕩，適足以礙於養病，故亦不遂補外之願。

製進〈集慶殿慰安文〉

時慶州館舍失火，遣近臣慰安。⁴⁴⁾

十月，擬關東伯。

先生曰：“關東之擬，不求而入，幸免受點，於病人得其分矣。”【家書又曰：“余羸悴尤甚，時人皆指爲病人，非徒時人，天鑑亦已洞知，故八擬承旨，再擬副提，皆不落點。今雖退去，可免人之疑謗，但無端引⁴⁵⁾去爲難云云。”】

十一月，作〈延平答問後語〉。

先生答人書曰：“益知前賢講學傳授之緒餘，亟欲抱此還山，以卒其業，以樂其餘年。”

抄《醫閭先生集》，附白沙·陽明抄後。

先生書其末曰：“某按靜坐之學，發於二程先生，而其說疑於禪，然在延平·朱子，則爲心學之本原而非禪也。如白沙·醫閭，則爲厭事求靜而入於禪，然醫閭比之白沙，又較近實而正，至於陽明，似禪非禪，亦不專止⁴⁶⁾於靜，而其害正深矣。今故錄白沙·陽明於《延平答問⁴⁷⁾》後，而終之以醫閭，以見靜學之易

44) 製進……慰安：白洲本에는 이 내용이 六月條에 들어가 있다.

45) 引：白洲本‘決’

46) 止：白洲本‘主’

47) 答問：白洲本‘問答’

差，而不可忽也。”【當時中原學者，皆第⁴⁸⁾葱嶺氣味，微先生力辨，幾乎惑亂人矣。◎又見《譜》〈丙寅〉“作〈心經後論〉”下。】

跋許監察所藏〈養生說〉。

跋云：“不願天仙作地仙，古人爲余道此言也。衰病思歸，久未得焉。聞守谷李公養靜江皋，而心慕之，監察許君，示余以守谷所書〈養生說〉。噫！守谷能作地仙，而余獨不能耶？識數字書尾而歸之，明日將歸山。嘉靖癸丑，清涼山人書。⁴⁹⁾”

聞晦齋李先生訃。

先生曰：“深可哀痛，天之施報，真可謂舛矣。”【李公 夢弼尹東京日⁵⁰⁾，語人曰：“仁宗初，與⁵¹⁾李景浩，同在玉堂。館中諸人，盛言李復古可相，景浩獨言：‘李公量狹，不宜在相位。’諸人愕然，余亦心疑其言。未幾，時事大變，李公得罪，至是，知退溪之言，乃深救李公也。退溪是時，蓋已知未久必有變故，恐李公作相，得禍尤大，故爲此言，以格諸人之論耳。其先見之明，亦非人所及也。”】

○三十三年甲寅【先生五十四歲】⁵²⁾

二月，別有〈日錄〉。

48) 第：白洲本‘帶’

49) 嘉靖……人書：[부전지 ‘嘉’以下刪.]이 있다.

50) 日：白洲本‘時’

51) 與：白洲本에는 앞에 ‘余’가 있다.

52) 1554년(明宗 9)

始自是月，至十一月，或逐月，或逐日，筭錄古昔要語及自家日用，以寓箴省之意。其手本在陶山院藏。

【生溪 成渾云：“退溪先生，逐日之下，記今日看某書，破某疑，見某理，改某過，修某慝，謹言謹行，一一書之，以自課焉。其篤實之學，老而愈篤如此，真可爲百世之師也。”◎按生溪非指此〈日錄〉，疑據當日他本⁵³⁾而云也。然均之爲發明實蹟，故今附焉。】

三月，跋〈易範諸圖屏〉。⁵⁴⁾

四月，以內賜《性理群書》，付藏圃隱書院。

有小識，略云：“或以君賜與人爲疑。噫！爲書院奉藏書，一以爲先賢，一以爲後學，與人云乎哉？”◎撰臨皋書院祭鄭文忠公文。

(譜) 書景福宮新修諸殿扁額。

先生筆法，端勁雅重，其大字，亦方嚴整齊，非如他名家者，但尙奇怪而已。景福宮⁵⁵⁾重新也，命各試諸臣能筆者，而殿額門題，皆用先生所書。

(譜) 跋《延平答問》。

有〈謝李剛而印寄答問⁵⁶⁾〉詩，“壺月傳心一部書，因

53) 本：白洲本‘錄’

54) 圖 《退溪先生文集(內集)》과 《退溪先生全書(內集)》에 실린 〈書易範諸圖屏後〉를 보면, 그 끝에 ‘嘉靖甲寅清和既望’이라고 그 작성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곧 이 글은 甲寅年 4월 16일에 지은 것이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書易範諸圖屏後〉를 3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55) 宮：白洲本에는 뒤에 ‘之’가 있다.

56) 問：白洲本‘門’

君東海印行初。老夫尙著絲毫力，生世終須不作虛。”

【《譜》57)，以此跋係之於七月，而據跋文末端所著，則實是歲九月既望。】

八月，跋《啓蒙圖書切要》。

(譜) 九月，遞拜上護軍。

先生答人書曰：“率然一來，今見三霜，衰朽鈍滯，即合屏藏，而朝無致仕之例，歲連受由之禁，無端棄去，形跡之間，機關可慮，以此成此因循，深自愧病。兵務尤不堪，昨始釋負，稍幸於拙分。”

(譜) 十一月，哭洪上舍 仁祐。

先生嘗曰：“洪某，篤信力行之士也。每屈車訪之，講論義理，竟日而返，自謂得一益友，未幾遭父喪，過哀卒。⁵⁸⁾”家貧甚，先生與同志之士，共出力以助其喪。嘗稱之曰：“其學深於數，而或未精於理，然其心常在於善，而不爲外物所侵亂，而今難得此等人。”歎惜久之，有挽誄。

十一月，製進〈景福宮重新祭告文昭殿文〉。

(譜) 十二月，製進〈重修景福宮記〉，命賜馬。

初，命選文臣各自製進，而竟用先生所製。

57) 譜：白洲本‘按年譜’

58) 先生嘗……過哀卒：[부진지 ‘先’止‘哀’刪. 【‘洪某’之‘某’，改‘公’。】]이 있다.

又乞外不得.

《逸集》與子寯書曰：“衰憊不能夙夜，徒竊祿俸，於人臣之義，至爲未安，不可不速決去，而去之無名無路，不得已欲乞關東僻邑，萬一不得，亦當以他條，圖爲歸計，要不出明春耳.”【前此，又與人書曰：“嶺東乞補，此亦出不得已之計，非本志也，則豈固必爲哉?”】

○三十四年乙卯【先生五十五歲】 59)

有次成聽松·金河西詩.

其次聽松 坡山四言詩韻有云：“結蘭延佇，思與同遊.”
其次河西詩韻有云：“只今世事勞人甚，羨子行遲更覺仙.” 蓋聽松則先生嘗稱其善處於己卯，而欽其高尚之風節，河西則時患脚痺，故因以爲戲，而亦以自歎於出脚世路也.

(譜) 二月，書進〈七月篇〉.60)

59) 1555년(明宗 10)

60) 圖 《明宗大王實錄》에서는 12월 14일 議政府 舍人이 三政丞의 뜻으로 啓請한 것에 따라 退溪는 景福宮 諸殿閣의 扁額과 〈大寶箴〉, 〈七月篇〉, 〈抑戒〉 등의 글씨를 써서 올린 상으로 熟馬 1匹을 하사받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곧 실록 기록에 의거하면, 〈七月篇〉과 〈抑戒〉를 써서 올린 것은 景福宮 諸殿閣의 扁額 글씨와 〈大寶箴〉을 써서 올린 이후의 일이 되어야 한다. 退溪가 景福宮 諸殿閣의 扁額 글씨를 써서 올린 것은 7월의 일이고, 〈大寶箴〉을 써서 올린 것은 10월의 일이다. 그렇다면 〈七月篇〉과 〈抑戒〉를 써서 올린 것은 甲寅年(1554년, 54세) 10~11월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康寧殿

時因朝命，又研究《啓蒙》。

(譜) 以病三辭解職，即出城，買舟東歸。是日拜上護軍。

纔病辭，徑出國門，雖朝中士友，常所往來者，亦皆不知也。先生與人書曰：“蒙恩遞職之日，適會有政，欲及其未下新命之前而出城恩遽，如此舉措，人必笑之，然非由非罷非致仕，反覆思之，只有此一路，他無可以善處者云。”【據先生答黃仲舉書，先生未歸之前，時相有薦啓者，故及是力辭徑還。】

有〈金遷路上〉詩。

寄趙松岡 士秀云：“莫道吾行不告歸，泮冰時節索盆期。”自註云：“去年，余乞菊種於松岡詩云：‘個中第一銀黃品，安得移根向故園。’松岡許以全盆相贈，且問：‘何以遠致？’余答云：‘泮冰舟載，何遠不致？’至今余簡松岡，有‘泮冰索盆’之語，松岡不悟，余之行速，不及叙別故云。”

(譜) 除僉知，下召旨，令就醫京師。

召旨曰：“聞爾病還鄉家，令觀察使題給食物，在京則

에 〈七月篇〉을 써서 올린 것을 乙卯年(1555년, 55세)의 일로 기록해 놓고 있다. 이는 오류로 추정된다.

雖疾病，廣問醫藥，可以易得治療，斯速調理上來。”

(譜) 申汝悰又啓云云。【先生曰：“申校理上達之言，乃壞我平生事，驚悚，奈何奈何？”】

三月，賞花晚對亭。

亭，即賀淵李公仲樸所構，而先生所嘗命名而寫額者也。時各珮壺約會，龔巖首傾先生所携酒一杯，因題⁶¹⁾詩曰：“亥酒初熟山中歸，主人深味歸家樂。”先生方自京初還，故詩意有如此。⁶²⁾

有〈洞中親契立議〉。

其序曰：“大抵人之於親戚，其所以相親相好者，皆出於本然之性，故在人事當務之急，莫先於此。昔先王之教民也，既勸以睦婣之道，而又率以不睦不婣之刑者，爲是故也。況我諸族，或以內外之親，或以聯網⁶³⁾之故，共處一里之中，連門而居，接畔而耕，起居出入，罔不與⁶⁴⁾同源，派未遠，義分甚密，其於睦婣之修，尤不可不盡其道也。每感伊川先生之言曰：‘凡人家法，須月爲一會以合族，古人有花樹韋家宗會法可取也。每有族人遠來，亦一爲之，吉凶嫁娶之類，

61) 題：白洲本‘有’

62) 詩意有如此：白洲本‘云’

63) 網：白洲本‘姻’

64) 與：白洲本‘如’

更須相與爲禮，使骨肉之意常相通。骨肉日疏者，只爲不相見，情不相接爾。’蘇老泉亦曰：‘親盡則情盡，情盡則喜不慶，憂不吊。喜不慶，憂不吊，則塗人也。’噫！彼親盡而如塗人遠居者然矣。若同居一里，則雖親盡，固無塗人之義。況親未盡，而使骨肉之恩日薄，遂至於相視如塗人，則於人理，何如哉？故今我諸族，用是爲懼，相與立爲契約，以修吉凶慶吊之禮。又以其歡好之情，不可徒然，故每年春秋，各一次爲會以講信，庶幾當務爲急，情義相孚，不失其本然之親也。第慮諸族計活或疏，豐約不齊，而人事多端，若欲每事，皆責其相周，則誠恐財力不逮，反爲所困，亦非久行之道。今只取吉凶中大事若干條，立約如左，其講信之事，亦務從簡易，并錄于後，須一一遵守施行。其不在約條，而事有關重，力所能及者，族中臨時議處，要使之有益無弊，期於永久而不暫也。凡我族中諸人，盍相與勉之哉？”【見逸於《文集》。】

拜龔巖于臨江寺.⁶⁵⁾

先生撰龔巖行狀有曰：“公不以某爲無似，每加誨借扶几從遊者，不知其幾。今年春，歸自京師，兩拜公

65) 拜龔巖……江寺：[부전지 刪.]이 있다.

於臨江寺之蟠桃壇上.”【又有蟠桃壇唱酬詩.】

復修改〈天命圖說〉十節.

月川 趙公 穆云:“右〈圖說〉, 先生在都下, 與鄭公參訂完就, 而其精妙處, 悉自先生發之也. 乙卯春, 南歸而精思修改處頗多, 故與初本甚有同異.” 先生嘗曰:“其義已具於〈圖說〉中, 至十節則有亦可, 無亦可云.”

講《啓蒙》.

溪上, 與諸生同讀, 有詩二絕示意云:“邵關乾坤傳我朱, 《易》中心髓洞玆書. 幾加研索兼咨訪? 到老猶嫌術業疏.” “無倫無外縱難言, 尙愜幽居玩化原. 此日況同諸子讀, 環中心法妙尋論.”⁶⁶⁾

五月, 聞壟巖疾革, 往候之.⁶⁷⁾

十月, 遊月瀾菴.

有詩云:“莫道林林我最靈, 靈源寸汨等昏冥. 雖當老

66) 溪上……尋論: [부전지 曾見丹砂中殷家, 有此詩手墨, 而其下年月, 卽乙丑仲秋也. 據此則恐當移錄于乙丑八月‘講《啓蒙》’下. 然當更考《文集》.]이 있다. 今按: 《定本退溪全書》續集 卷2(SNP1008)에 해당 시 2수가 수록되어 있다. ■ 이 두 편의 시에 대해,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상란부전지에서는 遺墨에 적힌 저작 연월에 의거해서 乙丑年(1565년, 65세) 8월 15일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이 시가 《退溪雜詠》의 끝 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乙丑年 8월, 그것도 15일에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시를 乙卯年(1555년, 55세)에 編次한 것은 오류인 듯하다.

67) 五月……候之: [부전지 刪.]이 있다.

境兼衰疾，只在眞知與力行。伯子後時懲獵習，文公早歲驗鍾聲。君看動靜循環理，隨處隨時豈暫停。”

節要⁶⁸⁾朱子書，分與諸生寫之。

先生與門人書曰：“每觀師友間，所以相責相期之重如許，乃知朋友之義如此。其至老病昏憤，不能竭力於此，然愛之慕之，何得因人之笑怒而暫輟⁶⁹⁾耶？僉欲副寫，非獨爲某，成此積願，其必有感發於斯焉。”

【先生家，有《朱子書》寫本一帙，卷帙甚舊，字畫幾剝，乃讀而然也。其後，人多印出，每得新帙，必校讐點竄，溫習一過，章章融會，句句爛熟。其受用如手持而足蹈，耳聞而目睹，故日用之間，語默動靜，辭受取予，出處進退之義，無不脗合於是書。人或質疑問難，則必援是書而答之，亦無不合於事情，宜於道義焉。是乃實見得⁷⁰⁾信得，及心融神會之所致，非靠書冊徇口耳之所可能也。常曰：“如欲爲學，莫切於此書。”】

(譜) 撰先妣貞夫人金氏·朴氏墓標。

次年三月，立碣。

(譜) 入清涼山，有遊山諸作。

其〈倦遊〉詩下，先生自註曰：“松岡欲擬我按江原，令遊金剛，余辭之云云。”〈答宋台叟書〉亦說此事，

68) 節要：[부진지 ‘節要’恐‘抄節’.]

69) 輟：白洲本 ‘輟’

70) 得：白洲本에는 뒤에 ‘實’이 있다.

蓋松岡時任天官，先生歸後，累擬於職，故先生每恨其殊非相識之意云。

○三十五年丙辰【先生五十六歲】⁷¹⁾

有〈次黃仲舉元日韻〉詩。

“拙朴由來得自天，追尋芳躅每欣然。聰明此日非前日，習氣今年似去年。透得利關聞⁷²⁾上蔡，驗來學力說伊川。吾儕更勉躬行處，莫向人前枉執鞭。”

三月，泛舟，賞躑躅于橋巖。

又有詩云：“融融春⁷³⁾意滿溪濱，柳色花光日日新。若識當年沂上樂，胸中信有一般春。”【或謂：“橋巖，疑今漱石亭前巖石也。”】

四月，草〈辭免僉知中樞府事召命狀〉。

恐煩瀆未上，俄而有副提學召命，遂不果上。

五月，作〈南時甫靜齋記〉。

(譜) 五月，賜食物。

令本道監司，食物題給，并命勿謝。

(譜) 六月，除僉知中樞府事，有旨，“情意激切，故勉

71) 1556년(明宗 11)

72) 聞：白洲本‘問’

73) 春：白洲本‘生’

從，可安心調病。”

辭免僉知召命狀批旨曰：“前觀辭副提學狀，知爾懇乞，情意激切，故予已勉從之，何至於又辭僉知之任乎？此則不可并免爾。其安心而在。”【按僉知之職，自乙卯以後，經年不解，此非新除也，實是仍舊帶而有召命者也。是時，副提學雖蒙遞免，而樞職則自如，據批旨可見。又按《文集》，是月，辭免僉知召命狀有曰：“臣於僉知中樞，經年虛帶”云云，愈更分曉，恐《譜》所載，其於節錄之際，偶失照管。】

(譜) 編次《朱子書節要》成。

初學者讀《全書》，未知折衷，至是⁷⁴⁾書出，始知道之有統，學之有的，因而興起者甚衆。答人書有曰：“晦菴書，諸人今已畢寫了，此一事閒中大幸，但精力如此，未知其終有絲毫之益與未也。”

七月，築夢龜臺。⁷⁵⁾

有〈立秋日溪堂書事〉三詩。⁷⁶⁾

乞致仕不報，又用前韻有詩。

溪山明媚⁷⁷⁾，成一別區，左右圖書，焚香靜坐，悠然

74) 至是：[부전지 ‘是’下入‘編成節要’四字.]가 있다.

75) 夢龜臺：白洲本 ‘龜夢臺’

76) 丙辰年(1556년, 56세)의立秋는 6월 22일이다. 그렇다면 〈立秋日溪堂書事〉詩는 6월 22일에 지은 것이다. 그런데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해당 부분 編次에서는 7월의 사실로 기록하였다. 오류가 아닐까 한다.

77) 媚：白洲本 ‘暉’

若將終身，人不知爲官人也。

八月，觀漁藏六臺。

(譜) 八月，會族人祭高·曾祖墓于安東。

是行，又會族人于安東慶流亭，有題亭詩三絕，其一云：“善積由來福慶滋，幾傳仁厚衍宗支。勸君更勉持門戶，花樹韋家歲歲追。”

有〈秋懷〉十一詩。

答權章仲書論樂山樂水之義。

與諸生講朱子書。

九月，建溪南書齋。⁷⁸⁾

齋，舊在退溪花巖之旁⁷⁹⁾，實學子各出財力以築之者也。先生有詩云⁸⁰⁾：“搖窗⁸¹⁾林影寒，照席嵐光綠。手中一卷書，隨意繙且讀。有理古猶今，有味飫如沃。悲秋自懷遠，考槃甘弗告。”⁸²⁾

78) 建溪南書齋：[부전지 ‘建’改‘成’，入‘齋’下.]가 있다.

79) 旁：白洲本 ‘傍’

80) 齋舊……詩云：[부전지 ‘舊’刪. ‘實’止‘也’刪. ‘云’下入‘琴生結茅廬，在我溪南曲’二句.]가 있다.

81) 窗：白洲本 ‘窓’

82) 先生有詩……弗告：[부전지 《溪山雜詠》此詩第一句曰‘琴生結茅廬，在我南溪曲’註云，‘琴生應壘棲此.’此註‘學子各出財力’云云，未知如何. 抑若有所據耶?]가 있다. 今按：해당 시는 《定本 退溪全書》 內集 卷3(KNP0245)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문집에 수록된 시에는 ‘茅廬’가 ‘茅棟’으로 되어 있고, 현전하는 《溪山雜詠》에는 ‘茅齋’로 되어 있다.

十二月，有〈擬與榮川郡守書論紹修書院事〉。

○三十六年丁巳【先生五十七歲】⁸³⁾

二月，有〈擬與豐基郡守書論書院事〉。

有答金惇叙書。

先生書曰：“人之爲學，勿論有事無事，有意無意，惟當敬以爲主，而動靜不失，則當其思慮未萌也，心體虛明，本領深純，及其思慮已發也，義理昭著，物欲退聽，紛擾之患漸減，分數積而至於有成，此爲要法。所云‘一事方思，雖有他事，不暇思之’，此亦心無二用，主一工夫當然，然一向如此說，恐又有礙理處。且如今人亦有視聽偕應，手足并用時節，苟一於所聽，而所視全不照管，一於手容，而足容任其胡亂，則奚但於事一得一失而已？其不⁸⁴⁾照管任胡亂處，可見其心遇此事，當應不應，頑然不靈，便是⁸⁵⁾心失其官處，以此酢酢萬變，豈能中節哉？鄙意程子所謂‘九思各專其一’，是就一事上說心無二用之理耳。若遇衆事交至⁸⁶⁾之時，或左或右，一彼一此，豈可雜然而思？

83) 1557년(明宗 12)

84) 不：白洲本에는 없다.

85) 是：白洲本 ‘其’

旋思旋應，只是心之主宰，卓然在此，爲衆事之綱，則當下所應之事，幾微畢見，四體默喻，曲折無漏矣。所以能然者，蓋人心虛靈不測，萬理本具，未感之前，知覺不昧，苟養之有素，固不待件件著思，而有旁照泛應之妙。師冕見，及堦，曰：‘堦’，及席，曰：‘席’，皆坐，曰：‘某在斯’。此主於言思忠，未必兼於視思明，而所視自中節矣。君召使擯⁸⁷⁾，色勃如，足躩如，揖所與立，左右手，衣前後襜如。此主於事思敬，未必兼於色貌手足，而周旋之頃，各自中其節矣。不獨在聖人爲然，中人以下，亦不可謂盡不然也。但隨所稟所養之粹駁淺深，而有分數耳。蓋一可以御萬，萬不可以命一，故心能主宰專一，則有不待思而能隨事中節。若徒曰：‘一事方思，不暇他事’，則恐未免反爲此事所累，而成支離畔援之病也。”

三月，遊丹砂等處，求書堂移築地。

先生〈再行視陶山南洞〉詩⁸⁸⁾，“卜居退溪上，形勢終嫌隘。喟焉將改求，行盡高深界”云，則蓋爲其改求當日，杖屨所及，抑非獨丹砂等處也。

86) 至：白洲本‘生’

87) 擯：白洲本‘賓’

88) 詩：白洲本에는 뒤에 ‘云’이 있다.

四月，遊青溪。

古里店下，得泉石佳處，命名曰‘青溪’，因到孤山小憩，踰一峴，過彌川還家。【按青溪，即今稱淵臺，是也。舟遊青溪，見《譜》〈壬戌〉，又《續集》有〈戲題青溪〉詩。】

(譜) 四月，遊太紫山，尋大方洞。

又《續集》有〈觀聽洞瀑布〉詩，疑尋大方洞時也。

○秋日，登天淵臺。

有詩云：“天開絕勝滄浪境，風月襟懷付釣臺。”【臺初名‘滄浪’。見《譜》〈戊午〉。】

(譜) 七月，《啓蒙傳疑》成。

朱子《啓蒙》一書，實理數之原。先生玩索洞究，發揮分解，凡諸家之分合異同者，旁通曲暢，殆⁸⁹⁾無遺蘊。◎門人問，“《啓蒙》書，似不親切於初學，何如？”先生曰：“固是，然學者不可不先知先儒有是⁹⁰⁾說耳。”又曰：“若於此書熟讀，詳味久久，實體呈露，目前事物，無非這個，如何不親切？”【按《傳疑》印本，間多舛誤。先生與人書有曰：“被諸人轉轉謄傳，其繆誤舛闕，不可勝正，本是繆說，而謄繆至此，豈不爲識者所嗤？凡往復諸賢書中，說及此意者亦多。”據此，則即今刊行之本，若非先生手定，而或出於門人之謄傳，則其不免舛誤宜矣。覽者詳之。】

89) 殆：白洲本‘始’

90) 是：白洲本‘此’

遊清吟石.

先生有“溪水潔清堪樂泌，谷林環繞可名盤”之詩. 松巖 權公好文，次先生詩序云：“七月五日，先生乘暇泝溪，釣於清吟石，呼諸生亦漁，或膾或羹，邀察訪及溫溪數人共餉. 時夕陽滿林，山影倒溪，風乎詠歸杖屨婆娑，眞仙會也.”⁹¹⁾

歲終，諸生將⁹²⁾歸，有示詩相勉，亦以自警.

○三十七年戊午【先生五十八歲】⁹³⁾

四月，序《朱子書節要》.

先生當初草成之日，不欲以并⁹⁴⁾首自居，名之曰跋，後嫌其語多，不合於跋，改名爲序.

(譜) 四月，遊鰲潭，爲禹祭酒欲建書院，相其地.

先生前此，與鄉里諸君書曰：“吾鄉先正，如禹祭酒風

91) ㉔ 《松巖先生別集》에 있는 〈松巖先生年譜〉에 의하면, 乙卯年(1555) 7월 5일에 清吟石에서 놀 때, 退溪의 다섯째 형 澄과 溫溪의 조카들이 함께 律詩 1수를 지었는데, 퇴계가 그 시에 차운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松巖先生文集》을 보면 그때 權好文도 같은 韻(‘閒’字韻)에 차운하여 읊시 1수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權好文의 시와 《退溪先生續集》에 있는 〈清吟石次完韻(丁巳)〉 시는 같은 韻이다. 그렇다면 퇴계는 이 시를 丁巳年이 아닌, 乙卯年 7월 5일 清吟石에서 지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러한 사실을 丁巳年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다.

92) 將：白洲本 ‘方’

93) 1558년(明宗 13)

94) 并：白洲本 ‘弁’

節，東方古今，豈可多得？立學祠賢，既昉於世，而吾鄉獨闕此，吾輩之恥也。但公等無力，難於倡作，如某亦非有力，而方處猜危⁹⁵⁾之際，難勇於倡此駭俗事，假使不顧而爲之，本縣事力之不逮，又如前日面論者，今若失此幾會，後世亦不復有人慮及於此，恐遂成千古之恨也，可爲浩歎。然既聞有佳處，懷不能禁，近當乘便一往，臨時相報會尋，若彼處誠合置院，徐徐更商議看如何？古稱有志竟成，今何爲⁹⁶⁾獨不然？”至是，始踐前約。【見《月川集》。】

五月，《自省錄》成。

先生自序曰：“古者，言之不出，耻躬之不逮也。今與朋友講究往復，其言之出，有不得已者，已自不勝其愧矣。況既言之後，有彼不忘而我忘者，有彼我俱忘者，斯不但可恥，其殆於無忌憚者，可懼之甚也。間搜故篋，手寫書稿之存者，置之几間，時閱而屢省，於是而不替焉。其無稿不錄者，可以在其中矣。不然，雖錄諸書，積成卷帙，亦何益哉？”

答李叔獻書。

95) 危：白洲本‘疑’

96) 爲：白洲本‘謂’

書略云：“往聞足下讀釋氏書而頗中其毒，心惜之久矣。日者之來見我也，不諱其實，而能言其非，今見兩書之旨又如此，吾知足下之可與適道也。所懼者，新嗜靡甘，熟處難忘，五穀之實未成，而秭稗之秋遽及也。如欲免此，惟十分勉力於窮理居敬之工，勿爲等待，即今便可下工，勿爲遲疑，隨處便當着力，虛心觀理，勿先執定於己見，積漸純熟，未可責效於時月，弗得弗措，直以爲終身事業，其理至於融會，敬至於專一，皆深造之餘，自得之耳。豈若一超頓悟，立地成佛者之略見影象於恍惚冥昧之際，而便謂一大事已了耶？故窮理而驗於踐履，始爲眞知，主敬而能無二三，方爲實得。第以超詣之資，容易於講解，故其發爲言論者，有不由憤悱，見於推行者，似欠於懇篤。誠恐若此不已，未保其終，不受變於世習也。故不計其有無於己而輒言之。”

六月，與諸生講人心道心之分·璿璣玉衡之制。

七月，登紫霞峯。

有詩云：“野曠天高積雨晴，碧山環帶翠濤聲。故知山水無涯興，莫使無端世累撓。”【時於經席，有啓之者，又安相筵書，“近有講《易》之筵，將有召命云”，故末句寓意如此。◎先生答

人書云：“樞府之命，今四年矣。此正辭章·免筭，十上廿上，期於得請之日也，而非宰相非臺諫，不敢煩瀆。辭免乃國之故，疏遠拘掣，暗默屏藏，流聞時論，或有以爲非者，實所未安。”】

(譜) 閏七月，上疏乞致仕，御批不允，入都。

初，沈連源·鄭士龍合辭啓曰：“李某經術文章，無出其右者，乞復召用。然貧窮太甚，在京不能自存，乞令該曹供給。”上以二人所啓，下于政院，又銓曹將擬祭酒·副提之職，先生聞之，若是受職之後，則處之極難，遂不得已上章自劾。俄而兩擬雖免，而徵召漸峻，至有“予不足有爲”之教。先生聞命，瞿然黽勉詣闕，而非其心也。⁹⁷⁾【按澤堂李公植云：“或以退溪平日出處，有所未盡爲疑，此則鄭仁弘分門相攻之說，不足據也。”】

(譜) 啓請除授京職。

政院書狀，調理上來事有旨來到。⁹⁸⁾

(譜) 十月⁹⁹⁾，拜大司成。十一月，病辭，除上護軍。

時士風已壞，先生托以皋比亟¹⁰⁰⁾丈，非養病之地，乃三辭，深幸其蒙許置散。

十月，新及第奇大升來謁。

97) 而非其心也：[부전지 ‘而’止‘也’刪，何如?]가 있다.

98) 譜啓請……來到：[부전지 元譜已詳，刪之，無妨.]이 있다.

99) 十月：[부전지 ‘十月’刪之，無妨.]이 있다.

100) 亟：白洲本 ‘函’

先生曰：“奇某學問人物，過於前所聞，聖主得此儒用，實斯文大慶也。”¹⁰¹⁾

尹元衡爲榜會，稱疾不往。

立朝之日，靜以自修¹⁰²⁾，雖知舊間，未嘗僕僕往來。其所從遊者，皆一時之望，其所接引者，必同學之士。哭趙松岡 士秀于其第。

有挽詩·祭文。先生又稱：“其逝後，家闕百用，非公私賻物，無以爲喪。清德如此宰相，豈易得乎?”【又答人書曰：“人生脆薄，自見松岡事。旅枕病懷，日覺無聊，歸計何可禦也。”】

十一月，寄書子竄。

時竄爲文昭殿參奉。先生書曰：“判相堅欲留我，故急授汝職，於我歸計，似爲相妨，須知我意焉。”竄遂不赴。

有陶山精舍圖。

簡付于鄉里數友，托其指授幹僧而營構焉。¹⁰³⁾

101) 圖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奇大升이 退溪를 찾아온 것을 10월의 일로 보았다. 그러나 奇大升이 大科에 급제한 이후에 찾아왔다면, 11월 초순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戊午年(1558년) 式年文科 殿試는 10월 28일(29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殿試를 치르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 찾아왔다면, 그 시기는 11월 초순이 되어야 할 것이다.

102) 修 : [부전지 ‘修’恐‘守’.]가 있다.

103) 鄉里數友 : [부전지 構屋事, 有與李大成書, 而汎云‘鄉里數友’, 恐未知如何.]가 있다.

(譜) 十二月，陞工曹參判，三辭，皆不允，始拜命，又力辭，不允。

時衆論皆以謝恩前辭免爲未便，不得已出謝，又再辭。先生曰：“吾亦知不可每每辭避，然六曹亞卿，事體非輕，豈吾養病坊耶？”【有答李大成書曰：“僕叨冒特恩，力辭不得，抗顏出謝，向來退步守分之意掃地，他日何以歸見滄浪鷗鷺耶？”】

○三十八年己未【先生五十九歲】¹⁰⁴⁾

(譜) 二月，乞假¹⁰⁵⁾，歸鄉焚黃。

時銓判欲擬先生以文衡之任，故托以焚黃促歸。二十六日，呈由，二十九日，出東湖。【先生寄子窩書云：“吏判欲以文衡之任，投授於我，屢屢形言，使尤不得安心在此，不得已速歸。”】¹⁰⁶⁾

三月，舟行東歸，至龜潭。

潭主李之蕃·丹倅黃俊良，同舟見迓，即上其舟，泊于隱居之下，遂入北谷，泉石甚佳，環坐少¹⁰⁷⁾酌，至夕還舟，飲于中洲，因宿其舍。舍臨釣磯，南對龜峯，西挹玄鶴峯，蕭洒有絕致。翌日，與二公同舟，泊窪

104) 1559년(明宗 14)

105) 假：白洲本 ‘暇’

106) 時銓判……已速歸：[부견지 大註刪，小註陞爲大註.]가 있다.

107) 少：白洲本 ‘小’

罇巖小酌，過大小凌波石，上葛仙臺，至石柱灘，李公還歸，舍舟宿郡館。翌日，踰竹嶺，歇馬于羶冷臺。¹⁰⁸⁾後先生〈答黃仲舉〉書云：“一出，七閱月而歸，所接無非失己徇¹⁰⁹⁾人之事，獨有歸過龜潭，細討巖澗之勝，痛湔塵慮，此一事，粗償宿債也。”

歸路，憩松石臺。

臺，實先生往來京洛時，因巖築之而名，又植松蔭焉者也。溫溪諸親，來迎¹¹⁰⁾於此。【按松石臺，疑今稱洪亭子，是也。《榮川郡志¹¹¹⁾》有云：“文純公觀亭南松麓，頗幽靜可憩，令導行人斲築之，遂爲勝境。具柏潭鳳齡詩，‘疏松翠石臨官路，昔日儒仙手斲開。十載再遊成感慨，碧溪青嶂摠含哀。’”】

(譜) 先生以焚黃退來，不還，人有疑問者，以書答之云云。

又有答人書曰：“拖留不去，若死於京師，何處青山受此枉死一塊肉乎？緣此急忙下歸，以趁朝露之前，慮不及謝恩一節，有礙於末梢。然在京家廟焚黃者，亦未聞進謝，則受由焚黃者，獨不可不謝，竊恐似未然也。”

108) 羶冷臺：白洲本‘羶冷臺’

109) 徇：白洲本‘循’

110) 迎：白洲本‘過’

111) 志：白洲本‘誌’

(譜) 七月，又辭，上勉許遞參判，移授同知，賜食物。

其答旨曰：“觀卿三辭，情甚懇切，予乏求誠，豈能敢引？調病安閒，亦是保臣之道，故勉許卿願，且備給食物，卿其勿謝。”

八月， 答奇明彥書.¹¹²⁾

明彥方於發身之初，問行藏之道，先生答書，略曰：“勿太高於自處，勿遽勇於經世，勿太過於自主張。身既出世而許國，則何可專守其退志？志以道義爲準，則何可有就而無去？直以學優仕優之訓，爲處身之節度，而精審於義理之所安，其行於世，則職思其憂之外，常須退一步低一頭，而專意於學，曰：‘我學未至，何遽任經濟之責乎？’其違於世，則一絲莫管於心，必須或乞閒，或圖退，而專意於學，曰：‘我學未至，靜修進益，今其時矣。’如是久遠爲期，一進一退，莫不以學爲主，深知義理之無窮，常歉然有不自滿之意，喜聞過樂取善，而眞積力久，則道成而德立，功自崇而業自廣，必常有不可奪之志，不可屈之氣，不可昧之識見，而學問之力，日淬月鍛，然後庶可以牢着脚

112)  《退溪學文獻全集》의 《兩先生往復書》에 실려 있는 〈答奇正字明彥書〉 본 편지 끝에는 ‘己未陽月二十四日’로 작성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편지를 8월에 쓴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跟，不爲世俗聲利威風所掀倒也。”又曰：“本原之地
下功¹¹³⁾，聞之，心爲萬事之本，性是萬善之原，故先
儒論學，必以收放心養德性，爲最初下手處，乃所以
成就本原之地，以爲凝道廣業之基，而其下功之要，
何俟於他求哉？亦曰：‘主一無適也’，曰：‘戒愼恐懼
也’。主一之功，通乎動靜，戒懼之境，專在未發。二
者，不可闕一，而制於外，以養其中，尤爲緊切，故
三省·三貴·四勿之類，皆就應接處言之，是亦涵養本
原之意也。苟不如是，而一以心地工夫爲主，則鮮不
墮於釋氏之見矣。”

九月，登陶山東峯。

與梧老 李大成，吹帽於其上，名以“翠微”，取杜牧之
“九日攜壺上翠微”之語也。

《古鏡重磨方》成。

先生手寫古聖賢箴銘，既成，取朱子〈送林熙之〉詩
中語名之，以爲日用潛修之地，而未曾出以示人，捐
館後，門人始得見焉。有題詩云：“古鏡久埋沒，重磨
未易光。本明尙不昧，往哲有遺方。人生無老少，此
事貴自強。衛公九十五，懿戒存圭璋。”【按寒岡 鄭文穆公

113) 功：[부전지 ‘功’恐‘工，更考.]가 있다.

述識先生詩後云：“李先生手寫箴銘，以寓用古方磨古鏡之義，意固深矣。今人少而自棄者，固不足云，老而不力者，亦已矣夫。寧不哀哉？先生之詩，實亦磨鏡之至方也哉！”◎正宗朝閣臣所編《雅誦》〈凡例〉，“先正李某，集古今銘箴，令學者講習，取朱子詩中五字名其編，遂印而行之，爲經筵進講之書。”】

(譜) 十二月，始編《理學通錄》。

有〈序文〉。又先生〈答盧伊齋〉書曰：“某所以作意爲此者，窮陋無聞，幾成虛過，晚讀朱書，而有所感發，始知此身誠不可自棄，以是亟欲知其門人爲學次第，以自蘄於萬一，非欲爲後學計也。”

有〈東齋感事十絕〉詩。

○三十九年庚申【先生六十歲】¹¹⁴⁾

㉒ 有〈洞令條禁〉。

先生方退居田園，深慮奴婢無統難治，立洞令十二條。其〈跋〉略曰：“洞中居人，皆家門奴婢，以漸至無統難治，不得已立此若干條，皆就其重者而爲例。其有事係各條而情可恕者，臨時僉議，審其故誤，而的當論決，如有條外所犯者，並依不應爲，事理重輕之例裁處，而若犯者不係奴婢人，洞中無自論決，依他告

114) 1560년(明宗 15)

官治罪事。”【見《逸集》。◎右〈條禁〉，先生爲溫溪洞中所立者也。鄉里亦多倣而行之，見金公富倫《雪月堂遺稿》。】

(譜) 正月，跋曹南冥〈遊頭流錄〉。

澤堂 李公植云：“退溪於南冥，見其議論氣習，不無後弊，不得已而略容點化之語，所謂‘尙奇好異，難要以中道’等語，蓋恐道之不行，賢者過之，或流於他歧耳。不幸鑄出仁弘汙巖清風，退溪當日隱憂，至是而始著，亦可謂後學之著龜矣。”

二月，爲焚黃·改題，往慶流亭。¹¹⁵⁾

慶流亭，實¹¹⁶⁾先生曾祖廟所在之宗也。

有次李玉山〈林居十五詠〉韻。

三月，²³⁹ 遊芙蓉峯。

夏，有〈東齋月夜〉詩。

七月，²⁴⁰ 作〈迎鳳書院記〉。

後於戊辰，寒岡 鄭文穆公¹¹⁷⁾來稟先生，改名‘川谷’。

八月，金河西訃至，哭之。

河西晚年，所見甚精，論說義理，平易明白，先生甚

115) 二月……慶流亭：[부전지 先生加資後，善山府君追贈，嘗爲寺正。然松齋府君已追贈兵議，則至是爲資窮矣，更無追贈之理。此云云，恐是加資後告由，不然，恐是己巳年五月事也。]가 있다.

116) 實：白洲本 ‘即’

117) 公：白洲本에는 뒤에 ‘述’가 있다.

稱之，至是傷慟。¹¹⁸⁾

(譜) 十一月，回 答奇高峯¹¹⁹⁾書，辨四端七情。

先生答人書曰：“四七分理氣，本非吾說，乃考亭元有說如此。又程林隱〈心統情性圖〉，正用此說，可信鄙說非出於妄見也。”又曰：“某甚重明彥之爲人，但其豪氣未除，於義理之學，尙未細意研精。才見人說話，有不合己見處，便奮筆作勢，一向攻他，胡說將去，似有立己求勝之意，恐此不是少¹²⁰⁾病。”

(譜) 其後，明彥始悟前見，作〈四端七情說〉。

其說分開處，“孟子論四端，程子論七情云云”一段，極分曉然，而其餘則往往言句之間，未免有可疑者多。

【按李大山 象靖云：“高峯〈總說〉·〈後說〉，退陶先生，既許以通透脫洒，獨觀昭曠之原，後學安敢有異議？而反復潛玩，終有未釋然處。”又答人書云：“先生與高峯，往復繳紛，殆數萬言，而始回頭轉腦，變其前日之見，蓋喜其大體之合，而不復致詰於其餘。後書又有‘所論鄙說中，聖賢之喜怒哀樂及各有所從來等說，敢不三復致思於其間’云云，而其後，未有一言之及於此，則其終不以高峯之說爲是也。較然矣。”凡逐段辨疑，詳見於《大山集》¹²¹⁾，而今不盡錄。】

(譜) 陶山書堂成。

118) 河西……傷慟：[부전지 ‘至是’以下，刪之何如?]가 있다；白洲本 ‘河西卒於正月，似當入二月下.’

119) 高峯：白洲本 ‘明彥’

120) 少：白洲本 ‘小’

121) 大山集：白洲本 ‘大山文集’

時精舍粗完，書堂尙未成。¹²²⁾

(譜) 十二月，被召。

其召旨曰：“封太子天使今將出來，華國重手¹²³⁾，必賴¹²⁴⁾群才，茲召卿。”

○四十年辛酉【先生六十一歲】¹²⁵⁾

(譜) 正月，¹²⁶⁾ 將赴召，適墜馬，以病辭。

右臂戾傷，渾身寒熱。¹²⁷⁾ 金而精劑來順氣散·活血湯·八味元¹²⁶⁾等藥，試服之，果驗，先生極歎延生之不虛。

有答門人爲學之方。

其書曰：“爲學只在勤苦篤實，無間斷則志日強而業日¹²⁷⁾廣矣。切勿倚¹²⁸⁾靠他人，亦勿等待後日可也。

122) 圖 3월 1일자 黃仲舉, 곧 黃俊良에게 답한 편지와 9월 李仲久, 곧 李湛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도산서당 건축 공사는 庚申年(1560년)에 서당 건물만 완공하고,資力이 떨어져 중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에서 庚申年 11월에 도산서당이 완공되었다고 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기록대로 경신년 11월에 도산서당 일부 건물만 완공한 채 資力이 떨어져 중단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123) 手：白洲本 ‘事’

124) 賴：白洲本 ‘須’

125) 1561년(明宗 16)

126) 元：白洲本 ‘丸’

127) 日：白洲本 ‘益’

128) 倚：白洲本 ‘依’

若曰：‘今姑悠悠，必待他日，往陶山而爲學’，則其立心已差，他日雖往陶山，亦不能爲學矣。”

二月，手書廬陵士友藏朱文公小簡，貽門人。

其小簡略曰：“吾子讀書，比復何如？只是專一勤苦，無不成就。第一更切檢束操守，不可放逸。親近師友，莫與¹²⁹⁾不勝己者，往來薰染，習熟壞了人也。季章當只在家凡百，必能盡心苦口，切須承稟，不可有違。諺云：‘成人不自在，自在不成人。’此言雖淺，然實切至之論，千萬勉之。”先生識其後曰：“此簡，蓋與其親戚卑行也。《大全集》所不載，後生晚輩，能寫一通，置之坐側，朝夕觀省，何患不成好人？”

(譜) ㉓ ㉓ 一日，先生自溪上，步出陶山。

由溪南齋，攜門生踰嶺。時山花盛開，烟林明媚。先生詠杜詩“盤渦鷺浴底心性，獨樹花發自分明”之句曰：“爲己君子，無所爲而然者，暗合於此意思。學者須當體驗，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若少有一毫爲之之心，則非學也。”後先生又曰：“子美之意，非言爲己，某當日，特假借以明之耳。”¹³⁰⁾

129) 與：白洲本‘如’

130) ㉓ 《退溪先生續集》과 《退溪先生文集(內集)》에는 甲子年(1564년)에 李德弘의 질문에 退溪가 답한 편지가 실려 있다. 이것을 보면 李德弘이 퇴계가 辛酉年(1561

貽書門人，止陶山構齋之議。¹³¹⁾

門生數十餘人，出回文，各具¹³²⁾資力，議別構學齋于陶山，以容學徒。先生以過爲煩張不可，乃止之。

(譜)四月旣望， 泛舟濯纓潭。

其分韻賦詩云：“不知百歲通泉後，更有何人續正聲？”

(譜)  詠〈前·後赤壁賦〉。

先生曰：“東坡雖不無病痛，其心之寡欲處，於‘苟非吾之所有，雖一毫而莫取’等句可見。又嘗謫去，載棺而行，其脫然不苟如此。”

秋，陶山書堂始成。

自是，四方來學者益¹³³⁾衆。◎書堂成，欲令僕隸守之，惡其不潔，令山僧守之，蓋亦朱子俾道士守雲谷

년) 3월 29일에 溪上에서 산을 넘어 陶山書堂으로 가다가 읊조린 杜甫의 〈愁〉詩 중의 “盤渦鰲浴底心性，獨樹花發自分明.”이라는 句의 의미와 도산서당에 도착해서 지은 시의 의미에 대해서 물은 것은 辛酉年 3월 29일의 일이 아니라, 이로부터 4년이 경과한 甲子年의 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것을 辛酉年 3월 29일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131)  《退陶先生集(初草本)》에 실려 있는 〈(辛酉)五月初七〉 편지를 보면, 趙穆이 양식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退溪가 거친 벼 열 말을 실어 보내면서 편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 편지에서 먼저 보내는 거친 벼 열 말은 양식에 보태라고 한 다음, 이어서 陶山에 書齋 짓는 일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陶山에 서재 짓는 일을 중지시킨 사실을 3월의 일로 기록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132) 具：白洲本 ‘舍’

133) 益：白洲本 ‘甚’

之意也。◎陶山下，有官梁至近，先生每於夏秋之交，輒屏溪庄，未嘗一到于此。曹南冥聞之，笑曰：“何屑屑也？我自不爲，雖有官梁，何嫌何避？”先生曰：“在南冥則當如彼，在我則亦當如是，以吾之不可，學柳下惠之可，不亦宜乎？”又與人書曰：“此是禁巒之地，其不敢¹³⁴⁾近，乃理之當然，禮所當謹故也。其可冒官禁而舍我靈龜耶？¹³⁵⁾”◎嘗坐山堂，適於前郊，有騎馬而過者。幹僧曰：“異哉，是人！過先生而不下馬。”先生曰：“騎馬者如畫裏人，只添一個奇勝，何過之有？”

秋巒居士 鄭之雲訃至，哭之。

㉔㉔ 有祭文。先生嘗曰：“鄭某資品甚高，見識超詣，但於本原上疏漏耳。”至是，以書與人曰：“靜而疏處太疏，世俗之所嗤點，好處甚好，吾輩之所難得。”世以爲名言。

㉔ 與諸生講《朱子書節要》。

有〈示諸友〉詩云：“臥雲菴裏存心法，觀善齋中日用功。要識講明歸宿處，請將踐履驗吾躬。”

134) 敢：白洲本‘可’

135) 耶：白洲本‘乎’

○四十一年壬戌【先生六十二歲】 136)

㉑ 有〈立春二絕¹³⁷⁾〉.

其一云：“但祝明時泰慶同，消除陰沴驗微躬. 眼如明鏡心如日，觸破群書啓吝蒙.”

㉒ 踏青日，遊礪石臺.

三月，又登翠微峯.

㉓ 跋《伊洛淵源錄》.

㉔~㉕ 有〈節友壇梅花暮春始開〉詩.

先生嘗於甲辰春，在東湖¹³⁸⁾，有〈讀書堂梅暮春始開用東坡韻〉二詩. 今追憶¹³⁹⁾其事，復和成一篇，示同舍諸友.

(譜) ㉖ ㉗ 李龜巖【楨】來謁，㉘ 送別于石礪臺.

書贈唐人詩，又書¹⁴⁰⁾朱子〈靈芝餞別〉·〈與李季章書〉.

㉙ 跋《傳道粹言》.

夏，有〈四時幽居好吟四首〉詩.

(譜) 七月既望，㉚ 將遊風月潭，不果.

136) 1562년(明宗 17)

137) 二絶：白洲本 ‘詩’

138) 東湖：白洲本 ‘湖堂’

139) 憶：白洲本 ‘思’

140) 書：白洲本에는 뒤에 ‘寄’가 있다.

前此，有與人書曰：“散人無事可爲，以明日，乃壬戌之秋七月既望，方謀與諸友，擊空明而泝流光，舉匏尊而相屬，此外更何知耶？”

七月，獨棲山堂。

先生每以六七八三朔，爲例避之辰矣。是時，大水捲¹⁴¹⁾去魚梁，得乘其隙，來寓於此。乃曰：“既望舟遊，雖恨勝事不成，然禁臠無礙，隨意盤旋，且山水洗新清激，鏘鳴金玉，此則似欲以之相償而相慰也。”

图 答李全仁書.¹⁴²⁾

晦齋李先生在謫遷，取《易經》進德修業之義，衍而爲八規，欲獻忠未果，其庶子全仁，欲成先志。先生曰：“時有可不可，事有宜不宜。以今觀之，時與事兩非其宜，或因此惹起事端，亦未可知，不如深藏篋笥之爲穩也。”蓋¹⁴³⁾時尹元衡當國，而明廟之疑尙未解，雖上遺疏，未必有益，而或致意外之患¹⁴⁴⁾，故先

141) 捲：白洲本‘卷’

142) 圖 《退溪先生文集(內集)》의 〈答李敬夫全仁(壬戌)〉을 보면, 그 冒頭에 ‘去秋’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가을, 곧 壬戌年(1562년) 가을에 李全仁을 만나고, 이제 보내온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임술년에서 지난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겨울뿐이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겨울에 보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李全仁에게 답장을 보낸 것을 7~8월의 사실로 기록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143) 蓋：白洲本에는 뒤에 ‘是’가 있다.

144) 雖上遺疏……之患：[부전지 ‘雖上’止‘之患’，刪何如?]가 있다.

生力止之.

九月, ㉓ 月夜, 登天淵臺.

携門人, 命誦〈武夷九曲〉詩, 仍口號¹⁴⁵⁾一絕¹⁴⁶⁾,
“傳秋露數杯, 時落月半江, 村鷄數聲.” ◎先生嘗言:
“某獨寢玩樂齋, 中夜而起, 拓牕而坐, 月明星概, 江
山寥廓, 凝然寂然, 有未判鴻濛底意思.”

㉓~㉔ 與諸生講《近思錄》.

《近思錄》多引《易》說, 義理精深, 初學猝難領解,
故不先教學者, 或因材施之. 【有一繡衣以暗行, 謁先生於書
堂, 因問隣近守令賢否. 先生曰: “久居僻巷, 有何所聞?”¹⁴⁷⁾ 其人不
敢復問.】

有答申啓叔書.

金謹恭指論〈天命圖〉, 其說多未中理, 申啓叔舉以
質之, 先生逐段辨誤.

十二月, ㉔ 往遊丹砂·月瀾等處.

○四十二年癸亥【先生六十三歲】¹⁴⁸⁾

正月, ㉔ 擬漢城府尹.

145) 號: 白洲本 ‘呼’

146) 絶: [부진지 ‘絶’下更考.]가 있다.

147) 聞: 白洲本 ‘問’

148) 1563년(明宗 18)

【先生深以得免爲幸.】

二月, ㉔ 答李仲久書, 論《朱子書節要》去取之義.

又有答南時甫書, 大意略同.

作〈靜存齋箴〉. 【亦¹⁴⁹⁾爲李仲久作.】

省姊于醴泉, 奠外祖墓于龍宮.¹⁵⁰⁾

是行, 又拜權參贊公墓, 題¹⁵¹⁾詩云: “明夷蒙難豈非天? 茂柏深松領¹⁵²⁾翠烟. 節¹⁵³⁾行他年應有史, 文章千古恨無傳.” 【參贊公¹⁵⁴⁾諱柱, 實先生夫人權氏之祖也. 燕山朝, 以非罪見¹⁵⁵⁾禍.】

(譜) 三月, ㉕ 黃錦溪訃至, 哭之.

後於丙寅, 先生被召過豐基, 與郡守趙完璧書曰: “此間有所謂錦陽精舍者, 吾友錦溪主人黃君俊良, 擬爲晚年藏修之所也. 主人仙去, 幹僧能奉遺意而謹守之. 自今以後, 守護僧徒永除役, 使俾得專意守護, 庶其

149) 亦: [부전지 ‘亦’考.]가 있다.

150) ㉔ 《退溪先生全書(內集)》과 《退陶先生集(初草本)》 등에 나오는 2월 19일자 具鳳齡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退溪가 ‘來初’ 즉 3월 1~2일 경에 집에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醴泉 高子坪에 사는 누나(辛聘의 妻)를 만나고, 龍宮 大竹에 있는 外祖父 산소에 성묘한 것을 2월의 사실로 기록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151) 題: 白洲本 ‘有’

152) 領: 白洲本 ‘鎖’

153) 節: 白洲本 ‘篤’

154) 參贊公: 白洲本에는 앞에 ‘按’이 있다.

155) 見: 白洲本 ‘被’

家子弟等輩，往來讀書於其中，因以小釋主人¹⁵⁶⁾未就之餘憾，豈不幸甚？某與溪主有契義，來過故里，不勝山陽隣笛之愴，欲圖護此舍，以寓念舊之情云云。”¹⁵⁷⁾

會族人，奠先塋于安東.¹⁵⁸⁾

講學溪齋.¹⁵⁹⁾

先生教人，循循有序，每以欲速急迫爲戒。又示門人詩云：“四兵耘草一兵遲，捷手三兵共詫伊。捷者留根煩再拔，不如遲者盡初時。【事見《朱子語類》.】”¹⁶⁰⁾

四月，^四〈答奇明彥書〉論出處之義.

先生自己未以來，長帶同知職名，久不請辭，明彥以

156) 人：白洲本에는 뒤에 ‘有志’가 있다.

157) 後於丙寅……云云：[부전지 商. 更考.]가 있다.

158) 安東：白洲本에는 뒤에 [소주 治修塋壠, 安東判官有祭需床具之助, 先生貽書謝之.]가 있다.

159) ^四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講學의 장소를 溪齋(溪南書齋·退溪南齋·溪上茅齋·溪上書齋)로 보고 있으나, 이때 지은 시가 《陶山雜詠》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陶山書堂 玩樂齋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60) ^四 이 시는 《退溪先生文集(內集)》에 〈齋中偶書示諸君及安道孫〉이라는 제목으로, 《陶山雜詠》에 〈齋中偶書〉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退溪先生文集(內集)》 해당 부분 編次에 의거할 때, 이 시는 4월 이전에 지은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蒙齋先生年譜》 기록에 의거하면, 만손자 安道는 4월 이후에야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므로, 이 시는 4월 이후에 지은 것이 되어야 한다. 한편 4월 29일자 金就礪에게 보낸 〈問金而精〉에서는 만손자 安道가 이 편지를 보내는 당일, 곧 4월 29일까지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볼 때, 安道는 빨라야 4월 30일에 고향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5월에 지은 것이 분명하다. 《退溪先生文集(內集)》 해당 부분 편차에 오류가 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기록도 오류이다.

書質之。先生答曰：“就中所云：‘與其不辭而恒懷未安之意，寧辭而或有難處者，亦可無¹⁶¹⁾吝於初心’，此誠切至之論。然此說施之於未嘗辭者之身，則是正誼明道，不計利害之事，固爲善矣。若如某也，非不辭也。實辭之至苦，而致有難處之事，懲此而今不敢復辭耳。且老病退閒，古之人，如飲食裘褐，而今世，此道衰絕。某也，不幸之甚，叨躋顯列，義不可一日安處，則乞退之事，不可以尋常，故數十年間，入了許多文字，說了許多道理，祈懇籲哀之至，非徒辭免不受，反更竊忝命秩之加。又力辭五六，而愈無涯極，則無所逃於天地之間，而無如之何，只得頽懦悶默而冒受之矣。然則如來教所云‘無吝於初心’者，果何如哉？吾鄉龔巖 李先生，年七十五而退來，至八十九而乃終，其間常授樞職。其初，每年一二次辭免，輒不得請，往往因而有褒賜之下。後來斷不請辭曰：‘不論無益，最未安者，致有恩命之至，不如不爲。’某當時，猶以龔巖爲未盡於義，至今身履而後，知其爲果然也。抑且聞之，昔朱子之病辭南康而不得也，曰：‘即欲再請，而諸公皆以犯分僭越爲咎，是以不免少忍踰冬

161) 可無：白洲本‘無可’

云.’ 以此言之，身在隴畝，而頻煩上請，期於得遞，亦恐有僭越之嫌。不然，但用一年一請之例，亦將視為泛常，終歸於無得決矣。凡此曲折，思之爛熟，見之諳悉，所以不敢請辭樞職者，已五年矣。抱病窮山，名懸仕籍，質之古義而不合，告之方來而無說。今來諭云：‘去就之難，有礙於一時，行藏之宜，將垂之萬世.’ 又云：‘以道自任，無滯近規.’ 壯哉言乎！惟如此，然後始可謂大丈夫矣。故朱子當僞禁之日，而辭職致仕，必得請而後已焉。顧某本乏世用，七顛八倒，迨至桑榆之景，方欲收拾補填，庶幾寡過，以畢素願足矣。若不顧前後，不揆力量，獨於出處，必欲反古之道，是所謂一脚短一脚長，其能免於顛仆之患乎？是以，雖知世有大丈夫事，而尚不敢奮發直前而承當也。雖然，亦或有相時度義而試復陳請，豈可謂終無之耶？”【按先生有〈答李仲久書〉云：“樞除仍冒無名，中間有欲啓替之議，而旋被尼止議出，實是難得之幸，而尼止，乃出於平生最知¹⁶²⁾厚之人，終無解繫之日，惶懷奈何？”】

六月，同鄭子中泛濯纓潭.¹⁶³⁾

162) 最知：白洲本‘親’

163) ■ 《退溪先生文集(內集)》과 《退陶先生集(初草本)》에 실린 〈答鄭子中〉 편지를 보면, 鄭惟一이 陶山으로 退溪를 찾아왔을 때 함께 달밤에 濯纓潭에서 뱃놀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퇴계가 정유일과 함께 달밤에 탁영담에서 뱃놀이를

有和九曲詩韻云：“我歌遺聲君擊節，盡¹⁶⁴⁾舸如上清冷¹⁶⁵⁾川。仰嗟吾道日中天，顧我溝壑羞原泉。萬鍾千駟是何物？發憤且和仙遊篇。”

八月，回 有答奇明彥書。

明彥書，“竊聽物論，以先生廉退爲可嘉，咸謂朝廷宜有褒尚之典，此論若發於陳請之際，則其爲難處，必有甚於前日云云。”先生答曰：“所喻，寧有是事？雖有之，世自有其人，必不及某。萬一誤而及某，某之狼狽，不可言也。公若有可置力於其間，千萬留意，切曉以他人則可，及某則不可之意，乃救人坑塹之惠也。曾見蔡介夫與董某爲章楓山謀者否？”【按蔡清與董遵道書云：“非但章先生自有牢關，意其弟子之略知其心者，亦力謂當路者，不必以此厚先生矣。殆必有其說也。又其向日同志一二比來復出者，俱不得完璧而歸，今聽先生一人，堅臥林下，保全令德，斯亦足壯士風淑士彙，而爲國家添一人物矣。《易》所謂‘不變其所守，乃所以益上’者也。”◎楓山，名懋，蔡介夫，號盧齋。并見《皇明理學名臣錄》。】

秋，作〈開寧鄉校聖殿重修記〉。

九月，回 聞朝廷不靖，貽書戒學者。

한 것은 4월 17일 경의 일이 분명하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일을 6월의 사실로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164) 盡：白洲本 ‘畫’

165) 冷：白洲本 ‘冷’

憲府啓，以高談浮薄，前正郎朴素立·司正奇大升·前佐郎尹斗壽·大護軍李文馨·府使許曄·縣監尹根壽等，或罷或削，蓋大憲李戡受李樑指喉而爲之也。俄而以玉堂論啓，罷逐兩李及其黨。初樑方用事，欲構禍士林，又以先生爲清議之首，將加罪，兇謀未逞而敗。◎時先生與奇明彥書曰：“吾輩所以觀爻象處時義者，當如何而可？妄謂不可變者，愈當堅牢，所當晦者，且宜崇深，雖聖斷邪去之後，吾輩被人指目者，猶在故也。”◎又與某¹⁶⁶⁾書曰：“此輩方其得志鴟張之日，固已料其必有如此之計，今果然矣。幸而聖斷赫然，且此少安，然當此時，在人者，吾無如之何，在我者，尤當益堅所守，壁立萬仞，庶幾終始不負所學。竊觀吾儕中，聞其聲者，無不隕穫失措，欲變其所爲，可笑可憐。古所謂韜晦避禍者，但不當誇張銜露，以取善名，而內實虛僞，適入禍網云耳。¹⁶⁷⁾若爲學實地工夫，豈可因世變而有所改耶？”【李戡嘗爲慶尙方伯，來訪書堂，至是，黨李樑，謀陷士林。先生指堂上一處曰：“此，某當日坐處。咫尺相對，安知其惡之至此乎？”歎吒者久之。◎按澤堂李公植云：“明·宣之際，豪傑繼起，復振己卯之緒。退溪爲之冠，明懲往轍，

166) 某：白洲本‘人’

167) 耳：白洲本‘矣’

一味謙退，當時群少流俗，固有不悅而指擿者矣。退溪深戒朋徒，專意退修。其學專以明道術闢異端爲務，故世議無所加，而儒風丕變，國家有賴矣。”】

(譜) 九月，²⁴⁹ 聞王世子喪，²⁸⁹ 設位行禮。

先生曰：“服制則內外百官，七日而除，士庶人則無服，想以儲位雖正，澤未嘗及下，於服義無取故也。此所謂義也。”

¹⁸⁹ 送別吳子強【健】。

有贈詩云：“雲谷遺書百世師，際天蟠地入毫絲。感君驢笈來相訂，愧我宮牆老未窺。”◎時朝議欲收用山野，蓋指先生也。門人微稟此意，先生曰：“山野之云，雖使有之，自有真山野人當之，決非蹭蹬廢棄之物所可指擬，公何過慮之如此？此亦受人譏笑之資，幸勿復云。”

○四十三年甲子【先生六十四歲】168)

二月，²⁹ 跋〈武夷九曲圖〉。

跋略云：“天生我朱子，不得有爲於天下，率至卷懷棲遯於大隱屏下，使夫靈仙窟宅之地，變而爲鄒·魯道

168) 1564년(明宗 19)

義之鄉，天意固有所未可知，而彼一時天下之不幸，豈不爲茲山之幸也耶？又豈不爲百世斯文之大幸也耶？噫！獨不得同其時，獲躋仁智堂，日侍講道之餘，退而詠歌周旋於隱求·觀善之間，以庶幾萬一也。”

㉓ 跋《朱文公棲息講道處帖》.169)

㉔ 答李仲久書論《今獻彙言》所載格致章諸說之非.

按都穆所撰《聽雨紀談》云：“朱子作《大學章句》以補格致之傳。”董丞相槐謂：“經本無闕文，首章‘明明德’下，即繼以‘欲明明德’以下條目八事之詳，此經也。自‘知止而有定’及‘聽訟吾猶人也’，至‘此謂知之至也’，此正釋‘致知在¹⁷⁰⁾格物’，而不俟他補。”黃巖車清臣亦與¹⁷¹⁾董氏合。王魯齋聞之謂：“洞照千古之錯簡。”如宋學士濂·方正學孝孺，其見亦同。宋公曰：“綱與目之名無有，所謂本末者，何必傳以釋之。”方公曰：“以聽訟釋本末，律以前後之例不類，其爲致知格物之傳，何惑焉云云。”仲久以此取正於

169) 金幾가 空帖을 가지고 와서 七君子贊 및 箴銘, 그리고 朱熹의 棲息處와 講道處 등지의 詩文을 써 달라고 부탁하므로, 그 취지가 좋아서 글씨를 써 준 다음, 그 끝에 跋文(〈跋金景嚴(幾)所求七君子贊及箴銘朱文公棲息講道處帖〉)을 지어서 붙였다. 이는 3월 3일의 일이므로, 李湛(仲久)에게 답장을 보낸 일 앞에 기록한 것은 오류이다.

170) 在：白洲本 ‘此’

171) 與：白洲本 ‘如’

先生。先生極言其非，又借喻之曰：“今有巨室於此，正寢輪奐無闕，而廊廡有一缺處，大匠見之，作而補修，材良制美，少無可議。其後，有世所謂良工者，過而相之，恥己之一無措手於此室也。於是，折壞其所補處，掇¹⁷²⁾取正寢數架材來，圖欲補完其所壞處，更不計正寢之材，初非廊廡之材也。圖完處不見其完，而寢屋則已成破屋矣。後至之工，皆不究大匠之神算，而一向贊歎和附於世所謂良工之所爲，悲夫!”¹⁷³⁾

六月，¹⁶⁹⁾望泛¹⁷⁴⁾風月潭。

陪¹⁷⁵⁾郭侯趙與諸人，避暑月川亭，因泛舟前潭，有“雨罷勝遊前歲恨，天酬佳賞此宵眠”之詩。

七月既望，¹⁶⁹⁾登紫霞峯，趙穆¹⁷⁶⁾從。

時先生溪上齋居，連夜月色清甚，令人無寐。趙穆¹⁷⁷⁾來言，其月川夜景，適與意會，欣然也。然古人所謂光霽者，殆不謂此，遂有詩云：“溪堂月白川堂白，今夜風清昨夜清。別有一般光霽處，吾儕安得驗明誠?”

172) 掇：白洲本‘撤’

173) 白洲本에는 뒤에 ‘(譜)四月，與諸生遊清涼山。【歸後，答清涼讀書諸君書云：“同在山中，不知其遊方之外，出山回首，方覺在山者如登仙也。”】’가 있다.

174) 泛：[부전지 ‘泛’下，恐脫‘舟’字.]가 있다.

175) 陪：[부전지 ‘陪’恐‘同’.]이 있다.

176) 穆：白洲本‘士敬’

177) 趙穆：白洲本‘士敬’

九月，圖 答曹樾仲書。

先生嘗謂：“學者不可不先識體段”，故多教以〈太極〉·〈西銘〉·《啓蒙》等書。南冥聞之，乃有手不知洒掃之節，而口談天理之奧之譏，至以盜名欺人目之，先生答書辨之。◎先生與¹⁷⁸⁾鄭子中書曰：“吾輩中心願學，初豈有盜名欺人之意？但立志不篤，遵道中廢，往往口談天理之際，遊聲已不禁四馳矣，而在我日用躬行之實，一無有可靠處。然則雖欲免盜欺之責，何可得耶？故南冥之言，真可謂爲吾輩藥石之言。自今請各更加策勉¹⁷⁹⁾，以反躬實踐，爲口談天理之本，而日事研窮體驗之功，庶幾知行兩進，言行相顧，不得罪於聖門，而免受訶於高世之士矣。”◎又答李剛而書曰：“近有人自南冥所來言：‘奇斯文曾與某論四七書札往復事，南冥極以爲非，以盜欺目之云。’豈獨奇明彥所當警懼，實吾輩皆當策勵終身，庶乎其可免。今示欲¹⁸⁰⁾知其實，而解釋之，則非古人喜聞過來規責之道，幸乞深諒。”

(譜) 撰靜菴 趙先生行狀。

178) 先生與：白洲本 ‘答’

179) 勉：白洲本 ‘勵’

180) 欲：白洲本에는 뒤에 ‘問’이 있다.

先生草成有年，猶嫌其輕出。後因柳眉巖 希春，以書求訂，略加改定¹⁸¹⁾，始得完就。【先生〈贈趙忠男〉詩，“常思儀鳳瑞王庭，玉樹今來¹⁸²⁾想典型。¹⁸³⁾ 盛美揄揚吾豈敢？雪霜千里愧君行。”忠男來請文，實¹⁸⁴⁾靜菴從孫也。】¹⁸⁵⁾

(譜) 作〈心無體用辨〉。

先生答韓永叔書有曰：“火雖若無常質，因物爲體，隱現不測。靜則體藏於無迹，動則用傳於無盡。蓋在五行中，最見造化之妙處。其爲物，出入變化於有無之間，故人之見之，若無常形常質，其實未嘗無也。但有寓於無中耳。¹⁸⁶⁾”【見《逸集》。◎疑蓮坊之言，以爲“心屬火，火何嘗有常形常質之爲體者乎？據此，則心無體用，亦足爲一證云云。”永叔學以質之，故先生所答如此。】

十一月，有答門人書。

書末云：“夫子之稱，君何易言？千萬勿爲也。”因以朱筆抹去“夫子”二字而還其本書，以示不敢當之意。¹⁸⁷⁾

有〈寄亦樂齋諸君文會〉詩。

181) 定：白洲本‘正’

182) 來：白洲本‘逢’

183) 型：白洲本‘刑’

184) 實：[부전지 ‘實’改‘忠男’，何如?]가 있다.

185) 小註에서 든 〈贈趙忠男〉은 거울에 지은 것이다. 연계되는 사실이라서 그대로 붙여서 기록해 두었다.

186) 耳：白洲本‘矣’

187) 十一月……之意：[부전지 此條刪，何如?]가 있다.

“群居樂事問如何？亦在勛書共切磨。獨臥溪莊思不歇，滿川風月釣臺峩。”又“近聞諸子各言歸，歸去求之信有師。能到寸陰堪惜處，此間真樂漸因知。”◎

【按《譜》〈庚申〉“書堂成”下條曰：“學徒於精舍之西，築室以¹⁸⁸⁾處，名曰‘亦樂’。”又先生〈寄文會〉詩下自註亦云：“諸人構茅舍於西麓，名曰‘亦樂’。世人以此齋，認作芝軒 鄭公家獨力創成者，非矣。據學徒及諸人等字，其非易見者耶？】

○四十四年乙丑【先生六十五歲】¹⁸⁹⁾

二月，患風痺證。

門人韓脩劑獻八寶回春湯，又有權相國轍所送¹⁹⁰⁾二十帖，先生皆答書謝之。

有〈書院十詠〉。

如豐基 竹溪·永川 臨皋·海州 文憲·星州 印鳳·江陵 丘山·咸陽 藍溪·榮川 伊山·慶州 西岳·大丘 畫巖各有詠。其〈總論諸院〉詩又云：“白首窮經道未聞，幸深諸院倡斯文。如何科目波翻海，使我閒愁劇似雲。”

三月， 跋〈陶山十二曲〉。

言志者六曲，言學者六曲。其跋略云：“欲使兒輩，習

188) 以：白洲本‘而’

189) 1565년(明宗 20)

190) 所送：白洲本‘送藥’

而歌之，憑几而聽之，庶幾可以蕩滌鄙吝，感發融通，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有益焉云云。”

有〈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¹⁹¹⁾

極言閒居味道無窮之樂，以寓其懷。

(譜) 四月，¹⁹²⁾ 上狀請解同知職名，從之。

先生嘗以在野朝御爲未安。至是，喜謂人曰：“余自此，始作天放山人，可得安枕而臥矣。”◎初發遣狀封，未數日，有國恤之變，政院與諸相咸議，在外不知，而爲之入啓無妨，因此竟蒙恩命。

(譜) ¹⁹³⁾ 聞文定王后喪，哭臨，¹⁹⁴⁾ 成服。

其成服·除服，皆就山舍行禮，蓋倣朱子望闕謝恩之例也。

(譜) 書¹⁹²⁾ 〈敬齋箴¹⁹³⁾〉·〈白鹿洞規圖¹⁹⁴⁾〉·〈名堂室語〉，揭諸玩樂齋壁上。

先生〈圖〉·〈齋箴〉·〈洞規〉揭于壁，兀坐其中，樂

191) ㉔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이 시를 3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으나, 《陶山雜詠》에서는 이 시를, 5월에 지은 〈伏蒙天恩許遂退閒且感且慶自述八絕〉 시 다음에 편집해 두고 있다. 이 사실과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 시의 내용을 더하여 볼 때, 〈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絕〉 시는 5월에 〈伏蒙天恩許遂退閒且感且慶自述八絕〉 시를 지은 다음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192) 書：白洲本에는 앞에 ‘六月’이 있다.

193) 箴：白洲本에는 뒤에 ‘圖’가 있다.

194) 圖：白洲本에는 없다.

而玩之，玩而樂之，常若鬼神父師之臨其上，虎尾春冰之寄其足，動靜常涵體用不離，足以合乎朱子太極之論云.¹⁹⁵⁾【出《艮齋集》.】

六月¹⁹⁶⁾，與諸生講究¹⁹⁷⁾三百算法及律呂等算.

㉔ 改正〈人心道心圖〉.

趙穆¹⁹⁸⁾以王魯齋所著圖，多舛訛未安，乃別作圖稟質，先生就其中改正.¹⁹⁹⁾

與諸生講《論語》.

至“危邦不入，亂邦不居”章，其小註，“朱子曰：‘有道，不必待十分太平然後出，無道，不必待十分大亂然後隱。有道，如天將曉，雖未甚明，然自此向明去，無道，如天將夜，雖未甚暗，然自此向暗去，須見幾而作’”，門人問：“向明向暗云者，只是見人君之賢否而進退耶？”先生答曰：“不獨是見²⁰⁰⁾君之賢否，君雖賢，其當國大臣，若有妨²⁰¹⁾撓之事，不得行我所

195) 動靜常涵……論云：[부진지 ‘常涵’之‘常’，恐‘相’，‘朱子’之‘朱’，恐‘周’，當考《艮齋集》. 【〈名堂室記〉，‘周子’】]가 있다.

196) 六月：白洲本에는 없다.

197) 碁：白洲本 ‘期’

198) 趙穆：白洲本에는 뒤에 ‘趙月川穆’이 있다.

199) 正：白洲本 ‘整’

200) 見：白洲本 ‘人’

201) 妨：白洲本 ‘防’

爲，則不可仕也。故朱子遇孝宗之時，孝宗質美，三代以下，罕出之主，而又招之甚誠，可以仕矣。先生一聞宰執不平之語，即棄而去之。”問：“君雖不如孝宗，而在朝無如此之人，則可以仕乎？”曰：“然。寧宗大不及孝宗，而即位之初，朱子就召，及其信任韓侂胄然後乃退。”【於此一段，可見先生平日出處之大概。】

七月，諭止鄉儒疏議。

文定王后頗信佛法，有僧普雨者，因緣誑²⁰²⁾惑，是年二月，大設無遮會於檜巖寺，逾月乃罷。未久，文定上仙，外間盛傳普雨請齋疏累日，以致違豫，人皆憤惋。於是，太學生累上疏，請誅普雨，至於空館而未得請，嶺南儒生，通文一道，詣闕上疏，禮安士林，方議去就。先生止之曰：“通文上疏，非儒者所當爲也。太學陳疏，猶可諉也。遠方草茅之士，群聚伏閣，分義甚不當。”或以爲，“先生每事，以中道自處，故如此說。艸²⁰³⁾野狂生，雖似過激，何妨一行？”先生聞之，笑曰：“儒者以中道²⁰⁴⁾自處，猶恐有過，況先以過激自處耶？”於是，宣城·永嘉之士，聞先生之教，

202) 誑：白洲本‘訛’

203) 艸：白洲本‘草’

204) 道：白洲本‘途’

獨不赴闕。◎答安道孫書曰：“商山諸人，倡作合道伏闕之計，此邑人亦有投袂而起者，然余意甚不可，故既勸令會議，而又力諭止之。其中，殊不以止之爲當，中懷憤鬱，而姑且強止，然余之老孱，亦豈無所見，而妄沮人忠憤之發耶？此等事，當以義理斷之，一毫客氣，着不得處後，當知之。”【後諸生，又以乙巳事將上疏，先生亦命止之。】

八月，²⁵⁹ 祭告高祖墓。

祧墓之祭，禮云歲一，而存者昭穆，尙未甚遠，故參酌厥宜，告以自今以後，春秋兩祭之由。【于時，用只²⁰⁵祭三代之禮。】

遊雲巖寺，歸路，獨尋凌雲臺，皆有詩。

時議建易東書院，故爲相地有是遊。²⁰⁶【後卒以先生之語，而占得基地²⁰⁷於鰲潭。】

（譜）八月，²⁵⁹ 與諸生講《啓蒙》。

答趙士敬書曰：“都下友人，寄聲規責，大意謂：‘爾輕接後生，其後生欲以爾皆爲模範云，此等事爾可堪當耶云云。’此乃切至之誨。凡世之不用吾說者，乃真助我者也。外我²⁰⁸叱我者，即真重我者耳。以此等

205) 用只：白洲本‘只用’

206) 相地有是遊：白洲本‘是行相地’

207) 地：白洲本‘址’

意苦辭來者，而景善輩尙且²⁰⁹⁾未去，亦見其愚之過我也。”

(譜) 改定《景賢錄》。

又書景賢堂·臨清臺·玉川精舍等諸額。

十月，答趙士敬書論程林隱〈心學圖〉。²¹⁰⁾

先生書曰：“林隱於心圈上頭，對置良心·本心，兩旁，對置赤子心·大人心者，非欲以此分類於人心與道心，同其精擇而去取之也。要以見心之爲物，渾然全體之中，隨其所發所就地頭分劑，而有如此般樣名目，欲使學者，因其名目，而究其義意，玩味而體認之，久則衆理融會，而心之全體在是矣。其下，始對舉人心道心，而繼之以精一克復操存之屬，其間有無限要妙工夫旨趣。又求放心，大概泛論之，固若爲始學之事。若推其極而細論之，夫所謂放心，非止謂逐物營營奔馳之心，一刻一念些少走失，皆放也。夫所謂求，非謂一日一餉乍然尋求捉住，便爲終身爲學之基本。蓋日日念念，在在處處，纔覺有透漏，便即收攝整頓得

208) 我：白洲本 ‘此’

209) 且：白洲本 ‘此’

210) 圖 《退陶先生集(初草本)》에는 이 편지의 제목이 〈(乙丑)九月一日〉이라고 되어 있어,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10월에 編次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惺惺，是之謂求。故程子曰：‘聖賢千言萬語，只是欲人將已放之心約之，使反復入身來云云。’觀此言，直以聖賢許多言語，皆若以爲求放心設，此事占地步，不亦廣博而悠長乎？愚恐自大賢以下，皆不可謂無此事。顏子三月不違仁，當其覺違而復仁也，便似²¹¹⁾微有此個意思。其餘則日月至焉，當其未至之時，未知幾放而幾求。及其至也，或以日，或以月，則亦豈免求放心之節度乎？但其放也其求也，各隨其人之才分學力，而有大小精粗遠近難易之不同耳。然則求放心所置之處，亦不必疑而欲移動之也。”◎答李叔獻書曰：“心圈上下左右六²¹²⁾個心，只謂聖賢說心，各有所指有如此者。以良心·本心其義類相近，故對置諸上左右，赤子心·大人心·人心·道心，以其本語之相對，故對置諸中下左右。此正如朱子以〈西銘〉前一段爲棊盤者同，以見聖賢論心如此如此²¹³⁾，欲人從這邊體認，從那邊潛玩，體認潛玩之多般，庶幾交相證驗，融會貫通，而識心之體用。自精一以下，方說做工夫底，亦猶西銘後一段下棊子處一般也。其以

211) 似：白洲本‘使’

212) 六：白洲本‘亦’

213) 如此：白洲本에는 없다.

遏人欲存天理，爲相對工夫，其來尙矣。眞西山亦云：‘克治存養，交致其功’，其爲工夫也，精一·戒懼·謹獨·克復·操存，亦已足矣。必歷舉其餘而言之者，是豈謂必由於此一層，而至於彼一層，又以彼一層爲梯級，而又上至第幾層耶？蓋以爲聖賢論心法處，不止一端，或以爲如此，或以爲如彼，歷指而示人，以爲皆不可不知，皆不可不用功力云爾。其從上排下，亦以其作圖之勢有不得²¹⁴⁾不然者，非謂其如《大學》條目之有工程先後也。求放心云云，至如心在·心思·盡心·正心之易置，來說亦似有理。然心非省察，何由而在思而立乎大？豈不是涵養？忿懣·恐懼等，一有之而不能察，則欲動情勝云云，則正心豈必偏屬於涵養乎？盡心之訓曰：‘極其心之全體而無不盡者，必其能窮理而無不知也。’以此屬之理一邊，豈有不可？”

【按此書非出於一時，而要作統會看，故并附于此。】

答李仲久書論田制筭及律筭.²¹⁵⁾

十二月，³²⁾ 以〈冬晝吟〉一絕，出示在座諸人。

214) 得：白洲本‘能’

215) ³³⁾ 《退溪先生文集(內集)》에 실린 〈答李仲久·別紙〉를 보면, 본 편지 내용 끝에 ‘歲晏’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로써 본다면 이 편지는 12월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이 편지를 12월 전에 보낸 것으로 기록해 놓았으나, 아닌 듯하다.

詩云：“寒事幽居有底營，藏花護竹衛羸形。慙慙寄謝來尋客，欲向三冬斷送迎。”時監司姜士尙，訪先生于陶山。旣去，諸生入謁，主倅亦在座。設酌酒半，先生乃言曰：“久欲謝此送迎，而不可得。此某言志之作，恐人以我爲薄，故不敢示人，今始出之，非薄也，乃不得已陳情也。”【先生又言：“監司問有學者來否？權辭以答曰：‘無有。’非不欲以實對，世有輕接後生之譏，故不免如是云爾。”】

㉒ 與諸生講《心經》。

講罷，先生爲推說烏頭力去之義曰：“謝上蔡來學於程子，辭歸之日，謂尹和靖²¹⁶⁾曰：‘吾徒朝夕從先生，見行則學，聞言則識，譬如服烏頭者。方其服也，顏色悅澤，筋力強盛，一朝烏頭力去，將如之何？’和靖²¹⁷⁾以告夫子，夫子曰：‘可謂益友矣。’蓋烏頭，藥名，服之，能令人已疾。人在賢師之側，每聞嘉言善教，攻其心疾²¹⁸⁾，猶此藥能攻其身病。今違師遠去，不得聞教誨，前日之心病復萌，無藥以治之，此所以有烏頭力去之憂。”

(譜) ㉓ 以特命召。

216) 請：白洲本‘靖’

217) 請：白洲本‘靖’

218) 疾：白洲本‘病’

先生自少恬退，晚尤不樂仕官，退居鄉村，時人仰之如泰山北斗。至是，元衡既敗，士林想望治化，及召命下，人皆欣忭。

定本 退溪全書 四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三

○四十五年丙寅【先生六十六歲】¹⁾

正月, 189 ~ 259 題金士純屏銘.

【按寒岡所撰〈鶴峯行狀〉云：“李先生歷叙聖賢相傳之心法，作為屏銘，手自淨寫以²⁾與之.”】

(譜) 正月, 149 召命至.

此召命，實前此譜所謂以特命召者也。去臘二十六日，召旨出，是月十四日，始祇受。

149 謝遣生徒.

時諸生留溪南書齋。先生曰：“我將病辭，何敢與人講論？”

269 出³⁾宿聖泉寺。

遠近人士，多來餞者，輒懇辭，至⁴⁾於洞族叙別，亦止之，蓋先生定計，雖不語人，而初不以入京爲期故也。

【主倅爲贐一斛租，先生辭而不受.】

299 病⁵⁾留榮川。

有答人詩云：“何當得見天矜許，歸臥蓬廬獨闔然。”

1) 1566년(明宗 21)

2) 以：白洲本 ‘而’

3) 出：白洲本에는 앞에 ‘二十六日’이 있다.

4) 至：白洲本 ‘止’

5) 病：白洲本에는 앞에 ‘二十九日’이 있다.

【詩見《續集》.6)】

(譜) ㉒ 有旨云云【止】令內醫賚藥問病.

傳曰：“李某上來時，一路各官，各別厚接⁷⁾，安保上送事，所經各道監司處下書，可也. 且余⁸⁾觀其書狀，似是登途，因病未得上來，內醫延壽聃，當藥賚去問病來.” 啓延壽聃給馬下送.

(譜) ㉓ 再辭，不允.

傳曰：“前已知醫官書啓，今又識卿辭如此，予恐好賢之誠未篤. 卿勿煩辭，更加徐徐安心調理上來.”

(譜) ㉔ 陞拜判書.

傳曰：“工曹判書三望內，從品一二人可陞者，詳度擬望，可也.” 先生首被超陞.

㉕ 病留⁹⁾醴泉.

先生托以竹嶺凍險，將改道鳥嶺，遂抵醴泉，而實爲逗留病乞之計也. 及聞陞秩，益歎進退之難，有〈庭梅問答〉詩.

(譜) ㉖ 聞陞職，㉗ 自醴泉入鶴駕山 廣興寺.

先生以求退得進，尤當力辭，官舍久留不便，遂罷¹⁰⁾

6) 續集：白洲本에는 뒤에 ‘二卷’이 있다.

7) 接：白洲本 ‘待’

8) 余：[부전지 ‘余’恐‘予’.]가 있다.

9) 病留：[부전지 ‘病留’, 改(譜)抵.]가 있다.

驛騎，私行入山，安東府中供億，皆却而不受，只使山僧炊飯，蕭然若寒士.¹¹⁾

(譜) ㉔ 不允，促召.

傳曰：“觀卿累次辭狀，予心不寧。卿今陞判，非不合矣。有何辭乎？毋敢求退。”

三月三日，用晦菴韻有詩.

先生方乞辭，必以得請爲期，徑退之意已決，故詩有‘明朝放還山，歸愚眞第一’之句.

(譜) ㉕ 自鳳停還家.

是行，辭同知者再，辭工判者再。于時上眷甚重，下至走卒，亦莫不慕其名，皆欲一見，先生終不起，識者以爲憂.

有《丙寅道病錄》.

(譜) ㉖ 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時重望屬於先生，大提學洪暹辭其職，讓于先生.

(譜) ㉗ ㉘ 上見狀【止】召大臣議之.

傳曰：“予乏好賢之誠，累次下諭，而工曹判書，似無上來之意。國家設官分職，不可久曠六卿之列，而況

10) 罷：白洲本에는 뒤에 ‘遣’이 있다.

11) 寒士：白洲本에는 뒤에 ‘○先生托以竹嶺凍險，將改道鳥嶺，遂抵醴泉，而實爲逗留病乞之計，及聞陞秩，蓋歎進退之難，有庭梅問答詩.’가 있다.

大提學任重，亦不可不速差，未知何以處之。”大臣對以云云。上遂命遞差，更以日候加暖病歇上來之意下諭。

五月，入溪庄，改正海州本《朱子書節要》誤字。

先生時脹證間發，以山舍近水多冷濕，不安居處，遂還溪齋，度暑於此。有與人書曰：“幸近絕外人還往，得以日繙書冊，隨事體驗，似覺稍稍親切。然而少忽於顧眄之頃，已復失去，益知古人所以日加戰兢，惟恐不及，爲是故也。而吾輩向來，名雖爲學，實未嘗下手也。欲保餘日，專意致力，而朝中故舊，貽書譙責者相繼，惶惕奈何？”

有〈陶山訪梅〉・〈代梅花答〉詩二絶.¹²⁾

㉔ 有〈題畫牛二絶〉。

其一云：“終日困驅牽，後捶前繩鼻。幽人肯似之？將身遂¹³⁾名利。”其二云：“自牧自閒眠，茅山有深願。

12) ㉔ 《高峯先生續集》에 실려 있는 〈丙寅季春辭召命還山問梅(在醴泉見梅花近數句而至陶山山梅始發)〉의 題下 原註와, 《梅花詩帖》에 실려 있는 〈梅答(襄陽見梅後近數句而陶山梅始發)〉의 題下 原註를 보면 退溪는 襄陽, 곧 醴泉에서 매화가 핀 것을 본 다음, 20~30일이 지난 다음 비로소 피기 시작하는 陶山 매화를 보고 이 시들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退溪가 醴泉에서 梅花가 처음 피기 시작한 것을 본 때는 2월 21일의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시들은 3월 하순, 그것도 26일 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시들을 5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13) 遂：白洲本 ‘逐’

蕭帝亦可人，千秋遂肥遯。”

(譜) 七月, ㉓ 上狀辭免. 不許.

先生家書曰: “聖意尤懇, 至有母¹⁴⁾輕予好賢之誠等語, 不勝惶恐之至, 但其末有待病¹⁵⁾差上來云云, 此則似有斟酌, 非爲迫促之意, 天恩無比, 又賜貂皮·耳掩, 亦甚未安.”

八月, ㉔ 謝客.

自病辭徑還之後, 時議甚紛紜, 先生以爲當此時, 應接賓客, 尤爲未安, 皆懇辭.

(譜) 又¹⁶⁾畫先生所居陶山.

先生與子窩書曰: “礪城尉送畫於李靜存, 問其可否, 李招安道及子中質問, 子中指正其誤處云云. 此事極惶駭, 未必不因此爲他日之禍, 而安道同參正誤云, 尤¹⁷⁾未便, 恨恨.”¹⁸⁾

(譜) 十月, ㉕ 撰晦齋李先生行狀.

14) 母: 白洲本에는 없다.

15) 病: 白洲本 ‘疾’

16) 又: 白洲本에는 뒤에 ‘命’이 있다.

17) 尤: 白洲本에는 뒤에 ‘爲’가 있다.

18) ㉕ 《退陶先生集(家書)》에 실린 7월 25일 맏아들窩에게 보낸 편지(BIL2706)를 보면, 明宗이 陶山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위에 〈陶山記〉와 〈陶山雜詠〉을 쓰게 한 다음, 屏風을 만들어 臥內에 둘러치게 한 일은 7월 중순 이전의 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해당 부분 편차로는 8월 이후의 사실이 되어야 하나, 7월의 사실임이 드러나므로, 오류임이 분명하다.

先生嘗曰：“某於靜菴行狀，極言天資高處，而其說學力處少，晦齋行狀，極言學力深處，而其說天資高處較輕。”又曰：“吾東不無道學之士，而文獻無徵，其所造淺深，無從考見。以可徵者而言之，則近代晦齋之學甚正，其所著文字，皆自胸中流出，理明義精，渾然天成，非所造之深，能如在乎？”◎【按澤堂李植曰：“晦齋雖是一代名臣，而世不知其學之邃，退溪表而出之，當時學者，心服退溪，故不敢異辭，國論定矣。”】

(譜) 作〈心經後論〉.

【《譜》以此係之於十月，而據〈後論〉末段年月，實是歲七月.】¹⁹⁾

(譜) ㉑ 黃錦溪俊良，嘗以書譏斥²⁰⁾，先生力辨其非。趙月川穆，亦病《心經》舊註之多脫誤，欲改正而條稟之，先生答書，大意其與答錦溪書略同，而尤更嚴切。其略曰：“人之所見苦不同，好惡亦不齊，若人人用己意，輕易削除，則古經之傳於今者，無復完理，其害豈少哉？某於此經此註，覺一生知得不能盡，行

19) [부전지 已上多此類，故謹依其文勢，稍移動本艸數字.]가 있다. ㉑ 《退溪先生文集(內集)》〈心經後論〉 끝에는 ‘皇明嘉靖四十五年歲丙寅孟秋日’로 그 지은 연월이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心經後論〉은 7월에 지은 것이 드러났는데도, 《退溪先生年譜》에서는 〈心經後論〉을 10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退溪先生年譜》가 오류임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바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の 小註 기록이다.

20) 斥：白洲本에는 뒤에 ‘是書’가 있다.

得不可窮。願公且虛心遜志，一向尊尚，則其中一言一句，師法奉持之，且不暇，更安有工夫，點檢其他耶？”²¹⁾

10월 24일 ~ 28일 以²²⁾病謝客，寓月瀾菴。

讀朱子書，又與門人講《心經》及《參同契》。將歸，曉起，取燭題〈菴臺七絕〉詩。

圖 答李宏仲論敬書。

先生因寫此書一通，揭之于壁。趙月川穆問何以若是？先生曰：“我雖教人如此，而反諸吾身，猶未能自盡，故然耳。”【先生嘗論持敬工夫曰：“如某者，朝暮之頃，或有神清氣定²³⁾底時節，儼然肅然，心體不待把捉而自存，四肢不待羈束而自恭謹，意以爲古人氣象好時，必是如此，但不能持久耳。”】

與尹安東書，還其餽遺。²⁴⁾

尹公復時爲府伯來謁，又有納禮單，先生出接之，偶不開視，及尹辭去，始知其中有獐鰕等物。是日，先生家忌也。即具書追還，蓋以忌日受肉爲未安也。◎

21) 譜黃錦溪……他耶：白洲本에는 ‘譜’가 없이 ‘(譜)作〈心經後論〉’의 小註로 편성되어 있으며, 뒤에 ‘按〈後論〉末段年月, 實是歲七月.’이 있다.

22) 以：白洲本에는 앞에 ‘十月’이 있다.

23) 定：白洲本 ‘靜’

24) 圖 尹復이 찾아왔을 때 가지고 온 노루 고기와 복어 등을 집안의 忌日이라서 돌려보낸 일을 《退溪先生文集(內集)》과 《退陶先生言行通錄》에서는 乙丑年(1565년, 65세) 겨울의 일로 보고 있으나, 《退溪先生全書(內集)》과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丙寅年(1566년, 66세)의 일로 보고 있다.

先生當夫人忌日，監司來見，先生不稱忌，設酒肉皆如常，但於進肴，賓主異饌，監司知之，乃皆用素。
◎有人送醢，時先生適聞總服，還其醢。

㉑ 答奇明彥書論盧伊齋尊信《困知記》之非。

先生之學，一以朱子爲的，見人之尊陸學者，必深排而痛絕之。盧伊齋尊信羅整菴《困知記》，先生以整菴之學，自謂闢異端，而陽排陰助，左遮右攔，實程朱之罪人也。與伊齋力辨之，終不以爲然，獨奇高峯，與先生合爲作〈困知記跋〉，以斥其學。先生曰：“這議²⁵⁾甚不易。”【《困知記》以道心爲性，人心爲情。先生答金景純書，亦言其謬。】

有托意²⁶⁾窰竹詩。²⁷⁾

所居近北多寒，患竹難活，作土室以藏。詩云：“依巖叢竹碧蕭蕭，刮眼平生見久要。窰裏莫辭藏素節，團欒不作鳳鳴簫。”此詩當日²⁸⁾，膾炙人口。

25) 議：白洲本에는 뒤에 ‘論’이 있다.

26) 托意：[부전지 ‘托意’刪.]이 있다.

27) ㉑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叢竹〉 시를 지은 것을 10월의 사실로 기록해 놓고 있다. 아마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土室을 만들어 갈무리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10월에 지은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退溪先生文集(內集)》 〈林居十五詠〉 중 〈早秋〉 詩 結句에서 “深爲叢筠護節莖”이라 한 것을 볼 때, 土室을 만들어 갈무리한다는 일반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 시를 10월에 지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기록을 따르지 않고, 《退溪先生文集(內集)》 해당 부분 編次에 의거해서 가을에 지은 것으로 보았다.

十一月, 閏閏 有〈寄示孫兒安道〉詩.

其詩序云: “安道往龍壽寺讀書, 因追憶先府君兄弟少時, 讀書此寺, 先祖兵曹府君有寄詩, 先兄亦嘗讀此寺, 先叔父府君, 亦有寄詩. 凡先世爲子姪所以誨導期望者, 丁寧懇到, 反復誦繹, 不勝感涕, 不可不使後生輩聞之, 謹用元²⁹⁾韻寄示, 庶幾知家教所自來, 以自勉云爾.”

十二月【二十四日】, 辭趙士敬饋肉.

是日, 乃成廟忌日, 士敬偶持酒肉來, 先生不受其肉. 答金而精書辭編定《禮疑》.³⁰⁾

而精將《家禮》喪·祭兩門, 本朱子之儀, 參諸儒之說, 準時制明俗失, 附以己意考訂論辨, 請先生商酌裁定, 以成一部禮書, 欲以是率一世而傳後來. 先生答書略云: “此何等重事, 而吾二人敢爲之哉? 自公而言, 則學未成而名未顯, 自某而言, 則德愈下而識

28) 日: 白洲本 ‘時’

29) 元: 白洲本 ‘原’

30) 圖 《退溪先生文集(內集)》과 《退溪先生全書(內集)》에 실려 있는 〈答金而精·別紙〉를 보면, 본 편지는 앞뒤로 4행 이상이, 別紙는 1행 정도가 刪去되었다. 특히 본 편지의 뒤쪽으로 산거된 부분에는 ‘乙丑十二月初日’로 그 작성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이 편지의 내용으로 만든 항목, 곧 “答金而精書辭編定《禮疑》”를 丙寅年(1566년, 66세) 12월의 일로 기록해 놓고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가 오류임이 분명하다.

愈懵，乃相與率意妄作增損乎？大賢之成書，其能得制作³¹⁾之意，而無乖繆乎駁正乎？末世之敝典，其能無專僭之謗，而免罪戾乎云云。”

129 259 講朱子書.

門人將行求言，贈詩五絕。其一云：“茫茫胡走半吾生，一管窺天得考亭。老病極慚多失墜，待君提挈³²⁾更恢明。”又有³³⁾“願將拙用兼聞晚，把玩餘光至死休”之句。【見《逸集》。】

○隆慶元年丁卯【先生六十七歲】³⁴⁾

二月，國 與奇明彥書，請毀中和郡刊書。³⁵⁾

中和郡新刊二書，名曰《退溪學庸解》·《語錄解疑》。其所謂《語錄解》者，本非出於先生，《學庸解》則先生嘗見二書，東人諸說紛糾，欲哀集去取，間有所論辨，而尙且未成書，偶爲人傳看，郡守安璫·訓導文命凱，相與入梓。時奇明彥以遠接使從事官，赴關西，先生囑令毀之。明彥果焚去其板，以詩來報云：“俗學

31) 作：白洲本‘行’

32) 挈：白洲本‘絜’

33) 有：白洲本‘云’

34) 1567년(明宗 22)

35) 與奇明彥……刊書：[부진지 ‘書’移‘與’下, ‘請’字刪, 何如?]가 있다.

牽文不究眞，相承口耳道彌湮。流傳筭記尤滋惑，假托師門更誤人。焚棄警頑公命我，研磨居業孰求身。空庭掃燼³⁶⁾還三歎，浮世紛紛足怪嗔。”³⁷⁾ 先生喜次其韻。³⁸⁾

草成〈壻歸³⁹⁾禮見儀〉。⁴⁰⁾

昏禮頽廢，世無行之者。時因孫壻朴櫬之來，始倣古禮，略爲儀目，然恐⁴¹⁾其有駭於聞見，不能盡從古禮。不數年，京鄉士大夫，取以爲法，且往往直行古禮，究其所以，則蓋權輿於此也。⁴²⁾

36) 燼：白洲本‘灰’

37) 以詩來報云……怪嗔：[부전지 高峯詩雙行書，不然，刪之亦可.]가 있다.

38) ㉮ 《兩先生往復書》에 실려 있는 〈明彦拜白 奇舍人侍史〉 끝에는 ‘丁卯二月初五日’로 그 작성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細註에서는 中和郡에서 간행한 책을 2種(《退溪學庸解》·《退溪語錄解疑》)이라고 하였으나, 《兩先生往復書》에 실린 편지에서는 한 種(《庸學釋義》에 《語錄釋》을 첨부한 책)이라고 하고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細註가 오류임이 분명하다. 한편 奇大升이 中和郡에서 책과 그 冊板을 불태운 것은 5월의 일이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細註에서 들고 있는, 奇大升이 책과 그 冊板을 불태우고 난 다음 지은 詩(〈中和新刊退溪學庸語錄解疑合(一冊先生聞之貽書大升請焚毀故作)〉)는 5월에 지은 것이 분명하고, 이 시에 대한 퇴계의 次韻詩(〈中和郡刊謬文字曾囑奇明彦焚毀今得其書已焚去之喜次來韻〉)(KNP0399)는 6월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39) 歸：白洲本‘婦’

40) ㉮ 《退溪先生全書遺集外篇》에 실린 〈婚禮笏記〉는 朴櫬의 아내가 된 만손녀의婚禮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3월 13일자 만아들 窩에게 보낸 〈安奇(十三日)〉에 의거하면, 朴櫬의 아내가 된 만손녀의 혼례는 3월경에 거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에 의거해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2월에 〈婚禮笏記〉(〈壻婦禮見儀〉)를 草한 것으로 기록한 듯하다.

41) 然恐：[부전지 ‘然恐’以下商.]이 있다.

42) 此也：白洲本에는 뒤에 ‘新營易東書院【代鄉中諸生上府伯書，尹杏堂復時爲俯伯。

(譜) 二月, ㉔ 復召.

先生與人書曰: “傳聞諸宰, 亦不以必來爲意, 故初得免抄, 乃爲洪相拈出, 以至於此, 其意誠不可曉云云.” 【洪相, 疑洪忍齋 遲.】

三月踏青日, ㉕ 獨出陶山訪梅.

時小梅一白, 獨超然於鵑杏千紅之中. 先生有詩云: “平生苦厭紛華事, 壓掃全憑玉雪枝.”⁴³⁾ 方有召命, 故感慨托懷者如此. ◎又答金士純書曰: “近日, 力疾獨至陶山, 群芳爛熳⁴⁴⁾, 而囟外小梅, 皎如玉雪團枝, 不受變⁴⁵⁾於年華, 信所謂‘有所感, 有所敬’者也.”

㉖ 獨遊新巖看瀑.

門人李德弘, 嘗以巖瀑奇勝, 告先生, 至是往賞, 有六絕詩.

四月, 大雨雪.

先生有答金景仁書曰: “近日雨雪, 深可駭異. 考之前代, 如周孝·漢文武時, 皆有四月雪. 其後, 亦比比有之, 多致變亂之應, 憂慮奈何?” 【《逸集》. ◎匪久, 有遏

見《逸集》.】'이 있다.

43) 枝: 白洲本에는 뒤에 ‘云云’이 있다.

44) 熳: 白洲本 ‘漫’

45) 變: 白洲本 ‘愛’

密之變.】 46)

(譜) 五月, 有旨趣行.⁴⁷⁾

時諸生請業, 皆辭之. 【先生語門人曰: “致仕古義, 而吾東方例不許此, 人臣甚難之處也.”】

(譜) 六月, 入都.

前此, 召命凡八次, 先生不得已赴召, 而其〈早發遇雨〉詩, 有“無端曉雨迷山逕⁴⁸⁾, 應戲山人走俗緣”之句.

(譜) ㉓ ㉓ 明宗昇遐.

明廟末年, 眷倚先生者深重. 其違豫之日, 歎曰: “若見李某, 予疾⁴⁹⁾庶可瘳也.” 又醫官等入診, 則陶山畫屏, 尙圍在左右云. ◎先生以《五禮儀》君臣器制多不倫, 欲依朱子〈君臣服制議〉, 參酌更定, 諭諸禮曹, 曹堂上難之, 其議遂寢, 識者恨之.

46) ㉓ 《退溪先生全書遺集內篇》에 실린 편지 〈答金景仁 月瀾〉은 그 해당 부분 編次에 의거할 때, 5~6월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항목을 작성하면서 4월에 크게 눈비가 내렸다고 한 것은 그곳에 인용된 “考之前代, 如周孝·漢文武時, 皆有四月雪.”을 액면 그대로 해석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이 오류인 듯하다.

47) ㉓ 《退溪先生全書遺集外篇》에 실린 편지 〈答安道孫〉의 기록을 통해, 퇴계는 6월 12일에 집을 출발하여 溫溪의 樹谷 齋舍(樹谷菴)에서 아버지 堧의 忌祭祀를 지낸 다음 상경 길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退溪의 아버지 堧은 壬戌年(1502년, 退溪 2세) 6월 13일에 별세하였다.

48) 逕: 白洲本 ‘徑’

49) 疾: 白洲本 ‘病’

(譜) 七月，圖 爲大行王修撰廳堂上，撰行狀。

朝議使先生撰行狀。諸僚考出《政院日記》，其中有記明廟好賢之意，而詳載召先生首末。先生繙關⁵⁰⁾至此，瞿然曰：“此非某所敢與撰也。某欺罔先王已極，尋常兢惕，尤不可冒撰。”即起出。大臣以爲非⁵¹⁾先生不可，乃令削⁵²⁾此語而撰之。

圖 有〈回示詔使書〉。

詔使許國·魏時亮，問東方有能知孔·孟心學·箕子疇數者，先生其於禮曹所錄之外，又加錄禹祭酒倬以下凡八人示之，乃以書答之。其略曰：“今所舉若干人，皆已往者耳。其見存者，非所敢言也。且是數子者，生千載之後，處窮海之中，不得親授受薰炙於聖賢之門，謂之能傳心學，固難矣。然其一生用力於此，則豈不得爲心學者之徒也歟？若箕子〈洪範〉，朱·蔡之說，發明無餘蘊，學而知之者，固亦有焉。其爲數則吾東未聞有能明之者。近世有李純者，自謂能通其說，而至著爲註解，亦未知其果無謬否也。”

修禮曹答日本國書契。⁵³⁾

50) 關：白洲本 ‘閱’

51) 非：白洲本에는 없다.

52) 削：白洲本에는 뒤에 ‘去’가 있다.

答李大成書曰：“日本使臣所求事，甚有難處者，欲盡從則國將自困，不從則必有兵端，奈何？【見《逸集》】

(譜) ㉔ 拜禮曹判書，再辭不允。

傳曰：“聞卿賢德，久矣。如此新政之時，卿若不仕，豈安於心乎？”

(譜) 八月，㉕ 以病免，即東歸。

辭遞之日，未及呈告還鄉，人皆疑之。蓋奇高峯諸賢，每筵席，極言先生道德行義，無愧程·朱，不可不急先招用，爲行道濟時之地，先生已聞而不樂。一日，門人告曰：“高峯諸人之意，皆以爲先生入相，然後吾道可行，當請對陳啓云。”先生瞿然，即不告諸友，翩然南行。【按大山 李象靖答人書曰：“退陶先生，丁卯徑歸一節，係是大賢出處，當以先生所與奇高峯·鄭文峯書爲正。然蓋先生之意，遠避嫌疑，非無故而速行者。⁵⁴⁾ 鶴峯記師門言行中一段，正說出先生當日徑還意思甚分明。此老在溪門，智足以知大賢，親見而實記之，恐當以此爲正論。”(即‘翩然南行’一段。) ◎與奇高峯書已見《譜》，與鄭文峯書見《文集》二十六卷。◎又按先生當初家書及門人諸書，輒言因山前

53) ㉔ 退溪가 禮曹 判書에 임명되고 謝恩한 것은 8월 1일의 일이다. 그렇다면 退溪가 예조 판서로 실제 집무를 본 것은 8월 1일 이후부터 예조 판서에서 해직된 8월 9일 전까지, 곧 8월 1~8일의 일로 짐작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7월 28일에 예조 판서에 임명된 사실을 기준으로 〈禮曹答對馬島主宗盛長〉, 〈禮曹答對馬島主〉, 〈禮曹答日本國左武衛將軍源義清〉 등의 글을 7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오류인 듯하다.

54) 者：白洲本에는 뒤에 ‘也’가 있다.

歸不得之義，而終之所處，若出於猝遽，其爲卜相之議所動，恐無可疑.】

授上護軍，同知經筵並仍兼.(病免東歸之日，有是命.)
到老松亭.

亭，實先生祖禰之宗也. 以衰服不可入家廟，只行再拜禮於祠門外.

(譜) 九月，製進大行王挽詞.⁵⁵⁾

挽詞之末，附以自叙語，或以爲病. 先生曰：“論者若見朱子〈孝宗挽詞〉，則無此疑矣.”【按因山下玄宮，實是月二十二日. 有李愈者上疏，極言不待五月而葬非禮，自上命改卜十月，而以十月內終無吉日，竟未改卜. 先生之意，以李疏爲是.】

(譜) 四 答奇明彦書.

朴思菴 淳所撰行略有云：“是時，人皆疑其去就，先生曰：‘昔考亭以煥章閣待制，不待孝宗發引而行，義所當去，不得不爾也.’”【按先生當日章疏及凡知舊門人往還書札，索言其未竟山陵而歸之義者甚多，至於答高峯此書，特盡底裏，

55) ㉮ 《退溪先生續集》과 《退陶先生集(家書)》에는 8월 26일 〈明宗大王挽詞(并序)〉를 서울로 보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만아들 窩에게 보내는 답장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볼 때, 退溪는 이때 이미 〈明宗大王挽詞(并序)〉를 지어서 만아들 窩에게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의거한다면 〈明宗大王挽詞(并序)〉를 완성한 시점은 窩에게 편지를 보내기 하루 전인 8월 25일 경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明宗大王挽詞(并序)〉를 8월이 아닌 9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明宗의 장례가 9월 22일에 거행되었다는 사실에 맞추어 9월에 지어서 올린 것으로 기록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오류임이 분명하다.

而⁵⁶⁾未嘗有論據朱子此一段事。竊疑時有援引前賢之謗，故不或及之歟？◎宋孝宗因山，在紹熙甲寅十一月，朱子⁵⁷⁾時罷官東歸。詳見⁵⁸⁾〈孝宗挽詞⁵⁹⁾序〉。】

十月初四日，出陶山，五日，行大行王卒哭之禮。

先生在京之日，累月食素，氣極危惓，門人子弟，交謁更諫，請以從權，皆不聽，至於不可支吾，然後乃行⁶⁰⁾權。及服禹景善平胃煎，脾胃稍實，登途以後，即復禮，以終卒哭。

㉒ 〈書研經書院記後〉。

以〈伊山院規〉一本送揭。時李上舍 叔樸，請依此規行之，先生樂而許之。

(譜) ㉓ ㉔ 又以教書特召。

上曰：“程·朱之去，其時人君，不能待以至誠，故小人讒間矣。若以至誠，則豈有讒間乎？”奇大升啓曰：“伏承聖教，不勝感激。但李某·曹植·李恒，皆七十之年也。如此甚寒之時，聞有召命，必有悶迫遑急之患。自上欲見之心雖切，而待賢士，所當從容寬假，不可驅迫也。觀勢上來事，更爲下諭，何如？”承旨李俊民

56) 而：白洲本에는 뒤에 ‘亦’이 있다.

57) 子：白洲本에는 뒤에 ‘其’가 있다.

58) 見：白洲本에는 뒤에 ‘朱子’가 있다.

59) 詞：白洲本에는 없다.

60) 行：白洲本 ‘從’

啓曰：“李某則地位甚高，祖述程·朱，故其所著述，與程·朱相近，我國此等人絕稀。一時賢者，不一其人，而如李某則其尤也。待其上來引見，則其人必有所陳達矣。”傳曰：“予欲見賢之心，一日急於一日，但年高之人畏寒，不克就道，其勿拘遲速云云。”奇大升又啓曰：“自己卯年，南袞·沈貞，欺罔中宗，蒙蔽已極，乙巳以後，更無言是非者。是非不明，則雖有好善之心，何益之有？頃日下書于李某使之上來。其人自少讀書，當初見善人受罪，故退去。今則年已七十，且多疾病。大概見是非不明，恥其隨行逐隊，寧欲退處竹⁶¹⁾野也。新政招賢，最善舉也。然欲用賢人，則不可不使是非分明也。”⁶²⁾

(譜) ㉔ 許曄啓云云.

先生答安道孫書曰：“某與許公，相知久矣。若可以相知矣，乃無端出此薦言，致令垂死微蹤，將入罪罟，其可謂相知乎？古人有白頭如新之語。許公嘗令某，作其新齋記鄭重，而久未果，如或作之，當以此語爲主意，無乃可乎？”

61) 竹：白洲本‘草’

62) ㉔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이 부분의 細註는 11월 17일의 사실이다.

十一月，^㉓ 祇受教書。

習讀官吳景祐， 賁來教書。【今此特召， 據先生手錄， 非十月⁶³⁾， 實十一月十六日出， 而二十一日始祇受。◎教書⁶⁴⁾， 奇大升行。見〈附錄⁶⁵⁾〉。】 ◎答安道孫書曰：“每望明彥能不拘世習， 解我倒懸也。今乃手自推入于百尺之筭， 若少有相知， 豈至於此耶？” 其後書又云：“明彥不相知之說， 勿更云可也。在明彥， 雖則然矣， 既爲絲綸之言， 不當指爲如何也。”【按高峯上先生書云：“教書之製， 乃職分內事， 固不敢私便於先生也。”】

○二年【宣祖大王元年】戊辰【先生六十八歲】⁶⁶⁾

正月，^㉔ 金誠一·鄭述諸生皆還。

先生方辭召命， 故謝遣生徒而戒之曰：“道在邇， 而人自不察耳。豈日用事物之外， 別有一種他道理乎？”

^㉕ 聞閔右相【箕】訃。

先生曰：“觀前日議啓， 深感其德， 可謂不負平生知心之信友也。此人在則吾事庶有論救之望， 而遽至斯極。”遂嗟惜久之。有挽詩， 今逸。

63) 月：白洲本에는 뒤에 ‘事’가 있다.

64) 書：白洲本 ‘文’

65) 附錄：白洲本 ‘年譜’

66) 1568년(宣祖 1)

(譜) 四 或斥爲異端.

先生答金而精書曰：“時甫爲我之說，亦何足怪？某一生困於虛名，惟以退身爲義。又自以愚拙無經綸之具，未嘗敢攘臂妄作於時事，其迹一似爲我。時甫見其迹若此，心實非之。心非而不言，是爲相助匿非之黨，安得而不言耶？但時甫勸留之際說，此某未記得，而乃流聞於旣歸之後，似有相外之意，非所望⁶⁷⁾平生執友之間耳。且當其勸留時，已不知病拙衷曲所在，又旣云邪學，復欲勸留以進邪說於君上，何其謀之不審耶？某歸後，金世憲·安舜佐，以老病不職罷逐，時甫欲使我必留，與二人同逐，然後爲正學爲忠臣耶？異日⁶⁸⁾見時甫，當語此一笑而罷。”

(譜) 疏入，上以御批答之.

金承旨 就文所報，此自上傳教之語，非知製教所撰云。竊觀辭旨，出於至誠，聖學高明，又⁶⁹⁾可想矣.

【時宣廟春秋十七.】

(譜) 三月，又上疏，辭新陞職名.

玉堂辛應時進啓曰：“臣見右贊成上疏，則出於肝膈

67) 所望：[부진지 ‘所望’下, 恐脫‘於’字.]가 있다.

68) 日：白洲本에는 뒤에 ‘若’이 있다.

69) 又：白洲本 ‘蓋’

之誠，少無矯飾之辭。李某平生之志，溫恭廉退，豈以爵祿爲榮哉？自上授之以高官大爵者，尊德樂義之美意也。但李某謙讓之心，以爲未安而不敢上來矣。君臣之間，相與際會契合，言聽計從爲大，若爵祿則非所先也。古人曰：‘隆之以虛禮，不若求之以實誠。’不須以高爵招之，授以閒官，俾適⁷⁰⁾謙讓之心，而更爲教書，招之以誠，則豈有不來之理乎？某之不來，只是不敢當而然也。十年林下，學問精深，去就出處，何事不定於心乎？固非虛讓之辭也。自上招之不以爵而以誠，則庶乎安心而上來，若不煩以職事，置之左右，則自然輔益聖學，成就聖德矣。”⁷¹⁾ ◎ 圖 奇大升啓曰：“某年來病深，難於立朝，而身被難堪之命，朝鮮⁷²⁾致仕之例，所以爲悶迫。臣意某之上來，勿須⁷³⁾堅留，以成其志云云。”先生⁷⁴⁾曰：“此人於我，極有扶救之力，甚足嘉尚。但猶恨不請停召命，只請勿留，故某狼狽之勢，依舊不脫，是爲未盡耳。”

70) 適：白洲本에는 뒤에 ‘其’가 있다.

71) 圖 《退陶先生言行通錄》의 기록으로 辛應時가 晝講에서 아뢴 것이 1월 27일임이 밝혀진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4월에 教書를 내린 사실과 관련해서 이것을 3월조 사실의 大註로 든 것으로 보인다.

72) 鮮：白洲本 ‘無’

73) 須：白洲本 ‘煩’

74) 生：白洲本에는 뒤에 ‘聞之’가 있다.

(譜) 再下教書, 趣行.

四月, 天文習讀官柳希瑞, 賫捧教書來. 【教書⁷⁵⁾亦已見

〈附錄〉.⁷⁶⁾ ◎按藥圃鄭公琢與⁷⁷⁾月川書曰: “自上望道求賢之意, 實非出於尋常循例之事, 右相亦位虛, 以先生當卜事, 都下無異議云云.⁷⁸⁾”⁷⁹⁾ ◎ 圃 門人問曰: “先生之意, 固非小子所能窺測, 然無一言及於時事, 外人頗有見溺不援之疑. 況今初政, 似有可爲之兆乎?” 先生笑曰: “我只是病廢之人而已, 何能有言乎? 且格君之非, 正大人之事, 豈我所敢當哉? 假使有大人之才德, 如不量時而動, 則無益於國家, 而有失於己分. 世或有言, 不見用, 徒蒙顯擢者, 誠爲可恥. 往者晦齋先生上十條疏, 特陞嘉善, 未聞採用疏中之一事, 此豈先生之心乎? 可爲今日之明戒也. 我本孤陋, 屏居山野, 反爲虛名所誤, 爵命稠疊, 已不勝其愧懼, 矧反有言, 以重⁸⁰⁾虛誤乎? 昔介子推言於其母曰: ‘言者, 身之文也. 身將隱焉, 焉用文之是求顯也?’ 此言深有味.”】

162 作〈易東書院記〉.

定堂·齋名號, 寫扁額.⁸¹⁾

75) 書: 白洲本 ‘文’

76) 附錄: 白洲本 ‘譜’

77) 與: 白洲本에는 뒤에 ‘趙’가 있다.

78) 云云: 白洲本에는 뒤에 ‘戊辰二月’이 있다.

79) 162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小註에서는 《艮齋先生文集》, 《退陶先生言行通錄》, 《謙菴先生年譜》 등에 기록되어 있는 柳雲龍과 李德弘의 대화, 李德弘과 退溪의 대화를, 鄭琢이 趙穆에게 보낸 편지 중에 언급한 사실로 기록해 놓고 있다. 현행 藥圃 文集에는 이 편지가 실려 있지 않은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

80) 重: 白洲本에는 뒤에 ‘其’가 있다.

81) 162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大註 기록에서는 易東書院 각 건물, 곧 堂齋의 名號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退溪가 이미 지어 놓은 易東書院 堂齋의 名號를 禮安 士林들이 모인 자리에서 議定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易東書院 堂齋의 名號를 禮安 士林들이 모인 자리에서 議定한 것은 2월의 일이다.

(譜) 五月, ㉔ 遞贊成, 以判中樞府事召.

時右議政闕, 輿望屬於先生, 召命重疊, 而終不至,
乃以洪公暹卜相.【時司諫權某有啓請, 遂命遞貳相.】⁸²⁾

(譜) 六月, ㉕ 承命西行.

先生以貳相不遞之前, 無可進之義, 故不爲行計矣.
至是力辭得請, 乃於二十五日, 始發程, 宿易東書院.
有《西行日錄》.⁸³⁾

二十七日, 留安東.

翌日, 行明宗小祥禮于府館.

答川谷書院諸君.

院之改享改號, 皆先生所已定, 而又以祀儀及學規,
來稟先生, 辭以在途未遑.【又答鄭道可書曰: “示喻學之不進,
昔人亦憂之. 能知其不進, 而思所以進者, 進進不已, 寧有終不進之理
耶?⁸⁴⁾ 如某老昏, 逢此顛蹶, 是爲眞不進耳.”】

七月, ㉖ 舟抵廣津.

十八日早發, 將入京, 遇大風雨, 波濤汹涌, 幾至覆
舟, 舟中⁸⁵⁾驚懼失措, 先生神色不動.

82) 時右議政……貳相: [부진지 大註刪, 以小註代之.]가 있다; 白洲本에는 아래 六月條의 ‘有《西行日錄》과 함께 小註로 편집되어 있다.

83) 有西行日錄: 白洲本에는 [소주 有《西行日錄》. ○時司諫權某有啓請, 遂命遞貳相. 見先生家書.]으로 되어 있다.

84) 耶: 白洲本 ‘乎’

85) 中: 白洲本에는 뒤에 ‘人’이 있다.

(譜) 七月丙寅, ㉞ 入都.

走率咸舉手加額曰: “退溪至矣.”⁸⁶⁾

(譜) ㉞ 入對思政⁸⁷⁾, 又面陳力辭. 不許.

先生始入經筵朝講. 上曰: “後世賢者不肯仕, 豈賢者本心, 不欲仕乎? 抑人君無誠心, 不能用賢而然乎? 人君若以至誠, 則豈有不能用賢之理?” 先生啓曰: “自古冒受過分之職者, 或不無其人, 然在朝而漸進者, 於事體似不大妨. 小臣老病無狀, 自知不能而退去矣. 一陞其爵, 不敢當而去⁸⁸⁾, 則因此而又益陞, 自先朝力辭而退, 今日之陞又若是. 自古或隱士有虛名者, 一時不知而誤用者有之. 小臣出身十餘年, 官至三品, 與臣相識者, 孰不知臣之駑劣乎? 臣既自知而退去, 一朝頓變爲賢人, 萬無其理. 聖上若許小臣之願, 使遂愚分, 而得行其志, 降授一資, 則欲爲退去矣.” 右相洪暹曰: “李某之言, 非徒謙讓, 實出衷曲矣. 但欲退去事, 極未妥. 聖諭所謂‘至誠相待, 則讜問何從而入乎⁸⁹⁾云’者, 誠至當矣.” 先生曰: “果得

86) 至矣: 白洲本에는 뒤에 ‘上亦呼以判府事而不名.’이 있다.

87) 政: 白洲本에는 뒤에 ‘殿’이 있다.

88) 去: 白洲本 ‘退’

89) 則讜問何從而入乎: [부진지 ‘則’止‘乎’, 刪.]이 있다.

其人，而待以至誠，則可也。如小臣，反不如人，虛名誤徹，使聖上好賢樂善之誠，歸於空虛，極爲惶恐。以此誠移用於其人，則宗社之福，豈有大於此乎？”

八月，入對經筵。

啓曰：“人君不識仁體，則天地萬物，與吾不相干，一膜之外，皆爲楚越。”乃於後日進講〈西銘〉，發明其義。

(譜) ㉔ 力辭大提學。

時成均館釋奠後，送魚酒，蓋以大提學知館事故也。先生方辭大提⁹⁰⁾，受此未安，不受。

㉕ 承命撰進〈皇華集序〉。

(譜) 九月朔，㉖ 以獻官行祭于康陵。

先生初擬明廟練期前入京，而病致愆期，晚始登途⁹¹⁾，深以爲恨。至是求差獻官。

㉗ 入侍夕講【三日】

啓曰：“大抵自古人君，務去私意。近來內需寺⁹²⁾李紳訟事，快從公論⁹³⁾，物情感喜。慕義殿入番宗親·

90) 提：白洲本에는 뒤에 ‘學’이 있다.

91) 途：白洲本 ‘程’

92) 寺：白洲本 ‘司’

93) 論：白洲本 ‘議’

內官等賞資，亦係私恩，而亦從諫還收，聖德至矣。事盡如此，則堯·舜之治，亦將不遠，輿情欣悅矣。但有一說，其時石尙宮論啓之時，教以當自內處之，此似以闕內得失，外廷⁹⁴⁾不得是非之意也。傳教之意，似爲未安，與前日李紳訟事及還寢私恩之事，正相反也。”上曰：“石尙宮事，予不能細知，但慈殿侍衛之人，故如是答之，後當改此愆也。”對曰：“石尙宮之罪，微事耳，而推類而言，前頭設有關係國家者，諉以內間之事，不許外廷爭執，則奸佞逢迎，馴致敗亡之禍，可不懼哉？”又啓曰：“臣竊見《周禮》〈天官冢宰〉一篇，乃周公輔導成王，垂法後世，用意最深切處。欲知三代人主，正心誠意之學，於此考之，可見其實，伏乞聖照。”

(譜) 四 時有籍軍之舉，先生啓曰云云。⁹⁵⁾

上曰：“爲國而不聽卿言耶？⁹⁶⁾”時大臣力主其議，一朝先生啓罷之，皆心不能平。及文昭殿之議起，先生不得⁹⁷⁾行其說。

94) 廷：白洲本‘庭’

95) 云云：白洲本에는 뒤에 [소주 詳見年譜.]가 있다.

96) 耶：白洲本‘乎’

97) 得：白洲本‘能’

(譜) ㉒ 入侍朝講【九日】。

啓曰⁹⁸⁾：“凡聖賢格言，不但朝晝。觀之夜半，心境靜處，體認天理，日用間省察朝晝所爲，體行既熟，則聖學實矣。古人云：‘有大疑者，必有大寤。’不思不行，則無疑而無寤也。”啓畢，讀筭曰：“私者，一心之蠱賊，而萬惡之根本也。自古國家，治日常少，亂日常多，馴致於滅身亡國者，盡是人君不能去一私字故也。然欲去心賊拔惡根，以復乎天理之純，不深藉學問之功不可，而⁹⁹⁾其爲功亦難。蓋一時一事之私，勉強不行非難，平日萬事之私，克去淨盡爲難。雖或既已克盡，不知不覺之頃，忽復萌動如初，此所以爲難。是以古之聖賢，兢兢業業，如臨深履薄，日乾夕惕，惟恐頃刻怠忽¹⁰⁰⁾，而有墮坑落塹之患，其心未嘗自謂吾學已至，不患有陷於私邪也。故《大學》既說¹⁰¹⁾格物致知誠意正心之功，則宜若無私，而於修身齊家，猶以偏僻爲戒，治國平天下，亦以一人貪戾，以利爲利戒之。顏淵克己復禮，不遷怒，不貳過，至

98) 曰：白洲本‘有’

99) 而：白洲本‘以’

100) 怠忽：白洲本‘或怠’

101) 說：白洲本‘設’

於三月不違仁而後，乃問爲邦之道，寧復有一毫之私乎？孔子猶以放鄭聲違¹⁰²⁾佞人戒之，箕子爲武王陳〈洪範〉，先言敬用五事而後，極讚皇極之道，則亦若無憂於有私邪矣。然其言猶曰：‘無偏無陂【止】王道正直’，然後乃結之曰：‘會其有極，歸其有極。’蓋必其無偏陂好惡之私，然後王道可遵，無偏黨反側之事，然後王道蕩平，而會極歸極，可得而言。以此觀之，雖至聖人¹⁰³⁾地位，猶恐或有偏僻之私，常凜凜爲戒，況未至於聖人，宜如何哉？《周書》曰：‘惟聖罔念作狂，惟狂克念作聖。’伏願聖明，留神省念。”

(譜) ㉔ 爲實錄撰集都廳堂上.

先生答洪退之書曰：“實錄都廳，其事體之重，本非病人之事，又豈經冬不出者所敢溷耶？”

(譜) 十月，㉔ 入侍晝講【四日】.

啓曰：“孟子贊聖人之德曰：‘所過者化，所存者神。’聖人之德，隨其經歷之處而無不化，中心所存主處，便是神妙不測。”上問曰：“此章有晁氏註。晁氏，乃非孟子者，知識不足，而言語可取¹⁰⁴⁾，何也？”曰：

102) 違：[부전지 ‘違’當作‘遠’.]이 있다；白洲本 ‘遠’

103) 人：白洲本 ‘賢’

104) 取：白洲本에는 뒤에 ‘者’가 있다.

“凡人稟受之時，分數不足，則雖有通處，亦有塞處。晁以道文章之士，不知聖賢之學，其所以非孟子者，亦無足怪。但所論是處，朱子取而¹⁰⁵⁾載之，此不以人棄言也。蘇軾力詆程子，心術多不正處，故朱子辨邪正，則以異端排斥，而言之是者，則取於《集註》。大賢心事。公平正大，不以斥其人，而棄其言之善。取晁氏之言，實亦此意也。”

(譜) ㉔ 入侍夕講【十三日】。

啓曰：“近¹⁰⁶⁾因日食冬雷之變，乃命疏放，而又使還復賢良科，此亦謹災之事，不可不爲也。但只行此事，以爲無復餘蘊，而緩於自修，其所爲，皆歸於空虛，而無以感動上天矣。常時人君，敬天畏天事天三者，皆能盡其道，而無少¹⁰⁷⁾間斷，然後遇災，知懼側身，修德至誠，上格天心，而轉災變爲福祥。若使三者，常時不能盡其道，則外面修舉者，皆爲虛文矣。”又啓曰：“〈西銘〉一篇，不但爲學者，所當體念理會，在人君受用，尤爲親切。此乃聖人地位事，而下學工夫，亦無不兼盡。今也，宜講此書，諸儒議論，無不備載，

105) 而：白洲本‘以’

106) 近：白洲本에는 뒤에 ‘日’이 있다.

107) 少：白洲本‘所’

爲今日目前工夫者，在乎此，爲他日優入聖域者，亦在乎此矣。”【答李大成書曰：“初八夜天，大雷電以雨，純陰之月，變異莫甚。聖上惕仄，謀及大臣，有疏放·退移·御等事，賢良科亦還給。”◎按己卯用薦舉取人，名曰“賢良科”，俄而群奸誣罷。乙巳，仁廟命復之，而醜正之徒，乘明宗幼沖之日，旋又誣罷。至是乃追申仁宗之命。詳《文集》校理李公延慶墓銘。】

(譜) 十一月，四 入侍夕講【三日】。

啓曰：“以次第言之，當先講《小學》，而次¹⁰⁸⁾《大學》，今反講《大學》，而次《小學》矣。然其工夫則當通《小學》·《大學》而爲一，故朱子《大學或問》初面，以《小學》爲《大學》之根本，而其通而爲一之工夫，則又以敬爲大本。《小學》雖釋之以小子之學，入《大學》後，亦不可舍此而專事《大學》也。故曰：‘聖學之所以成始成終，《小學》所以成始，《大學》所以成終也。’以作室比之，《小學》則如¹⁰⁹⁾修正基址而備其材木也，《大學》則如大厦千萬間，結構於基址也。修正基址，而不構其室，則是無終也，欲構大厦千萬間，而不修基址，則亦不能構矣。故爲聖學之始終矣。〈小學題辭〉亦曰：‘以培其

108) 次：白洲本에는 뒤에 ‘及’이 있다.

109) 如：白洲本 ‘始’

根，以達其支。《小學》所以培其根也，《大學》所以達其支也。此外，雖講他書，而其工夫，皆爲大厦千萬間修粧所入矣。前日講論之書，亦每自體念。如〈明倫篇〉及〈敬身篇〉，明心術之要，明威儀之則等處，頃刻不忘，日用之間，天理流行，支支節節，無不照管，《大學》規模，以此填之，其他如《語》·《孟》·《中庸》及諸書，皆當填之於《大學》規模，而爲之修粧。今雖畢講，而亦常留念焉。”

答許太輝書。

先生書曰：“蓮坊書所謂輕論¹¹⁰⁾先輩之病，此必有爲而發。如某者，恐或有未免此病之時，爲之悚惕，當思改轍。但朱先生，雖有此戒，及其論辨道學差誤處，纖毫不放過，不以前輩，而有所掩覆。此必有意在耳。如何？”【先生嘗論花潭之學，有蓮坊者，貽書許太輝云：“朱子言：‘近來士大夫，輕論先輩，此病不細。’妄意花潭聖賢¹¹¹⁾之徒，可以尊師，不可以外斥。此書通於退溪云云。”故先生之答¹¹²⁾如此。◎先生嘗曰：“觀花潭議論，論氣則精到，於理則未透，主氣太過，或認氣爲理。且言語之際，自負太過。嘗著〈鬼神死先¹¹³⁾論〉，貽其門人曰：‘此論

110) 論：白洲本‘發’

111) 賢：白洲本‘人’

112) 之答：白洲本‘答之’

113) 先：白洲本‘生’

見到，千聖不盡傳之地頭，可傳之後學，附諸《性理》編¹¹⁴⁾末，使華夷遠邇，知東方有學者出。”先生深不滿於此言¹¹⁵⁾，又其門人過爲推尊¹¹⁶⁾，至比於橫渠先生，皆非之。◎又按花潭有詩云：“誠明事業恢游刃，玄妙機關少着鞭。主敬功成方對越，滿窗風月自悠然。”先生題其下曰：“古聖賢，身任斯道之責，然其自稱道，未嘗敢如此作話頭。”此¹¹⁷⁾一段見先生手錄，而《文集》所不載者，故并附于此。◎澤堂李植曰：“退溪謙沖自守，絕不談人物長短。惟於闢異端處，未嘗退讓，見先輩名儒，立言或過，恐流於異端，則必力加分析而折衷之。如徐花潭·朴松堂所學，人不敢議，而退溪辨之不置云。”】

十二月，¹¹⁸⁾ 與奇明彦書。

先生書曰：“昨有來言，夜對令啓，大概不勝駭汗失措，終夜不寐，令公何不思之甚也？某所以狼狽至此，日夕憂惶者，專爲虛名二字。假有他人有過情之啓，令公猶當力爲裁損，今反大作褒揚，終使某，何所逃而得免耶？某近欲出試一二日，不堪則還縮。今因此事，慚不得¹¹⁸⁾舉顏向人，心病陡加，牢關伏枕，以俟譴罰之下。自今遣人相問，乞并罷休，冀得少安鄙情，不勝幸甚。”又答書曰：“所謂曲折，人豈知之？許欲見過，無益於事，祇增人指目，不須枉顧。”【明彦¹¹⁹⁾書

114) 編：白洲本 ‘卷’

115) 言：白洲本 ‘語’

116) 尊：白洲本 ‘重’

117) 此：白洲本에는 앞에 ‘按’이 있다.

118) 得：白洲本 ‘能’

119) 彦：白洲本에는 뒤에 ‘答’이 있다.

云：“大升初意，豈欲褒揚先生？適承上教，頗有云云，然不敢爲過情之言，只以鄙見仰達矣。此事甚有曲折，恐先生未¹²⁰得察知也。當夕，竊欲歷謁，伏幸鑑恕。”】◎其夜對啓曰：“判府事李某，自上接待隆重，大小欣喜，但禮貌之外，貴於致誠。賢者不以尊其身，聽其言而安其心，必以虛己從諫，好善廣聽，盡擇芻蕘，爲深安大樂，聖上於此人，聽言優禮，至矣。但臨政處事，必念此事此人，無乃不可於意否？如學者得嚴師而省念，則甚好矣。”上曰：“此人比於古人，則何等人耶？比較論量，亦甚未安，而有懷故問之。”大升對曰：“如臣愚見，不得企而知之。然年已七十，所見亦高，而不主張己見，年少所言，亦必商量。其觀古書，少無執滯，篤信程·朱之訓，工夫純至，古人則不可知也。東方學問之人，自古及今，未見其比。所上疏章，與程·朱之書無異，其學問工夫，議論一一，無可疑者。”李湛曰：“李某自少，表裏如一。近者沈潛學問，久在林下，工夫篤實，一以聖賢爲法，如此之人，豈易得哉？”大升曰：“其爲德也，謙恭遜順，無一毫自足，舍己從人，令人敬服。經席入侍時，自上講問道理，則其於帝王之學，

120) 未：白洲本‘不’

豈無啓沃之益？”湛曰：“文章道德，可謂兩備，自上盡誠講問聖學治道，則必有所益。”大升曰：“此人稟性疏淡，自少恬退，習與性成，聖上若用之，則平生所學，豈不欲展布乎？然汎然禮遇，使之悠悠死於朝廷之上，則深以棄平日學問爲憫矣。”

(譜) 上〈聖學十圖〉并筭子，命作屏帖以入。

傳曰：“卿所上〈十圖〉，甚切於爲學，謹當作屏，展於左右以自警焉。”【命政院，以所上圖本，作屏風以進。又一件，體少¹²¹⁾作帖以入。】◎上之初卽位，英明穎悟，人皆望聖德之成就。未幾，流俗之言，日聒于¹²²⁾前，先生本執謙退，又見言不採用，歸意益決，乃集先賢所作圖，補以己意，爲〈十圖〉以進。先生曰：“吾之報國，只此而已。”【中朝文士讀〈十圖〉，終日玩味曰：“東國亦有如是人耶？學問與程·朱無異。”使臣洪天民，自南京來傳云。出《艮齋集》。】¹²³⁾

爲李貳相夫人¹²⁴⁾，貽書奇承旨明彥。

其書曰：“晦齋 李貳相庶子全仁身死，貳相夫人所仗，惟一子應仁，而遠宦在京，夫人上言求換近。初，欲

121) 少：[부전지 ‘少’當作‘小’.]가 있다.

122) 于：白洲本 ‘於’

123) 上之初……只此而已：[부전지 此註刪，只存小註.]가 있다.

124) 爲李貳相夫人：[부전지 ‘爲’止‘人’刪，無妨.]이 있다.

換松羅不得，方換幽谷，幽谷距慶州四五日程，夫人陳乞之意頓失矣。豈不閔¹²⁵⁾甚？換幽谷後，又與省峴相換，似好矣。令公爲兵房，猶可通議於政廳，故偶及之。”【見《逸集》。◎按¹²⁶⁾先生前此，與子窩書有曰：“汝如得食物，李貳相宅，須稱吾意，侔送問安，至佳。”時窩爲集慶殿參奉。】

○三年己巳【先生六十九歲】¹²⁷⁾

正月，有〈憶溪梅·陶梅〉等詩。

(譜) 正月，¹²⁸⁾除吏曹判書，不拜。

除命初下，都人相賀曰：“退溪秉銓衡，請托自今絕矣。”

(譜) ¹²⁹⁾乞放歸田里。

先生戊辰之出，不可謂無其意，而一時老事之徒，悠悠泛泛度時，日饕利祿者相環也。凡先生所欲爲，皆彼之所忌，或有建白，非唯泥而不行，又從而指目之，動與爲矛盾，不得一有施設，則不爲其事，而享其爵祿，豈先生之心哉？其與人書曰：“在此不穩事，逐日

125) 閔：白洲本‘閔’

126) 按：白洲本에는 앞에 ‘又’가 있다.

127) 1569년(宣祖 2)

如麻安得不急於歸計耶?”其意可知也.

(譜) 二月, ㉔ 考文昭殿儀軌, 詣政院上廟圖及筭子.

人君之奉先, 當崇重於宗廟, 而原廟非所當設也. 先生自度, 不能廢原廟, 故欲就原廟中, 行古禮, 是亦處變而得正也. 大臣無識量, 以沮儒者之議, 宜賢者之不留也. 【出栗谷 李文成公 珥 《石潭日記》.】

(譜) ㉕ 再上筭¹²⁸⁾乞退. 不許.

大司憲白仁傑啓: “以草野之士, 如曹植·李恒, 召而不至, 是主上不聽諫之故”, 因舉先生求退之事, 而亦一體并論. 先生上筭, 發明二人心跡之不然. 又曰: “如臣者, 前此六退, 皆緣愚病之故, 豈獨於今之一退, 以主上聽諫與否而爲之乎? 萬萬無此理. 伏乞聖明, 優容仁傑之言, 但取其願忠納誨之意, 而莫或有疑於其他, 則豈不幸甚?”

(譜) 除議政府右贊成, 不拜.

二十五日, 上筭乞退, 二十八日, 再上筭. 其日適有政命, 爲右贊成. 時三公意, 固欲留之, 故啓請授是職, 先生不爲謝恩, 身詣闕外, 上章力辭, 得遞.

(譜) ㉖ 入¹²⁹⁾夜對廳乞退, 許之.

128) 筭: 白洲本에는 뒤에 ‘자가 있다.

上諭之曰：“卿年未七十，非致仕之日，何以遽欲歸耶？”對曰：“小臣無狀，不得已退去之事甚多，只舉大概，亦五六事也。臣年雖未滿七十，而今已六十九歲也。皇朝薛瑄，六十九歲致仕，以古事見之，可以致仕者，一也。自少沈痼之疾，到老益深，其中心病尤甚，少失調保，則必至喪身，欲於未死之前，乞骸而退者，二也。自嘉善以上，本無立朝踐歷，虛冒於退伏中，躡躋崇品，尸位素餐，負國慚恩之事，不可勝數。茲未得一日冒處者，三也。老鈍空疏，不及衆人甚遠，未知何以而得虛名，欺罔一世，至於上欺天日。往往經席之上，過情無實之言，指小臣而啓之者有之。是以傳教，間有虛佇倚重之意，不但在小臣私分，萬分惶蹙，其在國體，尤有所大段妨害者，使眞個盡心國事者，有失望解體之弊，尤不可在朝者，四也。無才無德而責望太重，欲建明某事，則必至於妄作，以誤國事。如避妄作而不爲，則必將得罪於上下，如此而身安得在朝廷？茲欲退去者，五也。其他不可盡陳，大概如此矣。”上曰：“今世無如卿者矣。何不且留？”對曰：“求賢得賢，眞得其人，而注意傾向，

129) 入：白洲本에는 뒤에 ‘對’가 있다.

言聽計從，則可謂¹³⁰⁾盛事矣。如非其人而謂之賢人，其人亦不自知，徒自感激恩遇，妄有作為，而竟誤國事，則非徒取笑於一時，亦將貽譏於萬世。如小臣者，天眷誤有傾向，厥終必有貽譏取笑之事，小臣狼狽不足¹³¹⁾言，而將上累聖上知人之明，小臣之罪，萬死難贖，欲其未至於此而退去也。”上曰：“豈如是不乎？”對曰：“小臣不得不去矣。但伏見傳教，祔廟時以餘哀未忘，儺禮·歌謠·山臺雜事，並命停寢，可見孝思，有所不忍，臣誠感激涕泣。主上春秋鼎盛，若以爲¹³²⁾此事，自有前例，不妨遵行，而使之舉行，則凶年實有不貲之弊，臺諫必力爭而請止。夫如是則主上過舉似著，而聖斷先罷此，聖德事也。小臣無狀，逢此盛代，遽請退去，情事缺然，不勝感涕。願聖明隨處，無頃刻之忽，學問之工，以〈十圖〉爲的。士林之禍，以我國既往之事爲戒焉。士林之禍一起，則非但傷殘士林，國脈亦從而斷喪。正士善類，親而勿疏，微疵小愆，改之不吝，聖敬日躋於高明，而不趨於汙下，則豈非萬世無疆¹³³⁾之休哉？”上曰：“謹當日勉焉。”

130) 謂：白洲本‘爲’

131) 足：白洲本‘可’

132) 爲：白洲本에는 없다.

(譜) ㉔ 聖質高明，經席之上，通貫文義云云。

初，宣廟好學，日開經筵，講《大學》，問諸筵臣曰：“傳十章論綱領處，只說工夫，論條目處，兼說病痛，此何意云云。”似此超出常情之教甚多，群臣無不聳驚。

(譜) ㉔ 上曰：“心統性情，何謂也？”對曰云云。

後先生以筵中所對有未盡，改定其說曰：“理氣合而爲心，自然有虛靈知覺之妙。靜而具衆理，性也，而盛貯該載此性者，心也。動而應萬事，情也，而敷施發用此情者，亦心也。故曰心統性情。”以寄奇明彥，使他日筵中復有問，以是仰對焉。

(譜) ㉔ 如奇大升¹³⁴⁾，多見文字云云。

先生後與奇明彥書有曰：“世人爭言，某不知人而失薦，對某尙末¹³⁵⁾有失薦之悔者，以其所望於左右，有非人人所與知也。若使終身爲英氣所使，蕩習所累，困於麴蘖，溺於嬉¹³⁶⁾放，卒與聖賢門牆，相去百千萬里之遠，則是世人之攻左右者，誠爲知人，某雖欲

133) 疆：白洲本‘疆’

134) 大升：白洲本‘明彥’

135) 末：白洲本‘末’

136) 嬉：白洲本‘嬉’

不悔於失薦，何可得也。切祝斷置百雜，溫理舊業，大覃思而極操約，如忠信篤敬，參前倚衡等，凡聖賢至訓，皆不以空言視之，必期於吾身親見而實驗之，庶不負衆責所歸也。”

(譜) ㉔ 出宿夢賚亭。己酉，乘船東歸，宿奉恩寺。

士林咸惜其去，爭欲留之，而不可得。諸生出送江上，座中至有涕泣咨嗟者。先生雖浩然於去就，而實有靈芝別席之感。信宿江寺，有遲遲去國之意。洪右相暹書“白鷗波浩蕩，萬里誰能馴”之句以¹³⁷⁾寄之，先生答以“尚戀終南山，回首清渭濱”之句。【《石潭日記》曰：“先生既辭闕，朝士儒生，出餞傾城，牽挽遲留，三宿江上而南歸。”◎後先生有與人書云：“每夜起見，月色皎然，山川如玉，有望美人兮，天一方之意想，然此豈易爲人道哉？”◎先生又言於人¹³⁸⁾曰：“吾在都中，病益深痼，日且寒沍，每念‘田晝¹³⁹⁾隱默宦¹⁴⁰⁾京師，遇寒疾，不汗五日死’之語，常以死於城中爲懼，未嘗一日安寢。”及出都門自慰曰：“此後雖死途中，何恨之有？”◎夢賚亭，鄭林塘惟吉亭。◎洪相挽先生詩，“贈言猶記戀終南¹⁴¹⁾”】

三月，㉕ 歸寓¹⁴²⁾陶山。

137) 以：白洲本‘而’

138) 言於人：白洲本‘與人書’

139) 晝：白洲本‘晝’

140) 宦：白洲本‘官’

141) 終南：白洲本‘南山’

142) 寓：[부전지 ‘寓’恐‘居’.]가 있다.

有答人書云：“某未死之前，蘄免吏議而退有，何可稱？但今既反¹⁴³⁾舊，可得溫理舊業，則其間非無理趣，可以樂飢。惟苦於衰劣，不能大覃思大肆力，或恐中途而廢，懍懍日以爲戒耳。”

有〈山梅贈答〉詩。

其〈梅贈主〉云：“寵榮聲利豈君宜？白首趨塵隔歲思。此日幸蒙天許退，況來當我發春時。”其〈主¹⁴⁴⁾答〉云：“非緣和鼎得君宜，酷愛清芬自詠思。今我已能來赴約，不應嫌我負明時。”

辭諸生來學。

方病退未久，故慊¹⁴⁵⁾於聚徒講學。

(譜) 四月，上狀謝許退，賜食物。

其所賜米豆，即分散族人及鄉鄰。

修改《聖學十圖》。

上命刻《十圖》并筭子於書館，館僚以其新印一本，首先送來於陶齋¹⁴⁶⁾，待先生照管勘正，然後將以進御。蓋先生歸後，業已更加精完，至是又就印本校考

143) 反：白洲本‘返’

144) 主：白洲本에는 뒤에 ‘人’이 있다.

145) 慊：白洲本‘嫌’

146) 於陶齋：[부전지 ‘於陶齋’三字刪.]이 있다.

修改，托奇明彥·金而精諸人，使之依此刊改。◎上又命玉堂，持《十圖》入對。上曰：“先論第六心統性情圖似越序，而乃一身切近處，故欲先講論。予固當發問，然後交相講論甚好。至如承旨·注書·史官，并宜講論也。”講心統圖訖，上曰：“非徒講此而止。後更從容每一番，講一圖可也。”辛應時啓曰：“上教甚當。館中每校正講論一圖後，下問則好矣。且今此《十圖》，李某欲以平生所學，上補聖學，而如是成圖，雖聖賢之言，無不裁制，其積功與精誠，真不偶然。若少留而親自陳啓，則可無餘蘊，不幸退去之速，今雖校正，豈無未盡處乎？”趙廷機曰：“李某在朝之時，下問則好矣，而適屏風與帖¹⁴⁷⁾冊，不能趁速造入，以致未及講問，不無餘恨矣。彼雖退去，而常留念於是，依此用功，則其補益之事，豈偶然哉？”【後上以《十圖》印頒群臣，命筵臣令進講是圖，莫有闡明其義者，皆以不知對，遂不果講聞¹⁴⁸⁾者，莫不恨之。】

自上又命刻程復心《四書章圖》。

因先生所進《十圖》而有是命。先生曰：“聖教如此，可賀。”¹⁴⁹⁾

147) 帖：白洲本‘貼’

148) 聞：白洲本‘識’

五月, ㉔ 焚黃祭告.

初, 先生陞一品, 一年不推恩, 子弟請問其由. 答曰: “余以虛名, 濫至於此, 何敢更請推恩? 況先妣戒余要母¹⁵⁰⁾過一縣監, 而不承先教, 今至於此. 推恩, 非先妣之意, 是以未敢也.” 于後人多言其位在崇品, 不爲追贈, 似爲未安, 故戊辰十二月, 始受贈典, 至是行焚黃儀.

㉕~㉖ 撰先府君行略.

(譜) 七月, 草川谷書院二先生祝文.

先生曰: “伊川先生祭文, ‘赫喧’二字未穩當, 改下‘正大’字可也. 蓋畫像贊曰: ‘展也大成’, 諡曰‘正公’, ‘正大’字尤着題.”

八月初五日, 入縣, 翌日, 行除服禮.

明廟禪祭.

九月, 答奇明彥書論稟¹⁵¹⁾先府君碣文.¹⁵²⁾

149) ㉔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聖學十圖〉를 修改한 사실과 宣祖가 程敏政의 四書章圖를 간행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4월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退溪先生全書遺集外篇》과 《先祖遺墨》에 실린, 손자 安道에게 보낸 편지의 기록에 의거할 때, 校書館에서 초벌 인쇄한 〈聖學十圖〉 여섯 圖를 만손자 安道를 통해 받은 것은 4월 21일의 일이다. 그러나 〈聖學十圖〉를 修改한 것은 《退陶先生集(家書)》의 〈寓奇書(己巳五月二十日 李直長乾川洞)〉 편지와 《退溪先生文集(內集)》의 〈答金而精〉 편지에 의거할 때, 4월~5월에 걸치는 일이 분명하다.

150) 母: 白洲本 ‘無’

151) 稟: [부전지 ‘稟’恐‘訂’.]이 있다.

赴九老會.

鄉耄七十以上人，方爲九老會，邀先生，先生辭曰：“吾年未七十，而九數既滿，吾何敢焉？”諸老固請，證以司馬公之事答曰：“吾當此會則未也. 家兄在座，當參以子弟.” 蓋五兄察訪公【澄】，時年七十二，居九會之第五，故先生之言如此. 【按寒岡 鄭文穆公跋《九老會帖》，略云：“退溪¹⁵³⁾先生，參集乎其間，自謂不敢擬眞率之涑水，只以子弟陪仲氏，至誠謙遜，不敢追援古人，而道德之懿，輝映一會. 累世之下，想望歆艷，愈¹⁵⁴⁾久而不歇，此豈爲宣城一郡之好事？抑當爲東方遠近之所共稱美，而何壽星之集，獨偏於宣城歟？李先生之生，人謂之德星所鍾，然則茲一縣而兩星備焉矣乎？”】

與書李方伯 陽元，請¹⁵⁵⁾停刊《十圖》.¹⁵⁶⁾

李公亦善類¹⁵⁷⁾，將以《十圖》刊行於¹⁵⁸⁾本道，此意

152) 圖 《兩先生往復書》에 실려 있는 〈令前拜復狀 奇大司成宅·別紙碣文稟目〉 등의 본 편지 끝에는 ‘隆慶三年己巳九月晦’로 그 작성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것을 9월조의 맨 첫 번째 사실로 기록한 것은 編次의 오류이다.

153) 退溪：白洲本 ‘退陶’

154) 愈：白洲本 ‘逾’

155) 請：[부전지 ‘請’字刪, 何如?]가 있다.

156) 圖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李陽元에게 편지를 보내 《聖學十圖》의 간행을 정지시킨 사실을, 9월 30일 奇大升에게 답장을 보내 아버지 埴의 碣文(〈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李公墓碣銘〉)을 수정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 다음에 기록해 두고 있다. 그러나 《退溪先生文集(內集)》에 실린 〈答金而精〉 편지의 기록에 의거할 때, 李陽元에게 편지를 보내 《聖學十圖》의 간행을 정지시킨 것은 9월, 그것도 16일 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해당 부분 編次에 오류가 난 것이 분명하다.

157) 李公亦善類：[부전지 ‘李公亦善類’刪, 只云‘方伯’, 恐好.]

158) 於：白洲本 ‘于’

非不美矣，而但時論之不悅於先生者，指點《十圖》，競加譏議。先生以爲，當此爻象不好之日，李公此事，尤惹人怪怒，不如姑停以待風色稍定之爲穩，遂貽書止之。【先生又與人書曰：“人之譏詆此圖，亦何足怪？但侯¹⁵⁹⁾知者知之耳。惟是聖意，或未至於深味實驗之前，訾詆之說先入，終歸於無益補袞之萬一，此甚慨恨而已。”◎又有書曰：“其圖，皆是前哲用意深處，愚臣芹曝獻誠，亦盡在其中矣。似聞訾毀之言，已多流布，亦已有搖惑於黠纘之下者。竊恐緝熙之地，未及研精沃悅，神會心融，而先有厭薄之意，則終無以見補袞之益也。然此則無如之何矣。”】

十二月，^[79] 聞李方伯欲來訪，遣書辭之。

先生狀乞致仕，未蒙允許。自是以後，愈益自處以窮山病身，一切謝客。【先生答子窩書曰：“監司自以巡按而來，非爲見我之故也。然一年內，至於三來，至爲未安。今曉作書，往呈于體泉等處，只以吾素患痰證，今年重發，加以近因雪寒，背寒氣虛等病，不得迎拜之意，力辭云云。”】

159) 侯：白洲本‘使’

定本 退溪全書 四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四

○四年庚午【先生七十歲】¹⁾

(譜) 正月, ㉒ 上箋乞致仕.

先生曰: “今年適當引年之限, 方上章陳乞, 此願得遂, 山當益深, 水當益遠, 書當益有味, 貧當益可樂也.” 【㉒ 時箋文適被政院以事留置, 不卽轉²⁾達. 府啓³⁾曰: “自上敬重李滉, 若待賓師之位, 則其所上箋文, 當汲汲啓達, 而不體聖上禮賢之誠, 視事惟庸輕忽若是, 莫不駭愕. 如此之事, 所關甚大, 請其日仕進承旨, 并命遞差.” ◎承旨朴啓賢·李俊民·李栻·李忠綽·宋賀·李齊閔, 大憲朴應男.】

(譜) ㉒ 有旨云云.

初, 有旨只云: “卿年雖七十, 非若他人, 玆不敢允.” 政院啓曰: “李滉下去之後, 不遞其職者, 自上眷念賢德, 雖姑遂所懇, 而非永許其退也. 今者不允致仕, 而只循例下書, 別無命召之事, 於待賢之意, 恐似未安.” 上然之, 乃改添不遞以下云云.

㉒ 寒食, 將往展⁴⁾先墓於安東, 不果.

1) 1570년(宣祖 3)

2) 轉: 白洲本 ‘傳’

3) 府啓: [부견지 以下註‘大憲’云云看之, ‘府啓’似是憲府啓, ‘府’字上恐當有‘憲’字. 【府啓·院啓, 通行之稱, 不當加‘憲’字.】]가 있다.

4) 展: 白洲本 ‘奠’

《逸集》上五兄書有曰：“曾祖墓祭，非常時之比。樹碣修墓，并舉告成，諸族會祭，而適值君命臨門，不得往參。”◎初，擬展墓之行，約入後凋主人 金彦遇賞梅，竟致愆期，爲之悵然有詩，若與後凋梅相贈答者，寄贈彦遇.⁵⁾

(譜) 三月, ㉗ 又上箋乞致仕. 不許.

有旨, “今觀卿箋文, 引年告休, 卿意則然矣. 第以官至一品, 年七十以上, 係國家重輕, 不得致仕者, 斯乃祖宗之令典, 其在予寡躬, 豈可不遵先王之成法, 而任卿之致仕歟? 卿⁶⁾自少勵志聖賢之學, 有意⁷⁾帝王之治, 事中·仁廟兩聖, 適遭相繼禮陟, 未迄于用, 不克展盡素蘊, 蒼生之無福, 可勝惜哉? 越至我皇考明宗朝, 初罹讒口, 幾不自保. 賴皇考明聖, 復置周行, 其庶行道, 而權奸當國, 知不可爲, 卷而歸家. 及其去奸之後, 皇考有志更張, 將興盛治, 而召卿還朝. 不幸皇考賓天, 國家多故, 卿又輿疾南歸, 重出脩門, 予於荒迷不次之中, 未能省識. 厥後因廷臣之

5) ㉗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기록 중 大註에서 ‘《逸集》上五兄書’라고 한 것은 《退溪先生全書(內集)》에 실려 있는 〈答寧姪(庚午)〉의 일부이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오류가 아닐까 한다.

6) 卿：白洲本에는 앞에 ‘知’가 있음.

7) 意：白洲本 ‘志’

啓，始察其由，矍然于中，累次召卿，卿乃幡然而起，惠然而來，則其退也此⁸⁾義，其進也以禮，賢者之去就，豈不綽綽然哉？惟卿抱負之重，暨予期待之誠，不但尋常而已也。將以行眞儒之所學，而企予先聖王之治也。若此者，奚啻予一人乃嘉？實惟我三聖在天之靈，亦有所默悅於冥冥之中矣。是則以累朝未見之效，收之於寡昧之躬，千載一時，豈不偉歟？玆用不煩，卿以職務，專責經筵，成就涼德。〈六條〉之疏，《十圖》之書，面命耳提，賓師是賴，詎期末疾相尋？遽爾辭歸，豈惟孤當寧專心之托，抑亦缺朝野引領之望？然而姑聽卿去者，養痾林泉，筋骸博健，有他月⁹⁾盍歸乎來之意也。既退之後，所以不遽卿本職與兼帶者，卿庶幾再來，予曰望之，非敢以爵祿相縻也。然則惟予與卿塩梅之契，其尙未替，豈若宋哲宗之於伊川，孝宗之於晦菴，爲人言所間，使之不安於朝廷之上而去之者比乎？況今學問未進，治效未著，風俗日偷¹⁰⁾，紀綱日隳，年歲不登，烝黎不穀，災變層疊，盜賊興行，百敝乘時，三邊有釁。比¹¹⁾如一人之身，

8) 此：[부전지 ‘此’恐‘以’誤.]가 있다.

9) 月：白洲本 ‘日’

10) 偷：[부전지 ‘偷’恐‘渝’.]가 있다.

衆證俱發，死亡無日，苟非上醫，決無可療之方．予之望卿於今日者，宜不遑於仄席臨食之際矣．大抵時君之不願治者則已矣，如其願治而不效者，誠以眞儒難得．因陋就寡，經邦不績，一切坐此故耳．向使卿生於前昔，使予有不同時之歎，則¹²⁾予之於卿，同時之幸，顧不大歟？卿須不以予爲不足與有爲也，接淅而來，補予不逮，庶見世復大猷之盛，民蒙至治之澤，詎不美歟？卿前日援皇朝薛文清爲例，若予之意，非以致仕爲得之直，以時不遇也，義未可也．今者不然，士無賢不肖，皆倚卿爲重，以爲卿如不起，當如蒼生何？加以予之心先定乎哉？矧卿行年七十，神力精強，平日所養之功，正不可誣，而其於憂違樂行之義，講之有素，卿毋¹³⁾固讓．予言不再．”¹⁴⁾

三月，答金士純論史體・書法等事.¹⁵⁾

11) 比：白洲本 ‘譬’

12) 歎則：[부전지 ‘歎則’下恐有脫. 【恐‘已’】]가 있다.

13) 毋：白洲本 ‘勿’

14) 圖 ‘不許’ 이하의 기록은 4월 3일 이후의 일이다.

15) 圖 《退溪先生續集》과 《退溪先生全書續集》에 실려 있는 〈答金士純〉과 〈答金士純(庚午)〉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11월 8~9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편지들에는 “諸條非所及, 不可徒還, 燈昏草報, 愧汗.”이라는 말이 나온다. 곧 〈答金士純〉・〈答金士純(庚午)〉과 金誠一의 問目에 대한 답변을 함께 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答金士純〉・〈答金士純(庚午)〉와 〈答金士純問目〉은 合編해야 할 것을 보인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問目을 보낸 것을 3월의 사실로 기록한 것은 오류가 아닐까 한다.

答柳而見書.

而見以聖節使書狀官赴京，與太學諸生問答，斥¹⁶⁾陽明·白沙之學，特稱薛文清之當爲宗.¹⁷⁾ 先生書曰：“陸禪懷襄於天下，公能發正論，點檢其迷，不¹⁸⁾易得也.”

有寄李伯春詩三絕.

其一云：“百筭全無可一端，既歸還入有如山. 唯將白首虞人義，日望恩休病眼寒.” 詩下自題云：“羝羊觸藩，進與逃皆罪，有死而已. 雖以此詩得罪，甘如飴蜜，不須秘之.” 【先生自去年一退以¹⁹⁾後，知道之難行，乞致益懇，“既歸還入有如山”一句，露盡其自誓²⁰⁾之辭. 惟杜門筮遯，專意講學，海內學者，尊信益衆，然憂世之意，亦未嘗忘也.】²¹⁾

(譜) 四月， 辭召命【止】不許.

有旨：“觀卿狀啓，言辭峻²²⁾絕，不肯上來，極爲缺然，卿毋²³⁾如是，斯速上來，以副予延佇之望.” ◎參贊白仁傑，論時事疏末云：“以一世觀之，人望所屬，

16) 斥：白洲本‘斤’

17) 而見……宗：[부진지 ‘宗’以上刪, 如何?]가 있다.

18) 不：白洲本에는 앞에 ‘甚’이 있다.

19) 以：白洲本‘之’

20) 誓：白洲本‘警’

21) 先生自……嘗忘也：[부진지 小註刪, 無妨.]이 있다.

22) 峻：白洲本‘竣’

23) 毋：白洲本‘無’

無逾李滉，豈可聽其長往乎？賢者去國，士林失望，殿下不欲圖治則已，如欲圖治，非委任李某，則無以慰士望而收俊乂云云。”朝議如此，故聖意益不許。【按《逸集》有曰：“經席以某人當眷召事，屢有啓之者，玉堂筭，亦及其事云”，疑指此疏。】

59 有答安道孫書.

“今聞乳婢棄三四朔兒，當上京云，此無異於殺之也。《近思錄》論此事云：‘殺人子以活己子，甚不可.’今此事正類此。京家必有乳婢矣，五六朔間，兼飼相濟，以待秋末上送，則此兒亦似可以粥物活命，如此則可以兩活，無乃可乎？若不能然，則寧使挈其兒，而兼飼兩兒猶可也。直令棄去，仁人所不忍，至爲未安，故先告之。”²⁴⁾

撰成聽松碣銘.²⁵⁾

處山堂，以調病有礙，還溪舍。

有焦乾證，服李國弼·金就礪等劑²⁶⁾二黃元²⁷⁾，始有

24) 有答安道孫書……先告之：[부전지 刪.]이 있다；白洲本에는 이 내용이 三月條 제일 마지막에 실려 있는데, 끝에 ‘此條當入四月下’가 첨가되어 있다.

25) 退溪는 1월 30일, 成渾에게 草定한 그의 아버지 成守琛의 墓碣銘을 부치면서 답장을 보내, 조정 고관들중 碑碣을 부탁하는데도 사절한 경우가 네다섯 집이 되므로, 전파하지 말 것을 간절히 당부하였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聽松成先生墓碣銘(并序)〉/〈墓碣銘〉을 4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26) 劑：白洲本에는 뒤에 ‘納’이 있다.

良效.²⁸⁾

五月, ㉔ 有旨又下.

有旨: “卿辭以老病, 不肯赴召, 予甚缺然. 卿年雖高, 卿疾未深, 輔予不逮, 予日望之, 卿其調理, 乘駟上來.” 先生曰: “極爲惶恐, 但有調理之命, 爲幸已大. 又不遣人, 而只付京邸, 想承旨等, 亦爲我善處之事, 以此稍自弛懷耳.”

(譜) ㉕ 出陶山, 與諸生講《啓蒙》.

〈巖棲讀啓蒙示諸君〉二詩, “白首重尋易學書, 幾多疏誤²⁹⁾共修除. 方知麗澤深滋益, 覩到先天一太虛.” “七十居山更愛山, 天心易象靜中看. 一川風月須閒管, 萬事塵埃莫浪干.”

六月, 具箋將上.³⁰⁾

27) 元: 白洲本 ‘丸’

28) 處山堂……良效: [부전지 刪.]이 있다. ㉔ 《退溪先生文集(內集)》 및 《退溪先生全書(內集)》에 실린 〈答金而精〉과 〈答李棐彦(庚午)〉 등의 편지를 보면, 退溪는 3월에서부터 5월까지 焦乾證이 있어서 金就礪와 李國弼이 지어서 보내준 二黃元을 복용하고, 효과를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의 기록에 의거하면, 退溪가 4월, 정확히는 4월 27일 밤에 陶山書堂에 있다가 溪上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焦乾證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이때 退溪가 溪上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焦乾證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설사병 때문이었다. 별개의 두 가지 사실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는 과정에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닐까 한다.

29) 誤: 白洲本 ‘謬’

30) 上: [부전지 ‘上’下入‘乃止’二字.]가 있다.

時朝論大發乙巳之爭，以上章³¹⁾乞休非便，乃止。³²⁾

七月，跋《啓蒙翼傳》。

(譜) 七月³³⁾，至易東書院，與諸生講《心經》。

先生答人書曰：“易東相聚，固是好事，但不能熟複沈浸，深味而實體之，如朱門讀書法，是爲欠缺。諸人歸後，或能接續其功³⁴⁾，久而不已，安知其不有所得？如某雖益思警勵，奈此老昏，日用之間，覺得專一時少，二三間斷時多？如之何如之何？”

十一日，與諸生出遊鰲潭。

諸生金彥遇·李大用·趙士敬·金愼仲·琴聞遠·金惇叙·琴堧之·尹起伯·朴居中·姪宰·孫安道·純道。見先生〈易東院齋看月〉詩下自註。³⁵⁾

八月，有卷端手題。

題曰：“朱子生於建炎四年庚戌【麗仁宗八年】，卒於慶元六年庚申【麗神宗三年】，至宋亡【自庚申至是八十一年】，元八十九年，我太祖壬申，至今庚午，一百七十九年，自庚申統計，三百五十九年。”◎按《朱子年譜》，題

31) 章：白洲本‘狀’

32) 乃止：[부전지 ‘乃止’改‘未果’.]가 있다.

33) 七月：[부전지 ‘七月’刪, 無妨.]이 있다.

34) 功：白洲本‘身’

35) 十一日……自註：[부전지 刪.]이 있다.

藏書閣下東楹曰：“周敬王四十一年壬戌，孔子卒，至宋慶元三年丁巳，一千八百七十六年。”³⁶⁾ 先生卷端之題，豈亦朱子題東楹之意也歟？³⁷⁾

(譜) 八月， 易東書院落成，往赴。³⁸⁾

前此先生論落成請客坐次分貴賤之非，只當依古齒坐。諸生曰：“古今殊異，不可如是。”先生援據古今，終日極辨諸生。路呈一詩云：“先生上古論，弟子末世言。書院規模定，何須鄉坐分。”【先生答金彥遇書曰：“院中昨日之事，能無敝³⁹⁾過了否？”蓋指序齒事也。又與趙士敬書曰：“序齒事，諸君但執‘耻下賤’三字，以遂欲上人之心，亦不可謂全非。然禮義⁴⁰⁾由賢者出，諸君皆以一時鄉賢，當深求古義，細考禮文，必須洞見其所處之宜，能不失先王設鄉法鄉禮之意，如此其重處，然後優而爲之。顧乃⁴¹⁾逞氣爭勝，只據一時一邊不便宜處，求自便而已。不復問古義如何，鄉禮如何，專⁴²⁾不類賢人君子處事氣像，是爲可歎。”◎前⁴³⁾此戊辰，先生方在京，有答烏川諸君書曰：“似聞鄉中諸君涇渭太分，斥蔑平流，其被斥蔑者，咸懷忿怨，相謂曰：‘彼亦何異於人而敢如此？’

36) 按朱子……七十六年：[부전지 ‘按’止‘七十六年’，小書之，何如?]가 있다.

37) 先生卷……也歟：[부전지 ‘先生’止‘也歟’刪，恐好.]가 있다.

38)  8월 22일 易東書院의 落成式 과정에 禹倬의 位版을 奉安하고 祭享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退溪는 使行, 곧 8월 21일 慶尙道 觀察使 李陽元의 행차를 맞게 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退溪先生年譜》에서 역동서원 낙성식 행사에 참석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오류로 보인다.

39) 敝：白洲本 ‘弊’

40) 義：白洲本 ‘儀’

41) 乃：白洲本 ‘於’

42) 專：白洲本 ‘全’

43) 前：白洲本에는 앞에 ‘按’이 있다.

其源皆自某人而馴致也.’某人,指老拙也.老拙平生,自視欲然,不敢妄有傲物輕世之心,夙聞鄉黨爲父兄宗族之所在,不可不敬謹自處.居鄉待人,每守此戒,庶幾終或免此薄德也.豈知今者,首自先犯,至令諸君,亦枉受此名也? 滉在此,默察時情,虛爲推獎者,旣難堪當,無故憎疾者,更深可畏,所以欲速去,潛深伏隩以送餘年.不意彼中,亦有此風,不知何處可安此微蹤乎? 卽諸君深思之.” 44)

四四 撰易東書院祭禹祭酒文.

又以位版所書稱謂及祭時服色·書院規約等事, 示諸生議定. 45)

(譜) 九月, 四四 上箋【止】不許.

前此七月, 首相於經筵啓曰: “今欲致治, 必用當代第一人, 第一人, 實李滉也. 其學問道德, 姑舍不論, 不貪勢利, 退居山林, 以此觀之, 豈偶然人物? 雖曰

44) 四四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退溪先生年譜》 기록을 항목 본문으로 든 다음, 그 大註와 小註에서 鄉中과 院中 집회에서의 坐次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들고 있다. 易東書院 落成式 행사에서도 坐次가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서 鄉中과 院中 집회에서의 坐次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들어둔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易東書院 落成式 행사에서도 坐次가 문제가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大註와 小註 기록 중 ‘前此戊辰’ 이하는 이미 그 연대가 밝혀져 있으므로 논외로 하고, 《退溪先生續集》 〈答金彦遇〉를 옮겨 놓은 “先生答金彦遇書曰: ‘院中昨日之事, 能無敝過了否?’”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戊辰年(1568년, 퇴계 68세) 1월의 사실들이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大註와 小註 기록 중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易東書院 落成式 행사와 직접 관련된 사실은 아니다.

45) 又以位版……議定 : 白洲本에는 小註로 편집되어 있고 뒤에 이어서 ‘○門人問: “易東書院, 尊祀程·朱兩先生何如?” 先生曰: “兩先生皆大有功於易學者也. 旣曰易東, 則立廟尊祀, 配以禹祭酒, 固是盛事. 但院中諸事, 草草已甚. 率然建此重禮, 終至於褻慢, 則求以尊之, 反以慢之也. 恐不如獨祀禹祭酒爲便.”’이 있다.

難進易退，自上以誠致之，則豈終辭退乎？必退小臣而用此人，然後可治。”上納之。【○】至是下旨云：“七十致仕，雖是古禮，然豈待賢者之道哉？每以曠職不安，故茲允所請，提調則許遞矣，宜調理上來，以副予望。”【又有賜書及耳掩。】

(譜) 【○】~【○】復出陶山，與諸生講《啓蒙》·《心經》。

先生有眼疾，門人請少節看書，先生曰：“古人謂⁴⁶⁾遮眼文書，舍此爲何事也？”

乘小車遊伊洞，有詩。⁴⁷⁾

【○】自陶山將返溪堂。

嘗言：“幅巾失其制，似僧巾。”至是程子冠·深衣，自京初造來，親啓柴門，謂人曰：“今日欲試古人衣冠。”

【按先生答人書云：“金而精製寄深衣，未知盡合古制與否，而閒中可時着了。惟幅巾，未敢便以爲得古制，且其著用，非但駭俗，於己亦殊不便，故以程子冠之類代之。”】⁴⁸⁾

46) 謂：白洲本‘有’

47) 【○】 이 시는 《退溪先生文集續內集》에 실려 있는 〈庚午季秋尋伊洞泉石招宏仲同遊宏仲已先往矣〉 2首를 말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이 시를 伊洞에 놀러갔다 온 그 다음날 부쳐준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한편 10월에 李德弘에게 답한 〈答李德弘〉에서는 “并新得二絶送去, 照領. 其洞名, 若盡從俗稱, 則不成語, 只以伊洞稱之, 何如?”라 하였다. 여기서 李德弘에게 보낸 ‘新得二絶’이 앞서 말한 그 시임이 분명하다. 특히 〈答李德弘〉은 그 내용을 살펴볼 때, 伊洞에 놀러갔다 오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보낸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시를 伊洞에 놀러갔다 온 그 다음날 부쳐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論日拜先聖之禮.⁴⁹⁾

先生云：“朱子於滄洲精舍，行釋奠之禮，蓋以晚年道統之傳，有不得不自任者，故設此禮，而不疑非恒人之所可效者也。其以紙牌字，日拜先聖，此非釋奠之比，某每有意於此事，而恐未可率然爲之也。”

十月，有陶山梅爲冬寒所傷詩。

先生結社友梅，其托懷於詩詠者，別成一帖，可據而見也。先生易簀，在於是歲之臘，則今者陶梅之告終，其將先爲之兆者歟？⁵⁰⁾

十一月，講學溪堂。

諸生質問既罷，柳雲龍曰：“每到于斯，見先生之面，聞先生之言，則如舊染之滌，如醉夢之醒。”權好文曰：“古人云：‘開雲霧而睹青天，剪荊棘而由正路’，不其然乎？余在少年，視先生如鬼神之明⁵¹⁾，莫測其

48) ❶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細註에서는 9월 29일, 深衣를 서울에서 처음 지어서 보내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金就礪가 제도도 맞고, 치수도 退溪의 몸에 꼭 맞는 深衣를 지어서 보낸 것은 지난 6월의 일이다. 단 退溪는 평소 혼자 집에 있을 때만 深衣를 입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李德弘은 이때 처음 退溪가 程子冠을 쓰고 深衣를 입은 모습을 본 것이 아닌가 한다.

49) 禮：白洲本 ‘位’

50) 十月有……兆者歟：[부전지 刪.]이 있다. ❷ 〈陶山梅爲冬寒所傷〉 시는 2월 하순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이 시를 10월에 지은 것으로 기록한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盆梅가 아닌 陶山 梅花를 제재로 한 시라면, 10월에 짓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러하다.

端，如江河之浩蕩，不知其岸。今來函丈，妙言入耳而自解，行事着眼而可明，吾庶幾功力之少，或有進也。”

(譜) ㉒ 行時祀於家廟。

時初九日癸酉也，上溫溪齋宿。前此有恩賜醢鱓⁵²⁾一缸，藏而⁵³⁾待之，薦用於是日。

㉓ 有論范蘭溪百慮煩撓至靜自若詩二絕。

“止水如心靜爲體，動時波洶靜難尋。縱饒不靜非無靜，浪息依然水靜深。”“體隨用失如無靜，性不終亡本固存。只說靜爲元自若，蘭溪無乃太深言。”【論范蘭溪此一段語，又見答崔見叔書。】

乙亥【十一日】力疾赴溫溪洞會。

時先生氣甚不安⁵⁴⁾，而爲五兄察訪公有此行曰：“余若不赴，則家兄想無聊，故來此云。”

丁丑，㉔ 《家曆日記》絕筆。

學子質業請益，隨其淺深而告詔之，若有未曉處，則反覆詳說，啓發乃已，訓誨引進，不厭不倦，方被疾患，而尙與諸生講論，無異平昔，諸生久乃覺之，輟

51) 明：白洲本‘神明’

52) 鱓：白洲本‘鱓’

53) 而：白洲本‘以’

54) 安：白洲本‘平’

論數日，病已革矣.

(譜) 己卯，⁵⁵⁾ 答奇明彦書，改致知格物說.⁵⁵⁾

時疾⁵⁶⁾益彌留，臥席修答，令子弟正書，寄明彦及鄭子中等處. 【按又答明彦書有曰：“無極而太極，此一段釋語⁵⁷⁾，近亦方知愚見之誤，益自警懼，思有以少改之，不知未死之前，可遂此意否也.” 此書亦與改格物說，均出一時，先生篤學一念，炳然如丹之死不已，亦見於此矣.⁵⁸⁾】

十二月乙未【初二日】，命勿用肉饌.

蓋以先生外舅權公 礪忌日也.

丙申，⁵⁹⁾ 命移盆梅.

痢泄，盆梅在其傍，令移他處曰：“於梅兄不潔，心自未安耳.” ◎李參奉 碩幹·閔進士 應祺·李判事 衍樸迭相觀脈. 凡同侍門庭者，七十餘人.⁵⁹⁾

是日，命索還《心經》于韓安命.

55) ⁵⁵⁾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기록에서, 11월 15일, 정확히는 11월 17일 병석에서 奇大升이 光州에서 보낸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내는 편에 처음 致知格物說, 곧 ‘格物·物理之極處無不到’와 ‘無極’에 대한 자신의 종전의 해석을 개정한 내용의 글도 함께 써서 奇大升 등에게 보냈다고 한 것은 오류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11월 16일 기대승이 광주에서 사람을 보내 부쳐온 편지를 받고, 11월 17일 그 편지에 답장을 쓰는 편에 10월 15일 이미 金就礪에게 부쳐 전하게 한 ‘格物·物理之極處無不到’와 ‘無極’에 대한 자신의 종전의 해석을 개정한 내용의 글이 중간에 유실되었을까 염려해서, 다시 그 글을 써서 함께 보냈다는 정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6) 疾：白洲本 ‘病’

57) 語：白洲本 ‘意’

58) 此書亦與……於此矣：[부전지 ‘此書’以下刪, 何如?]가 있다.

59) 李參奉……七十餘人：[부전지 職名並刪.]이 있다.

時韓某爲集慶殿參奉，以慶州本《心經》多舛誤，請先生勘正，冊子偶爲他人所借去，故有是命。

(譜) 丁酉，圖 命兄子竊書〈遺戒〉。

屏左右時，痰喘方劇，及其口呼命書之際，脫然若沈痾之祛體，不動聲息。寫畢，親自一閱，又命褻封，竊封署其後，始聞喘息。◎〈遺戒〉又有曰：“葬時勿用酒接客。但賓客所持之酒，不用於賓客，此又難也。各以所持壺果，遠處設廳行之。至小大祥，門長中一人，別廳接客可也。”【按門人問：“今人⁶⁰⁾例於葬送祥祭之日，設酒食⁶¹⁾以饋客，甚無謂也？”先生答曰：“喪次設酒食，甚非禮，而其說甚長，今不敢輒云。”又問：“喪次設酒，固爲悖禮，所謂其說甚長者，何謂也？”答曰：“喪次設酒食，處之之道，如陳安卿書所云當矣。此則已付⁶²⁾他喪所處之宜耳。最是已當喪而待客，欲反今之弊俗，而合古之禮意。其間曲折，至爲難處者多，故前云：‘其說甚長，不敢輒云。’”】

(譜) 先製銘文。⁶³⁾

楷書一少⁶⁴⁾紙，藏在平日所用書匣中，意必是年秋所製也。

(譜) 午，見諸生。

60) 人：白洲本‘日’

61) 食：白洲本‘肉’

62) 付：白洲本‘赴’

63) 譜先製銘文：[부진지 並下條刪，何如？入‘(譜)只以小石’止‘之妙’。第一卷第一丈，‘先生自溫溪’止‘萬卷生涯’作大註，移入于此，似好.]가 있다.

64) 少：白洲本‘小’

前夕丙申，已爲諸生欲與之訣，而病甚未能，至是乃見。蓋亦朱子將終，起坐告之以誤諸君遠來之意也。

戊戌，四 問臺諫所啓。

時兩司方論削乙巳之勳，先生所問者，此⁶⁵⁾事也。【先生愛君憂國，出於至誠，雖退處田野，心未嘗不在朝廷，聞一政令之善，喜不能寐，或舉措失宜，憂形于色。】

(譜) 辛丑，四 酉時，終于寢。

將至屬續，神明不衰，起居莊敬如平時。是日晴，酉初，忽白雲坌集宅上，雪下寸許，及易簣，卽雲卷雪霽。是夜，風雪更大作，人或凍死，而役者忘寒盡力。

◎士林倚先生如泰山喬嶽，聞其卒，識與不識，莫不戲歎⁶⁶⁾傷痛，相與爲位而哭之。【金東岡字顗，聞訃之日，與一鄉士流，會哭于川谷書院，蓋痛悼程·朱統絕者也。】⁶⁷⁾

(譜) 上聞先生有病⁶⁸⁾【止】馳驛往救。

甲辰，四 以備忘記傳于政院曰：“李滉有病，至爲驚駭，內醫給馬賚藥，急速下送李某處，此意及十分善調事下書。”

65) 此：白洲本에는 앞에 ‘蓋’가 있다.

66) 戲歎：白洲本 ‘噓唏’

67) 士林倚……絕者也：[부진지 刪.]이 있고, 小註 아래에 ‘留京諸門人, 會哭于鶴峯館舍事, 亦追錄否?’가 첨가되어 있다.

68) 病：白洲本 ‘疾’

(譜) 辛亥⁶⁹⁾, 訃聞, 命贈領議政.⁷⁰⁾

又命三日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斷音樂.

(譜) 下⁷¹⁾政院曰: “致賻諸事, 速考前例以啓.”

政院啓曰: “前例卒左議政安珰·右議政閔箕別致賻考啓, 米太并一百石·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疋·六升白木綿二十疋·正布一同·石灰五十石·苧布十疋·清蜜一石十斗·眞油二石·黃蜜三十斤賜給事.” 傳曰: “亦以此例爲之.” ◎又正布二十疋·米太并二十石·眞末二十斗·眞油清蜜各六斗別致賻.⁷²⁾

(譜) 別遣右副承旨致吊【止】祭之.⁷³⁾

69) 辛亥: 白洲本 ‘十七日’. 今按: 白洲本에서 ‘十八日’을 誤記한 듯하다.

70) ㉔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12월 18일에 領議政을 追贈하도록 명령하고, 3일간 輟朝하도록 명령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蒙齋先生文集》의 〈考終記〉에서는 12월 18일 禮曹에서 올린 啓目에 따라 12월 18~19일 2일간 輟朝하도록 명령했다고 하였고, 그 뒤에 이 명령을 바꾸었다는 별도의 기록이 없다. 아마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考終記〉의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領議政을 追贈한 사실을 가지고 추정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오류인 듯하다.

71) 下: 白洲本에는 뒤에 ‘命’이 있다.

72) ㉔ 《蒙齋先生文集》의 〈考終記〉에서는 처음, 곧 12월 18일에는 致賻를 退溪가 逝去할 때의 직함인 判中樞府事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12월 19~20일 禮葬(國葬)과 致賻 모두를 追贈하는 직함인 議政에 해당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 따라서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大註에서 ‘米太并一百石·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疋·六升白木綿二十疋·正布一同·石灰五十石·苧布十疋·清蜜一石十斗·眞油二石·黃蜜三十斤’을 賻儀로 보내고, 또 ‘正布二十疋·米太并二十石·眞末二十斗·眞油清蜜各六斗’를 따로 賻儀로 보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곧 12월 20일 변경된 ‘米太并一百石·紙一百五十卷·白正布二十疋·六升白木綿二十疋·正布一同·石灰五十石·苧布十疋·清蜜一石十斗·眞油二石·黃蜜三十斤’만 賻儀로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73) ㉔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 “(譜)別遣右副承旨致吊, 止祭之.”라 하고 아

禮曹啓曰：“凡在外身死宰相吊祭，一時并行，然今者贈領議政李某吊祭，依在京例，遣曹郎廳各行，何如？”政院又啓：“禮曹公事，只循例⁷⁴⁾爲之矣．議政卒逝，則例⁷⁵⁾遣承旨吊喪，故敢稟．”上曰：“禮曹請遣郎廳公事勿用，別遣致吊承旨可也．”◎禮曹啓曰：“臣等考《大典》喪葬條，‘大臣卒，若舉哀會葬，則有特旨乃行．’《五禮儀》爲貴臣舉哀儀，‘曾經議政外舉哀與否，隨恩典之淺深云．’今者判府事李某卒逝，某一代大儒，曾經從一品，自上聞其卒逝，慟悼之甚，卽命追贈領議政，恩賜之甚，孰大於此？自上當舉哀會葬，而有特旨乃行之，事此⁷⁶⁾曠廢已久，勢似難行矣，而禮文之事，不可不稟，故敢啓．”傳答曰：“《五禮儀》，予已考見．此禮非但曠廢⁷⁷⁾已久，事勢非便，難以輕行，但別遣承旨致祭可也．”【祭文見〈附錄〉．】

乙卯⁷⁸⁾，㉔ 弘文館上筭，請勿行曲宴．其筭曰：“斯

래에 들고 있는 大註 중 “禮曹啓曰……承旨可也.”는, 《蒙齋先生文集》에 실려 있는 〈考終記〉에 의거할 때, 12월 22일의 사실임을 알 수 있다.

74) 例：白洲本 ‘禮’

75) 例：白洲本 ‘別’

76) 事此：[부견지 ‘事此’恐乙.]이 있다.

77) 廢：白洲本 ‘廢’

78) 乙卯：白洲本 ‘二十一日’．今按：白洲本에서 ‘二十二日’을 誤記한 듯하다.

文不幸，大儒云亡，非但士林相吊，在殿下大有爲之志，其不遺一老之痛，庸有極哉？伏睹殿下，聞訃之日，卽下哀痛之教，贈以議政之爵，其待以殊禮者，實出於尊崇大賢之盛意，中外之人，孰不感激？然先王制爲喪臣之禮，於服則衰經，於饗則小舉，於樂則弛懸，以至與歛往吊，莫不盡禮。蓋君之於臣，猶父之於子也。其所以因⁷⁹⁾情制禮者，豈偶然哉？我朝爲貴臣舉哀之規，實倣於此。今者，雖以喪次在外，不得不行⁸⁰⁾此盛禮，其他弛懸不舉之遺意，則不可不講究而盡其禮也。今此曲宴之教，雖出於聖上慰悅兩殿之至意，而大臣之喪，纔經旬日，陳饋張樂，有若平時，則此果合於先王之制，而於殿下痛惜之情，其亦安乎？昔晉 荀盈卒，未葬，平公飲酒樂，膳宰屠蒯趨入，遂酌以飲工曰：‘女爲君耳，將司聰也。君之卿佐，是謂股肱，股肱或虧，何痛如之？如不聞而樂，是不聰也。’公悅，遂撤樂。夫以平公之爲君，尙且撤酒於其臣未葬之日，況以殿下之聖，而反欲設宴於聞訃未吊之前，其於殿下隆禮待賢之意，果何如也？況今天

79) 因：白洲本에는 없다.

80) 不行：[부전지 ‘不行’之‘不’，刪.]；白洲本 ‘行’

灾物怪，層見疊出，此政君臣上下，恐懼修省之不暇，豈可晏然爲樂，以重天心之不豫也？伏願聖明留神焉。”傳曰：“大臣卒逝未久，且有灾異，曲宴勿爲可也。”【時有日變。】

己未⁸¹⁾， 御夕講于思政殿。洪聖民進啓曰：“近者國家不幸，大儒卒逝，非但士林相吊，自上亦爲痛傷，聞訃之日，贈以議政，中外感激。此人學問，爲東方宗匠，集大成之人也。前⁸²⁾者經席所啓之言，無非大人格君之言，每每追念而力行之，則此人雖死，其道則行也。”鄭琢曰：“東方學問之人，雖或有之，至於造詣之精深，踐履之純固，則唯此一人而已。其進退・出處・辭受・取予，皆可爲後人模範。但遇聖明，有病退居⁸³⁾，雖屢徵之，竟不能至，然戀闕憂國之心，未嘗頃刻忘也。”上曰：“李滉有病云，特令遣醫，而亦未及救，安有如此之事乎？”琢曰：“自上待大臣，可謂該備而無餘蘊矣。必用其道，然後方盡待賢之道也。”

81) 己未：白洲本‘二十五日’。今按：白洲本에서 ‘二十六日’을 誤記한 듯하다.

82) 前：白洲本‘頃’

83) 居：白洲本‘去’

○五年辛未⁸⁴⁾

正月二十四日，又遣禮曹佐郎趙仁後致祭。【祭文見《附錄》。】

(譜) 三月壬午， 葬云云。

政院啓曰：“李某禮葬事，考前例，則初喪卽爲追贈者無之，此則似可以追贈之職爲禮葬矣。然追贈之人，禮葬之例，亦無之矣。”上曰：“旣贈議政後，猶用二等乎？以議政例禮葬可也。”◎禮葬監役官歸厚署別坐金虎秀，加定官冰庫別坐金就礪·禮賓寺別坐崔德秀，以命來。

(譜) 子篤以〈遺戒〉，再上章力辭禮葬。不許。

其初疏曰：“伏以臣父判中樞府事臣某，以前年十一月，痰熱劇發，十二月初八日，竟不起疾。聖恩罔極，軫悼有加，又竊伏聞特垂厚典，官庀葬事，臣感激號慟，五內摧裂，無地容措。第先臣遺懇，不忍不陳達，茲敢拭淚瀝血，仰瀆宸聰。伏念先臣稟氣羸弱，素有疾病，不能供職，辭退有年，故歷事四朝，實踐不多。至于近歲，累叨寵恩，遂躋崇班，血誠祈避，未蒙允俞，常以虛名躡登，心懷悶迫。乃於未死前五日，丁

84) 1571년(宣祖 4)

寧語臣曰：‘身死之後，該曹若循例請禮葬，陳疏固辭云.’此實先臣平生情願，臣尤切號慟，不自知止。伏乞特收成命，使先臣獲遂素志，微臣得行遺令，則天地洪造，終始兩盡，先臣泉壤之魂，益當感泣。臣無任血泣祈懇兢懼罔極之至，謹昧死以聞。”◎其再疏曰：“伏以，罪孽臣哀懇迫切，率意陳達，兢戰⁸⁵⁾悚慄，無地自容。伏蒙聖批誅責不下，教諭諄至，臣感激上恩，不勝號慟之至。第切思惟，臣之於君，猶子之於父，苟有所懷，安有毫忽隱默之理乎？此臣之泣血籲天，至再而不知止也。伏念先臣某，本非遠世之人，發身科第，遂登華顯，其終必辭退者，非有他意，誠以身本羸弱，疾病早纏故也。自先⁸⁶⁾朝至于今日，特寬許之，雖時有召命，而亦不得留供職事，依前閒退，以保餘命，天地父母之恩，無路仰酬。但於其間，仕無履歷，勞無踐効，既退而常帶官銜，屢辭而反陞崇秩，義有⁸⁷⁾未安，分非當得，故先臣悶迫踖躅，具疏祈乞，非一非再，致仕一念，如水必東。雖⁸⁸⁾將死

85) 戰：白洲本 ‘懼’

86) 先：白洲本 ‘本’

87) 有：白洲本에는 뒤에 ‘所’가 있다.

88) 雖：白洲本에는 뒤에 ‘於’가 있다.

之時，諄諄言戒，亦在於此，以其平生所不得遂者，丁寧托臣冀免冒昧於泉壤，其情益可悲矣。既死之後，聖恩彌洪⁸⁹⁾，臨吊賜祭，特出常例，寵贈之崇，恩賻之重，皆祖宗朝以來所未有之盛典。使先臣未死而叨此隆命，宜必感激兢蹙，措躬無所，思所以奉承祈懇之道，而事已無及，臣只切號慟。至於禮葬一事，雖循本等，先臣之志，已不可堪承。況視三公之禮，必以無前之異數，則先臣九原⁹⁰⁾之魂，益有所悶迫回徨，而目且不能瞑矣。臣非⁹¹⁾不知君命難違，賤言難瀆，而既面受先臣遺訓，若隱而不言，言而不盡，則是臣於國家，非徒失無隱之義，其於先臣，蔽抑不孝之罪大矣。臣實何心，尚忍爲此？伏願聖明，察先臣悶迫，哀微臣籲呼，亟寢成命，俾先臣得遂垂死之願，則國家之待先臣，生死終始，兩盡其道云云。”【將復三上章，爲固辭得請之計，二疏之答纔下，葬期將迫，命官已發，遂不果。】⁹²⁾

89) 洪：白洲本‘弘’

90) 原：白洲本‘泉’

91) 非：白洲本에는 없다.

92) 圖 《蒙齋先生文集》에 실려 있는 〈考終記〉 해당 부분 編次에 의거할 때, 退溪의 遺命에 따라 雋이 上疏하여 禮葬(國葬)을 사양한 것은 辛未年(1571년, 逝去 1년 후) 1월 6~15일의 일로 추정된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서는 그 부분에 雋이 올린 첫 번째와 두 번째 上疏文을 補遺해 두고 있다. 편의상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모두 1월과 2월의 사실이다.

(譜) 士大夫及儒生會葬者三百餘人.

【按《艮齋集》云，以千數.】⁹³⁾

○萬曆元年癸酉⁹⁴⁾

九月，^{四九} 傳教禮曹曰：“李滉著書，片言隻字，皆可傳後，脫或散失泯滅，必有後悔，令校書館印出.⁹⁵⁾”【月川趙穆辭職疏略曰：“臣師李某，一生勤苦，學問工夫，老而益篤，深得濂·洛以來諸儒之正傳，其發於詩文論辨者，皆所以淑人心而扶世道，承前聖而啓後蒙也。身歿之後，其文尚湮晦不傳於世。臣竊痛悶，謹與鄉中諸生，讎校繕寫。臣若蒙恩許遞，則未死之前，庶遂此事云云.”】

○四年丙子⁹⁶⁾

(譜) 十二月，贈諡.⁹⁷⁾

前此癸酉十一月二十四日，司憲府啓曰：“李某篤信好學之誠，難進易退之節，求諸古人，罕有其比，而又發揮義理，羽翼儒道之功，實吾東方所未有也。不待行狀，欲速賜諡，公論之發，固非偶然。請命速施

93) 譜士大夫……以千數：[부전지 刪.]이 있다.

94) 1573년(宣祖 6)

95) 印出：[부전지 ‘印出’下，當書‘未果’，事更考.]가 있다.

96) 1576년(宣祖 9)

97) ^{四〇} 〈諡號 教旨〉에는 退溪에게 諡號를 내린 年月日이 ‘萬曆四年十一月初十日’，곧 丙子年(1576년, 逝去 6년 후) 11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에는 丙子年 12월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1월의 오류임이 분명하다.

行，以厲世道。”◎二十六日，憲府啓：“李某篤信好學，理明義精，充而⁹⁸⁾爲德行，發而爲事業，扶植斯文，維持吾道之功，實東方所未有也。褒崇之舉，當卽斷自聖衷，而至於公論之發，反諉以有違恒規，持難至此。凡人議諡，必待行狀者，欲考其人處心行事之蹟也。李某道德之盛，昭如日星，其亦有待於行狀而爲之耶？”同日司諫院啓：“李某生百代之後，挺不世之資，倡明絕學，扶植斯文，卓冠吾東，非近代諸儒所可及也。”◎同日朝講，兩司盧禎·金誠一，請李某賜諡，不待行狀啓曰：“以舊規言之，雖似必待⁹⁹⁾行狀，但滉之道德，聖鑑洞照，特舉格外之典，然後四方有所激勸矣。”右相盧守愼進曰：“上心每以後弊爲慮，此則大不然也。”禎又曰：“上意不欲輕改舊規，此固出於難愼之至意。然人君行事，必欲一一如此，則四方風動之美，今不可見矣。”參贊官李珣啓曰：“上教雖當，名賢行狀，不可輕率而爲之。昔朱門高弟，不爲不多，而二十年之後，行狀始出。若採取公論而諡之，夫何不可？古者賜諡必¹⁰⁰⁾葬時，今則踰

98) 而：白洲本‘以’

99) 待：白洲本‘對’

100) 必：白洲本에는 뒤에 ‘於’가 있다.

三年已久，此所以汲汲也。今既無撰行狀之人，則當據臺諫公論而爲謚，而上之留難，至於此極。此於治亂安危，所係不細，伏願垂聽焉。”檢討官金字顥啓曰：“朱子行狀，至待數十年之久，伊川則門人高弟，皆已先歿，故終無敢下筆者，其難也如此。待大賢，不可拘於常規，豈可以無行狀，而不賜伊川·朱子之謚乎？”侍讀官趙廷機啓曰：“言官累請賜謚，而自上固守舊規，殊無尊賢之意，殊爲未安。”字顥曰：“雖無行狀，亦有朴淳所撰〈墓誌〉，請據此謚之。”誠一不可曰：“若必待是而後爲之，是猶以其人爲必待是而後可知也，不亦小乎？”上曰：“雖欲速謚，不可狃無前之規，以開後弊也。”珥曰：“恐有後弊云者，臣竊未曉也。今滉之賢，自上親知之矣。猶且留難至此，士林皆缺望焉。士林缺望，乃有國之大憂也。”誠一啓曰：“國法必待行狀而制謚者，以其人之心術行事，不盡顯著而然矣。若如滉，其道德行義，出處大節，如青天白日，奴隸皆得以仰之，豈待行狀而後，可知其爲人哉？必欲見狀者，似以其人爲有不可盡知之處，此則未安矣。待大賢，豈可以恒規乎？”珥曰：“自滉倡明道學之後，學者始知爲儒之體，厥功最大。如鄭

夢周，雖曰理學之祖，而觀《圃隱集》，則不無可疑。至若滉之文集，雖置之《理學類編》，亦無愧焉。”又曰：“以小臣事言之，國法只許歸覲父母，而臣曩者，以外祖母養育之恩，疏請往見，亦命許可。如臣卑劣者，常有規外之恩命，況大賢乎？”又曰：“今日以此，士氣沮喪，若知其如斯，則不如當初不發此論之爲愈也。此事只在一下教之間，臣未知其難也。”守愼曰：“若如此而遂已，則滉終爲無諡之人矣。”宇顥曰：“待行狀而議諡者，國家立法通行之大綱。今滉有非常人所及之德業，賜諡亦不可拘於常規。苟以無行狀而終不賜諡，則時事可知。”珥曰：“自上例以常規爲言，恐國之大事去矣。”特進官成世章啓曰：“古人以行狀請諡尙矣。但出於一家之言，文過其實，尙據以爲諡。矧乎一國之公論，與其子孫粉飾之辭，高下固懸絕者乎？”珥曰：“世有非常之人，當待以格外之事，伏望自上，斟酌此意。”守愼曰：“臣聞滉家子孫，終不欲請諡。若無特賜之命，恐無爲諡之日矣。子孫承其遺意，既不敢請，而在上者，有特命之舉，則上下之間，皆爲得體矣。”◎三十日晝講，宇顥啓曰：“自上命賜李滉諡，甚盛意也。滉曾進〈聖學十圖〉，可見其學

問之工，乞於燕閒之暇時，賜觀省而用力焉，則其人雖亡，其¹⁰¹⁾道則行，豈勝幸甚？”【宣諭官金誠一。◎先生子竄，延諡于議興任所。】

○五年丁丑¹⁰²⁾

二月，立碣。

當初禮葬時，論者欲立二石，一以君命碑之而書議政之銜，一以遺意碣之而題晚隱之號，先生子竄力爭，而只立一碣用〈自銘〉。◎高峯 奇大升，〈叙墓碣銘後〉有曰：“中歲以後，絕意外慕。”月川 趙穆曰：“先生氣稟穎悟，天資篤實，自少沈靜好學，於世利紛華泊如也。何待中歲以後，乃絕意於外慕耶？”◎〈叙〉¹⁰³⁾有曰：“揆諸孔·孟·程·朱¹⁰⁴⁾之言，其不合者寡矣。亦可謂建諸¹⁰⁵⁾天地，質諸¹⁰⁶⁾鬼神云云。”趙穆又曰：“然則不合者尚有存焉，未得謂之盡善也，而繼之曰：‘亦可謂建天地而不悖云云’。以上句觀之，則下句下語太重，以下句觀之，則上句下語似輕矣。

101) 其：白洲本에는 앞에 ‘而’가 있다.

102) 1577년(宣祖 10)

103) 叙：白洲本 ‘上同’

104) 程朱：白洲本에는 없다.

105) 諸：白洲本에는 없다.

106) 諸：白洲本에는 없다.

大概此文，有精神有氣力，能撮其大要，足以揭阡詔後。但其意思，似主於窮格論議處事之間，而於先生平日篤實踐履端的下工夫¹⁰⁷⁾一事，說得似未親切。”

○二十四年丙申¹⁰⁸⁾

(譜) 閏八月¹⁰⁹⁾， 埋誌石。

初，求誌文於大提學朴淳，辭未的確，人皆以用之爲難，趙穆·金富弼等以爲，既已請之，不可不用，反復商議，書於題誌官燔之。其後禹性傳等極詆其不可用，鄭惟一以爲題誌官，既以王命書之，今若不用，是棄上賜也。遂從可用之議。至是門下諸議，畢竟不用朴某所撰文，而改屬奇大升撰出，始埋壙南。◎〈墓識〉有曰：“視古先民，孰與先後？”趙穆亦曰：“此句似泛然，無所着落。”◎〈識〉有曰：“山可夷云云。”趙穆又曰：“‘山可夷’以下，豪爽警發，委曲頓挫，足以感人心於千載之後矣。”【按〈墓識〉，“千秋萬世，無或躡蹠也。”《高峯集》，‘歲’¹¹⁰⁾下有‘兮’字。】

107) 夫：白洲本에는 없다.

108) 1596년(宣祖 29)

109) 月：白洲本에는 뒤에 ‘戊寅’이 있다.

110) 歲：白洲本 ‘世’

○二十八年庚子¹¹¹⁾

五月，文集成.

己亥夏始役，至是告成，爲書合四十卷.¹¹²⁾【勿巖 金隆
與月川 趙穆書曰：“《文集》屏山一校，裁削強半，常恐後生不得見其
大全也。道德之大，文章之盛，固不待多述而後著矣。然其一言半句，
無非所以載道，則爲後學者，固當多而不厭，豈可以一二人所見，而容
易略之乎？朱先生《語類》·《大全》，無慮百餘冊，則當時諸公，豈
無所見而然乎？”◎謙庵 柳雲龍與蒙齋 李安道書曰：“雲龍平日，侍先
生雖久，而鹵莽無得，其所教詔，亦豈皆講論之奧？然道無明晦，言無
精粗，尋常應接之間，日用語默之際，無非精義妙道之發。今看遺札，
惻怛懇切，誠意布露，不離乎卑近，而皆極乎深遠，可使後人，開卷瞭
然，如承面命，足以感發於千載之下，則愚恐其爲教化，當與《語錄》
等書，同功於無窮矣。先生平日於人，無賢愚一以誠意咨詢，可者取
之，不可者置之，故人皆自盡，不憚效愚，此不恥下問，取人爲善之盛
意也。爲門生子弟者，其可不以此爲法乎？”◎寒岡 鄭述答陶山諸生書
曰：“《文集》未有序跋之文，未有以發揮先生道學之正，豈不爲後學
之不幸哉？當時諸老成文丈，非不俱在，非不共尊先生之道，其所以拳
拳撰集之意，亦甚至矣。獨不能留一語於其首其尾，以遺今日之遺憾，

111) 1600년(宣祖 33)

112) ㉔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大註에서는 己亥年 여름에 始役해서 이때, 곧 庚子年 5월에 畢役을 告成하였는데, 文集은 모두 40권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月川 趙穆의 〈退溪先生文集告成文〉 및 西厓 柳成龍의 〈退溪先生年譜跋(庚子)〉 등의 기록에 의거할 때, 退溪 文集을 開刊하는 작업은 己亥年 봄부터 始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陶山書院 光明室에 소장된 退溪 文集 初刊본인 庚子本의 臺本이 되었던 退溪 文集 草本 중 定本 《退溪先生文集》은 原集(《退溪先生文集(內集)》)이 49권으로 되어 있다. 《退溪先生年譜補遺(上溪本)》 大註 기록이 오류가 아닐까 한다.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四

此誠不敢知也。至於今日，僉契以是爲悔，乃命庸陋者爲之。庸陋者於是也，揆分義，固不敢辭，然而其於有不合而不敢焉。何哉？布葛不可以襲錦繡，沙礫不可以混金玉，佛頭猶不可着糞，況不爲佛而甚於糞者乎？不惟不能光耀先生之道，其如遂有以晦昧之何哉？無之則欠焉而已，有之而辱焉則何哉？所謂千不能萬不能者，願爲僉契誦之，蓋不能不自量，而貽僉契謬託以戒，言出惓惓，非爲飾讓。伏惟僉有以諒區區平生戴慕之誠如何，而自不能託名於其間之意，庶幾恕察焉。幸甚。”

◎澤堂 李植曰：“我國先儒，皆無著述，權陽村說經論學，始有著述。至於精微之蘊，未有論著，有之自晦齋始，然莫如退溪之大備。其提撕學者，隨證施藥，四應不窮，精博至到，懇惻切磨，詞¹¹³意之間，能使人感動，尤見其德性之深厚。自朱子以後，學者著述甚多，率以文華潤色，讀之使人意思悠泛，少見契¹¹⁴悟，惟許魯齋立言，近於程·朱而不多傳。若以《退溪集》，繼之朱子之後，則雖眞西山，殆無以過之。夫心得之言，與口耳不同，讀者當自知之。”又曰：“我國學者，從事經傳之外，須觀《退溪集》，以爲師資，則以其時近地同，尤切於模範也。”

◎清臺¹¹⁵ 權相一〈觀書錄〉曰：“老先生聲名，施及於蠻貊異類，文集亦流入於他國。日本¹¹⁶弘文學士林恕作〈二程治教錄跋〉有曰：‘朝鮮李退溪亦言之云。’申維翰《海槎錄》，‘倭人之最尊尙者，無如退溪。新刊文集於大坂¹¹⁷城，字體精好，家誦而戶講之，諸生輩筆談問目，必以《退溪集》中語，爲第一義。’僧林靜¹¹⁸讀《退溪集》詩，‘伏羲理數三才主，孔子綱常萬古師。忠恕明誠公已達，海東天地一男兒。’” ◎日本 玉水處士 村土宗章抄先生集書類，名曰《退溪書抄》。

113) 詞：白洲本‘辭’

114) 契：白洲本‘啓’

115) 清臺：白洲本‘晴臺’

116) 本：白洲本에는 뒤에 ‘所謂’가 있다.

117) 坂：白洲本‘阪’

118) 林靜：白洲本‘休靜’

佐嘉古賀樸作序曰：“余嘗聞朝鮮醇儒有退溪先生者，購求其所著書，獨得邦板《自省錄》·《朱書節要》·《聖學十圖》。頃歲始得先生文集謄本，讀之蓋歎其學之醇而用工親切，真可師仰。其謙沖精粹之氣象，藹然溢於紙墨，亦足以砭鄙吝驕傲之病，未嘗不愜然改容，因恨此書之未公諸海內也。今茲寒泉岡田君，謀以玉水翁所纂《退溪書抄》授梓，問序于余，辭以不敏，不獲允。是書之行，固余志也，則不敢終辭。序之曰：‘朱子集群賢之大成，而斯道之學，如日中天，後之學者，篤信之而已矣。篤信之，則知必致，行必力，而必有所得，自不容他歧之惑。先生之生，當朱明中晚之際，明人之篤信朱子而有所得者，敬軒薛子之外，不多見焉。先生崛起於箕封，其篤信有得，蓋可亞敬軒，何其偉也？其元·明之人於朱子，大抵不能篤信，而輕立異說，則有得焉者寡矣。及王伯安出，則詆排朱子，倡其陽儒陰釋之學，後儒附和，紛然炫然，螢燭之微光，自絕於日月，生心害政，明社以屋矣。有清代興，其於學術也，頗存兩立之議，未見廓清之功，猶之賢不肖并進，則賢者必退，邪正兩立，則雖欲邪說之不熾，得乎？何則？流俗所使，在彼不在此也。我戢干戈以來，洛閩之學初行，鉅儒輩出，訓迪後學，使知所向。但海舶所載，多明·清纂著，是以讀者，不能無聽瑩。彼之流弊，或波及於我，故爲世道人心慮，莫若揭篤信之至論，黜紛詖之異說，則如是書在，所宜速行於世，余之所以擊節於君之舉也。先生之輯《節要》也，能得朱子之心，幸教後學，今是書蓋亦效之。玉水翁之信先生，猶先生之信朱子。先生序《節要》謂：“《全書》之編秩浩穰，未易究觀，某就究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表而出之。讀者苟能虛心遜志，耐煩理會，自能知其入處，由是而旁通直上，則溯伊·洛而達洙·泗，無往而不可。”余於是書亦云。’文化三年丙寅八月日。”】

○二十九年辛丑¹¹⁹⁾

十月，刻‘天淵臺’。

○四十八年庚戌【光海二年】¹²⁰⁾

四月，宣祖大王廟庭配享。

【家¹²¹⁾廟賜祭教文見〈附錄〉。¹²²⁾】

九月初四日，文廟從祀。

館學及八道儒生·臺諫·政府， 交章共請五賢臣從祀。

【前此隆慶戊辰¹²³⁾，館學諸生，請寒暄·一蠹·靜菴·晦齋四賢，從祀文廟，累月陳疏。自是之後，每年控籲。及先生下世，以先生合前四賢，謂之五賢，從祀疏歲以爲常。甲戌¹²⁴⁾，重峯 趙憲，以寒暄·靜菴·晦齋及先生爲四賢從祀。其疏曰：“夫金宏弼肇倡道學，而有繼往開來之業，趙光祖繼明斯道，而有拯世淑人心之功，李彥迪體道純篤，而有扶顛持危之力。茲三人者，求之中朝，則許衡·薛瑄之外，鮮有比倫，而求之

119) 1601년(宣祖 34)

120) 1610년(光海君 2)

121) 家：白洲本에는 앞에 ‘時’가 있다.

122) 見附錄：白洲本에는 ‘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喪畢三年，方修升祔之禮，澤流百世，宜舉從享之儀。茲遣奉版之官，用致引靈之奠。惟卿精思實踐，妙詣窮探，繼往開來，可見平生之用力，難進易退，無愧古人之處身，蔚爲百代之儒宗。遂作四方之師表，早膺中廟之眷遇，逮受孝陵之知。況在先朝，益荷異數，入侍經幄，責既重賓師，擢爲貳公，誠固出於夢卜。初服登對，國是定而君德隆，一壑徑歸，吾道明而士習正。論道統則允矣海東朱子，論事功則賢於國朝諸儒，四十年韋布疏章，每請配於文廟，五百歲明良際會，先從祀於宗祔。待賢何間於存亡，揭虔將見其肸鬻，庶幾依神於周栗，俾將侑坐於魯宮。於乎，乾淳典刑，河嶽精爽，在後人高山仰止，恨不同時，配先王宗廟享之，其克永世，故茲教示，想宜知悉。’

123) 1568년(宣祖 1)

124) 1574년(宣祖 7)

東方，則薛璉¹²⁵⁾·崔致遠·安裕之徒，未有及其見到處者。況如李滉，集東儒之大成，而紹朱子之嫡統，進則引君當道之誠，懇懇乎章疏之間，退則因才設教之意，切切乎講論之際，善者聞言而景慕，惡者望風而自戢。當今之士，稍知尊君愛親而有禮義廉恥者，皆薰其德而興起者也。但國家既不能大用於生時，識者已歎其太平之難見，而又不肯崇獎於死後，不及其門者，將何所賴而爲善乎？況此四君子，所當從祀之議，朝無異言，士無異論，而尙此遲留者，謂斯人爲不賢乎？伏願殿下，亟獎四賢，列于從祀，不徒尊其人，而又必用其言，盡取其所嘗啓沃之說，而日陳于前，以資聖治，如四賢之親達于冕旒，而又推其餘，使八方士子，知所矜式，則庶乎褒崇嚮用，兩盡其義，而待文王而興者，蔚起乎凡民矣。”辛巳¹²⁶⁾，栗谷李珣，只請靜菴及先生二賢從祀。啓曰：“教化之術，擇其可合師表之人而委任之可也。今欲明教化，則必須尊獎先賢，使後學有所矜式，而自上每以爲重難焉。近日，賢者雖不可悉入祀典，如趙光祖倡明道學，李滉沈潛理窟，此二人誠可從祀，以起多士向學之心。”【“我國受命以來，諸儒非無可從祀者¹²⁷⁾，而今尙闕焉，豈非盛典有虧乎？惟趙文正倡明道學，啓牖後人，李文純沈潛義理，模範一時，斯二人者，表出從祀，則夫誰曰不可哉？”亦出《栗谷集》。】戊申¹²⁸⁾，館學儒生，請五賢從祀。疏¹²⁹⁾略曰：“五臣¹³⁰⁾俱以命世之儒，遠承不傳之緒，出乎類，拔乎萃，而山斗於一時，倡於前，繼於後，而日月乎長夜。論其學則濂·洛·關·閩，語其志則堯·舜君民，誠可謂¹³¹⁾稀世之眞儒，百代之宗師，而尙闕崇報之典，未享苾芬之祀，

125) 璉：白洲本‘聰’

126) 1581년(宣祖 14)

127) 者：白洲本‘之人’

128) 1608년(宣祖 41)

129) 疏：白洲本에는 뒤에 [소주 戊申, 任叔英製.]가 있다.

130) 臣：白洲本에는 뒤에 ‘者’가 있다.

131) 謂：白洲本‘爲’

退溪先生年譜補遺 卷之四

則明時之欠典，士林之缺望，孰有大於此乎？噫！殿下之於五臣，固已洞燭而明察之矣，非假臣一二談也，而姑舉其大者言之。性溫才明，篤志力行，沈潛義理之學，深造高明之域，忠信篤敬，動遵禮法¹³²⁾，奮乎絕學，爲世儒宗，則宏弼之學，鄭夢周後一人耳。生并一世，志同道合，麗澤取義，相與磨礱，明五經而究其歸趣，講《魯論》而發其關鍵，則¹³³⁾汝昌之學，於斯文大矣。光祖慷慨有志，篤信好學，潛心主敬，涵泳本源，研窮者，貫徹而愈明，蓄養者，崇深而愈厚，則其修己治人之方，繼往開來之功，眞無讓於古聖矣。彥迪英悟出人，天資近道，持敬功深，大有定力，講明體履於致知誠意之地，操存省察於日用動靜之間，〈五箴〉·〈三省〉，治己愈嚴¹³⁴⁾，〈十條〉·〈八規〉，告君愈懇，則宜被中廟之嘉¹³⁵⁾獎，而比之眞德秀者也，李滉有大焉。資稟超邁，充養淵宏，眞知實踐，啓蘊發奧，啓蒙有《傳疑》，天命有〈圖說〉，而性理之學以明，朱書有《節要》，理學有《通錄》，而造道之源以闡，至于〈十圖〉之筭，〈六條〉之疏，無非明聖經闢異端之說，則集四賢而大成，爲我東方之考亭者，其不在斯人乎？茲五臣者，主盟吾道，指南後學，而光前事業，既著於當時，啓後功德，益顯於後世，至今閭巷之間，縫掖之流，尊尙之，景慕之。迷道者，得以知返，異談者，得以歸正，咸知好善¹³⁶⁾惡惡，子孝而臣忠，環海¹³⁷⁾一域，皆囿於禮義之化者，果誰之功也？惜乎！以如是之德，以如是之學，足以措世於唐虞，躋民於仁壽，而遭遇休明，不得施設於當時，天不欲使斯民蒙至治之澤歟？何其不幸之至此也？噫！惟其使德行事業，不墜於地，而恒顯於世，以爲斯道之衛者，豈不在崇其德起¹³⁸⁾其功，以明尊

132) 法：白洲本‘義’

133) 則：白洲本에는 앞에 ‘精探義理之原，遂窮體用之學’이 있다.

134) 嚴：白洲本‘窮’

135) 嘉：白洲本‘崇’

136) 善：白洲本‘賢’

137) 海：白洲本에는 뒤에 ‘東’이 있다.

師象賢之義乎?”】六月初一日，兩司合啓：“臣等將五賢從祀一事，伏閣籲呼，已踰旬月，而俞音尙闕，不勝悶鬱焉。自在先朝，館學儒生，連章瀝血者，今幾年乎？蓋道學如天之有日星，一日不明，則將無以扶國家精神命脈，故先王深知道學之當尊，公議之難遏，以待後日爲教，而今我聖上，亦於三年之內，答儒生疏曰：‘上下之間，誠意旣通，則先王未遑之典，庶見舉行於今日矣。’小大胥慶，翹首以待，而聖批一向牢拒，臣等竊惑焉。從祀與否，於五賢臣學問功德，固無損益，而崇報之舉，尙闕於拭目之日，豈非明時之一大欠乎？尊尙之得失而斯文之盛衰係焉，尤不可少緩。請五賢臣並命從祀文廟，以答輿望。”答曰：“議大臣以啓。”◎七月十六日，禮曹啓曰：“五賢從祀聖廟事，問于大臣，則完平府院君李元翼以爲，‘臣於前日下問時，已盡陳達，惟在聖上斷然行之。’領議政李德馨以爲，‘五賢臣者出，而濂·洛·關·閩之遺緒，大明于世，其尊尙崇報之舉，當趁即施行。’左議政李恒福以爲，‘五臣之事，士論已定，國言已同，所未行者，只是聖上一言耳。’領中樞¹³⁹⁾尹承勳·清平府院君韓

138) 起：白洲本‘報’

應寅以爲，‘從祀事，唯在聖上斷然行之.’ 右議政沈喜壽以爲，‘宣祖大王特命儒臣，撰出《儒先錄》，而常賜觀省，大加歎賞，則四賢之見遇於異世者，可謂至矣. 至於李某，則遭際先朝，最見尊信，即今見存之人，亦多目睹，粹盎光輝，或有親被薰陶，仰之若泰山北斗，景星慶雲者，容有極哉. 後生末學，雖未能測知其踐履造詣之何如，而觀於律身行道¹⁴⁰⁾之方，著書立言之旨，亦可驗其粹然一出於正. 有此五賢臣，道德之美，學問之功，而不得與於從祀之列，則未知何等人，方可得以從祀乎?’ 傳曰：“依議施行.” 又¹⁴¹⁾啓曰：“五賢從祀，依議施行事判下，舉國群情，積年顒望之舉，始成於聖上嗣服之初，中外相賀，士氣百倍，此實扶植世道，挽回至治之一大機會也. 臣等待罪，典禮之地，適逢曠世之盛事，懽欣感激，不知所達從祀之典. 今當急速舉行，第其節目，未有考據之例，似當別爲祭文，遣禮官致祭於其家廟，且設祭告由於文廟，造位版分配於東西廡，議大臣定奪何如?” 傳曰：“允.” ◎八月，以文廟從祀之意，致祭家

139) 樞：白洲本에는 뒤에 ‘府事’가 있다.

140) 道：白洲本 ‘己’

141) 又：白洲本에는 앞에 ‘禮曹’가 있다.

廟。【教文見〈附錄〉。】¹⁴²⁾◎九月¹⁴³⁾從祀時，中外頒教文。略云：“有若金·鄭·趙·李五臣者出，眞得濂·洛·關·閩諸子之傳。唯某也，遭遇兩朝，其志則挽回三代，立言垂訓，實是海東之考亭，格非獻規，不愧河南之程氏。”

○四十二年甲寅¹⁴⁴⁾

十二月二十七日，遣禮曹佐郎任性之，致祭陶山書院。

【趙穆從享時。祭文見〈附錄〉。】

142) 教文見附錄：白洲本에는 ‘賜祭教文曰’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於乎，我東雖僻小，文不墜地，道有所托，粵自殷父師之後，綿綿延延，羅時之藝文，麗季之遺風，彬彬可觀，而至於嫡統之傳，則文忠以後，繼之者無幾。惟卿德器純粹，襟量沖深，自髫髻之年，已有任道之志，沈潛紫陽之書，平生得力，實在於此。從事誠明，絕意外慕，根基既立，操履益篤，洞朗微妙，發越光輝，遠究洙泗之緒，近接洛閩之派，而蔚然爲世之眞儒，士林始有依歸，而朝野倚之爲喬嶽矣。昔在先后之初年，應召命而來京，講筵三接，懇懇誠正之說，挽回一世，庶幾清明之理。《十圖》之規，開發前聖之妙奧，〈六條〉之疏，昭揭經邦之至要，眞斯文之宗匠，國家之著龜，肆予小子，纂承大業，實有無彊之恤，思卿之道德，而風采已邈然矣。慨其不得與同時，徒切寤寐之想。於乎，卿既不可作矣，念先后之際會，已配卿於太廟之享矣。日者，臺臣獻規，韋布陳疏，復有尊崇表章之請，可見人心秉彝好德所同，而其遺風餘烈，感人心目，愈久而愈甚，非卿之深造精詣，卓然爲東方百世之師者，其能如此乎。昔，宋理宗慕性理之學，興懷異代之賢，若周若程若張，悉尊尙之，並陞祀於文廟之庭。於是，士論歸一，道統益闡，南渡後甚盛舉也。卿之所得之蘊，實本於周程朱張，而予之尊尙之舉，恐後於宋宗，予實愧焉。茲者吉蠲爲禮，從祀卿於泮廟，併與金·鄭·趙·李四賢而同陞之，新斯世之耳目，表吾道之正脈者，其孰大於此？乃遣禮官，馳祭於卿之家廟，併諭厥由，卿其欽哉。於戲，有其德者有其享，國家之報典當然，明斯道而倡來學，萬代之瞻仰彌新。’

143) 月：白洲本에는 뒤에 ‘文廟’가 있다.

144) 1614년(光海君 6, 逝去 44年後)

○英宗大王九年癸丑¹⁴⁵⁾

十二月十七日，遣副修撰鄭亨復，致祭陶山書院，因命畫陶山山水以進.【祭文見〈附錄〉.】

○三十二年丙子¹⁴⁶⁾

正月十八日，遣官修撰李錫祥，致祭陶山書院.【祭文見〈附錄〉.】

○正宗大王五年辛丑¹⁴⁷⁾

五月二十二日，遣左承旨李養鼎，致祭陶山書院.【祭文見〈附錄〉.】

○九年乙巳¹⁴⁸⁾

二月初八日，遣禮曹正郎李載徽，致祭家廟.【祭文見〈附錄〉.】

○十六年壬子¹⁴⁹⁾

145) 1733년(英祖 9)
146) 1756년(英祖 32)
147) 1781년(正祖 5)
148) 1785년(正祖 9)
149) 1792년(正祖 16)

三月二十四日¹⁵⁰⁾，遣檢校直閣李晚秀，致祭陶山書院，因命揭御題，令諸生應製。¹⁵¹⁾

時邪學漸染於國內，而獨嶺南一不迷惑，上以爲此先正遺烈，特有是命。【御製祭文及初三日傳教，見〈附錄〉。】

四月初五日，上命本道，錄致祭·試士事，作爲冊子，刊印進布，藏板于陶山。【冊名《嶠南賓興錄》】

傳曰：“鄒·魯之鄉，能守吾道，曠感於先正，視嘉於多士，特設試取於陶山致祭之日者，意豈泛然？且聞閣臣之還朝奏對，諸生近尤惕厲¹⁵²⁾告戒，開場入門爲萬數，而徐趨讓先，莫敢有喧譁者，重爲諸生喜之。及見所捧試券，近半萬張，多有合作。西北猶有遣官設科之例，況今閣臣啣命，體貌尤有重於試官，則入

150) 三月二十四日：白洲本에는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正宗十六年三月初三日，傳曰，欲尊聖學，宜尊先賢，向來邪學之漸染也，惟嶠南人士，謹守正學，不撓不奪，不涅不污，自是以往，增我曠慕。遣閣臣李晚秀，馳至禮安縣先正文純公李滉書院致祭，祭文製下，先令內閣，知委道臣處，爲先正子孫者隣邑人士之來參致祭者，預須會待。祭之日，閣臣坐典教堂，招致諸生于進道門內庭，以賁去書題揭示，各令應製，收捧試券，還朝日以啓。’

151) 遣檢校……諸生應製：白洲本 ‘閣臣李晚秀承命賁奉御製祭文致祭。其文曰，大東元氣，養得眞儒。天人性命，孔孟程朱。執厥繩尺，正我步趨。渾渾委性，進進工夫。道不墜地，實在先生。穆陵側席，洞開邇英。丘園帛賁，夏鼐經橫。角巾南歸，介石之貞。維陶有山，永矢衡泌。口餐杞菊，手披籀帙。味哉深造，毫縷四七。萬人山仰，一方泉達。青衿蹈矩，紅女知讓。仁人利博，太和胥蟻。縱有異端，載胥以誣。環嶠七十，一不迷向。是謂鄒魯，繫誰之功。觸類伸長，如挹高風。几杖林壑，繪素之中。〈六條〉·《十圖》，請師我公。與配食故參判趙穆共饗之。’

152) 厲：白洲本 ‘慮’

格優等者，宜有拔例論賞。賦三上幼學姜世白·生員金熙洛，並直赴殿試，金象九·曹深·趙居信·郭璿·權馨復·權思浩·李泰淳·金馨進·南漢朝，各給一分，李鼎儼·趙沐洙等十九人，各紙五卷·筆五枝·墨三笏，入格諸人，招致本道監營，設樂厚饋之，試券一一分給。今番致祭·試士之舉，合有成書，傳示來許。傳教·致祭文及閣臣差備官座目·入格榜目·入門收券數爻·入格試券中優等四張，依《瓊林聞喜錄》凡例，作為冊子，自本道刊印以進，入格儒生·陶山書院·道內列邑，各給一件，板本藏于陶山書院後，形止狀聞。”【李晚秀狀啓，“臣伏奉先正文純公 李某書院致祭，祭畢後，儒生試取之命，費奉御製祭文及香封下御題，馳詣陶山書院。三月二十四日，與典祀官奉化縣監李尚榮·大祝英陽縣監李龜雲·祝史兼齋郎順興府使許暎·贊者幽谷察訪趙錫晦·謁者安奇察訪沈選之致祭，祭畢。翌日二十五日，設場，而差備官，以致祭執事中差定，聚集左右道參班儒生，以賣來御題揭示，使之應製，入門七千二百二十八人，收券三千六百三十二張。今番儒生應製，係是無前之曠恩盛舉，嶠南人民¹⁵³⁾，莫不感激欣聳，奔走來赴，通一道觀光諸儒，有倍於式年監圍之數，而進道門內庭，不過七八間，以此設場，初非可論。院門外，則兩山合杳，石逕欹側，洞前數武，溪水環之，左右審度，非但無許多人容接之望，實有入門¹⁵⁴⁾時蹂躪之慮，不得已就溪南岸上院宇相望地勢稍曠處設場。事涉

153) 民：白洲本‘士’

154) 門：白洲本‘場’

擅便，不勝惶悚云云。”◎又於四月初四日書啓，“儒生應製事，當致祭日設行，而因下道諸儒之未及齊到，退行於翌日。差備官，以順興府使許映爲收券官，禮安縣監尹瑩爲禁亂官，奉化縣監李尙榮爲入門官。儒生入門七千二百二十八人，收券三千六百三十二張內，賦二千九百十六張，義七百十六張，賦·義區別，作軸堅封以來，呈于內閣，以爲入啓之地。今番致祭，旣出曠絕¹⁵⁵⁾之典，而特下御題，試多士于先正俎豆之所，尤係前所未有之異恩盛舉，瞻聆所及，一路風動，勿論左右道，遐鄉僻邑之人，生進幼學之年老廢學者，舉皆奔走來赴，填咽陶山。初則所見，殆過萬數，夷考其實，則太半是觀光之流，故入門不過七千，收券未滿四千。儒生旣甚夥多，地勢又頗狹窄，故或慮有紛沓雜亂之弊，臣以御題事體莫重，切勿爭先攔¹⁵⁶⁾入之意，曉諭諸生於開場之前矣。及其入門之際，徐趨而進，極其齊整。追聞儒生輩，伏見向日傳教，莫不感激惕厲¹⁵⁷⁾，以勿循場屋舊習事，發通相戒云。非¹⁵⁸⁾嶠南士習之尙有近古，實出於聖化攸暨，捷於影響，有以致興起變化之美。】

○十八年甲寅¹⁵⁹⁾

春，上親題《手簡¹⁶⁰⁾》跋。【跋文見〈附錄〉。】¹⁶¹⁾

155) 絕：白洲本‘異’

156) 攔：白洲本‘欄’

157) 厲：白洲本‘慮’

158) 非：[부전지 ‘非’下，恐或脫‘惟’字，當更考.]가 있다；《嶠南賓興錄》‘非但’；白洲本‘非但’

159) 1794년(正祖 18, 逝去 224年後)

160) 簡：白洲本에는 뒤에 ‘帖’이 있다.

161) 跋文見附錄：白洲本에는 이 小註가 ‘先是，書院舊藏《師門手簡》，李晚秀資去奉入。至是，上以御製御筆題跋，還下于本院。跋文曰’이라 되어 있고, 이어서 大註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朱子見蔡君謨一帖，亟稱其字字有法度，如對正人端士，予於是帖亦云。雖然，帖凡八卷，而先正操存之密，講學之切與夫處己接物之方，辭受取予之節，大略具於尋常尺牘之間，其平日之所養，未始須臾離於敬義誠明之域，卽

○二十年丙辰¹⁶²⁾

九月十三日，遣右承旨金翰東，致祭家廟。

時祀孫志淳，以永柔縣令赴任，奉祠版過都¹⁶³⁾，左承旨李益運啓曰：“先正文純公 李滉祠版，將過城闔事，甚稀貴，故敢此仰達。”上曰：“先正祠版，何以入城？”對曰：“永柔縣令 李志淳，即先正祀孫，故祠版將隨征矣。”上曰：“然則當致祭，且館學生當有迎拜之節，前例問于太學而入稟也。”對曰：“聞先正卒逝之後，祠版初入都下云，似宜無前例之可考矣。”上曰：“然乎？誠貴矣，誠貴矣。”◎初六日，傳曰：“先正祠版渡江，館學生例具巾服，東西成班而祇迎。此意使館學知之可也。”◎初八日，傳曰：“先正文純公祠版，將向親孫永柔官治，聞於不多日內入京，而此

可知已。宜其茵藹緹油，作程退世，嚴如鄉黨之畫，寶若齋箴之畫，此則又豈君謨之帖所能幾及哉。抑予之厚幸於斯文者，則有之先正遠矣。近年以來，異端曲學，雜然競起，視名教無異芭籬，視綱維甚於贅疣，以放誕詭怪爲神奇，甚至所謂西洋之說，而其誣斯民惑斯世也滋多。特嶠南一隅，沐儒先之化，存鄒魯之風，相與危坐而稱之，正領而誦之者，無不經之篇，非聖之訓。予爲是興感，俾官侑爵於俎豆之所，而是帖出，或者天意以是帖，當一治之運，而先正之精神咳唾，猶可以衛道息邪於百餘年之久歟。仁人之利，亦云博哉。予安得不表章是帖，嘉與吾黨之士共守之也。遂書歸其後，併頒新印三經四子書，俾多士知所尊閣而楷範焉，不曰聖人爲天口，賢人爲聖譯乎。出於此，則非吾所謂道也。時予御極之十有八年春，書。

162) 1796년(正祖 20)

163) 時祀孫……過都：[부전지 ‘過都’以上刪. 考日填之, 恐好.]가 있다.

先正祠版之入京，先正身後數百年初有之事云。若覲伊人，勞我曠感，豈可只令諸生迎于江郊備例而已乎？特遣禮官，押于青衿之班，以侈其行，以聳觀瞻，兼寓示意之意。抵京日，遣承旨致祭事，分付禮曹。”◎十三日，傳曰：“文純公祠版，今當入城，時原任閣臣·抄啓文臣，并爲進參。二提學若出迎于門外，則恐有不及之慮，直向成均館事知委。”【祭文見〈附錄〉。◎行祀時，上御月觀門有祇迎，陪祭參班舉案捧入之教，舉案合千餘人。◎左議政蔡濟恭·右議政尹蕃東，率百官及儒生，具巾服序立行祀。承旨李益運·蔡弘遠，申退前出來，至於注書柳遠明，亦自堂后出，皆奉教參祭故也。時上命百官咸¹⁶⁴⁾出。◎朝紳儒冠勿論，下而至於婦僮童孺皆曰：“吾先生過此”，爭相俯伏路左，迎送有儀。¹⁶⁵⁾ 泮村有酒狂數人，相戒曰：“吾先生祠宇臨泮，吾輩慎勿飲酒。”當日街路，無醉酺爭鬭聲，亦可見過化之妙也。¹⁶⁶⁾】◎翌年七月，祠版還家時，傳曰：“聞先正文純公祠版，還過西垆。其來既有恩典，其歸豈可若不聞知乎？”命百官迎送如初禮。¹⁶⁷⁾

164) 咸：白洲本‘盛’

165) 朝紳儒冠……迎送有儀：白洲本‘祠版出城時，城內外市井男女，無不俯伏起敬，童子之參班於祇送者，亦多。’

166) 泮村有……之妙也：白洲本‘泮人素多酺飲，尋常狂叫之聲，無日無之，是日，泮人自相告誡曰：“先正祠版，今住泮中，不可作如前醉妄。”乃終夜無一人近酒者。有一相聞而歎異曰：“先生過化存神之妙，亦於此暗推之。”云。’

167) 禮：白洲本에는 뒤에 ‘華城聖廟告由文曰：“選百朱書節要是準，準我大儒，以詔後進，曾篤程和孟廓朱涵，況接羽儀丹籤在函。”’이 있다.

書先祖退溪先生年譜補遺後¹⁾

先祖年譜成於西厓 柳文忠公之所次輯，而凡係先生肇卒之蹟者，大略俱載，俾來世得有考焉。其功盛矣，可謂無復復²⁾憾。宗君志淳嘗來訪吾霞曰：“先祖出處去³⁾就，與夫立朝言論，以至於隨物酬應隨處事爲，毋論其精粗繁閒，莫非爲訓後世者，而年譜所載，間多闕漏，有能博考詳摭，追備參訂，如古人補遺之爲，則在原本，雖末⁴⁾敢必信其爲羽翼，而於先蹟也，庶幾渾圓矣。吾兄其⁵⁾無意乎？”野淳曰：“不佞亦曾如此看，抑又思之，此非疏脫，特文忠之務從簡當而不欲煩剩者也。”志淳曰：“誠如是說。然文忠跋文，亦嘗以觀者之補其疏舛爲望云爾，則先輩⁶⁾公心大肚，正在此處，到今追補其闕，何不可之有？”野淳曰：“是則出於自謙之辭爾。後之人必欲藉此而妄加下手，無亦近於癡歟。”志淳曰：“不然。後人只委諸自謙之辭而硬守一邊，使先蹟之莫非爲

1) 書先祖退溪先生年譜補遺後：원래 기준본에는 제목이 없으나, 白洲本에 의거해 제목을 붙였다.

2) 復：白洲本 ‘餘’

3) 去：白洲本 ‘居’

4) 末：白洲本 ‘未’

5) 其：白洲本 ‘豈’

6) 輩：白洲本에는 뒤에 ‘之’ 있다.

訓後世者，或散墜而不能作統會看，則是豈文忠之志？”
野淳曰：“吾輩所以勉守，只合依其已成底而尊閣之而已。如或攙以己意，母或有礙於謹畏之道歟。”志淳曰：“此只是別成一件纂次，而不敢攙亂聯附於譜中者，則是何傷於尊閣已成底之道乎？且況竊取其意以補其遺，而凡謹畏之義，實未嘗不在其中者乎！”野淳曰：“文忠之言又曰：‘傳聞之與親見，其詳略又相懸。’假令吾輩得爲而爲之，遠矣是數百載之傳聞，又安能庶幾於其萬一乎？”志淳曰：“是則有文集逸集，又若干手錄及門人追記等書，無間於親見之詳。”野淳曰：“雖則然矣，文忠之所已先而敢續其後，終如僭妄何？”志淳曰：“昔朱子年譜未知其當初出於誰，而要不外於其門下鴻碩之所編也。其後有朱子後孫名玉者更成別輯，當時未聞有以玉爲僭妄者，吾兄其⁷⁾不知乎？”野淳更無以爲辭，乃敢廣搜逸籍，參以諸書，積歲月之功而僅具首尾，殆竭其所可及，而亦未知其能無疏謬否也。於乎！向也倡余以此事者，實志淳也。編始將成，欲示志淳，以之商訂去取，則志淳已不在矣，其明銳之見，非愚所及。就此修整，想應多助，而撫卷興懷，只令人欲涕也已。爲叙

7) 其：白洲本‘豈’

當日酬酢之語，並識其所感於心者如此，爲吾兩人子孫輩私相⁸⁾傳看之物，而因使知是書見成之由，初非出於求多之意云爾。丁卯四月望，九代孫野淳謹書。

8) 私相：白洲本에는 없다.

